주요 언론보도

〔2016. 4. 18(월) 보도기획담당관〕

□ TV 방송

○ K B S

- 세월호 참사 2주기 맞아 곳곳 추모 행사(뉴스광장,930뉴스,뉴스12,뉴스5,뉴스7,뉴스9)
- 드론의 끝없는 변신…과수원 방제도 '척척'(뉴스광장)
- 대도시 지진 취약(뉴스9)

○ M B C

- '세월호' 2주기, 전국 곳곳 추모·안전 행사(뉴스데스크)

○ S B S

- 오늘 세월호 참사 2주기…곳곳 추모 물결(모닝와이드,8시뉴스)

○ O B S

- 세월호 2주기 기억식…"잊지 않을게"(경인투데이,뉴스M)

○ 채널A

- "잊지 않을게요"…세월호 2주기 전국 추모 물결(뉴스스테이션,종합뉴스)

○ M B N

- "기억하겠습니다"…세월호 참사 2주기(뉴스8)

○ TV조선

- 세월호 2주기…전국 추모 행사(뉴스 토요특급,뉴스쇼판)
- 세월호 4·16연대 "대정부 집중 투쟁" 예고(뉴스 일요특급)

○ J T B C

-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2주기…곳곳서 추모 물결(뉴스현장,뉴스룸)

○ Y T N

-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도식

○ 연합뉴스TV

- 세월호 참사 2주기…곳곳 추모·안전다짐 행사(뉴스10,뉴스11,뉴스15,뉴스21)

□ 라디오 방송

○ 불교방송

- 오늘 세월호 2주기... 전국 추모 물결

○ 경기방송

- 시도의원 '연봉' 평균 5천672만원…경기 6천321만원 최고
- 경기도청 민원센터, 내달부터 '민생지킴 서비스'
- '착한교복' 순회 전시회

○ 경인방송

- 남경필.이재정 "세월호 진상 규명에 최선 다하겠다"
- 리포트/"잊지 않을께요"…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
- 경기도,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84종 690대 지원
-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 서민민생 지킴 서비스 제공
- 경기도, 착한교복 순회전시…4월18~5월31일 12개 시.군
- 경기도 대표 맛집 20곳 추가 지정…신청 접수
- 남경필 지사, 규제현장 방문…21일 이천 샘표식품
- 수원.의정부에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2곳 운영
- 경기도 산하기관 통폐합 '진통' 거듭…반발 확산

□ 중 앙 지

○ 조선일보

- "임시국회 열 어 세월호 특검 추진"
- 與 대선주자 타격에 남경필·원희룡 조기등판론 솔솔
- 경기도의원 연봉 6321만원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아
- 동두천·고양시에 어린이 박물관

- 중앙일보

- '불의 고리' 에콰도르도 강진 ... 230명 이상 사망
- 부산서 재기 성공한 더민주 김영춘 "상대 죽이는 소선거구제 개혁할 것"
- 비·강풍 속 세월호 2주기 추모 … 광화문 분향소 1만여 명 발길

○ 동아일보

- 日-에콰도르 연쇄 강진... '불의 고리' 풀렸나
- 강원교육청 지방교육채 5300억 넘어

○ **국민일보**
- ‘지진 공포’
- ‘1인 리더십’ 끝… 손잡아야 산다
- 교과서·테러법·세월호 ‘동상’… 야권연대·결선투표 ‘이몽’
- “이런 질좋은 교복이 반값, 정말이야 ”

○ **한겨레신문**
- 강진 두차례, 여진 470차례 기상청도 "또 어디서 터질지…"
- 여소야대 이후 첫 회동…세월호법·노동법 해법 찾을까
- 세월호 희생학생 또래들 “우린 4·16학번”

- **경향신문**
- "모든 게 무너졌다… 여기가 지옥"
- 여소야대 국회, 야 3당 ’첫 합작품‘은 세월호특별법 개정·국정교과서 폐기
- 사흘새 500여차례 여진… "강진 또 온다" 주민들 ’공포‘
-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과 독립성 보장 논의 ’부활‘
- [기자메모] "아들아, 사람들이 왜 여기 나왔는지 꼭 기억해야 해"
- 8개 시·도의회 의정비 인상… 평균 5672만원
- 국공립 수준의 서비스 제공 경기 ’공보육 어린이집‘ 추진

○ **한국일보**
- 비박계 소장파 ‘원유철 비대위’에 정면 반기
- 광역버스도 기차처럼 좌석 예약한다

○ **세계일보**
- "이대로 가면 대선도 희망 없어... 새 인물로 새 판 짜자"
- 외국인 단체 관광객 ’갑질‘에 지자체 골머리

- **서울신문**
- 2년 계속된 기도… “시신이라도” “온전히 선체 인양을”

□ 경 제 지

○ **매일경제**
- 지자체 출자기관 227개서 618개로

○ **한국경제**
- 지자체 출연기관 설립 까다로워진다

- “보고 자료 챙기느라 구조 골든타임 놓쳐”

○ **머니투데이**

- 오늘도 경유버스 1.8만대 미세먼지 내뿜는다

○ **서울경제**

- "취득세 중과세 형평성에 어긋나" 아파텔 분양자 집단소송 나선다
- 남경필 지사 '경기동부 발전 방안' 모색 현장 간담
- 주말 전국서 세월호 추모열기
- 경기도 29일까지 으뜸맛집 대상업소 모집
- 경기도 내달 말까지 '착한교복' 40벌 순회 전시
- 경기농기원 2018년까지 자동비행 방제 프로그램 개발

○ **파이낸셜뉴스**

- 국공립 수준 보육서비스... '경기도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 **아주경제**

-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선뵌다
- 경기도 '착한 교복'40벌 순회 전시
- “미안해 … 기억할게… '침몰된 진실'꼭 밝힐게요”

□ 지 방 지

○ **경인일보**

- 64.6% "정부, 개성공단 중단 잘못"
- 따복기숙사 논란 법정분쟁 비화
- 고속화도로 빈 땅에 '태양광 발전시설'
- 교통·상권 구석구석 '돋보기'
- 해외진출 '청년 도전' 경기도가 돕는다
- 경기중기센터, 싱가포르 엑스포서 성과
- 경기 으뜸맛집' 선정
- 경기도의원 6321만원 '연봉 톱'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설립땐 기획단계부터 정부협의거쳐야
- 도지사-총선당선자 25일 상견례
- 道, 장애인 인터넷 정보통신보조기기 690대 지원
- 오늘 3당 원내대표 첫 만남 '20대국회 전초전'

- 수원시, 도지사기 생활족구 7연패
- 스포츠 복지’ 대학봉사단 발대
- 서현고 안덕진 레슬링 2관왕
- 김광위·박성준 개인·단체전 석권
- 창곡중·매원중 하키 도대표 선발
- 행복한 경기옛길’ 제안공모
- 이솝우화·고전소설의 만남 뛰는 토끼위에 나는 거북이
- 경기도의 매력, 빛고을에 통했다
- 북부 경기 문화창조허브 디자인·제조업융합 공모
- 416교육원 미뤄진 약속... 갈곳잃은 기억교실
- 동물 ’뒷전’ 규모 ’멋대로’ 제기능 잃은 ’기형적 통로’
- 발 묶이고 날아가고… 전국 휩쓴 강풍
- 장애인 일터 ’자립 롤모델’ 만든다

○ **경기일보**

- 남경필 지사 도내 당선인 25일 상견례
- 비바람 뚫은 열정… 1만여 마라토너 봄을 달리다
- ‘행복레이스’ 맘껏 달렸다
- 교육연정 1호 ‘착한 교복’ 첫선
- 체험단 80% ‘만족’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산넘어 산’
- ‘감염병 컨트롤타워’로 막는다
- 주가 오르는 도내 중진들… 국회의장.당 지도부 집중 거론
- 정당 다른 국회의원.지자체장 ‘묘한 긴장감’
- 공원 봄나들이 위협하는 ‘자전거 폭주족’
- 또 미뤄진… 단원고 기억교실
- 세월호 참사 2주기…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개관
- 도농기원, 과수 병해충 잡는 ‘드론’ 띄운다
- 세월호 참사 2주기 기억식
- 스트레스 싹~ 道자원봉사센터 부스 인기
- 경기신보 동호회 “경기마라톤 깊은 인연”
- 창곡중, 하키 남중부 2년만에 정상
- 수성중, 레슬링 중등부 4체급 석권

- ‘모래판 소년’ 임수주, 씨름 중등부 1위
- 체육 사관생 대축제… 오늘 경기도서 팡파르
- [기고] 한국형 알파고? 창의력 갖춘 인재양성이 선행돼야
- [사설] 道교육청 광교 이전은 선거용이었나

○ **중부일보**

- 경기도 재정파탄 ’뇌관’ ’좀비기관’ 통폐합 급하다
- 경기신보 광명지점 위치찾다 날샌다
- MDC 공동창작 프로젝트 사업 2개 스타트
- 본보 ’道산하기관 구조조정’ 제안... 2년만에 시험대
- "용역결과 인정못해"...공공기관 집단반발
- "혼자서는 국정.정당 운영 못한다는 것 보여준 총선"
- 의정부역 도청민원센터, 서민민생 지킴이 서비스
- 누적적자 561억’ 수원월드컵재단 폐지...문화의전당 수원시에 매각
- 문화재단.한국도자재단 통폐합...도립예술단 별도 법인화 잔류
- 복지재단, 경기연구원으로 흡수...도시공사.평택항만공사 통폐합
- 대학생들 농업 신기술 매력에 풍덩
- "IMF 때보다 힘든 인쇄업계...도청 자체발간실 축소.폐지해야"
- 도체육회, 대학자원봉사단 ’스포라이트’ 발대식
- 체육고 꿈나무들 道에 모여 진검승부
- 장년부의 힘...수원시, 1부서 7연패
- 동성중, 모래 위 최강 3인방
- 반월중, 매트 위 최강 5인방
- 경기문화재단 ’경기옛길 만들기’ 공모 내달 26일까지
- [데스크칼럼]체육단체 통합, 욕심을 버려라
- [기자메모]드론 활성화 위한 기반마련 나서야
- 2층광역버스, 출근시간대 입석률 줄였다
-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민간 모집
- 오늘부터 ’착한 교복’ 12개 시군 순회전시
- "용인시, 공유재산 정보 공개하라" 결정
- 道 무기계약직 임금 ’부익부빈익빈’ 심화
- 아들아...’ ’친구야...’ 이제 편히 쉬렴
- DMZ 자전거투어… 몸만 와서 즐기세요

○ 경기신문

- 도교육청 “청사, 광교신도시 못간다”
- 道 산하기관 통폐합·누리예산 집행부-도의회, 줄다리기 예고
- 양복완 행정2부지사, 다산신도시 현장 점검
- 道, 민생피해 도민 찾아가 따스한 손길 내민다
- 도교육청 “청사, 광교신도시 못간다”
- 대학생들, 도시원예 시설 설명에 귀 쫑긋
- 농식품 미래기획단 초청 도농기원 ‘신기술’ 홍보
- 남양주시, 하천부지 사유지화 관리 허점
- 광명동굴에 둥지 튼 ‘프랑스 라스코동굴벽화’ 아시아 최초
- 이천병원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화’ 속도… 추진단 “9월 착공”
-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2주기 추모... “다신 안타까운 희생 없어야”
- “등·하굣길 교통안전 저희가 책임집니다”
- "경기옛길 참신한 아이디어 보내주세요"
- 박성준, 파워 넘치는 들배지기 도학생체전 중등 70㎏급 정상
- 김도훈, 전국소년체전 레슬링 ‘道 대표’
- 대학자원봉사단 발대식 도체육회, 80여명 구성
- “2년전 봄, 기억할게”... 경기도민들 ‘울컥’
- ‘세월호 교재 수업’ 시각차... 교육부 “부적합” 도교육청 “징계할 일 아냐”

○ 기호일보

- 세월 가도 잊을 수 없기에… 세월호 희생자 추모 행렬
- 與<野 정국에 누리예산 논란 재점화되나
- 남은 임기 두 달… 도 사회통합부지사 연임할까
- 2년 전 멈춰버린 시간… 잊지 않을게
- 재원마련 어렵고 현 청사로도 충분 도교육청, 광교 융합타운 입주 포기
- 버스예약제 도민 "대만족"
- 기억교실’ 이전… 최종합의는 불발
- 인천시 세월호 사고 2주기 희생자 추모식·추모관 개관
- 태후’ 열풍~맛집·볼거리 경기도 매력에 빠졌다
- 도, 2층 광역버스 운행 5개월 입석률 줄고 운송비는 덜 들고
- 이제 연천서도 DMZ 자전거 투어
- 공공기관·중기 사회적책임 강화

- 양복완 도 행정2부지사, 다산신도시 공동주택사업 현황 점검
- 도내 청년실업률 11.1% … 5분기 만에 최고치
- "도자재단 폐지, 전통 도자문화 맥 끊는 일"
-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또 위기
- 아시아 음악과 역사의 '합작'
-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김도훈 등 道학생체육대회 겸 선발전 통과
- 박성준, 씨름 경장급 들배지기로 연속 두 판 따내며정상 올라 선발
- 경기 스포츠복지 대학봉사단 발대
- 빗속에도 뜨거웠던 노란 물결

○ **인천일보**

- 그날의 아픔… "잊지 않았습니다"
- 道 산하기관 구조조정 가시화
- 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 강화
- 광역버스 좌석 운영 '비행기' 처럼
- 전남서 연 경기관광박람회 3만여명 '광주시민' 즐겼다
- 道중기센터 박람회 싱가포르서 '737만6000달러' 수출상담 성과
- 착한교복, 디자인·가격·원단 다 갖췄네
- 도농기원, 병충해 방제 등 농업에 '드론' 활용 연구
- 2층버스 달려보니… "입석률 감소·운송비 절감 효과"
-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식
- 공보육 시범사업 참가 어린이집 모집
- "도민 위한 입법·예산분석 기능 강화"
- 올 광역자치단체 의원 연봉 57만원 올라
- 이주민 인권상담 서포터즈 위촉
- 장단 맞춰 '얼쑤'…즐기며 교훈까지
- 노란우비 물결… 시민 6000여명 '진실 향한 걸음'
- 416 교과서' 사용 교사 징계여부 온도차
- 그날의 슬픔 아는지 하늘도 함께 울었다

□ 통 신 사

○ **연합뉴스**

- 경기도, '착한 교복' 12개 시·군 순회 전시회

- 경기도청 민원센터, 내달부터 '민생지킴 서비스'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619개...자본잠식 많아 지방재정 부실
- "그 날이 다신 반복되지 않길" 전국서 세월호 참사 추모(종합)
- 세월호 2주기 '기억·약속·행동' 추모 문화제 광화문서 열려(종합)
- 경기도형 공보육 시범사업 참가할 민간어린이집 모집
- 시도의원 '연봉' 평균 5천672만원...경기 6천321만원 최고
- 경기도 산하기관 통폐합 '산넘어 산'...연정합의 무색
- 발언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 세월호 교재 수업 징계...교육부·경기교육청 '시각차'
- 경기도,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시행 '파란불'
- 존치교실 합의 담은 '416교육사업 협약식' 잠정 연기
- <게시판> 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 상담 서포터스 위촉
- <연합시론> 세월호 참사 2년, 아직 풀어야 할 일이 많다
- 경기연구원 "2층 버스, 입석률·운송비 낮춘다"

○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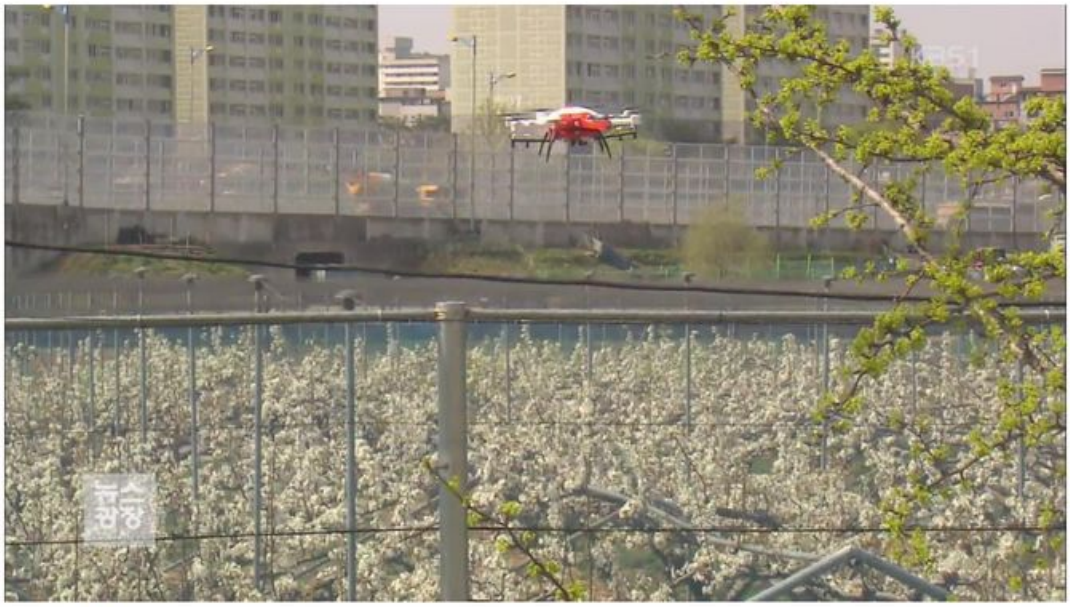
- 경기도, 올해 '으뜸 맛집' 20곳 모집
-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29일까지 모집
-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MDC 공동창작 지원사업' 시작
- 의정부역 경기도 민원센터, 밀착형 민생 서비스 제공
- 경기도 ·교육청 '연정1호' 착한교복 순회전시회
- 20일부터 장애인 주간...경기지역 장애인 행사 잇따라
- 경기도,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690대 지원
- 수원시, 경기수원항공과학전 사업비 '거짓 보고' 논란
- 경기도,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대상 모집
- 평택항만공사, 28일까지 창업지원센터 참가자 모집
- 경기 보육대란' 20대 총선 결과 영향받나
- 경기 안산시 세월호 참사 이후 사건·사고↑
- "잊지 않겠다. 함께하겠다" 세월호 2주기 '기억식'서 다짐
- 경기도, 고속도로 유휴지 이용해 전력 생산
- "재정 어렵다" 경기교육청, 광교신도시 청사 이전 '불가'
- 경기교육청 "새로운 교육 만들겠다"...세월호 2주기 추모

○ **뉴스1**

- 평택항만공사, 28일까지 ‘창업지원센터’ 참여자 모집
- 道, 경기북부 제조업+디자인 공동창작 지원
-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 ’서민민생 지킴 서비스‘
-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계획단계부터 정부개입
- 경기도, ‘으뜸맛집’ 20개소 모집
- 킨텍스, 9월 태국에서 뷰티산업 박람회 개최
- 윤화섭 경기도의장 “누리과정 예산안 상정 안할 수도”
- 경기도, 민자도로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 여소야대 "法으로 안되면..." 무상복지 지자체 예산 불이익
- AI청정국 지위 잃었어도 2년만에 홍콩으로 계란수출 재개
- 남경필 지사, 21일 이천 방문...‘동부지역 발전방안’ 모색
- 경기도, 18일부터 ‘독서프로그램’ 작은도서관 35개소 모집
- 경기도, 장애인 주간 맞아 다채로운 행사
- 경기도, 장애인에 ‘정보통신보조기기 690대 지원’
- 추모사 전하는 남경필 지사
- 경기도, ’청년 해외취업지원사업’ 확대 추진
- 남경필, “도의회 동의시 ‘민주시민교육원’ 건립예산 지원”

KBS
2016년 04월 16일 (토)
사회

드론의 끝없는 변신...과수원 방제도 '척척'



<앵커 멘트>

무인비행체, 드론의 활용 분야가 무궁 무진한데요.

이제는 벼농사뿐만 아니라, 과수원 방제에도 활용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정밀 방제는 물론, 질병과 생육 예측까지 가능한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될 예정인데, 우리 영농의 풍경을 한층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얀 배꽃이 흐드러지게 핀 배밭 위로 드론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쉴새없이 병충해 방제 농약을 뿌려댑니다.

노동력 부담은 절반 이상 줄였고, 안전성과 방제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박상민(드론 조종사) : "수도작인 경우는 저희 나라 면적의 5% 정도를 (드론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드론은 하늘 위에서만 방제가 가능하고 프로펠러의 바람이 나무와 과일을 상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 경사가 가파르거나 가지와 뿌리에는 방제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드론은 그동안 벼농사 방제에만 활용됐지만,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이런 단점을 보완해 과수 병해충 방제에 적합한 드론을 오는 2018년까지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비에는 장애물회피 기술과 GPS 자동비행 프로그램은 물론, 생육과 질병예측까지 가능한 영상 이미지 분석기능까지 장착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이해길(경기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 : "영상기술을 통한 이미지 분석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해서 생육 모니터링과 병해충 예찰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드론의 끝없는 변신이 농업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

14.4 X 25.3 cm

KBS

2016년 04월 16일 (토)
사회

경기 이천 아파트 2층에서 불...1명 부상

오늘 오전 8시 50분쯤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34살 권 모 씨가 다쳤고 냉장고 등 가재도구 일부가 타 소방서 추산 8백여만 원의 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주인이 작은 방에 향초를 피웠다는 진술을 토대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14.4 X 4.8 cm

MBC
2016년 04월 16일 (토)
종합

'세월호' 2주기, 전국 곳곳 추모·안전 행사

[뉴스데스크]◀ 앵커 ▶

세월호 참사가 있은지 꼭 2년이 됐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먼저 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세월호가 침몰했던 진도 팽목항 앞바다에서 열린 2주기 추모식.

궂은 날씨 속에서도 가족들과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금희/미수습자 가족 대표]

"엄마로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겪기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304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마음이 담긴 노란 풍선 수천 개가 팽목항 하늘에 날아올랐습니다.

동거차도에는 희생자 가족들이 여전히 인양작업을 지켜보고 있고, 팽목항 임시숙소에도 미수습자 가족들이 기다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오복/미수습자 가족]

"내 동생을 찾아야 하고, 몇 번이나 짐 싸서 올라가려 했다가 그냥 머물러 있던 거예요."

인명피해가 컸던 경기도 안산, 정부 합동분향소에서는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기억식 후에는 단원고까지 천5백여 명이 희생자와 미수습자를 추모하는 걷기행사를 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황교안/국무총리]

"그동안 마련한 (안전) 대책들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곳곳에서 열린 추모 문화 행사에서는 시민들이 그날을 되새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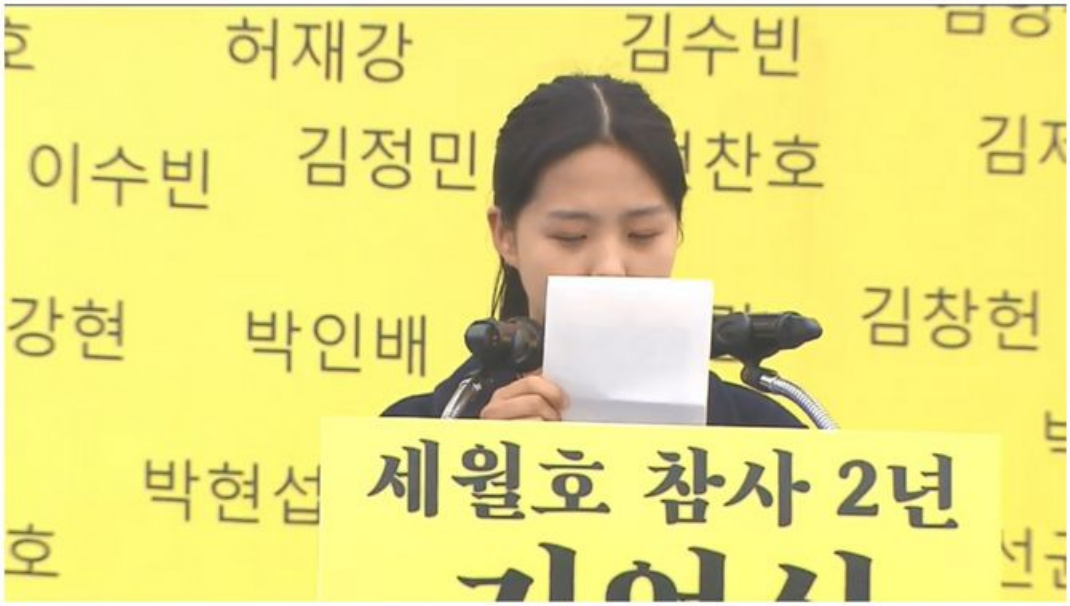
MBC뉴스 정동훈입니다.(정동훈)

14.4 X 18.9 cm

SBS

2016년 04월 17일 (일)
사회

'세월호 참사 2주기'...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어제(16일) 오전 경기도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와 미수습자를 추모하는 '기억식'을 시작으로, 안산 단원고와 진도 팽목항에서는 희생자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도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그날을 잊지 말 것을 약속하는 문화제가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

14.4 X 13.9 cm

OBSNEWS
2016년 04월 16일 (토)
종합

세월호 2주기 기억식..."잊지 않을게"

【 앵커멘트 】
경기도 안산 정부 합동분향소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찾아왔습니다.
기억식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진 추모식장, 박성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비가 한 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한 경기도 안산의 추모식장.

아이들을 떠나보낸 부모들이 꾹꾹 참으며 끝까지 노래를 불러냅니다.

추모식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이 모습을 담담하게 지켜보는 일은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몇소절 함께 따라불렀는데도, 이내 눈물이 흐릅니다.

【 인터뷰 】 문수경/경기도 고양시
"깔깔거리는 아이들을 봤을 때도 그걸 함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각나는 이 시기에는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추모식은 금세 끝났지만, 할머니는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전광판을 가리키며 '우리 예은이 나왔다'를 반복합니다.

【 인터뷰 】 이세자/故 유예은 학생 할머니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와서 할머니한테 볼을 비비고 그런 생각이…. 지금도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은이, 예은아 잘 있지? 천국에서 잘 있지? 할머니 조금 있으면 갈게…."

딸 도언양의 학생증을 목에 건 어머니는 오늘 몇 번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잊을 때도 되지 않았느냐, 그만하라는 말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 인터뷰 】 이지성/故 김도언 학생 어머니
"우리 엄마 귀한 딸 도언아, 엄마가 끝까지 도언이가 왜 희생이 돼야 하는지 이유을 밝혀줄게…. 엄마니까…."

그래도 여전히 잊지 않은 수많은 어른과 아이들이 꽃을 들고 합동분향소에 길게 늘어섰습니다.

예를 갖춰 헌화를 하고 나오는 길.

분향소 한 켠에 마련된 아이들의 생전 사진은 다시한 번 가슴 깊은 곳에 가 닿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는 천여 명이 행진을 이어갑니다.

이들이 들고 걷는 문구는 이제 너무도 익숙한 요구이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참사 후 730일. 시민들이 빠져나간 뒤에도 분향소 앞에서는 '잊지 않을게'라는 노래가 한동안 흘러나왔습니다.

OBS뉴스 박성완 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영상편집: 이원기>

박성완 bowings@obs.co.kr

2016년 04월 16일 (토)
사회

“잊지 않을게요”...빗속 세월호 2주기 추모제

세월호 참사가 오늘로 2주기를 맞았습니다.

하늘도 아픔을 함께 하는 듯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열렸습니다.

광화문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고정현 기자, 아직도 추모제가 진행 중인가요?

[리포트]

네, 오늘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오후부터 시 낭송과 다큐멘터리 상영 등 세월호 2주기를 추모하는 각종 추모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재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국민 추모제가 진행 중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인데도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오늘 하루만 시민 1만여 명이 찾아와 희생자 304명의 넋을 기렸습니다.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도 옷깃에 노란 리본을 단 채 분향소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단원고 학생 250명이 한꺼번에 희생된 안산에서도 오전부터 추모행사가 이어졌습니다.

2년 전 아픔을 기억하고 남은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자는 의미로 '추모제'가 아닌 '기억식'이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진행됐습니다.

25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아이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밝혀내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원고 재학생들은 추모제를 비공개로 열고, 분향소를 찾아 먼저 떠난 선배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여전히 이곳 광화문광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잠시 발길을 멈추고 2년 전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

14.4 X 14.7 cm

MBN
2016년 04월 16일 (토)
종합

"기억하겠습니다"...세월호 참사 2주기

【 앵커멘트 】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꼭 2년이 흘렀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대로 전국 곳곳에는 추모행사가 열려 아물지 않은 아픔과 상처를 다시 한 번 기억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떠난 이들을 향한 416가족합창단의 애절한 노랫자락이 하늘 높이 퍼져 나갑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먹먹한 마음으로 보고 싶은 이들을 기억해봅니다.

▶ 인터뷰 : 박예진 / 고 박예슬 양 동생
- "언니가 더 나은 곳으로 떠나 언니와의 추억만 남겨진 이곳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봄이 찾아왔어."

세월호 참사 2년.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만 믿다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는 기억식이 경기도 안산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열렸습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등 각계각층 인사와 시민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객들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차례차례 꽃을 바칩니다.

▶ 인터뷰 : 이오한 / 인천 부평구
- "키우는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밝은 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기억식 이후에는 시민들이 함께 분향소부터 단원고까지 4.8km를 걷는 진실을 향한 걸음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 분향소에도 오후부터 추모객들이 몰려 2년 전 그날의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제정된 국민안전의 날을 기념해 국민안전 다짐대회가 열렸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jay8166@mbn.co.kr]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정재성 기자,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사람 그리고 사람
TV조선
2016년 04월 16일 (토)
사회

세월호 2주기...전국 추모 행사

[앵커]
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정확히 2년이 됩니다. 진도 팽목항과 안산 합동분향소, 서울 광화문광장 등 전국 곳곳에서 추모제가 열립니다.

홍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10시, 안산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안산 시민들은 1분간 사이렌을 들으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릴 예정입니다.

안산 합동분향소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추도식이 열립니다. 추도식 후 참석자들은 오후 2시부터 '416 걷기대회'를 하며 분향소와 단원고를 행진합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도 저녁 7시부터 4500여명이 참여하는 '범국민 추모문화제'가 펼쳐집니다.

진도 팽목항에서는 오전 9시 30분부터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추모제가 열립니다.

미수습자 9명의 온전한 귀환을 바라는 전통 행사도 열립니다. 교실 존치를 두고 대립해왔던 유가족과 재학생 학부모 등은 어제 '기억교실'을 추모시설로 옮기기로 합의했습니다.

김광준 /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존치교실에 대해서는 2주기를 기해서 잠정적으로 안산시 교육지원청에 임시 이전해서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요."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협약식은 연기됐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

사람 그리고 사람
TV조선
2016년 04월 17일 (일)
사회

세월호 4·16연대 "대정부 집중 투쟁" 예고



[앵커]
세월호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오는 6월 정부를 상대로 집중 투쟁을 예고해 20대 국회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광화문 광장이 노란 물결로 가득합니다.

현장음
"세월호를 잊지 말자"

어제 저녁, 세월호 2주기 추모행사에 시민 4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촛불 문화제가 이어졌습니다.

추모행사는 충돌없이 끝났지만,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모인 4.16연대는 이 자리에서 오는 6월 대정부 집중투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특별조사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세월호 유족 변호인으로 널리 알려진 박주민 변호사가 배지를 달았고, 더민주, 국민의당 두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공언한 바 있어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시점에 국회 안팎에서 세월호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

jtbc 뉴스
2016년 04월 16일 (토)
종합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2주기...곳곳서 추모 물결



[앵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16일)로 2년이 됐습니다. 그날의 아픔을 달래고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는 추모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남 진도 팽목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진명 기자!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세월호 2주기를 맞는 이곳 팽목항은 추모의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빗줄기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추모의 발길은 이른 아침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모객들은 팽목항 방파제와 등대 등에 남은 세월호 참사의 흔적을 보며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세월호 참사 2주기 합동추모식이 끝났는데요.

추모식은 실종자 가족과 진도군민 등 10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추모식에서는 세월호 영상 시청과 추모 편지 낭송, 노란 풍선 날리기 등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추모객들은 노란 수건을 목에 두르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이러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추모식을 마치고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과 면담을 가진 실종자 가족들은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해 미수습자 9명을 꼭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크고 작은 추모행사가 계속될 예정인데요.

진도체육관에서는 추모미사가, 이곳 팽목항에서는 추모법회가 열리게 됩니다.

또 오늘 저녁에는 팽목항 방파제 등대에서 풍등 날리기 등 문화제가 이어집니다.

전국 곳곳에서도 추모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오전 10시 안산 전역에서는 1분간 추모 사이렌을 울렸고, 경기도 안산합동분향소에서 추모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분향소와 단원고 등을 거쳐 돌아오는 '진실을 향한 걸음' 행사가 진행됩니다.

인천 가족공원에서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의 추모관 개관식이 열리고, 오후 7시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 추모문화제가 열립니다.

.

YTN

2016년 04월 16일 (토)
종합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도식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도식이 오늘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2주기 추도식에는 4.16 가족협의회와 유가족들, 제종길 안산시장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이 참석해 참사 희생자 304명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4.16 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은 참사 진상 규명과 세월호 인양 등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추모식 이후 유가족들은 안산과 서울 광화문에서 4.16 걷기 행사와 추모 문화제를 가지며 세월호 참사 2주기를 기억하는 추도 행사를 진행합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14.4 X 6.7 cm

연합뉴스TV

2016년 04월 16일 (토)
사회

세월호 참사 2주기...전국 곳곳 추모행사



세월호 참사 2주기…전국 곳곳 추모행사

세월호 참사 2주기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합동분향소에서는 2천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와 미수습자를 추모하는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오후 2시부터 분향소를 출발해 단원고 등을 거쳐 '진실을 향한 걸음'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7시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약 4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약속·행동 문화제'가 진행됩니다.

정부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각료와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국민안전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세월호 사고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진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14.4 X 15.5 cm

BBS
2016년 04월 16일 (토)
사회

오늘 세월호 2주기... 전국 추모 물결

전경윤 기자 kychon@chol.com



1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문화광장에서 안산고교학생회장단연합 주최로 열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 2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추모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전국에서 추모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안산 지역에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1분간 추모 사이렌이 울렸고 단원고 유가족과 시민들은 안산합동분향소에서 추모 '기억식'을 시작으로 분향소와 단원고 등을 거쳐 돌아오는 '진실을 향한 걸음' 행사를 열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endif]-->이어 오후 3시에는 인천 가족공원에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개관식이 진행됩니다.

<!--[if !supportEmptyParas]--><!--[endif]-->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오늘 저녁 7시부터 범국민 추모문화제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단원고 희생 학생 형제 자매들의 편지 낭독이 있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추모제가 순수한 문화제로 개최될 경우 필요한 협조를 하겠지만 불법 집회·시위로 변질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4 X 18.3 cm

99.9 경기방송

2016년 04월 17일 (일)
종합

시도의원 '연봉' 평균 5천672만원...경기 6천321만원 최고

[KFM경기방송=박상욱기자]올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의 '연봉'이 지난해보다 57만원 올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시도의원 1인의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합친 평균 의정비는 지난해보다 1% 인상된 5천672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원들의 평균 의정비는 6천321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서울시가 6천250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시군구의원의 1인당 평균 의정비는 지난해보다 62만원이 오른 3천767만원이며 서울 강남구의회의 의정비가 4천950만원으로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상욱 kfmbodo@kfm.co.kr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14.4 X 6.7 cm

99.9 경기방송

2016년 04월 17일 (일)
종합

경기도청 민원센터, 내달부터 '민생지킴 서비스'

[KFM경기방송=박상욱기자]'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가 다음 달부터 노인과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서민민생 지킴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서민민생 지킴 서비스는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민생피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둔 밀착형 현장 서비스를 말합니다.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는 그동안 내방객을 대상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노인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어 노인복지관과 하나센터, 사회복지관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소외계층은 서비스를 통해 대부업·금융 사기 등 금융피해와 다단계 소비자 피해, 취업 사기 예방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민생 지킴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 031) 8030-2312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욱 kfmbodo@kfm.co.kr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14.4 X 8.6 cm

99.9 경기방송

2016년 04월 17일 (일)
종합

'착한교복' 순회 전시회

[KFM경기방송=김칠호 기자] 경기도가 유명 디자이너에게 의뢰해 제작한 '착한교복' 40세트를 내일 구리시를 시작으로 도내 12곳에서 순회 전시합니다.

착한교복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첫 교육연정 사업으로 시중가의 3분의1에 공급하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교복 소재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기능성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도는 각 지역의 전시장을 시청로비 여성회관 등 찾아오기 쉬운 곳에 마련하고, 학교 행사와 연계하는 등 관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김칠호 seven5@nate.com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14.4 X 5.6 cm

경인방송 iTV FM
2016년 04월 16일 (토)
종합

남경필.이재정 “세월호 진상 규명에 최선 다하겠다”





[경인방송=김정수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정부·교육청·도의회와 협력해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 지사는 16일 오전 안산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린 기억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희생자들에게 보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배 안에 갇힌 학생들을 제대로 구하지도,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한 채, 우리는 온 몸이 아프다다. 죄책감을 씻을 수가 없다”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함께 하겠다”며 “기억을 넘어 반드시 희망을 만들고, 아픔을 넘어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kjs@ifm.kr

14.4 X 15.0 cm

경인방송 TV FM
2016년 04월 16일 (토)
종합

리포트/"잊지 않을께요"...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



[경인방송=김정수 기자] (앵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덧 2년이 됐는데요.

단원고가 있는 안산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 교훈을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김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산 단원고 학생 등 29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2년.

4·16가족협의회는 16일 오전 안산정부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와 미수습자를 추모하는 '기억식'이 열었습니다.

오전 10시 안산 전역에 울려퍼진 추모사이렌에 맞춰 참석자들은 묵상을 하며 2년 전 참사의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다시 봄이 왔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4월 16일"이라며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억식에 참석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다시는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단원고 등을 거쳐 돌아오는 '진실을 향한 걸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도 분향소 헌화, 추모편지 낭독과 함께 시신 미수습자들을 위한 '씻김 굿'이 펼쳐졌습니다.

앞서 15일에는 경기도교육청과 안산지역 시민단체, 그리고 안산시 고교학생회장단연합 등이 추모식과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한편, 15일 오후 2시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진행하려던 '기억교실' 이전 등을 담은 '416 교육사업 협약식'은 잠정 연기됐습니다.

경인방송 김정수입니다.
kjs@ifm.kr

경인방송 iTV FM
2016년 04월 17일 (일)
종합

경기도,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84종 690대 지원



경기도가 장애인의 원활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 84종의 정보통신보조기기 690대를 지원한다.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경기도는 장애인의 원활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 올해 84종의 정보통신보조기기 690대를 지원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시각, 청각,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정보이용을 돕는 장비로, 시각장애인용 43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 13종, 청각.언어장애인용 28종 등 장애유형별로 구성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제품가격의 90%를, 나머지는 80%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원하면 다음달 20일까지 홈페이지(www.at4u.or.kr)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 접수처로 신청하면 됩니다.

도는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을 시작해 지금까지 모두 4천989명에게 관련 기기를 보급했습니다.
kds@ifm.kr

경인방송 iTV FM
2016년 04월 17일 (일)
종합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 서민민생 지킴 서비스 제공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가 다음달부터 서민민생 지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에서 서민민생 지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민민생 지킴 서비스는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억울한 민생피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둔 도민 밀착형 현장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곳에서는 앞으로 노인,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금융 소외계층이 자주 찾는 노인복지관, 하나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직접 방문해 금융피해.취업사기.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후에는 피해 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시정요구, 실질적 해결을 위한 구제 기관 연계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031-8030-2312)'로 문의하면 됩니다.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일 평균 76건, 총 2만7천800여 건의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kds@ifm.kr

경인방송 iTV FM
2016년 04월 17일 (일)
종합

경기도, 착한교복 순회전시...4월18~5월31일 12개 시.군



경기도가 도 교육청간 교육연정 첫 사업인 '착한교복' 순회전시회를 연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열린 '착한 교복 품평회' 모습.<사진제공=경기도>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경기도가 디자인 개발을 완료한 '착한교복'을 일반에 선보입니다.

도는 '착한 교복' 40벌에 대한 순회 전시회를 내일(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도내 12개 시군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착한교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도내 섬유업계의 발전을 위해 추진한 경기도와 도교육청간 교육연정 1호 사업입니다.

도는 전시회를 활용해 우수한 디자인, 경제성, 기능성 원단 등의 장점을 학교 관계자, 학부모,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보급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교복디자인 변경 의사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는 착한교복 디자인을 무료 제공할 예정입니다.

도는 올해 '착한교복' 36벌의 디자인을 새로 개발하기로 하고, 디자이너 4명을 공채했습니다.
kds@ifm.kr

경인방송 TV FM
2016년 04월 17일 (일)
종합

경기도 대표 맛집 20곳 추가 지정...신청 접수



경기도가 오는 29일까지 수원과 의정부지역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공보육 사업참가자를 모집한다.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경기도는 올해 맛과 위생, 서비스가 우수한 음식점 20곳을 경기으뜸맛집으로 추가 지정합니다.

경기으뜸맛집에 선정되면 경기도 맛집 브랜드인 으뜸맛집 지정판과 로고간판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업소 당 50만 원 이내의 위생 물품 제공,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홍보 등 직.간접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희망 업소는 경기도(www.gg.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29일까지 관할 시.군 위생관련 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도는 지난 2006년 경기도으뜸맛집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147곳을 지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식품안전과 음식문화팀(031-8008-3673) 또는 관할 시.군 위생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kds@ifm.kr

경인방송 iTV FM
2016년 04월 17일 (일)
종합

남경필 지사, 규제현장 방문...21일 이천 샘표식품



남경필 경기지사가 오는 21일 이천 샘표식품(주)에서 '규제현장, 도지사가 찾아갑니다'를 주재한다.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상수원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로 공장증설이 가로막힌 규제현장을 찾아 해법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경기도는 남경필 지사가 오는 21일 이천 샘표식품(주)에서 '규제현장, 도지사가 찾아갑니다'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 등 동부지역 5개 지역 시장군수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기업인, 경기연구원 등이 함께 합니다.

남 지사는 간담회를 주재하고 샘표식품(주) 이천공장 현황청취와 경기연구원의 동부발전 종합계획수립 방향 발표, 기업.생활규제 애로 등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경기동부 5개 시군 단체장이 함께 모여 경기동부 지역 발전 노력을 다짐하는 공동실천 업무협약도 예정돼 있습니다.

kds@ifm.kr

14.4 X 22.3 cm

경인방송 iTV FM
2016년 04월 17일 (일)
종합

수원.의정부에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2곳 운영



경기도가 오는 29일까지 수원과 의정부지역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공보육 사업참가자를 모집한다.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경기도와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수원과 의정부에 각각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보육서비스를 저렴한 보육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인수한 후 소유와 관리를 맡습니다.

도와 연구원은 오는 29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현장실사 등을 거쳐 수원과 의정부시에 각각 1곳씩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원장은 공모를 통해 뽑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사전직무교육을 거쳐 고용 승계됩니다.

도와 연구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이 낮은 시.군에 오는 9월쯤 시범사업 어린이집 2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kds@ifm.kr

경인방송 iTV FM
2016년 04월 17일 (일)
종합

경기도 산하기관 통폐합 '진통' 거듭...반발 확산



경기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을 12개로 통폐합하는 경영합리화 용역결과가 의견수렴 단계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앵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통폐합 추진방안이 당사자와 이해기관의 반대까지 겹치면서 진통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조례 제.개정 등 행정절차가 예정대로 이뤄질 지도 미지숩니다.

구대서기잡니다.

(기자)
경기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을 12개로 통폐합하는 경영합리화 용역결과가 의견수렴 단계부터 진통입니다.

당사자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관련 이해기관도 부정적인 입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통합 대상에 오른 기관은 잇따라 성명을 내거나 예고하는 등 갈수록 반발이 커가고 있습니다.

획일적 경제성 논리만으로 통폐합 대상을 정했다는 게 이윱니다.

한국도자재단 노조는 성명을 내고 "획일적 경제성 논리로 대한민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도자기를 사금파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개발과 도시개발 업무를 한데 묶는 것은 국.내외에 전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노조는 "경영합리화라는 부실한 대책 뒤에 숨어 경기도의 문화예술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통폐합 대상 기관을 소관하는 도의회 상임위원회도 부정적인 기류가 적지 않습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광철 위원장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오히려 조직을 키워야 하는데 경기연구원이 흡수하는 방안이 나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가시밭길 앞날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다음 달 예정된 조례 제.개정 등 행정절차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뤄질 지도 미지숩니다.

경인방송 구대서입니다.
kds@ifm.kr

朝鮮日報
2016년 04월 18일 (월)
01면 종합

"임시국회 열어 세월호 특검 추진"

국민의黨, 더민주와 세월호법·국정교과서 공조키로

정부·여당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며 4·13 총선에서 승리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거가 끝난 후에는 민생·경제 대신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국정교과서 폐기 등 정치 이슈에 우선적으로 힘을 합치고 있다.

국민의당은 5월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 내에 임시국회를 열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 등을 위한 세월호법 개정과 국정교과서 폐기 논의를 시작하자고 지난 15일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당(兩黨)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세월호 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17일 본지 통화에서 "세월호법에는 원래 특검도 하게 돼 있는데 새누리당이 거부해 무산됐다. 법의 원래 취지대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월호법은 세월호 특조위가 필요할 경우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실시 여부는 국회가 최종 결정해야 한다. 특조위는 지난 2월 세월호 특검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은 19대 국회 때 안 되면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는 16일 "곧바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은 17일 "세월호법 개정이나 국정교과서 폐지는 기존 당론이었던 만큼 현재에도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투표 전인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문제는 경제다"는 구호를 앞세운 '경제 심판론'으로 총선을 치렀다. 국민의당 역시 "싸움만 하는 1, 2번 대신 3번이 나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양당 체제를 비판했다. 두 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는 세월호법 개정이나 국정교과서 폐기는 들어 있지도 않았다.

두 야당은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법안 처리도 논의는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반을 이룬 야권이 새누리당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

김아진·박국희 기자 기사 A6면

11.4 X 17.0 cm

朝鮮日報

2016년 04월 18일 (월)
10면 정치

與 대선주자 타격에 남경필·원희룡 조기등판론 솔솔


남경필


원희룡

4·13 총선 결과 새누리당 주요 대선 주자가 타격을 입은 가운데 남경필(51) 경기지사와 원희룡(52) 제주지사에게 당내(黨內)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무성·김문수·오세훈 등 차기 주자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만큼 '차차기'로 거론됐던 남 지사와 원 지사가 '조기 등판'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50대 초반의 당내 '소장파' 출신으로 선거 패배 후 여권에서 제기되는 '세대교체론'에는 부응할 수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17일 "경기도는 여야 '연정(聯政)'을, 제주도는 민관 '협치(協治)'를 실험 중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은 차기 대통령 임기 초반 2년간 맞닥뜨릴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을 미리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도지사 임기가 2018년 6월까지여서 내년 12월 대선에 출마한다면 임기 중 출마 논란이 일 수 있다. 남 지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내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도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전념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작년까지는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도지사 임기를 마치겠다"고 해왔다. 그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우리 국민이 무섭고 현명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다가오는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제주 발전에 전념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며 "도지사 임기를 마치겠다"고 했다. 원 지사는 "새누리당이 예상치 못하게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며 "선거로 보여주신 도민의 뜻을 깊이 새겨 도정에 임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과 함께 정치 전면에서 모습을 감춘 정몽준 전 대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패한 뒤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다. 이번 총선에서도 측근인 안효대(울산 동구)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 것이 전부다. 정 전 대표 측은 이날 "당분간 현실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들 외에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입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황대진 기자

5.6 X 30.8 cm

朝鮮日報

2016년 04월 18일 (월)
12면 사회

경기도의원 연봉 6321만원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아

강남구의원 4950만원 기초단체 1위

행정자치부는 17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의 올해 평균 의정비는 5672만원으로, 작년(5615만원)보다 57만원 올랐다"고 밝혔다.

의정비는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1년 보수에 해당하며, 월정수당(올해 평균 3872만원)과 의정활동비(평균 1800만원)로 구성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올해 의정비가 가장 많은 광역단체는 경기도(평균 6321만원)이고, 서울(6250만원)과 인천(5951만원)이 뒤를 이었다. 전남(5080만원), 전북(5093만원), 강원(5184만원)은 의정비 최하위권 광역단체로 조사됐다.

기초단체(시·군·구) 의원의 올해 평균 의정비(3767만원)도 작년(3705만원)보다 62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의원의 의정비(4950만원)가 전국 기초단체 1위이고, 수원시(4852만원)·성남시(4835만원)·서초구(4781만원)·고양시(4674만원) 순이었다.

김정환 기자

광역자치단체 의원 의정비 자료=행정자치부

지역	의정비(원)
경기	6321만
서울	6250만
인천	5951만
울산	5814만
부산	5728만
대전	5724만
대구	5644만
충남	5544만
제주	5460만
경남	5457만

5.6 X 20.2 cm

朝鮮日報

2016년 04월 18일 (월)
17면 전국

동두천·고양시에 어린이 박물관

경기도가 동두천시와 고양시에 체험학습형 어린이 박물관을 개관한다. 다음 달 문을 여는 동두천어린이박물관은 상봉암동에 지상 2층·지하 1층 규모로 지어졌다. 이 박물관의 주제는 '숲에서 꿈꾸는 아이들'이다. 경기도는 "어린이들이 공룡·영유아·숲생태·물놀이·건축 존 등 9개 전시 공간에서 직접 탐험을 하는 느낌을 갖도록 공간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덕양구 화정동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들어선 고양어린이박물관은 6월에 개관한다. 이곳은 '세상과 손잡고 자라나는 아이'라는 주제에 맞춰 꽃향기마을·물빛마을·애니팩토리·건축놀이터·아트갤러리 등 10개 전시관으로 꾸며졌다.

의정부=권상은 기자

5.6 X 9.3 cm

중앙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1면 종합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16일 규모 7.3의 2차 강진과 함께 발생한 대형 산사태로 가옥들이 처참하게 부서졌다. 구조대가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구마모토 AP=뉴시스]



에콰도르에서 16일(현지시간)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다. 진원에서 300㎞ 떨어진 에콰도르 제2의 도시 과야킬에서 시민들이 다리에 깔린 자동차를 끌어내고 있다. [신화=뉴시스]

'불의 고리' 에콰도르도 강진…230명 이상 사망

〈규모 7.8〉

일본 구마모토현 연쇄 지진
최소 40명 사망 1000명 부상

일본 구마모토(熊本)현의 연쇄 지진에 이어 남미 에콰도르에서도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17일(현지시간) 최소 233명이 숨지고 약 1500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에콰도르 지진은 16일 오후 6시58분 수도 키토에서 북서쪽으로 170㎞ 떨어진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했다. 지진이 저녁에 발생, 구조 작업이 늦어지면서 당초 77명으로 집계됐던 사망자는 날이 밝으면서 23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진앙의 깊이가 19.2㎞로 비교적 얕았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를 방문 중이던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급거 귀국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진앙에 가까운 해안도시 페데르날레의 시장은 BBC에 "멀쩡한 가옥이 하나도 없다"고 참상을 전했다.

14일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한 구마모토에선 16일에도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다. 두 번의 지진으로 최소 41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부상했다. 에콰도르와 일본은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다. 최근 '불의 고리'에선 강진이 거듭되고 있다. 14일 남태평양 바누아투공화국에서 규모 6.4, 15일 필리핀 민다나오섬 해안에서 규모 5.9, 17일 남태평양 통가에서도 규모 5.9의 지진이 일어났다.

구마모토=이정헌 특파원, 홍주희 기자
jhleehope@joongang.co.kr

» 관계기사 2면

14.8 X 35.4 cm

중앙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0면 정치

부산서 재기 성공한 더민주 김영춘 〈진갑〉 "상대 죽이는 소선거구제 개혁할 것"

2003년 한나라 탈당 '독수리 5형제'
"국회 황금분할, 정치구도 바꿀 적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부산진갑·사진) 당선자는 "아무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20대 국회는 정치구도 개편을 위한 '황금분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1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개혁 논의는 매번 다수당의 '과반 기득권'에 막혀 좌절돼 왔다"며 "20대 국회엔 과반 정당이 없기 때문에 각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으로 논의할 조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만든 절묘한 의석 배분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김 당선자는 1개 선거구에 1명의 당선자가 나오는 현행 '소선거구제' 개혁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으로 한 표라도 적은 사람이 배제되는 소선거구제 때문에 정치가 '상대를 죽이는 게임'이 돼버렸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김 당선자는 "선거구당 2~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돼야 영호남에서 보수와 진보 등 각계의 요구를 대변할 당선자가 나와 고질적 지역구도를 청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6대 총선에선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17대 총선에선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 광진갑에서 재선을 했다. 17대 총선 전인 2003년 김부겸 당선자와 함께 한나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옮긴 이른바 '독수리 5형제' 중 한 명이다. 지역구도 청산 등을 내세웠던 열린우리당이 공중분해된 것에 책임을 지겠다며 18대 총선(2008년)에 불출마했다.

2012년 19대 총선부터 야권의 불모지 부산에 뛰어들었다. 첫 도전에선 2위(3598표 차)로 낙선했다. 2014년엔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했지만 무소속 오거돈 후보와 단일화한 뒤 사퇴했다. 세 번째 도전인 20대 총선에서 49.6%로 당선돼 재기에 성공했다.

김 당선자는 "나를 비롯해 한나라당 시절 당내 개혁세력이던 '미래연대' 출신이 현재 각 당의 주축이 됐다"며 "그 인사들과도 신뢰를 가지고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연대는 김영춘·김성식 당선자와 김부겸(더민주) 당선자,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주축이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11.9 X 15.8 cm

중앙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2면 사회



세월호 침몰사고 2주기인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과 경기도 안산,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날 광화문광장 함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비·강풍 속 세월호 2주기 추모 … 광화문 분향소 1만여 명 발길

'기억 문화제' 유족 등 수천 명 모여
대법원 페북엔 180㎝ 기록물 사진

세월호 참사 2주기인 지난 16일 대법원은 공식 페이스북에 180㎝ 높이로 쌓아 올린 세월호 사건 재판 기록 사진을 올렸다.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이 기록의 높이와 무게, 그 이상으로 그날을 아프게 기억합니다'라는 글도 함께 게재했다. '수사기록을 제외하고도 180㎝ 높이가 되는 세월호 사건 재판 기록'이라는 설명도 붙였다.

사진 아래에는 ▶세월호 선장,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인정, 살인죄로 무기징역 선고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죄로 징역 7년 선고 ▶세월호에 가장 먼저 접근했던 해경 123정장,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죄로 징역 3년 선고 등 세월호와 관련한 대법원의 결정을 소개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약속·행동 문화제'가 열렸다. 비와 강풍 속에서 진행된 문화제에는 유가족, 시민단체 회원, 일반 시민 등 수천 명이 참가해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혔다.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문화제에 참석한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증인으로서 앞으로도 함께 진실을 외쳐 달라"고 말했다.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서는 1만여 명이 조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전남 진도 팽목항에 가 희생자를 추모했다. 박 시장은 실종자 가족들과 만나 "세월호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세월호 인양과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팽목항 등대 앞에 묶어 놓은 추모 리본에 '이 슬픔 함께 영원히'라는 글귀를 적었다.

조진형·정진우 기자 enish@joongang.co.kr

23.6 X 18.4 cm

東亞日報

2016년 04월 18일 (월)
01면 종합



첫 지진 이틀만에 더 센 지진 강타 16일 새벽 규모 7.3의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 현 미나미아소의 주택가가 폐허로 변했다. 14일 밤 규모 6.5의 1차 강진에 이어 이날 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목조 가옥이 산산이 부서졌고, 곳곳엔 파편들이 널브러져 아수라장이 됐다. 17일 구조대원들이 굴착기를 동원해 생존자를 찾고 있다. 미나미아소=AP 뉴시스

日-에콰도르 연쇄 강진… '불의 고리' 풀렸나

〈환태평양 조산대〉

日 42명, 에콰도르 233명 사망
"초대형 지진 전조" 우려 확산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일본과 남미 에콰도르에서 강진이 잇따르면서 '도미노 지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밤 규모 6.5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 규슈(九州) 구마모토(熊本) 현에서 16일 오전 1시 25분경 규모 7.3의 강진이 또다시 발생해 사망자가 늘고 있다. 18일 0시 현재 최소 42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다. 부상자 1037명 가운데 중상자가 200명 이상이다. 여진이 440차례 이상 계속되면서 집을 떠나 피난 생활을 하는 이재민도 18만 명을 넘어섰다. 구마모토 현과 오이타(大分) 현에서 약 40만 가구의 수도 공급이 차단됐고 10만 가구가 정전, 가스 공급 차단을 겪고 있다. 산사태로 도로가 차단됐고 철도 공항 등 교통도 마비됐다. 일본 정부는 현지에 자위대원 2만5000명을 파견했다. 주일미군도 구호 작전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7일 피해가 큰 구마모토 현에 대해 격심재해(특별재해) 지역으로 조기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구마모토 강진 이후 환태평양 조산대 국가인 에콰도르에서도 16일 오후 6시 58분경(한국 시간 17일 오전 8시 58분경)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서북쪽으로 170km 떨어진 태평양 해안 지점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18일 0시(한국 시간) 현재 이번 지진으로 233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또 CNN은 150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구마모토=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이세형 기자

▶A8면에 일본 7.3 강진 현장 르포

21.3 X 25.3 cm

東亞日報
2016년 04월 18일 (월)
16A면 춘천/강원

강원교육청 지방교육채 5300억 넘어

"누리과정 도입후 재정 빨간불"

강원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규모가 5300억 원을 넘어서 지방교육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강원도교육청은 이 같은 재정 악화가 누리과정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강원도교육청의 예산 여건이 양호한데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에 포함되면서 보통교부금 재원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부족액을 교부하는 것이다. 2013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순차적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의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항목에 포함되면서 2016년에는 2012년에 비해 719억 원이 증가했다. 기준재정수요액은 2012년 415억 원에서 2013년 671억 원, 2014년 1033억 원, 2015년 1163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1134억 원을 기록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기준재정수요액이 증가했지만 보통교부금 총규모는 변동이 없어 부족한 금액은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있다. 현재 지방교육채 총규모는 5338억 원이다. 지방교육채는 2013년 123억 원을 발행한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2014년 551억 원, 2015년 2186억 원이었고 올해는 1464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채 발행 증가로 인한 원리금 상환액도 2013년 48억 원, 2014년 51억 원, 2015년 54억 원, 올해 144억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전봉주 강원도교육청 예산1담당 사무관은 "매년 지방교육채 발행이 늘어나는 것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수 감소 탓도 있지만 현재의 보통교부금 규모로는 정상적인 교육재정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며 "교부율 상향 등 교육재정 추가 확충만이 매년 반복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초중등 교육과정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강원도 내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유치원 454억 원, 어린이집 659억 원이지만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14.4 X 16.9 cm

국민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1면 종합

'지진 공포'

日 구마모토현 이어
남미 에콰도르까지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지난 14일부터 나흘 연속 지진이 발생해 최소 42명이 숨지고 수천명이 다쳤다. 남미 에콰도르에서도 16일(현지시간) 규모 7.8의 강진이 일어나 최소 233명이 사망했다.

지난 2월 뉴질랜드와 대만, 3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지난 2일 미국 알래스카에 이어 17일 남태평양 통가까지 규모 5.0이 넘는 지진이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조산대에서 꾸준히 발생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14일 오후 9시26분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난 데 이어 16일

이틀째 강진… 최소 42명 사망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 피해
에콰도르도 최소 233명 숨져

오전 1시25분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사망자 42명, 실종자 11명이 확인됐다. 또 진도 4.0 이상의 여진이 수십차례 이어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전기·수도가 끊겨 16만명이 대피했다. 도로, 철도, 공항이 마비되는 등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의 피해가 예상된다.

일본과 에콰도르에서 한국인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구마모토 현지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하는 한편 에콰도르에서의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한편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17일 오전 7시31분 통가의 수도 누쿠알로파 남남동쪽 287㎞ 지점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8·9면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4.7 X 23.6 cm

국민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1면 종합

新여소야대 ③ 박근혜정부 향후 정국 운영

'1인 리더십' 끝… 손잡아야 산다



민심 '승자 독식 구조' 깨고
여야 불문 혼자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게 의석 배분
靑에도 포용의 리더십 요구
與 '제2 천막당사' 정신 필요
경기도 연정 타산지석 삼아야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다. 민심은 4·13총선을 통해 '승자독식' 구도를 깨뜨렸다. '오만한' 여당에 쓰라린 패배를 안겼지만 그렇다고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역시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추진할 수 없게끔 의석수를 배분했다. 당정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도, 야당의 무조건식 발목잡기도 허용치 않겠다는 절묘한 한 수인 셈이다. 국정을 책임진 청와대에는 국회를 설득하는 소통의 리더십을 넘어 야당과 국가를 공동 운영하는 포용의 리더십을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박근혜(얼굴) 대통령에게 총선 결과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성장 동력 부재, 양극화 심화라는 경제 위기와 외교·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2의 천막당사' 정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004년 '대선 차떼기' 사건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던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을 이끌게 된 박근혜 대표가 천막당사에서 새 출발하며 당을 재정비했던 당시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2의 천막당사는 단순한 협상정치의 복원이 아닌 '연정(聯政)'까지 고려하는 과감한 결단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 문화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 경기도 연정은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만하다는 평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14년 당선 직후 사회통합부지사를 야당 몫으로 배정했고, 6개 공공기관장을 야당과 협의해 임명했다. 특히 야권 성향 경기도교육감과 공동본부장 체제로 '메르스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연정 효과는 빛을 발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더민주 문희상 의원은 남 지사의 경기연정 사례로 '생활임금 지급' '광역지자체 최초 인사청문회 도입' '도의회 예산편성권 부여' 등을 들며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계도 드러냈다. 지난해 말 경기도의회 여야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대립을 벌인 끝에 2016년도 본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빚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연정을 중앙정치에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7일 "정책적 성격이 강한 지방자치단체 연정과 비교해 중앙정치의 연정은 정치적 성격이 강해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연정 실험은 토론과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정치 혁신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승자독식의 메커니즘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이 부여한 이상 연정 정신을 국정 운영에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태환 전 경기대 교수는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현 정권의 일방주의를 심판했고 '대연정' 정신을 요구했다"며 "박근혜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권은 국민의 것'이라는 기본 원칙을 잊지 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4·5면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31.2 X 11.0 cm

국민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4면 종합

교과서·테러법·세월호 '동상'… 야권연대·결선투표 '이몽'

더민주·국민의당 '불안한 동거'… 물밑선 주도권 잡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불안한 동거'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에 맞서 국회 현안에 대해선 손을 잡으면서도, 대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물밑 경쟁에도 착수했다. 야권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도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됐다.

◈협력…국정교과서와 테러방지법·세월호특별법=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국정교과서 폐지 결의안과 테러방지법·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당이 먼저 이슈를 제기하며 치고나갔고, 더민주는 "원론적으로 공감한다"며 화답했다.

국민의당은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했던 3가지 사안을 주도해 '가짜 야당' '새누리당 2중대' 의혹을 씻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쟁점 사안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행동을 꺼려했다는 비판도 희석할 수 있다. 확고한 원내 제3당을 구축해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상황에서 첫 이슈를 제기하면서 존재감도 과시했다는 평가다.

특히 여당이 밀어붙인 국정교과서와 테러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았던 만큼 정부도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고 야권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효과도 낼 수 있다.

국민의당, 3가지 이슈 주도
'가짜 야당' 의혹 털기 시도
더민주 "원론적 공감" 응수
'운동권 정당' 비판 희석 의도

결선투표제는 상당한 거리
안철수 "연대없이 대선 완주"
더민주, 결국 '양당 구도' 속내

더민주도 당론으로 추진했던 일이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국민의당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더민주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들 사안을 가지고 여당을 압박할 경우 '강경 운동권 정당'이라고 공격받을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다면 원내 제1당이 돼서도 새누리당을 견제하지 못한다고 지지층이 등을 돌릴 수 있다. 국민의당이 제기한 이슈에 공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면 운동권 정당이란 비판을 피하면서도 원내 제1당으로서 실질적으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

◈이견과 경쟁…야권연대, 대선 결선투표제=하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언제까지 정부·여당 견제를 명분으로 화해무드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서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야당뿐 아니라 여당과도 협력이 필요하다. 더민주 역시 국민의당이 선점한 이슈 위주로 끌려다닐 경우 내년 대선 정국에서 국민의당에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벌써부터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두고 두 당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제3당 후보도 야권연대 없이 대통령선거를 완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결선투표제는 대선에 후보자가 다수 출마하더라도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1·2등만 재투표를 한다. 인위적 야권연대 없이도 자연스레 여당과 야당의 1대 1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며 '3자 구도' 대선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민주는 현행 제도상 거대 양당이 아닌 제3당 후보가 대선레이스를 완주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 대표가 겉으로는 '3자 구도 대선'을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선 정국에서 국민의당 분열로 사실상 양당 구도가 전개될 것이란 속내를 숨기지 않는 이유다. 다만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결선투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무턱대고 거절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고승혜 기자 marquez@kmib.co.kr

31.3 X 11.8 cm

국민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2면 사회



지난해 경기도가 주최한 '착한 교복' 디자인 발표회 모습. 경기도 제공

"이런 질좋은 교복이 반값, 정말이야!"

경기도 오늘부터 '착한 교복' 순회전시
지난해 개발 완료… 12개 시·군서 개최

경기도는 지난해 디자인 개발을 완료한 이른바 반값 교복인 '착한 교복' 40벌의 순회 전시회를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도내 12개 시·군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우수한 디자인, 경제성, 기능성 원단 등 착한 교복의 장점을 학교 관계자, 학부모,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착한 교복은 도와 도교육청 간 교육연정 1호 사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도내 섬유업계의 발전을 위해 도내에서 생산된 고품질 섬유소재를 활용해 값싸고 질 좋은 교복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전시회는 구리 포천 안산 수원 용인 고양 등 도내 12개 시·군에서 순회 진행되며,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시·군청 로비나 여성회관 등에서 진행된다.

도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착한 교복에 대한 디자인 및 소재 변경에 대한 상담도 진행해 교복 디자인 변경 의사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복 디자인의 모든 자료를 제공해 많은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병권 도 경제실장은 "이번 순회전시에서 기능성 원단,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경제적 가격 등 착한 교복의 장점을 알리고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12.0 X 19.7 cm

한겨레
2016년 04월 18일 (월)
01면 종합



17일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미아소에서 자위대원들이 지진으로 무너진 아파트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다. 14일 밤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6.5의 첫 지진이 일어났고, 16일 규모 7.3이 구마모토현을 또다시 강타했다. 지진 발생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발생 장소도 인근 오이타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나미아소/AFP 연합뉴스

강진 두차례, 여진 470차례 기상청도 "또 어디서 터질지…"



길윤형 특파원

구마모토 지진현장을 가다

도로 파이고 아소산 능선 무너져 "첫 지진뒤 집에 들어갔다가… 마시키마치 마을서만 20명 숨져"

"오늘은 여기서 잘 거예요. 피난소에 사람이 너무 많네요."

지난 16일 저녁 7시, 연쇄 지진이 강타한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 마시키마치는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지진의 영향으로 정전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마을 중심부를 관통하는 28번 현도가 파이고 갈라져 취재진을 태운 차량은 쉽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주요 교차로마다 배치된 경찰과 자위대원들은 빨간 교통봉을 흔들며, 운전자들에게 '갈 수 있는 길'과 '갈 수 없는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관련기사 2·14면

다카모토 다에코(60) 가족을 태운 차량은 왕복 2차로인 28번 현도변에 쓸쓸히 주차돼 있었다. 예상치 못한 지진이 터진 뒤 다카모토 부부의 자동차 생활은 벌써 사흘째다.

"여기예요. 여기가 우리 가게."

다카모토의 차량이 주차된 곳은 그가 남편과 함께 운영해온 이발소 앞이었다. 25년 전 지었다는 부부의 자택 겸 이발소는 마을을 강타한 두 번의 강진을 이기지 못하고 반쯤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지진이 한 번 더 오면 건물이 주저앉을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모님 걱정에 후쿠오카에서 달려왔다는 큰아들이 대형 손전등을 들고 차량 곁을 지키고 있다.

14일 밤 9시26분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규모 6.5의 첫 지진 이후, 후속 지진이 주번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중이다. 첫 지진 뒤 28시간 만인 16일 오전 1시25분 1995년 '한신 대지진'과 비슷한 규모의 지진(규모 7.3)이 터졌다. 그 뒤에도 여진은 동쪽 오이타현, 서남쪽 야쓰시로시와 우키시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오키 겐 기상청 지진해일감시과장은 "언제, 어떤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지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다. 지진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니 강한 진동에 경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지진이 일본에 파멸적인 재앙을 몰고 올 수도 있는 '아소산의 분화'와 '남해판 지진'(일본 시코쿠 아래쪽 해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지진. 이 지진이 발생하면 32만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의 전조가 아니냐는 종말론적 예측마저 제기되는 중이다. 첫 지진 이후 17일 오후 7시까지 무려 470번 이상의 여진이 이어졌다.

16일 새벽 대지진은 아소산 중턱 미나미아소무라를 강타했다. 이 지진의 충격을 이기지 못해 아소산 일부 능선이 무너져 내리며 마을의 간선도로인 아소대교를 덮쳤다. 취재진은 16일 오후 국도 57호선을 타고 서진해 마을로 접근을 시도했지만 20㎞ 앞 오즈마치 부근에서 제지당하고 말았다. 현장 경찰관은 "아소대교가 산사태로 무너졌다. 반대쪽의 다와라야마 터널이 있지만, 그것마저 붕괴됐다"고 말했다. 마을에선 2000여명의 자위대원이 투입돼 11명의 행방불명자를 찾는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취재팀은 2번째 목적지인 마시키마치로 접어들었지만, 해가 진데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도로 사정 탓에 더 이상의 근접 취재를 포기해야 했다. ▶2면으로 이어짐

마시키마치·오즈마치·구마모토시(구마모토현)

charisma@hani.co.kr

13.5 X 32.2 cm

한겨레

2016년 04월 18일 (월)
05면 정치

여소야대 이후 첫 회동…세월호법·노동법 해법 찾을까

3당 오늘 19대 마지막 현안 논의
야당 "세월호법 개정"…새누리 반대

여당·정부 "노동4법·경제법 처리"
야3당은 국정교과서 폐지 추진 뜻

총선참패로 주도권 뺏긴 새누리
일부라도 통과위해선 협상 불가피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로 정국이 뒤바뀌면서, 야당이 계속 요구해온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 쟁점법안에 여야가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8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총선 이후 첫 3자 회동을 열어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개최 및 현안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회동에서 6월 말 종료되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요청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5월 말로 끝나는 19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는 판단에서다. 20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터로 자리잡게 될 국민의당은 총선 직후부터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위한 임시국회를 제안하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특검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새누리당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18일 회동에서 이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국민의당과 공조해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게 1차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월호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감이 강해,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및 특검 요청안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등 쟁점법안 협상 가능성에 대해 "새누리당은 기존 입장에서 변함없지만 일단 회동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당내 기류가 강하다. 세월호 인양도 진행 중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회동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노동4법(파견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동4법 가운데 먼저 파견법의 경우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은 현재의 정부 원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이라며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이에 더해 파견법은 노사정위원회에 보내서 자율적 협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등 나머지 3개 법에 대해 더민주와 정의당은 독소조항을 없애는 등 여러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큰 문제와 쟁점이 없어 협의를 조금만 거치면 된다"(주승용 원내대표)며 온도 차이를 보여 처리 가능성에 좀 더 긍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의당의 이 같은 태도가 '4법 일괄처리'를 주장해온 새누리당에 타협의 명분을 줄지 주목된다.

19대 국회 쟁점과 여야 입장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세월호특별법 개정, 특검 도입		반대	찬성	찬성	찬성
노동4법 개정	파견근로자보호법 (파견 근로 대상 확대)	찬성	반대	반대	반대
	근로기준법		독소조항 제거 등 개선	협의 뒤 처리 가능	독소조항 제거 등 개선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찬성	보건의료 제외	보건의료 제외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유지	특별법 등 입법 대응	결의안 등 검토	입법 대응
테러방지법 개정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찬성	반대	반대	반대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찬성	찬성	찬성
누리과정 재정 중앙정부 책임		반대	찬성	찬성	찬성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제3의 원내교섭단체(38석) 구성에 성공한 가운데 17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실 등의 확장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정의당 대표실로 사용됐던 안쪽 벽면에 팻말막이 아직 붙어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표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보건의료 분야가 제외되면 통과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의당은 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책임론, 테러방지법 개정, 개성공단 재가동 등의 이슈에서는 여야 전선이 투렷하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에 더해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제정해야 한다며 추가 요구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야 3당은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현안은 그동안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고 총선 뒤에도 각 당 입장이 크게 바뀌지 않아 협상 전망이 밝지는 않다. 19대 국회까지는 새누리당이 원내 제1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새누리당의 협조 없이는 쟁점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18일 회동은 사실상 서로 탐색전만 벌이고, 무쟁점 법안 90여 개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총선 참패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긴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안에 주요 쟁점법안 가운데 일부라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어, 5월 초 여야가 새 원내지도부를 구성한 뒤 일부 법안 처리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경미 송경화 이세영 기자 kmlee@hani.co.kr

33.7 X 19.3 cm

한겨레
2016년 04월 18일 (월)
09면 사회

세월호 희생학생 또래들 "우린 4·16학번"

당시 고2 학생들 올 대학진학
2주기 추모식 주체적으로 동참
"진실 밝힐 때까지 세월호를 가슴 한복판에 두고 있겠다"

서울여대 16학번 고은빛(19)씨는 2년 전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도 마음껏 슬퍼하지 못했다. 학교 공부에, 대입시험 준비에 치여 세월호 참사도,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자연스레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고씨는 "대학 새내기가 되어서 보니 2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었다"며 "이제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고씨는 4월 초 '세월호 2주기 새내기선언'이란 이름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해 이러한 생각을 올렸고, 학교에서는 유인물을 돌렸다. 고씨의 제안은 알음알음 입소문을 타고 대학 새내기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동국대·서울대 등 34개 대학의 300명이 넘는 새내기들이 "목소리를 내자"고 화답했다.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밝힐 때까지 우리는 416학번입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은 지난 16일 저녁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고씨와 함께 모인 새내기들이 내놓은 답이었다. 80여명의 새내기들이 비에 젖어 글자가 번진 선언문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소식에도 눈물 참아가며 대입준비에 매달려야만 했던 우리들은 소리 내 울지 못했고 마음껏 슬퍼하지 못했습니다. 살아 돌아왔다면 봄날의 캠퍼스를 함께 누볐을 우리 친구들이 왜 살아 돌아오지 못했는지 밝혀낸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친구들을 추억하며 울 수 있을 것입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지만, 이들은 지난 2년간 꾹꾹 눌러놓고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노란 우비를 입고 발언에 나선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16학번 홍리라(19)씨는 "고등학생 때 언론을 통해서 접한 세월호 참사와 대학생이 돼 두 눈으로 마주한 세월호 참사의 실상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내년 3주기 때는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 처벌이 돼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세대 신학과 16학번 김우철(20)씨도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세월호를 가슴 한복판에 두고 있겠다"고 말했다.

스무살 청년들은 이날 저마다의 방식으로 2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들을 마음속에 새겼다. 대학에서 만화를 전공하는 16학번 새내기 6명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노란 종이에 시민들의 얼굴을 그려넣었다. 이들은 '만화인행동'과 함께 노란 리본, 배지 등을 착용한 시민 304명의 캐리커처를 그렸다. 304명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숫자다.

이날 오후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된 추모제 '외쳐봐! 우리가 더!'에서 발언자로 나선 한신대 사회과학과 전우란(20)씨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6반 이영만 학생의 초등학교 친구다. 전씨는 "20년 동안 어른들만 믿고 따르며 가만히 있었던 우리가 16학번 새내기가 됐다"며 "제 친구(이영만 학생) 어머님께서 사람들이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 것만 봐도 힘이 난다고 하셨다. 끝까지 기억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밤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과 경기도 안산 등 전국 곳곳에서 세월호 참사로 떠나간 이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주최로 열린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약속·행동 문화제'에는 1만2000명(경찰 추산 4500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경기도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도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식'이 열렸다. 4·16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월호냐'고 묻는다. 우리도 그날을 벗어나고 싶다. 그 많은 아이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이유를 밝혀내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진다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진도 팽목항에서도 추모식과 씻김굿이 진행됐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13.5 X 23.5 cm

경향신문

2016년 04월 18일 (월)
01면 종합



참혹한 강진… 사망 42명, 이재민 19만명 지진에 강타당한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미아소 일대에 16일 대규모 토사가 흘러내려 마을과 도로를 덮쳤다. 땅이 갈라지면서 산 밑에는 거대한 계곡이 생겼다. 이날 새벽 일어난 규모 7.3의 강진으로 곳곳에서 도로가 끊기고 신칸센 운행이 중단됐다.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17일 현재 42명이며 19만명 이상이 이재민이 됐다. 미나미아소(구마모토) | EPA연합뉴스

"모든 게 무너졌다… 여기가 지옥"



일 지진 최대 피해지 마시키마치를 가다

▶윤희일 특파원 1신

"새벽 덮친 강진… 살아난 게 기적"

주택 대부분 기울거나 부서져

피난소는 사람 넘쳐 차에서 노숙

급식 시작되자 100m 넘게 긴 줄

"2시간 기다려 겨우 주먹밥 2개"

'폐허의 땅'은 고요했다. 먹이를 달라는 듯 울부짖는 개 소리만이 간간이 골목길을 울렸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지진과 싸우는 사람들은 속으로 울고 있었다. 17일 오전 일본 구마모토(熊本)현 마시키마치(益城町). 지난 14일과 16일 규모 6.5와 7.3의 강진이 잇따라 덮쳐 20명이 숨진 곳이다. 주민들이 대부분 주변 피난소로 가서 마을은 텅 비어 있었다.

"90 평생 이런 난리는 처음입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목숨을 건진 게 다행이지요." 동생과 함께 망가진 집 상태를 확인하러 온 모리시마 하야코(森島早子·90)는 16일 오전 1시25분 강진이 일어났을 때를 떠올리면서 몸서리를 쳤다. 그는 지진 뒤 집 근처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노숙하고 있다. "피난소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잠조차 잘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마시키마치는 지옥이었다. 제대로 서 있는 집이 없었다. 언덕배기 목조주택은 집 바닥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고, 여러 집들이 원래의 절반 높이로 주저앉았다. 아직 무너지지 않은 집들도 길가로 기울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주민 노다 히로아키(野田弘明·56)는 "100년은 안심하고 살 것으로 믿고" 20년 전에 지은 집을 한순간에 잃었다. 그는 "사망자들은 대부분 무너진 건물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며 "당국이 가설주택이라도 빨리 지어줘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폭삭' 두 차례의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현 마시키마치의 주택가가 17일 처참히 무너져 있다. 집들이 부서지고 도로가 건물 잔해로 막히면서 마을은 폐허로 변했다. 윤희일 특파원

마시키마치 종합체육관의 피난소에는 1000여명이 몰려 있었다. 피난민들은 지난 14일 밤의 첫 지진 뒤 500회 가까이 발생한 여진으로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 있었다. 이번 지진으로 규슈 일대에서 10만4000가구가 정전됐고, 구마모토시를 비롯해 37만3600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겨 구호요원들이 급수차로 물을 실어나르고 있다.

구마모토 전역의 피난민 수가 19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곳곳에서 식량난이 벌어졌다. 전기와 가스 등 '라이프라인(생명선)'이 모두 끊긴 상태여서 피난민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내주는 구호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먹을거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변 편의점을 찾아 나서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문을 닫았거나 음식물 선반이 텅텅 비었다.

체육관 앞에서는 자위대원들이 피난민들을 먹일 주먹밥을 부지런히 만들고 있었으나 이날 분량은 400명치뿐이었다. 오전 8시 급식을 시작하기 전부터 체육관 주변에는 100m 넘는 줄이 만들어졌다. 밥을 받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아내와 아들, 딸을 데리고 사흘째 피난소 생활을 하고 있는 후지모토 다다카즈(39)는 "2시간 동안 줄을 서서 겨우 주먹밥 2개를 받아 먹었다"고 말했다.

피난소가 초만원이 되자 자동차에 비상식량과 이불을 싣고 숙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다카모토 다에코(60)는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이발소 건물이 폐허가 돼 집 앞 주차장의 차 안에서 지내고 있지만 가솔린 부족이 갈수록 심해져 노숙조차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yhi@kyunghyang.com

▶2면에 계속

23.4 X 30.5 cm

경향신문
2016년 04월 18일 (월)
01면 종합

여소야대 국회, 야 3당 '첫 합작품'은 세월호특별법 개정·국정교과서 폐기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공조'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0대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폐기를 위해 공조키로 했다.

4·13 총선 결과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를 앞두고 야권 공조가 이뤄지면서 박근혜 정부 쟁점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4면

야 3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통해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4·16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17일 "20대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나서 특조위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6월 말이면 세월호 참사 조사가 끝나는 등 특조위가 유명무실해졌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구성 후로부터 1년, 필요한 경우 6개월 연장'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특조위 활동시점을 특조위 업무가 시작된 때가 아닌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1일로 해석하고 있다.

야권은 또 2017년부터 역사교과서 검인정 제도를 폐지하고 국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 폐기를 위해 국정교과서 폐지 결의안과 국정교과서금지법 처리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더민주는 지난해 국정교과서금지법을 발의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국정교과서금지법의 경우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으로 막을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 요건(의원 200명 찬성)도 까다롭기 때문에 결의안 방식으로 여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8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한다. 야당들은 회동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경제활성화법 등을, 새누리당은 노동개혁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입장 차가 크고, 총선 직후 어수선한 시기여서 임시국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구혜영·유정인 기자 koohy@kyunghyang.com

11.2 X 17.1 cm

경향신문
2016년 04월 18일 (월)
02면 종합

사흘새 500여차례 여진… "강진 또 온다" 주민들 '공포'

폐허 된 마시키마치를 가다

▶1면에서 계속

이날 낮 마시키마치 일대에서는 전국에서 지원 나온 경찰들이 붕괴된 집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생존자 수색작업을 했다. 마시키마치를 비롯한 구마모토 곳곳은 수차례 지진으로 고립됐다. 16일 지진 피해 현장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오후 7시쯤 구마모토현 오즈(大津)시에서 미나미아소(南阿蘇) 쪽으로 가는 도로로 접어들자 경찰이 막아세우며 "현장으로 가려면 헬기를 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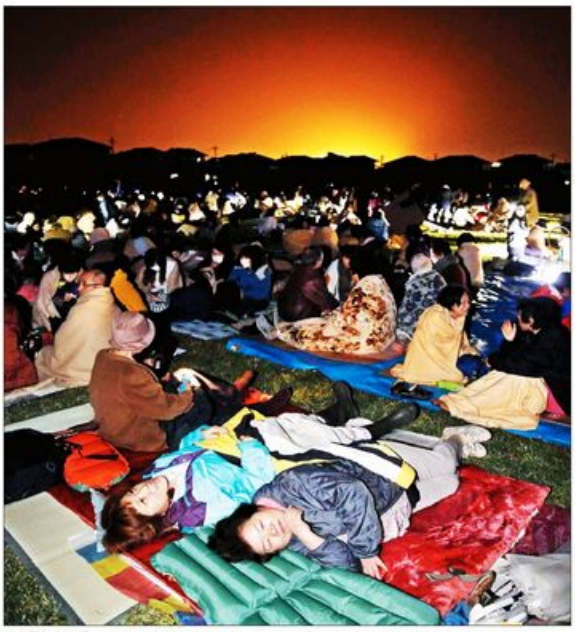
미나미아소로 가는 길목의 아소대교가 무너진 데다 우회로 터널까지 붕괴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길이 200m의 대교는 토사에 무너졌고, 땅이 갈라져 거대한 계곡이 생겨났다. 규슈신칸센과 항공편도 끊겨 후쿠오카(福岡)에서 자동차를 빌려 가야 했으나 도로가 부서진 곳이 많아 운전하는 데 애를 먹었다.

진입로가 대부분 막힌 미나미아소에서는 지난 16일 지진 이후 7명이 숨졌고 10여명이 생사불명 상태다. 아소(阿蘇)에서는 중요 문화재인 신사가 완전히 붕괴됐다. 구마모토성을 비롯한 문화재 5곳이 크게 부서졌다. 당국은 문화재 복구에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아소의 도카이(東海)대학에서는 학생 기숙사가 무너져 3명이 숨졌다.

진입로 막혀 섬처럼 고립
문화재·대학 기숙사 와르르

일본 기상청은 400년 역사의 구마모토성마저 부순 14일의 강진이 거대 지진의 전조 격인 '전진(前震)'이었으며, 16일의 지진이 '본진(本震)'이라고 발표했다. 16일 지진은 지표면 12km 아래에서 일어났으며, 1995년 한신(고베) 지진 규모의 1.4배였다. 오이타(大分)현, 후쿠오카현 등 곳곳에서 지진이 잇달았다. 14일 9명, 16~17일 33명 등 지금까지 사망자 42명이 확인됐다. 기상청은 "앞으로 1주일 동안 강진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아소 화산까지 분화해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마시키마치(구마모토)| 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노숙하는 주민들 지난 16일 규모 7.3의 강진이 강타한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 주민들이 임시대피소가 된 구마모토대학 캠퍼스에 모여 있다. 구마모토 | 교도통신 AP연합뉴스

35.2 X 20.7 cm

경향신문
2016년 04월 18일 (월)
04면 종합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과 독립성 보장 논의 '부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관련 개정안은 8건이다.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총선에서 승리한 야권이 개정 의지를 밝히면서 '부활'의 길이 열렸다.

야권이 그간 개정안에 담은 내용을 보면 향후 논의될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의 방향을 그려볼 수 있다.

국회 계류 중인 8건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중 야당이 낸 것은 7건이다. 모두 2015년 발의됐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접수만 됐을 뿐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개정안의 핵심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기간과 자율성·독립성 보장 등 두 가지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박민수·김우남·유성엽·이춘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법에 못박아 보장하려는 게 골자다. 정부·여당이 인력 배정이 제대로 안된 2015년 1월1일을 기점으로 잡아 최장 1년6개월인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 논란'을 불러온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로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것과 2017년 6월30일로 수정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나머지 3건은 지난해 7월 발의됐다. 특조위 활동 과정에서 조직운영 방식과 인력 등을 두고 정부 시행령과 계속 부딪친 데 대한 '해법' 성격이 짙다. 아예 모법인 특별법을 고쳐 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하자는 방향이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하는 국회 의결 요청안을 제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15.0 X 9.9 cm

경향신문

2016년 04월 18일 (월)
11면 사회

"아들아, 사람들이 왜 여기 나왔는지 꼭 기억해야 해"

기자메모

지난16일 오후7시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 문화제가 열린 서울 광화문광장.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다. 우비를 입었지만 빗물이 새어들어왔다. 신발과 양말, 바지까지 온통 축축해졌다. 기온도 뚝 떨어져 몸이 덜덜 떨렸다. 우산까리 부딪쳐 제대로 이동하기도 힘들었다.

그곳에 시민 1만2000여명이 모였다. 세종문화회관 계단과 KT 건물 로비가 꽉 찼다. 비와 추위를 이기고 한자리에 모인 그들의 가슴에는 노란 리본이 달려 있었다. 광화문 분향소 앞에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손팻말을 들고 있는 한 무리의 청년들이 눈에 띄었다. 젖은 팻말에는 '고맙습니다. 밝혀진 것 없는 세월호 참사에 가슴 아파하는 당신의 마음이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일본인은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건 정말로 대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과 오후 경기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기억식과 걷기대회도 시민들의 참여 열기로 뜨거웠다. 정부합동분향소에는 추모객의 줄이 하루 종일 끊어지지 않았다. 시민 4000여명은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오갔던 안산 시내길 5㎞를 그대로 따라 걸었다. 그들은 추모 행진에 미수습자 9명을 형상화한 높이 3m의 종이인형 9개를 앞세웠다. 1m 높이의 장대 위에 올라가 허우적거리며 종이인형 곁을 지킨 청년들의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됐다. 그렇지만 그들은 연신 "힘들지 않다" "계속 가야 한다"고 서로를 격려했다. 행진 대열을 지켜보던 시민들도 거리로 나와 "벌써 2년이 됐구나"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세월호 참사 2주기. 고통과 추모, 좌절과 분노는 여전했다. 그러나 1주기와 달리 희망과 기대의 분위기도 엿보였다. "2년간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절망 가운데서도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은 강했다. 유족과 시민들은 20대 국회가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보장과 특검 수사 등을 반드시 관철시켜주길 요구하고 있었다.

전명선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누군가는 잊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제는 끝내자고 끊임없이 되뇌고 주입하려고 했지만 국민들은 속지 않았다. 국민들의 위대한 힘을 봤다"며 "많은 당선자로부터 세월호 문제 해결을 약속받았다. 그 약속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송인 김제동씨는 "여기에 (국회의원) 당선자분들이 많이 오셨다"며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배지를 지키는 열정만큼 (희생자) 304명을 지키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광장에서 만난 한 가족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추운 날씨에 몇 시간 동안 마땅히 앉지도 못하는 기다림이 계속되자 초등학생 아들이 아버지에게 "집에 가자"고 툴툴거렸다. 아버지는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가 오고 추운데 여기 나왔는지를 생각해보겠니.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해. 알았지?" 세월호 진상규명, 이제 다시 시작이다.

사회부 | 이혜리
lhr@kyunghyang.com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미수습자 분향소 앞에 시민들이 추모 헌화를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궂은 날씨 속 1만2천명 모인 세월호 2주기 추모제
"20대 국회 당선자들의 진상규명 약속 확인할 것"

경향신문

2016년 04월 18일 (월)
14면 전국

8개 시·도의회 의정비 인상… 평균 5672만원

지난해보다 57만원 올려… 경기도 6321만원 최고
기초의원은 평균 3767만원… 79개 시·군·구 동결

올해 전국 17개 광역 지방의회 의원들이 받는 평균 의정비가 지난해보다 평균 57만원 오른 5672만원으로 집계됐다. 의정비가 오른 곳은 강원·경기·경북·경남·광주·전북·제주·충남 등 8곳이다. 17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2016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결과'를 보면, 올해 광역 시·도의원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각각 평균 3872만원과 평균 1800만원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올해 의정비는 지난해보다 평균 1% 올랐다.

의정비는 경기도가 6321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6250만원), 인천시(5951만원), 울산시(5814만원), 부산시(5728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17개 시·도 중 의정비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4200만원)로 나타났다. 올해 기초자치단체 의원 1인당 평균 의정비는 지난해보다 62만원이 오른 3767만원이다. 월정수당이 2447만원, 의정활동비가 1320만원이다. 기초의원 중 의정비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서울 강남구의회로 4950만원이다. 이어 수원시(4852만원), 성남시(4835만원), 서울 서초구(4781만원), 고양시(4674만원) 순이다.

서울 서초구와 경기 수원·고양·용인·안산·화성시 등 6개 시·구는 2.7%를 올려 의정비 인상폭이 가장 컸다. 79개 시·군·구는 의정비를 동결했다. 올해 일반 공무원 보수 인상률(3.0%) 수준에서 의정비를 인상하라는 행정자치부 지침을 따른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 출범 당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신분은 2006년부터 유급직으로 전환됐다. 이후 재정여건 고려 없이 의정비를 인상한다는 비판이 나옴에 따라 2014년부터는 해마다 결정하던 의정비를 4년에 한 번씩 결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이 개정됐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17개 광역 시·도의원 의정비 현황

단위: 만원

	2015년	2016년	인상률(%)
경기	6236	6321	1.4
서울	6250	6250	0
인천	5951	5951	0
울산	5814	5814	0
부산	5728	5728	0
대전	5724	5724	0
대구	5644	5644	0
충남	5412	5544	2.4
제주	5326	5460	2.5
경남	5324	5457	2.5
충북	5400	5400	0
경북	5272	5352	1.5
광주	5212	5342	2.5
강원	5100	5184	1.6
전북	4973	5093	2.4
전남	5080	5080	0
세종	4200	4200	0
(평균)	5615	5672	1.0

19.6 X 12.4 cm

경향신문
2016년 04월 18일 (월)
14A면 수도권/제주

국공립 수준의 서비스 제공 경기 '공보육 어린이집' 추진

기존 민간 어린이집 인수 수원 등 5곳서 시범 운영

경기도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준하는 보육서비스를 저렴한 보육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문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공보육 어린이집 정책은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인수한 후 소유와 관리를 맡는 형태로 추진된다.

도는 10여%에 불과한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보육 어린이집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보육 어린이집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원장이 공보육 운영방안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뒤 고용 승계될 예정이다.

도는 도내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도 평균 8.5%)이 낮은 하위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수원시(5.9%)와 의정부시(4.9%)를 1차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오는 29일까지 희망 어린이집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건물 소유 형태가 자가인 경우만 가능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대표자 변경이 없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평가 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등이다. 시범사업 참가를 원하는 민간 어린이집 대표자는 29일까지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031-220-3997)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관계자는 "9월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이 낮은 시·군 2곳을 추가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9.9 X 15.0 cm

한국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6면 정치



새누리당 김세연(왼쪽부터) 이학재 황영철 오신환 당선자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에 반대하면서 새 원내대표 선출 후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비박계 소장파 '원유철 비대위'에 정면 반기

황영철·이학재·김세연·오신환 등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돼야
당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元 "나마저 키 놓으면 배 뒤집혀"

20대 총선에서 반타작도 못한 새누리당이 총선이 끝난 지 4일이 지났는데도 쇄신의 큰 방향도 없이 난파선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모래알 논평'을 내놓고 있지만 별다른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고, 당의 주류인 친박계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를 두고 "한시적 관리 기구"로 깎아내리는 목소리가 있는 등 위기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영철·이학재·김세연·오신환 의원과 18대 의원을 지낸 주광덕 당선자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 비대위 구성'을 주장했다. 지난 14일 최고위원단이 의결한 '원유철 비대위원장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이다. 원 원내대표도 이번 총선패배에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원유철 비대위'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이들은 성명에서 "당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그가 비대위원장이 돼 당의 정비와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처절한 반성과 쇄신 없이 적당히 시간을 끄는 건 민심에 대한 반역"이라며 "적당한 변화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성명에 동참한 이학재 의원은 "새 원내대표 경선을 쇄신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 그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그것이 박근혜 정부를 성공시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총선 패배 나흘 만에야 나온 '쇄신 촉구 성명'인데, 그나마도 이름을 올린 이들은 고작 5명에 불과했다. 또 공개 비토에 직면한 원 원내대표가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해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배가 반파됐는데 파도까지 심하게 친다"며 "하지만 이럴수록 키를 잘 잡고 있어야지 나마저 놓으면 배가 뒤집힐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현재의 상황을 두고 "도대체 절박함이 없다"는 우려와 비판이 적지 않다. 과거 위기 때마다 전면에 나섰던 소장파가 사라진 데다, 쇄신의 깃발을 들고 의원들을 추동할 구심점도 없어서다. 비박계 개혁성향의 의원들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당정치가 필요하다.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꾸라는 게 국민의 뜻"(김영우 의원), "이런 폐허 속에서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한 없이 부끄럽다. 차마 국민 앞에 설 면목이 없다"(김용태 의원) 등의 '문자 논평'을 내놓는 데 그치고 있다.

2011년 말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와 여권의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연루라는 잇단 악재에 당시 유승민·남경필·원희룡 최고위원이 동반사퇴해 비대위를 세운 일이나, 2008년 18대 총선 공천에서 소장파 의원들이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의 총선 불출마를 촉구한 '55인 선언'과 같은 결기는 온데 간데 없다.

총선 패배의 한 축인 친박계도 공개적인 자성 없이 침묵하고 있다. 총선 직전 '비박 보복공천'의 역풍이 일자, 최경환 의원은 대구 지역 진박 출마자를 대동해 무릎을 꿇고 '사죄 퍼포먼스'를 벌였다. 하지만 총선 참패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친박계에선 "당의 다수가 친박이 됐으니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영남권 한 중진 의원)며 차기 원내대표나 당 대표를 저울질하는 모습뿐이다. 친박계로 전남 순천에서 3선에 성공한 이정현 의원은 당선 직후 아예 "새누리당에서 제일 먼저 당 대표에 도전한다"고 공개 선언하기도 했다. **김지은 기자**

23.9 X 24.8 cm

한국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4면 수도권

광역버스도 기차처럼 좌석 예약한다

경기도가 비행기나 기차처럼 광역버스에 좌석 예약제를 도입한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도입을 위해 지난 2~3월 김포~서울시청 8601번 노선에 출근시간 예약전용 버스 1대를 운영한 결과 만족도가 높아 사업추진을 본격 논의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좌석버스 예약제는 전국 처음이다.

버스업체, QR코드 단말기업체, 지자체 등과 논의해야 해 도입시기는 아직 미정이나 1~2년 내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광역버스 좌석예약시스템은 모바일로 원하는 날짜, 탑승 정류소, 희망좌석을 예약하고 요금은 탑승할 때 교통카드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도가 체험단 202명을 모집해 시범 운영한 결과 예약자의 절반이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등 호응이 높았다. 만족도 조사에서도 8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93%나 됐다. 예약 부도율은 17%로 철도나 항공, 시외버스와 비슷했다.

응답자들은 좌석 예약제의 장점으로 출근 때 앉아 갈 수 있고,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을 꼽았다. 특히 이용자 중 60%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 체감 출근시간이 10~20분 단축됐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버스를 탈 때 QR코드를 찍거나 회원번호를 입력하는 등 예약인증 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소요되고 비예약자가 예약 좌석에 앉아 마찰이 빚어지는 등 문제가 지적됐다.

이범구 기자

11.6 X 9.8 cm

세계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4면 정치

"이대로 가면 대선도 희망 없어… 새 인물로 새 판 짜자"

새누리 '세대교체론' 부상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총선 참패로 잠룡들 대거 내상
반기문 대망론도 회의적 시각
"기득권 세력들 뒤로 물러나고
전대서 최소한 변화 이뤄내야"
교체 주자 남경필·원희룡 거론
'따뜻한 보수' 유승민도 물망에

4·13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 안팎에서 세대교체론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까지 멀리 보고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 안팎에서 "이대로 가면 내년 대선은 희망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다.

이번 총선에서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당내 잠룡들이 대부분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는 점에서 여권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차기주자로 거론됐던 오세훈, 김문수 후보가 낙선했고, 김무성 전 대표는 총선 패배의 책임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안대희 후보 역시 기대주로 꼽혔지만 여의도 입성에 실패했다. 이번 총선은 현재 권력인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박근혜 마케팅'이 처음으로 실패한 것이자 미래권력을 상징하는 당내 대권주자들이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요약된다.

그동안 진박(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대망론도 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대망론은 반 총장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친박계가 총리를 맡아 정권을 연장한다는 구상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친박계가 진박(진실한 친박) 후보들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총선 패배 책임론에 휘말린 상황인 만큼 반 총장을 적극적으로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새 인물로 진용을 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17일 "지금 이런 식으로는 당이 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총선 이후 당의 각종 모임에서 '당 기득권 세력들이 뒤로 물러나고 새로운 인물로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당대회에서 최소한의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대권은 내준다고 보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새 인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과거 개혁·소장파 출신의 중견 정치인으로 지방정부를 운영하며 야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연정'을 시도하는 등 소통의 정치경험을 쌓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의 임기는 2018년 6월까지이지만 당헌·당규상 사퇴를 하지 않고도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당 혁신과 개혁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에서 조기 사퇴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단체장들이 실제 잠룡으로 세대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직을 던지고 중앙무대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뜻한 보수'를 내세우며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온 무소속 유승민 의원도 세대교체 주자로 거론된다. 유 의원과 무소속 연대를 한 후보들이 모두 낙마했다는 점에서 고향 대구에서 정치적 영향력의 한계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지만 총선을 거치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7일 오후 부산 암바다에서 발생한 자동차운반선 좌초 현장을 찾아 유출 기름 방제작업 현장을 둘러본 뒤 밝은 표정으로 돌아가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새누리당 원유철 비대위원장이 지난 1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정부합동분양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분향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34.8 X 13.5 cm

세계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2A면 전국

외국인 단체 관광객 '갑질'에 지자체 골머리

치열한 유치경쟁 틈타 무리한 요구 속출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지난달 말 중국 '아오란'그룹 직원 등 유커 6000명의 인천 방문을 계기로 자치단체의 단체유커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현지 기업이나 여행사들의 무리한 요구가 이어져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7일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최근 유커의 한국방문이 활발해지면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마이스(MICE, 회의·관광·전시·이벤트) 인센티브 관광단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인센티브단은 기업에서 포상을 받은 단체관광객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패키지 관광객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경기관광공사의 경우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마이스 인센티브 단체 3곳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기업의 직원 570명은 경기도 광주도예촌과 곤지암리조트, 에버랜드, 광명동굴 등 도내 유명 관광지를 방문했다. 또 이달 말까지 말레이시아 인센티브 단체 2곳에서 369명이 추가로 경기도를 방문하기로 확정됐고, 9월에는 중국의 한 인센티브 단체 1000명이 수

중국·동남아 등서 대규모 방한
도지사 공항 영접 주문하기도

원화성을 방문할 계획이다.

경기 관광 공사는 이들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현지 여행사의 요구에 따라 각종 지원금과 함께 이벤트를 마련해 줘야 한다. 주요 관광지 단체입장료 할인은 기본이고, 환영 현수막 게시와 공연, 치맥파티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또 6월 500여명 규모의 유커 단체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면서 이 단체에 치맥파티와 전통공연 등 이벤트 지원에 대해 협의 중이다. 또 베트남의 한 마이스 인센티브 단체 1400여명 유치와 관련해 비자간소화 및 방문객 에스코트, 현수막 게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지원계획은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공사는 예산까지 책정해 적극 해결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단체 방문객의 경우 여행경비를 회사 등에서 지원해 주는 탓에 여윳돈으로 방문지 물품 등을 대량 구매, 지역 관광과 경제활성화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지자체와의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도 한 이유다.

경기관광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말 인천에 아오란 직원 방문 이후 관련 업체나 여행사의 요구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관광공사의 경우 관광객 규모에 따라 1인당 1만원에서 1만5000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요구사항 해결이 안 되는 내용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관광공사와 접촉한 단체 여행사 중 일부는 행사장 인테리어 설치와 K-POP 행사옵션 이외에 도지사의 공항영접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중국 등 동남아 관광객 유치경쟁은 국내 지자체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각종 지원책을 내세우면서 국가 간 경쟁도 벌어지고 있어 대놓고 거절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28.8 X 11.0 cm

서울신문
2016년 04월 18일 (월)
08면 사회

2년 계속된 기도… "시신이라도" "온전히 선체 인양을"

세월호 참사 두 번째 추모식

시신 미수습 가족 등 2000여명

해수부 장관·野 당선자 등도 참석

세월호 참사 2주년 추모식이 지난 16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열렸다. 9명의 미수습자 가족들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등 추모객 2000여명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 천정배·주승용·박지원·박준영·황주홍·김동철·장병완·김경진·권은희·윤영일 당선자 등이 자리를 지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인 강난희씨와 비공개 일정으로 팽목항 분향소와 방파제를 방문하고 돌아갔다. 이낙연 전남지사·박홍률 목포시장·이동진 진도군수 등이 참석했다.



세월호 참사 2주년이었던 지난 16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약속·행동 문화제'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떠나간 이들을 추모했다. 연합뉴스

임시 분향소에서 헌화·묵념을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발생 2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가족 임시 숙소와 등대길을 걸으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9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시신이라도 찾아달라'고 호소해 주위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게 했다. 참석자들은 노란 풍선을 날리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세월호 선체 인양을 통한 미수습자 수습을 기원했다.

김영석 장관은 추모사에서 "정부는 세월호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인양해 아홉분 모두 여러분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단원고 학생인 미수습자 조은하양의 어머니 이금희씨는 "2년 전 이 시간에 우리 딸이 엄마를 애타게 부르고 있었을 것"이라며 "온전하게 세월호 선체를 인양해 미수습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팽목항에는 이날 수천명의 추모객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진 가운데 종교단체들의 추모 의식도 잇따랐다.

진도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1.9 X 11.2 cm

매일경제
2016년 04월 18일 (월)
31면 사회

지자체 출자기관 227개서 618개로

50곳중 38곳 자본잠식
행자부, 무분별 설립 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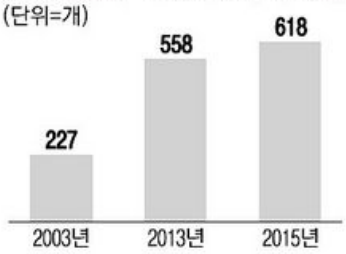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17일 행자부는 지자체에서 출자·출연기관을 새로 설립하려면 반드시 행자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4월 5일자 A31면 보도

1999년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된 이후 그동안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2003년 조사에서 227개였던 기관은 2013년 말에 558개로 늘어났고, 작년 말 기준 618개로 다시 증가해 2003년 대비 12년 만에 2.7배로 불어났다.

지자체의 조직 확대 경향에 따라 남설된 출자·출연기관은 작년 기준 연간 6조8000억원을 지출하는 비효율 덩어리가 됐다. 여기에 고용된 인원만도 2만1000명에 달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다.

실제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인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직원이 36명(2014년 기준, 임원 제외)에 불과하지만 기관장이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2014년 3672만원이나 됐다. 일반 직원 1명당 10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기관장이 지출한 셈이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증가 현황
(단위=개)



*자료=행정자치부

2014년 감사원은 50개 출자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76%인 38개 기관이 자본잠식 상태(6개 기관은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2014년 기준 전체 출자·출연기관 559개 중 72%에 달하는 403개 기관이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소규모 기관의 난립에 따른 비효율도 문제로 지적됐다.

행자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때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도는 행자부와, 시·군·구는 시도와 1차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최희석 기자

10.1 X 15.7 cm

한국경제
2016년 04월 18일 (월)
33면 사회

지자체 출연기관 설립 까다로워진다

행자부, 무분별한 난립 방지
계획부터 사전협의 의무화

앞으로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면 계획 단계에서부터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선거를 의식한 공약을 남발해 부실한 출자·출연기관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 설립 계획 단계부터 행자부와 협의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설립 타당성 검토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곳에서만 할 수 있다.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연구기관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없다. 지자체의 '입맛'에 맞는 형식적인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2003년 227개에서 2013년 말 558개로 늘어났다. 이후 2년여 만에 60개가 더 생겨 올초 기준으로 618개에 달한다. 감사원이 2014년 지방 출자·출연기관 50곳의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38개 기관이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11.4 X 8.9 cm

한국경제
2016년 04월 18일 (월)
33면 사회

세월호 침몰 당일 청와대-해경 통화 녹취록 공개돼

"보고 자료 챙기느라 구조 골든타임 놓쳐"

사고 해역 첫 도착 123함정
해경 13명 중 2명만 구조작업



세월호 침몰 당시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간의 통화 녹취록이 지상파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해경은 사고 초기 승객 구조보다 청와대에 보고할 영상과 사진을 챙기는 데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SBS는 지난 16일 방영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통해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 소속 구조 선박의 소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사건 당일(2014년 4월16일) 오전 9시36분께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함정 123정은 기울어진 배를 보고 승객들에게 빠져나오라는 방송을 하지 않았다. 123정에 타고 있던 해경 13명 중 2명만 실질적인 구조작업을 했고 11명은 구조된 승객을 끌어올리는 역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복역 중인 김경일 당시 123정 정장의 휴대폰에서는 구조 현장을 촬영한 사진 6장이 나왔다.

급박한 상황에서 구조보다 촬영에 집착한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녹취록도 공개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청와대는 침몰 선박의 이름과 도착 예정지, 몇 톤급인지 등의 정보를 요구했다. 사고 현장 영상을 요구하며 수차례 구조인원 파악을 명령했다. 정당한 절차였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구조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16.7 X 11.5 cm

머니투데이
2016년 04월 18일 (월)
18면 사회

오늘도 경유버스 1.8만대 미세먼지 내뿜는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초미세먼지의 진원지 경유버스가 전국에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1만8000여대 운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경유버스의 3분의1이 넘는 6999대가 경기·인천·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운행돼 수도권 대기질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17일 행정자치부와 중앙지방자치단체정책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국에 총 4만5223대의 버스(시내·농어촌, 시외·고속버스 포함)가 운행 중이다. 이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유버스가 1만7976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현재 모든 시내버스가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돼 현재 운행중인 버스 7482대 중 경유버스는 단 1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는 1만3609대 가운데 6731대가 경유버스로 집계됐다. 인천은 전체 버스 2285대 중 268대가 경유버스였다. 서울에는 경유버스가 없지만 경기도나 인천의 경유버스 중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버스가 6324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대기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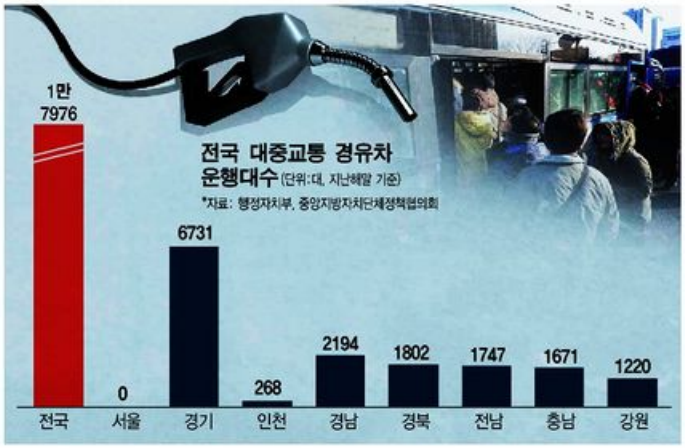
경유버스는 전국적으로도 여전히 많이 운행된다. 경기도에 이어 경남이 2194대로 두 번째로 많고 △경북 1802대 △전남 1747대 △충남 1671대 △강원 1220대 등의 순이었다. 청정지역 제주도에도 479대의 경유버스가 운행 중이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들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하는 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를 1급발암물질로 규정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경유버스가 CNG버스에 비해 오염물질을 최대 30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 등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와 질소화합물(NOx) 등 각종 수도권 대기오염 물질의 절반 이상을 배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수도권 대기 개선을 위해 약 3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중국 대기오염물질과 더불어 국내에서 운행 중인 대형 경유차의 영향으로 수도권 대기질은 최근 몇 년 새 꾸준히 악화됐다.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 41㎍/㎥(고농도 발생일수 7일)에서 △2013년 44㎍/㎥(34일) △2014년 44㎍/㎥(53일) △2015년 45㎍/㎥(11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정부도 이에 따라 지자체와 손잡고 경유차 대체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CNG버스는 총 2만2738대가 운행중이며 법정차량 연령인 9년을 기준으로 하면 매년 3026대의 신차 구입 수요가 발생한다"며 "전국적으로 낡은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점차 대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환 기자 kennyb@



경기 6731대·경남 2194대·경북 1802대 순으로 운행
서울엔 한 대도 없지만 광역버스 오가 대기질 악영향
정부 "지자체와 손잡고 낡은 경유버스 CNG로 대체"

23.5 X 15.9 cm

서울경제
2016년 04월 18일 (월)
28면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형평성에 어긋나" 아파텔 분양자 집단소송 나선다

<아파트형 오피스텔>

아파텔(아파트형 오피스텔) 분양 계약자들이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 집단소송에 나선다. 아파텔은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상품이지만건축법상업무시설로 분류돼 있어 취득세가 일반 주택에 비해 중과세 된다. 그간 업계에서 정부에 아파텔 취득세 인하를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재산세 등 주택기준 적용 불구 취득세는 업무시설로 과세" 입주자연합회 행정소송 절차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파텔 분양계약자들의 모임인 '전국아파텔입주자연합회'가 집단행동에 나섰다. 현재 회원은 약 600명으로 이 가운데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 오피스텔 소유주 182명이 취득세 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경기도청에 취득세 경정청구를 접수했다. 경정청구는 기각됐으며 현재 조세심판청구를 준비 중이다. 연합회는 조세심판청구 역시 소득이 없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텔 입주자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한 것은 현행 취득세 과세 체계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취득세는 주거용과 업무용 가리지 않고 주택 외 매매(토지·건물 등)로 분류돼 취득세 4%,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등 총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6억원 이하 85㎡(이하 전용면적) 주택의 취득세 1.1%와 비교하면 4배를 넘는 수준이다.

오피스텔 및 주택 매입 취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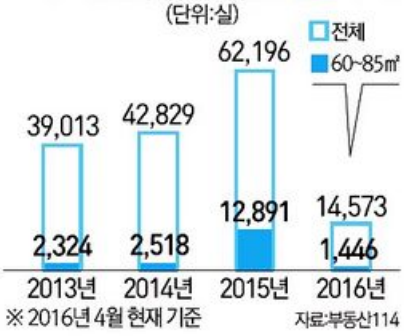
(단위:%)

오피스텔 (금액·면적 무관)		주택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4	취득세	1
0.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0.4	지방교육세	0.1
4.6	합계세율	1.1

※오피스텔은 주택 외 건축물 간주 자료:행정자치부

오피스텔 전용면적별 분양 물량 추이

(단위:실)



※2016년 4월 현재 기준 자료:부동산114

연합회 관계자는 "아파텔은 실질적인 주거 상품"이라며 "특히 재산세와 양도세 등은 주택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취득세만 업무시설로 매겨 조세실질주의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및 규제 완화 추세와도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소송을 대리 진행하는 임영준 법무법인 정곡 변호사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차별은 헌법상 규정된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본다"며 "이는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해당 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은 85㎡ 이하 바닥난방 허용과 업무공간 의무건축 규정 폐지 등 규제가 완화된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4월 현재까지 아파텔에 해당하는 60~85㎡ 오피스텔은 1만 9,179실이 분양됐다. 또 올 연말까지도 경기 일산, 고양 삼송, 하남 미사 등에서 수 천 실 공급이 예정돼 있다.

앞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업계에서도 아파텔에 대해 주택 수준의 취득세 인하와 전용 85㎡ 이상 바닥난방 규제 철폐 등을 수 차례 요구해왔다. 하지만 현재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오피스텔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건축법과 주택법으로 규정돼 있으나, 세제는 행정자치부(취득세)와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 등에 분산돼 있어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경철 부동산 1번지 이사는 "현재 인기리에 공급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학교 배정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17.6 X 21.4 cm

서울경제

2016년 04월 18일 (월)
30면 사회



남경필 지사 '경기동부 발전 방안' 모색 현장 간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상수원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경기동부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선다. 17일 경기도는 남 지사가 오는 21일 이천 샘표식품에서 이천·광주·여주·양평·가평 등 동부지역 5개 시군 시장·군수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기업인 등과 동부지역 발전 방안을 주제로 '규제현장, 도지사가 찾아 갑니다' 현장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동부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공동실천 업무협약도 체결된다.

16.5 X 3.0 cm

서울경제
2016년 04월 18일 (월)
31면 사회

아직 지워지지 않는…



꼿꼿이 자리 지키는…



세월호 참사 2주기인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비를 맞으며 2년 전의 아픔을 되새기고 있다(왼쪽 사진). 팽목항 등대 앞에도 추모객이 놓고 간 국화 한 송이가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다. /연합뉴스

주말 전국서 세월호 추모열기

광화문서 1만2,000명 참가 애도
정부합동분향소엔 '기억식' 행사
대법 페북 "그 날 아프게…" 글도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과 진도 팽목항 등 전국 곳곳에서 떠나간 이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참사 2주기인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약속·행동 문화제'에서는 1만2,000명(경찰 추산 4,500명)이 참가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거센 빗발과 강한 바람이 몰아치는 궂은 날씨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경기도 안산에 마련된 정부합동분향소에도 이날 4.16가족협의회 주최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억식'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등 각계각층에서 2,500여명이 참석했다. 안산 단원고 정문 앞에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촛불 잇기' 행사도 열렸다. 이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학교 정문 앞에서 초에 불을 밝히며 2년 전 그날의 아픔을 되새겼다.

진도 팽목항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 등을 비롯한 정치인과 추모객 2,000여명이 참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식 행사는 참석하지 않고 인근 무궁화동산에 조성된 기억의 숲을 둘러본 뒤 팽목항에 분향했다. 박 시장은 노란 추모 리본에 '이 슬픔 함께 영원히'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추모 행렬은 온라인과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이어졌다.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공식 페이스북에 세월호 사건 재판기록을 찍은 사진과 함께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이 기록의 높이와 무게, 그 이상으로 그 날을 아프게 기억 합니다"라는 글을 남기며 희생자를 추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11.5 X 21.4 cm

서울경제
2016년 04월 18일 (월)
33A면 전국

경기도 29일까지 으뜸맛집 대상업소 모집

경기도는 오는 29일까지 '경기으뜸맛집' 대상업소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맛·위생·서비스가 우수한 도내 음식점을 발굴해 도 대표 맛집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47곳을 지정했다. 경기으뜸맛집에 선정되면 경기도 맛집 브랜드인 으뜸맛집 지정판과 로고간판을 부착할 수 있으며, 매년 업소당 50만 원 이내의 위생 물품 제공,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게재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도는 올해 메뉴와 맛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경기으뜸맛집 20곳을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지난 지역 향토·특색음식 취급 음식점이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9.3 X 6.4 cm

서울경제
2016년 04월 18일 (월)
33A면 전국

경기도 내달 말까지 '착한교복' 40벌 순회 전시

경기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도내 12개 시·군에서 지난해 디자인한 '착한 교복' 40벌을 순회 전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착한 교복은 도와 도 교육청 간 교육연정 1호 사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도내 섬유업계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도내에서 생산된 고품질 섬유 소재를 활용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만든 교복을 경제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취지다. 전시회는 지난해 개발한 중·고등학생 동·하복 40벌을 선보이며 구리를 시작으로 포천, 안산, 수원, 용인, 고양 등 도내 12개 시·군을 돌며 진행된다. /윤종열기자

9.3 X 5.8 cm

서울경제
2016년 04월 18일 (월)
33A면 전국

경기농기원 2018년까지 자동비행 방제 프로그램 개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과수 병해충 방제에 적합한 드론(무인기)과 GPS를 적용한 자동비행 방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17일 밝혔다. 드론 제작에는 국내 드론 업체가 동참한다. 현재 병해충 방제에 이용되는 드론은 주로 벼농사에 활용됐다. 벼는 작물의 높이가 일정하고 잎이 세로로 자라기 때문에 방제 난이도가 쉬운 편이나 과수의 경우 횡으로 뻗은 나뭇가지의 높낮이가 다르고 활엽이 많아 드론을 이용한 효율적 방제가 어렵다. 현재 논에 활용되는 드론은 1시간에 4.9ha를 방제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

9.4 X 5.8 cm

파이낸셜 뉴스
2016년 04월 18일 (월)
27면 전국

국공립 수준 보육서비스… '경기도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이르면 다음달 첫 선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준하는 보육서비스를 저렴한 보육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을 이르면 5월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수원시와 의정부지역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참가 어린이집을 모집한다.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은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인수, 소유와 관리를 맡는 형태로 추진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원장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보육 운영방안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토록 한 후 고용 승계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건물소유형태가 자가, 전세, 월세 모두 가능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한 시설,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대표자 변경이 없었던 시설,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 등이다.

시범사업 참가를 원하는 민간어린이집 대표자는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으로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jjang@fnnews.com

15.3 X 8.0 cm

아주경제
2016년 04월 18일 (월)
22면 지역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선뵌다

수원·의정부 1차 시범사업 추진
29일까지 참가할 어린이집 모집

경기도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보육서비스를 저렴한 보육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와 관련, 오는 29일까지 수원과 의정부시 소재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참가할 어린이집을 모집한다.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은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인수한 후 소유와 관리를 맡는 형태로 추진된다.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원장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보육 운영방안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고용 승계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건물소유형태가 자가인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한 시설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대표자 변경이 없었던 시설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행정처분(단, 시정명령 제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등이다.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참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심의 등 선정절차를 거쳐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각각 1개소씩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공보육시범사업 추진단(031-220-3997)으로 전화,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앞서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지난달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을 설치하고 지난 15일 경기도인재개발원(수원)에서 1차 설명회를 열었으며, 19일에는 의정부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2차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평균 8.5%)이 낮은 하위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 중 수원시(5.9%)와 의정부시(4.9%)를 1차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것"이라며 "오는 9월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이 낮은 시·군을 대상으로 2개소 시범사업 어린이집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kmg1007

11.1 X 15.3 cm

아주경제
2016년 04월 18일 (월)
22면 지역

경기도 '착한 교복' 40벌 순회 전시

경기도는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도내 12개 시·군에서 지난해 디자인한 '착한 교복' 40벌을 순회 전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착한 교복은 도와 도 교육청 간 교육연정 1호 사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도내 섬유업계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도내에서 생산된 고품질 섬유 소재를 활용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만든 교복을 경제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취지다.

전시회는 지난해 개발한 중·고등학생 동·하복 40벌을 선보이며 구리를 시작으로 포천, 안산, 수원, 용인, 고양 등 도내 12개 시·군을 돌며 진행된다.

전시 장소는 시·군청 로비나 여성회관 등으로, 도는 학교 행사와 연계해 관심도를 높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순회 전시는 우수 기능성 원단, 최신 디자인, 경제적 가격 등 착한 교복의 장점을 알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36벌의 디자인을 새로 개발할 계획으로, 착한 교복으로 가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천 기자 pjc0203@

10.9 X 8.0 cm

아주경제

2016년 04월 18일 (월)
23면 사회

"미안해 … 기억할게… '침몰된 진실' 꼭 밝힐게요"

르포 세월호 2주기 단원고를 가다

2학년 1~10반 사고당시 모습 보존
수많은 인파 오고가도 적막한 풍경
주민·유가족·재학생 빈교실 찾아

같은 날 인천 부평 인천가족공원도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일반에 공개



세월호 참사 2주기인 16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교실에서 한 남성이 희생된 학생들의 자리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조득균 기자]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모두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 2주기인 지난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고교로 가는 길목은 노란 빛으로 물들었다. 희생자를 애도하는 노란 현수막과 리본이 가로수마다 내걸렸다. 지금도 이곳은 슬픔을 머금고 있었다.

단원고 정문 앞에서는 자원봉사자가 국화꽃을 나눠주며 추모객을 맞았다. 학교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정문 밖을 나서는 추모객들 모두 슬픔에 잠겨 고개를 떨궜다.

주민 김진아씨(29)는 "주변 분위기가 조용하고 엄숙하다. 해맑게 웃고 떠들던 아이들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학교 건물은 변함이 없었다. 단원고 본관 2층과 3층의 2학년 1반부터 10반까지는 사고 당시의 교실 모습이 그대로 보존됐다. 복도 창문과 교실 벽면에는 '무사히 돌아오세요' '우리는 아직도 널 기다리고 있어' '많이 보고 싶어'란 희생자와 실종자에게 전하는 쪽지들로 가득했다.

명예 3학년 2반 교실 앞에서 수많은 추모객들 가운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던 고교생 이윤지양(18)은 "많이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언니, 오빠들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라며 눈물을 훔쳤다.

2학년 5반 희생자 김건우군의 아버지 김광배씨(51)는 "우린 아직도 2014년 4월 16일을 잊을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단원고에서 약 4㎞ 떨어진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정부합동분향소 역시 헌화를 기다리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어린 학생부터 자녀와 함께 들른 시민, 지팡이에 의지한 어르신까지 2년 전 그날을 잊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비가 왜 안 오나 생각했었는데 어김없이 내렸다"며 "유가족을 비롯해 몇몇 추모객들은 비가 오면 하늘에서 아이들이 흘리는 눈물이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이 일반에 선보였다. 추모관은 대지 1497㎡(연면적 504㎡),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 '영원히 빛나라'란 의미가 담긴 추모관, 전시관, 안치단, 제례실, 유족대기실, 추모탑 등이 배치됐다.

전체 희생자 중 단원고 학생과 교사를 제외한 일반인 41명의 봉안함이 현지에 안치됐다.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 3명과 단원고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 남겨진 고인 1명은 빠졌지만, 이들 영정과 위패는 추모관에 함께 자리했다.

사고 당시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서 "왜 구명조끼를 입지 않느냐"는 한 학생의 말에 "너희들이 다 구하고 나도 따라갈게"라며 구조활동을 멈추지 않은 승무원 고 박지영씨, 아내에게 유선으로 "지금 아이들 구하러 가야 해. 통장에 있는 돈으로 아이들 학비 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고 양대홍 사무장의 봉안함도 추모관에 안치됐다.

유가족 이모씨(36)는 "희생된 사촌동생의 넋을 기리려 이곳을 찾아왔다.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수심 45m 깊이에서 길이 145m 선체를 절단치 않고 옮기는 세월호 인양이 선수(뱃머리) 들기와 리프팅 프레임 설치 등 고난도 공정에 돌입했다. 해양수산부는 마무리를 올해 7월 목표로 잡았다. 미수습자 유실 방지 차원의 철제펜스 36개 설치도 마쳤다.

조득균·유선준 기자 chodk2001@

27.1 X 27.6 cm

경인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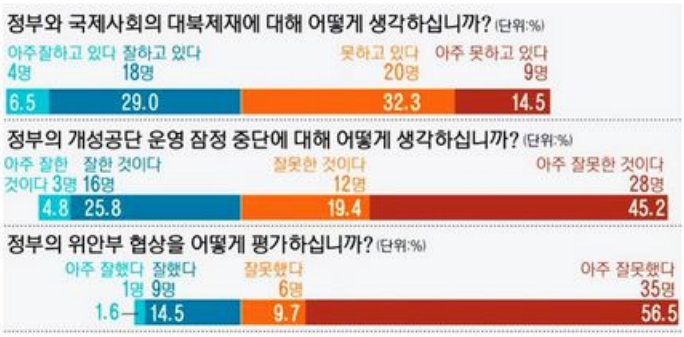
2016년 04월 18일 (월)
01면 종합

64.6% "정부, 개성공단 중단 잘못"

선택 4·13 경인지역 당선자 설문조사

>1< 정치·외교분야

경인일보사는 경기·인천지역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국정 철학, 현정부의 정책,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해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정부의 대북정책 등 외교, 노동·교육문제, 지역현안·경제문제 등 3차례로 나눠 당선자들의 의견을 게재할 예정이다. | 편집자주



경기·인천지역 20대 총선 당선자들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픽 참조·관련기사 3면

경인일보사가 총선이 끝난 직후 경기·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개성공단 운영 잠정 중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4.6%(아주 잘못한 것이다 45.2%, 잘못한 것이다 19.4%)가 잘못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잘한 것이라는 비율은 30.6%(잘한 것이다 25.8%, 아주 잘한 것이다 4.8%)에 불과했다. 무응답은 1.6% 것으로 조사됐다.

위안부협상은 66.2% 부정적 반응
아주 잘못 56.5%—잘했다 14.5%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46.8%(아주 못하고 있다 14.5%, 못하고 있다 32.3%)로 집계됐으며 잘하고 있다는 반응은 35.5%(잘하고 있다 29.0%, 아주 잘하고 있다 6.5%)에 불과했다. 무응답 3.2%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과 타결한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비중이 66.2%(아주 잘못했다 56.5%, 잘못했다 9.7%)로 반수 이상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잘했다는 의견은 16.1%(아주 잘했다 1.6%, 잘했다 14.5%)로 미약했다. 평가를 유보한 보통이라는 응답은 16.1%이다.

바람직한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51.6%가 '4년 중임 대통령제'라고 답했고 이원집정부제(19.4%), 무응답(14.5%), 현행 대통령제(8.1%), 내각제(6.5%) 등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경기·인천 지역 20대 총선 당선자 73명 중 62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전사인기자 cool@kyeongin.com

23.5 X 13.7 cm

경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1A면 종합

따복기숙사 논란 법정분쟁 비화

공모 탈락 B사, 道 상대 '임시지위보전 가처분신청서' 제출

道, B사-심사위원간 커넥션 의심

경기도가 '따복(따뜻하고 복된)기숙사' 설계업체 선정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심사배점 기준을 무시한 채 특정항목을 임의로 '0'점 처리해 선정업체가 뒤바뀌었다는 의혹(**경인일보 4월15일 자 1면 보도**)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따복기숙사건립 설계용역 제안공모'에 응모했다가 탈락한 B사는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를 상대로 '임시지위보전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B사는 가처분신청서에서 "경기도가 '설계공모지침서에서 정한 배점기준'에 따라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이 2건 미만일 경우 최하점인 6점을 주게 돼 있는데, 담당공무원은 유사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업체를 임의로 '0'점 처리했다"며 "이는 경기도가 정한 세부평가기준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당선자선정 지침에서 관련 근거로 제시한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도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으로 당연무효의 행위다. 경기도가 A사와 설계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는 B사야말로 문제가 있다며 심사위원과 해당 업체의 커넥션 여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난 7일 오후 4시 20분에 심사를 마쳤는데, 10분 뒤 탈락업체로부터 항의 전화가 걸려왔다"며 "이는 해당 업체와 심사위원 간 사전에 커넥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업체와 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은 스스로 심사에서 빠져야 한다'는 관련 지침을 어긴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공모에 선정된 A사와 아직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B사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 15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따복기숙사 설계용역 착수 보고회'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11.7 X 13.8 cm

경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1A면 종합

고속화도로 빈 땅에 '태양광 발전시설'

<제3경인>

道 '공유적 시장경제' 일환 추진

경기도가 '공유적 시장경제'의 일환으로 시흥에서 인천 연수구를 잇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빈 땅에 '경기도형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키로 했다.

도는 17일 월곶JC, 연성IC 등 제3경인 고속화도로 구간 곳곳에있는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는 방안을 제기했다. 면적만 모두 8만㎡에 달하는데, 도가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민간업체는 태양광 시설을 지어 수익을 올리고 도민들은 여기에서 얻은 전기를 활용하는 '상생 발전'의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이다.

남는 땅 8만여㎡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모두 들어서면 연간 6천680만㎿의 전력이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1천700세대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도는 이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세우는 업체가 전력 판매 등을 통해 연간 최대 12억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태양광이라는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해 탄소 발생량도 연간 2천900 t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민선 6기 정책으로 중점 추진하는 '공유적 시장경제'와 맞닿아있는 것은 물론,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늘리겠다는 '에너지 비전 2030'과도 맞물려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오는 10월이면 업체들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 행정적 절차에 바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이 경기도형 공유경제 모델 중 하나로서 자리 잡으면 다른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도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3.5 X 5.2 cm

경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2면 종합

교통·상권 구석구석 '돋보기'

인천시 '빅데이터 정보화 전략' 용역 8월 마무리

인천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략계획을 세운다.

인천시는 다음달 중 '빅데이터 정보화 전략계획 및 민원데이터 분석' 용역에 착수해 올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빅데이터 정보화 전략계획에는 시가 내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할 빅데이터 구축 사업과 활용 방안, 시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현황 분석 등을 담을 예정이다.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문자·숫자·그림·위치 등의 정보 중 규모가 매우 크고 순환 속도가 빨라서 기존에는 수집·분석이 어려웠던 정보를 뜻한다. 시는 이 가운데 교통, 상권, 공동주택 등 시민 생활과 연관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 수집·분석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인천시 미추홀콜센터를 통해 수집된 민원들을 분석해 기관·분야·특정 시점별 민원 발생량을 예측하고 각 정책에 대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

시는 최근 지도 중심의 지리정보시스템(GIS) 플랫폼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국내 이동통신사의 내국인과 외국인 휴대전화 위치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해 인천 주요 관광지 이동 현황 등을 처음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시 빅데이터 관련 인력과 예산 등이 경기도나 서울시보다 현저히 적어 실적이 부실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빅데이터를 전담하는 부서(인력 15명)와 빅데이터 수집·분석 전문조직(인력 15명)을 별도로 만들었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만 예산 52억3천만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주요 업종 상권 분석' 등 11개 사업을 추진했다. 인천시 빅데이터 담당 인력은 3명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 빅데이터 정책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빅데이터를 이용해 시정 현안을 분석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빅데이터 공공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10.1 X 18.5 cm

경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2면 종합

해외진출 '청년 도전' 경기도가 돕는다

기업·공공기관 등 취업 중점 지원 '민선 6기 핵심사업'

15억 투입 60명 선정… 정부사업 연계·국비지원 모색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추진하는 경기도가 올해 청년들의 해외 취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해외 취업 지원의 성과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선 6기 핵심 사업으로 해외 취업을 중점지원할 예정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경기 청년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은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한 후 지원 대상 국가의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도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지난해 이 사업을 처음 실시했던 도는 올해 미국과 캐나다, 중국, 일본, 호주 등 5개국에서 취업하기 원하는 청년들의 진출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도 예산 7억원을 투입했던 지난해에는 만 34세 미만 청년 45명 중 15명이 미국, 23명이 캐나다, 7명이 중국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지원을 받은 청년 모두가 취업에 성공했다. 3개 국을 통틀어 물류·유통 업계에 취직한 경우가 23명(미국 14명·캐나다 4명·중국 5명)으로 가장 많았고, IT업계(2명·캐나다)나 의류업계(1명·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도 있었다. 청년들은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고 경기도는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윈·윈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이에 도는 올해 필요한 비용 15억원을 확보해 지원 대상을 6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청년 해외 취업 지원 사업(K-Move)과 연계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는 해외 취업을 지원받는 청년들이 현지에서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고 취업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현지 대학 문화교류학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원 대상 국가에 해외 진출 센터를 마련해 현지 공공기관·기업협의회·민간 전문과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 청년들을 지원해왔다.

/강기정기자 kanggi@kyeongin.com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싱가포르 엑스포에서 열린 '2016년 국제 식품 및 호텔 박람회'에서 바이어들이 국내 참가기업의 부스를 둘러 보고 있다. /경기중기센터제공

25.5 X 18.0 cm

경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2면 종합

경기중기센터, 싱가포르 엑스포서 성과

<국제 식품 및 호텔 박람회>

휴레드 등 10개사 파견 737만6천 달러 상담 실적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경기중기센터)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싱가포르 엑스포에서 열린 '2016년 국제 식품 및 호텔 박람회'에 휴레드 등 총 10개사를 파견해 119건의 상담과 737만6천 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국제 식품 및 호텔 박람회'는 35년 역사의 아시아 최대 국제 식음료, 식자재 및 호텔 용품 박람회로 총 71개국에서 3천198개사가 참가했으며, 4만여 명의 바이어가 방문했다.

이번 박람회 참가 지원은 국내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 등 아시아 신흥 시장 공략을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 기업들은 9만4천 달러의 현장 계약도 체결하는 등 현지 바이어들과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안양시 소재 커피 용품 제조업체인 휴레드는 국내 커피 용품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가운데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처음으로 해외 박람회에 참가했다. 휴레드는 말레이시아 D사와 독점 계약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15만 달러의 거래가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싱가포르 L사와 베트남 I사와도 각각 15만 불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

경기중기센터는 올해 하반기에 다양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 또는 경기중기센터 전시팀(031-259-6124~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15.3 X 9.3 cm

경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2면 종합

'경기 으뜸맛집' 선정

도, 29일까지 대상업소 모집

로고 부착·위생물품 등 제공

경기도는 오는 29일까지 '경기으뜸맛집' 대상업소를 모집한다.

경기으뜸맛집 선정사업은 맛, 위생, 서비스가 우수한 도내 음식점을 발굴해 대표 맛집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6년부터 추진돼 현재 147곳이 지정돼 있다.

경기으뜸맛집에 선정되면 지정판과 로고 간판을 부착할 수 있으며, 매년 업소당 50만 원 이내의 위생 물품 제공, 도 홈페이지(www.gg.go.kr) 게재 등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다.

도는 올해 메뉴와 맛, 위생관리, 영업장 환경, 좋은 식단 이행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20곳을 경기으뜸맛집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된 지역 향토·특색 음식 취급 음식점이다.

희망 업소는 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29일까지 관할 시·군 위생관련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031)8008-3673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4.9 X 16.3 cm

경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3A면 종합



2016년 경기도 시·군 의회 의정비

자치단체명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당)	
경기도	6천321만원	광주시	3천882만원
수원시	4천852만원	김포시	4천270만원
성남시	4천835만원	이천시	3천959만원
고양시	4천674만원	구리시	3천948만원
부천시	4천599만원	양주시	3천952만원
용인시	4천491만원	안성시	3천747만 원
안산시	4천625만원	포천시	3천751만원
안양시	4천479만원	오산시	4천32만원
남양주시	4천506만원	하남시	3천941만원
의정부시	4천48만원	의왕시	3천951만원
평택시	4천106만원	여주시	3천723만원
시흥시	4천378만원	동두천시	3천672만원
화성시	4천556만원	양평군	3천572만원
광명시	3천936만원	과천시	4천49만원
파주시	3천732만원	가평군	3천347만원
군포시	4천96만원	연천군	3천403만원

경기도의원 6321만원 '연봉 톱'

광역의회중 1위 기록… 2위는 서울 6250만원

도내 시군의회 상당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아

경기도의원들은 전국 광역의원들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6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결과'에 따르면 도의원들이 받는 올해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는 6천321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다. 지난해보다 1.4% 오른 것으로, 전국 광역의원들이 받는 평균 의정비(5천672만원)보다 649만원이 많다.

서울시의원들의 의정비(6천250만원)가 그 다음으로 많았고, 세종시의회(4천200만원)가 가장 적었다.

경기지역 시·군의원 상당수도 전국 기초의원들이 받는 평균 의정비(3천767만원)보다 더 높은 액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31개 시·군 중 22개 시·군의회의 의정비가 전국 기초의회 평균 액수보다 높았다. 수원시의회의 의정비(4천852만원)는 서울 강남구의회(4천950만원)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성남시의회(4천835만원)는 세번째로 높았다. | 표 참조

특히 수원·고양·용인·안산·화성시의회는 지난해보다 의정비를 2.7% 올려, 전국 기초의회 중 가장 인상률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내 기초의회중 가장 적은 의정비를 받는 곳은 가평군 의회로 3천347만원이다. 뒤를 이어 연천군의회(3천403만원), 양평군의회(3천572만원)의 의정비도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경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3A면 종합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설립땐 기획단계부터 정부협의거쳐야

행자부, 기준 오늘부터 시행
지역 자율성 저해 우려 제기
경기도주식회사등 추진 난항

앞으로 경기도가 비용을 출자·출연해 공공기관을 설립하려면 계획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산하기관을 설립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지역 특성에 맞게 지자체가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부분에 제약을 둬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가 경제·문화 등 지역별 특성에 맞게 각종 정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조례를 제정해 설립하는 주식회사·재단법인 등을 의미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와 같은 광역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세우려면 행정자치부와 계획 단계에서부터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군은 광역단체와 1차 협의를 하도록 했다. 또 설립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기관이 아닌,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신규 기관을 조성하려면 기존 공무원을 감축하는 계획도 함께 수립토록 했다.

이때문에 경기도가 현재 구상 중인 '경기도 주식회사' 등을 실제 추진하는 일 역시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현재 경기도와 도교육청, 시·군이 세운 출자기관은 (주)킨텍스 등 6곳, 출연기관은 경기평생교육진흥원·농림진흥재단 등 94곳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최다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17.6 X 9.3 cm

경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3A면 종합

도지사—총선당선자 25일 상견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다.

경기도는 오는 25일 오후에 '굿모닝하우스(옛 도지사 공관)'에서 20대 총선 당선자들과 상견례를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해 남지사가 '연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결과에서도 더민주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다수 당선됨에 따라 남지사가 총선 당선자들과 도정 협력방안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5.8 X 7.7 cm

경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3A면 종합

道, 장애인 인터넷 정보통신보조기기 690대 지원

경기도가 장애인의 원활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 84종의 정보통신보조기기 690대를 지원하기로 하고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시각, 청각,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정보이용을 돕는 장비로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홈페이지(www.at4u.or.kr) 또는 거주지관할 시·군 접수처로 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6월 16일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와 시군 접수처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11.5 X 7.5 cm

경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6면 정치

오늘 3당 원내대표 첫 만남 '20대국회 전초전'

19대 쟁점법안 놓고 '신경전'

새누리 "민생법안 반드시 통과돼야"

더민주 "받아들일 수 없다" 선 긋기

국민의당, 중재역할 할지 여부 주목

정당별 '간보기'식 눈치싸움 관측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총선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19대 국회임기 내 임시국회 개최 여부와 쟁점법안 처리 등에 관해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회동은 기존 양당 체제에서 3당 체제로 전환된 20대 국회의 전초전 성격을 띨 것으로 예상돼, '미리 보는 20대 국회'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마련되는 회동 자리에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포함해 정기국회 막판까지 여야를 대치하게 했던 쟁점 법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논의의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19대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처리되지 못한 쟁점법안들은 여전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협상 전망이 밝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여전히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최소한의 민생법안인 만큼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결과는 무리한 법안을 '경제활성화'나 '테러방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호도한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며 협상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더욱이 국회가 3당 체제로 전환된 데 따른 정당별 역학 구조의 변화는 더욱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보다는 '간보기'형태의 눈치싸움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양당의 대치 구도 속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 중재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주목된다. 국민의당의 역할에 따라 쟁점법안 처리 문제가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19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이 있을 것"이라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총선 참패로 협상테이블에서 수세에 몰린 여당과 기세등등해진 두 야당 간 첫 만남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종·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3.5 X 10.0 cm

경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4면 스포츠

수원시, 도지사기 생활족구 7연패

수원시가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족구대회 1부에서 7연패를 달성했다. 수원시는 17일 가평군 조종생활체육공원에서 막을 내린 대회 1부 종합에서 장년부 우승과 일반부 준우승, 여성부 3위 입상에 힘입어 총점 18점을 획득, 부천시(14점)와 평택시(12점)를 누르고 7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2부에선 이천시가 총점 23점으로 지난해 우승팀 여주시(14점)와 군포시(11점)를 제치고 2년 만에 종합 1위를 탈환했다.

5.8 X 6.7 cm

경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5면 스포츠

'스포츠 복지' 대학봉사단 발대

경기도체육회 '스포라이트' 위촉식
6개 대학·80여명 정기적 재능기부

스포츠 복지 문화를 선도할 경기도체육회대학자원봉사단인 'SPOLIGHT'(스포라이트)가 15일 오후 수원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경기도체육회 최규진 사무처장, 강병국 총괄본부장, 1기 단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발대식에는 위촉장 수여 및 축사, 사업소개, 단원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과 정기적인 재능기부를 위해 시행되는 스포라이트는 올해 처음 자치기구를 조직해 기획·홍보·총무부로 나뉘어 자발적인 활동을 펼치게 된다. 올해는 경기대, 경민대, 명지대, 용인대, 한경대, 한양대 등 6개 대학 80여 명의 체육 관련 학생들이 참여했다.



/경기도체육회 제공

이들은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 외에도 도내 체육관련 행사에 참여하고,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스포츠를 통한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로 성장하게 된다.

최 처장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속적인 나눔과 실천은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라며 "여러분들이 행복한 우리 사회를 구현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서문을 대표 낭독한 김아현(한양대 4년) 기장은 "앞으로도 경기 체육 발전을 위한 자기 주도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17.6 X 11.4 cm

경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5면 스포츠

서현고 안덕진 레슬링 2관왕

▲레슬링='기대주' 안덕진(성남 서현고)이 제41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안덕진은 14~16일 문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남고부 자유형 63kg급 결승에서 같은 팀 이재원을 누르고 우승한 뒤 그레코로만형 63kg급에서도 팀 동료 이인재를 꺾고 금 2개를 목에 걸었다.

남고부 그레코로만형 69kg급선 이영진(경기체고)이 결승에서 최대석(홍익디자인고)을 누르고 정상에 올랐으며, 그레코로만형 69kg급에선 한운호(파주 봉일천고)가 우승했다.

남중부에선 황태규(성남 문원중)가 자유형 69kg급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김주성(부천 역곡중)은 자유형 76kg급에서, 김도훈(수성중)은 그레코로만형 58kg급에서 각각 정상에 올랐다.

11.6 X 8.7 cm

경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5면 스포츠

김광위·박성준 개인·단체전 석권

▲씨름=김광위, 박성준(이하 수원 동성중)이 제41회 도학생체전에서 나란히 2관왕에 올랐다. 김광위는 14~15일 수원 한조씨름전용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소장급(65kg급) 결승에서 황선하(용인 백암중)를 2-0으로 꺾고 우승했고, 박성준도 청장급(70kg급) 결승에서 같은 팀 신재영을 2-0으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김광위와 박성준은 단체전 결승에서도 성남 야탑중을 4-3으로 누르고 팀이 우승을 하는데 견인, 개인·단체전을 모두 석권했다.

초등부에선 이혁주, 사유진(이상 용인 초)이 역사급(70kg급)과 청장급(50kg급)에서 각각 우승했고, 단체전에선 성남 제일초가 남양주 평내초를 4-2로 꺾고 우승했다.

11.6 X 8.7 cm

경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5면 스포츠

창곡중·매원중 하키 도대표 선발

▲하키=성남 창곡중이 제41회 도학생체전 남중부에서 우승했다. 창곡중은 지난 15일 성남하키장에서 열린 대회 남중부 결승에서 성남 성일중을 4-1로 누르고 우승했다. 제45회 전국소년체전 2차 선발전을 겸해 치른 이번 대회에서 승리한 창곡중은 지난 3월 1차 선발전에 이어 2연승으로 도대표에 선발됐다. 여중부에선 수원 매원중이 소년체전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5.7 X 6.2 cm

경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6면 문화

'행복한 경기옛길' 제안공모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민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경기옛길에 반영하고자 '행복한 경기옛길 만들기 제안 공모'를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실시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는 경기옛길 관련 건의사항을 수집하고 향후 운영 방안에 반영할 목적으로 기획됐다. 도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대상(1명·온누리상품권 10만원), 최우수상(2명·온누리상품권 5만원), 우수상(5명·온누리상품권 3만원), 아차상(10명·온누리상품권 5천원)을 선정한다.

'행복한 경기옛길 만들기 제안 공모'는 올해 9월 한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문화포털(http://www.ggcf.or.kr)에서 '공모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한 후 경기옛길 공식 이메일(ggoldroad@naver.com)로 보내면 된다.

한편, 경기옛길은 조선시대 실학자인 신경준이 1770년 집필한 '도로고'에서 언급된 총 6개의 길(삼남로·의주로·영남로·강화로·경흥로·평해로)을 기반으로 경기도와 관련 지자체, 경기문화재단이 힘을 합쳐 조성한 탐방로다. 현재는 삼남길·의주길·영남길이 개통, 운영 중이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4.9 X 16.9 cm

경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6면 문화

이솝우화·고전소설의 만남

뛰는 토끼위에 나는 거북이



사진/경기도문화의전당 제공

경기도문화의전당 국악당은 오는 20일부터 7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마다 국악아동극 '뛰는토끼 위에 나는거북이'를 공연한다.

이솝우화 '토끼와 거북'과 우리 고전소설 '별주부전'을 모티브로 한 이번 공연은 단순히 무대 위 작품을 관람하는 일방적인 공연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배우며 놀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아이들은 이야기꾼과 함께 토끼와 거북이를 만나러 떠난다. 거북이가 살고 있는 용궁에서는 용왕이 탈모에 걸려 목숨이 위태롭다.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은 토끼의간이라는 신하의 말을 듣고 거북이가 토끼를 찾으러 육지로 떠난다.

흥이 넘치는 이야기꾼이 각종 화려한 마술과 탈춤 장단으로 관객의 흥을 돋운다. 또한 아이들에게 익숙한 동화를 국악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친밀감도 더해준다.

공연관람 20분 전에는 '소통공연'을 통해 전통악기 소리 들어보기, 장단 배우기, 국악동요 배우기 등 국악을 경험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관람 후에는 배우들과 함께 포토존에서 기념사진도 찍고 투호, 굴렁쇠, 제기차기, 줄넘기, 징, 북 등 전통놀이와 전통악기 체험을 할 수 있다. 티켓 어린이 2만원 성인 1만원. 24개월이상 관람가. 문의: (031)289-6421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15.1 X 12.3 cm

경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7면 문화

경기도의 매력, 빛고을에 통했다

경기관광공사, 전라도·광주 '관광박람회' 주말 3만여명 발길 대성황



시군 홍보관 부스 전경, 공사-코레일 광주본부 업무협약, 박람회에 참석한 '태양의 후예' 파티마(왼쪽부터). /경기관광공사 제공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주말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한 '경기관광박람회'가 3만 여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관광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경기도의 다양한 관광상품을 전라도 및 광주 지역민에게 알리기 위해 열린 이번 박람회는 맛 체험관과 시군 홍보관 등 일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B2C(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분야 뿐 아니라 코레일 광주본부와의 업무협약, 여행상품 할인 판매·상담 부스 등 관광 비즈니스 분야(B2B) 모두에서 도의 관광지를 지역에 널리 알렸다는 평가다.

맛체험관·시군 홍보관… 다양한 부대행사도

코레일과 협약 '태양의 후예' 여행상품 검토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경기관광박람회를 열고 에버랜드 천원 이벤트, 드라마 '태양의 후예' 체험, 경기도 맛 3대 천왕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했다. 주말에는 개막 30분 전부터 수십 명의 관람객이 행사장 입구에서 줄을 서기도 했고, 특히 매일 3차례 진행된 에버랜드 이용권 천원 이벤트는 시작부터 줄이 100m를 넘어서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도 홍보관의 드라마 '태양의 후예'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드라마 명대사 캘리그라피, 드라마 공식협찬사 (주)유성금속이 제공한 드라마 소품 전시, 극 중 빨강장미 파티마 역의 자이온 등장 등으로 관람객의 관심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또 관광 홍보대사로 위촉된 탈북미녀 3인방 신은하, 김아라, 한송이는 경기도 맛 3대 천왕 코너에서 북한음식을 직접 조리하며 관람객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기도 했다.

열차 관광상품 출시를 위한 경기관광공사·코레일 광주본부 간 업무협약도 열렸다. 협약에 따라 코레일은 경기도 여행상품 개발과 판매를, 공사는 상품 홍보와 마케팅 등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도와 코레일은 '태양의 후예' 촬영지인 캠프 그리브스를 포함한 경기 북부 열차 여행 상품의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관광박람회가 예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면서 경기도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앞으로 관과 민간이 더 많이 참여 해 실질적 파급효과를 가진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람회 관계자는 "지방 특성상 경기관광박람회 규모의 제대로 된 여행 박람회를 만나볼 기회가 없어 주변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이번 박람회에 더 많은 관람객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계기로 경기도와 전라도 및 광주지역 모두의 관광자원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준우기자 junwoo@kyeongin.com

17.6 X 23.6 cm

경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20면 수도권

북부 경기 문화창조허브 디자인·제조업융합 공모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는 '2016 MDC 공동창작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공동 설립한 북부 문화창조허브는 공동창작 프로젝트를 통해 디자인·콘텐츠 스타트업과 제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 융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을 위해 융합아이디어 공모전과 스타트업 융합아이디어 제작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융합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상금 규모는 2천만원이다.

융합아이디어 제작지원프로젝트는 경기 북부지역 제조기업 기술을 바탕으로 디자인·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총 2억3천만원이며 기업당 최대 3천만원이다. 프로젝트에는 필룩스와 위코홀딩스 등 경기북부 소재 제조기업 10개사와 디자인 전문기업 '브로스앤컴퍼니(주)', '(주)고스디자인'이 참여한다.

신청은 오는 5월 20일까지며 '융합아이디어 공모전'은 이메일 접수(mdc@gdca.or.kr), '융합아이디어 제작지원 프로젝트'는 북부 문화창조허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4.9 X 17.9 cm

경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22면 사회

416교육원 미뤄진 약속… 갈곳잃은 기억교실

건립예산 지원여부 결정안돼 협약식 연기… 유가족 '싸늘'

안산 단원고등학교 기억 교실(세월호 희생 학생들이 사용하던 교실) 이전 결정이 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이 불투명해지면서 또다시 연기됐다.

17일 경기도와 도교육청, 단원고 등에따르면416가족협의회를 비롯한 도, 도교육청, 도의회, 단원고, 안산시, 안산교육지원청 등 7개 기관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416교육사업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했다가 잠정 연기했다. 이날 발표하기로 했던 협약서에는 기억 교실을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으로 임시 이전한 뒤 416민주시민교육원을 건립해 영구 보존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세월호 2주기를 하루 앞두고 열린 협약식에는 각 기관 대표들이 모두 참석해 협약서를 확정 짓기로 했지만, 남경필 도지사와 윤화섭 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하지 않았다.

남 지사 등은 협약서의 핵심인 교육원 건립 예산의 지원 여부가 내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아 참석을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원 건립비는 총 90억 원으로 도교육청은 지난 12일에서야 도에 50%인 45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도교육청으로부터 뒤늦게 예산 부담을 제안받아 내부 협의를 못 한 데다 도의회 심의 여부도 가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건립비 지원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식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의장 역시 비슷한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416가족협의회 관계자는 "후배들을 생각해 교실을 환원하기로 힘들게 결정했는데 정작 일부 기관장들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약식을 미룬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협약식이 연기된 것은 예산 문제보다 일정을 급하게 잡으면서 도와 협의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2 X 9.4 cm

경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23A면 사회

동물 '뒷전' 규모 '멋대로'

제기능 잃은 '기형적 통로'



>2< 크기·기준 '제각각'

길이 21~60.9m·폭 3.75배差
광교 3곳 보행시설로 사용돼
'입주민 편의' 더 감안한 탓
제재 없는 정부규정 '부채질'

광교신도시의 생태통로는 환경부의 생태통로 설치·관리지침이 마련된 2010년 이후 집중적으로 설치됐지만, 생태통로가 아닌 사람이 다니는 인도교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생태통로로서의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0년 6월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이하 생태통로 지침)을 마련, 개발지역 내 생태통로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이후 광교신도시에는 10개의 생태통로가 2012년 설치돼 수원시로 이관됐다. | 표 참조

10개 생태통로는 연장(길이)이 최소 21m(소나무다리)에서 최대 60.9m(갈참나무다리)로 2.9배가량 차이가 난다. 환경부의 생태통로 지침은 육교형 생태통로의 폭 기준을 일반지역 7m이상, 주요 생태축 30m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어 광교신도시의 생태통로도 원칙적으로 지침을 위반하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광교신도시내 생태통로는 폭(너비)이 최소 32m(반딧불이다리, 여담교)에서 최대 120m(소나무다리, 갈참나무다리)로 3.75배나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폭이 50m 이하인 생태통로 4곳 중 3곳 여담교(32m), 꽃더미다리(40m), 새터다리(50m) 등은 생태기능이 남아 있는 곳으로, 인도교가 생태통로보다 훨씬 넓게 설치됐다.

반면, 폭이 100m를 넘는 나비잠자리다리(100m), 소나무다리(120m), 갈참나무다리(120m) 등 3곳 모두 생태통로가 아닌 광교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혜령공원과 인근의 다른 공원을 연결하는 친환경 보행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이처럼 광교신도시의 생태통로가 기형적으로 설치된 것은 광역녹지축(생태녹지축) 연결사업을 하면서 '야생동물 이동통로'보다는 추후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더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제시되고 있다.

더욱이 환경부의 생태통로 지침 규정에 이행 여부에 따른 제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형식적인 생태통로 설치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용인시 기흥구 흥덕동 42번 국도에 설치되고 있는 생태통로도 당초 폭이 50m로 계획됐었지만 비용문제로 인해 35m로 축소돼 설치기준이 제멋대로 변경되기도 했다.

우동걸 국립생태원 연구원은 "생태통로 설치장소와 크기를 결정하기 전 철저한 환경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필수로,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면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교신도시내 생태통로 현황

연번	교량명	폭원(m)	연장(m)	기능
1	풍뎅이다리	95	22.5	생태녹지축, 주민편의시설 (친화형 보행시설)
2	반딧불이다리	32	38.5	
3	하늘소다리	90	34	
4	무지개다리	65.5	28.5	
5	나비잠자리다리	100	52	
6	소나무다리	120	21	
7	갈참나무다리	120	60.9	
8	여담교	32	237.2	생태통로로 유지관리
9	꽃더미다리	40	32	
10	새터다리	50	52	

/문성호·김범수기자
moon23@kyeongin.com

15.1 X 23.4 cm

경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23A면 사회

발 묶이고 날아가고… 전국 휩쓴 강풍

<초속 20m이상>



방파제 덮친 성난 파도 전국에 강풍이 몰아친 17일 오후 높은 파도가 인천 신항 바다쉼터 방파제를 덮치고 있다. 순간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16일과 17일에 걸쳐 전국을 휩쓸면서 비행기와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거나 선박이 좌초되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지붕이 날아가는 등 시설물 피해사례도 각 시·도별로 수십 건 발생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제주 비행기·인천 배 '결항'
가로수·천막파손 잇단 피해
주택·공장 화재 1명 숨지기도

순간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주말 동안 전국에 몰아치면서 비행기 운항이 중단되거나 간판이 넘어지는 등의 피해가 경기도와 인천지역에서도 잇따랐다. 또 봄철 건조한 날씨로 주말 사이 도내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80대 할머니가 숨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17일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평택지역에서 순간 최대 초속 22.5m가 넘는 강풍이 기록되는 등 수원·용인·화성·안산·고양 등 도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속 20m가 넘는 바람이 불어 강풍주의보가 발령됐다. 또 인천에서 순간 최대 풍속이 20.7m로 치솟고, 서해 5도 지역도 초속 25.2m의 강풍이 불었다. 강풍주의보는 평균 풍속이 초속 14m, 최대 순간 초속이 20m가 예상될 때 발효한다.

강풍이 이어지면서 16일에는 제주도를 출발하는 비행기 136편, 도착 145편 등 항공편 총 281편이 결항되면서 관광객 2만1천명이 공항에서 발이 묶였고, 인천과 섬 지역을 오가는 11개 항로 13척의 여객선이 결항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같은 기간 경기지역에서도 강풍으로 인해 가로수와 간판이 넘어지고 천막이 날아갔다는 피해신고가 9건이나 접수됐다.

이와 함께 봄철 건조한 날씨로 도내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도 잇따랐다.

지난 16일 0시 30분께 화성시 서신면의 한 단독주택 부엌에서 불이 나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A(80·여)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같은 날 오전 8시 40분께 이천시 부발읍의 5층짜리 SK하이닉스 사원아파트 2층 B(29)씨의 집에서도 불이 나 B씨가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께 포천시 소흘읍의 한 섬유공장에서 불이나 공장 건물 2채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9천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 40분 만에 꺼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풍주의보는 17일 정오를 기점으로 해제됐지만 아직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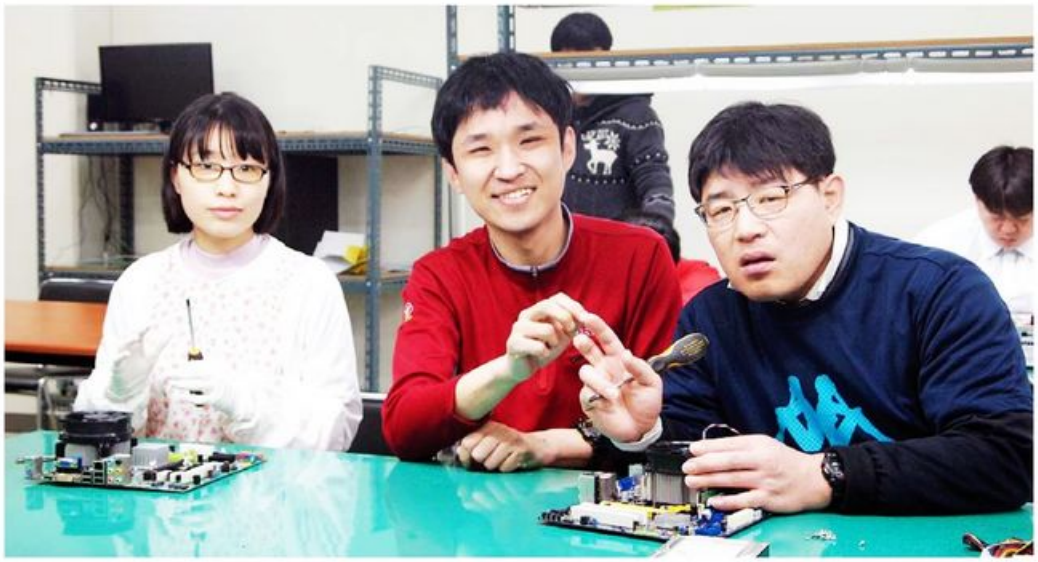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

20.0 X 19.8 cm

경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20면 수도권

장애인 일터 '자립 롤모델' 만든다

의왕 '포이에마' 보호작업장
조립 PC 제작 '재활 구슬땀'
시—경기도, 인건비 등 보조
'5년내 최저임금 상회' 포부



새로운 모델의 '장애인 일터'를 모토로 지난 7일 개소식을 가진 '포이에마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이 PC 조립을 시연해 보이고 있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

의왕시가 장애인 복지사업 단체인 '사회복지법인 무지개동산'과 손잡고 새로운 모델의 '장애인 일터' 만들기에 나서 성공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7일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 IT밸리에서 개소식을 가진 '포이에마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포이에마)'이 그것으로, 의왕시 최초의 장애인 재활 시설인 이곳은 경기도 내 다른 시설과 비교해 '직영' '실질 임금' '제품 생산' 등 크게 3가지 면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우선 '포이에마'는 장애인 복지사업을 전문적으로 진행해 온 '무지개동산'이 사업비 전액을 대고 의왕시와 경기도가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하는 협업 구조이며, 위탁이 아니라 '무지개동산'이 직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지는 동일하지만 '포이에마'는 '법정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장애인들이 정상인들처럼 실질적인 생계비를 벌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포이에마' 관계자는 "지금은 출발 단계여서 기존 재활 시설과 비슷한 5만~10만원 수준의 임금을 주고 있지만, 점차로 높여 5년 이내에 최저 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높은 임금구조는 '포이에마'가 생산하는 제품이 전국에서는 유일한 조립PC여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기존 재활시설들은 복사용지, 화장지 등을 중복 생산하지만 우리는 다르다"면서 "PC 전문가 2명을 영입해 장애인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직무 배치를 통해 제품을 생산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제품 판매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지자체·조달청·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모델의 '장애인 일터'는 벌써 다른 지자체의 관심을 유발, 안양시가 지난 11일 '벤치마킹'차 '포이에마'를 견학하기도 했다. '포이에마' 이성민 원장은 "의왕시의 자랑거리이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롤 모델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의왕에서의 성공을 토대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

20.1 X 18.2 cm

경기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1면 종합

남경필 지사 도내 당선인 25일 상견례

굿모닝하우스서 만찬회동… 연정관련 주목

남경필 경기지사가 오는 25일 20대 총선 여야 경기도 당선인들과 만찬 회동을 갖기로 해 '연정' 상견례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17일 도에 따르면 25일 굿모닝하우스로 도내 당선인 60명을 초청, 만찬 회동을 가질 계획이다. 굿모닝하우스는 20일 정식 개장 예정으로, 여야 당선인들에게 새롭게 꾸며진 굿모닝하우스를 소개하는 자리도 될 전망이다.

도는 총선 후에 갖는 도내 당선인들과의 관례적 상견례 자리라고 밝혔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간 협치 필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연정을 하고 있는 남 지사와의 만남이란 점에서 시선을 모은다.

남 지사는 이날 모임에서 당선 축하와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 도정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제도적 뒷받침을 당부할 예정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도정 보고 등을 통해 연정을 자연스럽게 소개할 때 야당 의원들의 반응여부다. 남 지사는 오는 7월 2기 연정체제 시작을 앞두고 연정 강화 의사를 피력하며 도내 당선인들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내 당선인들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야당 당선인 중에서 남 지사가 사회통합부지사에게 더욱 큰 폭의 권한 이양 등을 하도록 쓴소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야당 당선인들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남 지사가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과감히 하도록 주장하고 나서면 분위기가 다소 서먹해질 수도 있다.

도는 이날 모임을 앞두고 도내 당선인 60명의 공약에 대한 취합·분석작업에 착수했다. 서로 협력할 공통분모를 찾아 예상치 못한 갈등을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특히 도는 여야가 중앙당 차원에서 협치를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에서는 타협과 협상을 통한 협치의 정치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도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대결이 아닌 협치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지난 15일 선대위 해단식에서 "국회 안에서는 협치, 당내에서는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의 진면목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중앙정치 차원에서 여야가 협치를 해야 하는 데 연정이 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소통과 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주제를 자주 얘기해 나가다보면 경기도 연정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6.7 X 30.7 cm

경기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1면 종합



경기도·수원시·화성시·경기일보 주최로 17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4회 경기마라톤대회'에서 1만여 마라토너들이 운동장을 출발해 수원시가지를 힘차게 달리고 있다. 특별취재반

비바람 뚫은 열정… 1만여 마라토너 봄을 달리다

제14회 경기마라톤대회

전국 동호인·가족·외국인 참여
道 최대 마라톤축제 힘찬 질주
평택선 시민건강걷기대회 열려

밤새 내린 봄비도, 동반한 강풍도 1만여 마라토너들의 열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만 동호인과 3천여명의 자원봉사자, 직장 동료 및 가족 등 2만여명이 함께 즐긴 경기도 최대 규모의 '마라톤 축제' 제14회 경기마라톤대회가 17일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수원시와 '효의 고장' 화성시 일원에서 펼쳐졌다.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 경기일보사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육상경기연맹·수원시육상경기연맹 공동 주관,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 수원시체육회, 화성시체육회, 경기도재난안전본부, OBS 등이 후원한 경기도 유일의 풀코스 공인대회인 경기마라톤은 풀코스와 하프, 10㎞, 5㎞ 등 4개 코스에 걸쳐 레이스를 펼쳤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마라토너들은 물론 케냐, 태국, 미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 외국인과 장애우 등 국경을 초월한 지구촌 한가족 마라톤 축제를 즐겼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선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을 비롯, 박광온 국회의원, 김진표·김영진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윤화섭 도의회 의장, 한기열 경기농협본부장, 안재근 경기도육상경기연맹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한규택 경기도수원월드컵관리재단 사무총장, 홍만표 경인지방 우정청장, 서승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이준성 kt 경기본부사업단장, 도·시의원을 비롯, 각급 기관·단체장들도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 남자 풀코스에서는 지난해까지 10㎞에서 3연패를 달성했던 이홍국씨(44·수원마라톤클럽)가 2시간40분52초로 나가노 신야(일본·2시간41분17초), 최진수씨(서울 강일동·2시간42분58초)를 여유있게 제치고 우승했으며, 여자 풀코스에서는 이정숙씨(51·천안마라톤클럽)가 3시간02분10초를 기록하며 1위로 골인했다.

이번 대회에는 나만의 우표만들기, 안마봉사, 수지침 봉사, 건강검진 등 다양한 부스운영과 기아자동차 모닝 승용차 등 푸짐한 경품이 제공돼 참가자들에게 또다른 즐거움을 제공했다.

한편 46만 평택시민 건강 대축제인 '2016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가 16일 오전 9시 평택시 이충레포츠공원 광장에서 대회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 등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평택시와 경기일보가 주최하고 평택시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오전 9시30분 이충레포츠 공원을 출발, 부락산 자락을 돌아오는 5.8㎞ 코스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공재광 평택시장과 이순국 경기일보 사장, 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 김인식 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해 시민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했다.

가족, 연인, 친구 등과 함께 참가한 시민들은 화창한 봄날 5.8㎞ 코스를 걸으며 잔잔한 자연의 소리를 듣고 땀 흘린 후 시원한 봄바람의 촉감을 만끽하며 그야말로 오감만족의 시간을 가졌다. 특별취재반

경기마라톤 6·16·17·18·19면…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 15면

교통통제 협조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국 마라톤 마니아들의 축제인 제14회 경기마라톤대회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불편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해 주신 수원시민, 화성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 관계자와 경찰·소방 공무원, 의료진, 교통 및 대회 운영에 참여해 주신 모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27.3 X 30.8 cm

경기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1A면 종합

'행복레이스' 맘껏 달렸다

2016 경기마라톤대회

수원~화성 일원서 힘찬 질주
가족·동호인·외국인 화합축제

밤새 내린 봄비도, 동반한 강풍도 1만여 마라토너들의 열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만 동호인과 3천여명의 자원봉사자, 직장 동료 및 가족 등 2만여명이 함께 즐긴 경기도 최대 규모의 '마라톤 축제' 제14회 경기마라톤대회가 17일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수원시와 '효의 고장' 화성시 일원에서 펼쳐졌다.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 경기일보사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육상경기연맹·수원시육상경기연맹 공동 주관,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 수원시체육회, 화성시체육회, 경기도재난안전본부, OBS 등이 후원한 경기도 유일의 풀코스 공인대회인 경기마라톤은 풀코스와 하프, 10㎞, 5㎞ 등 4개 코스에 걸쳐 레이스를 펼쳤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마라토너들은 물론, 케냐, 태국, 미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 외국인과 장애우 등 국경을 초월한 지구촌 한가족 마라톤 축제를 즐겼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선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을 비롯, 박광온 국회의원, 김진표·김영진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윤화섭 도의회 의장, 한기열 경기농협본부장, 안재근 경기도육상경기연맹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한규택 경기도수원월드컵관리재단 사무총장, 홍만표 경인지방 우정청장, 서승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이준성 kt 경기본부사업단장, 도·시의원을 비롯 각급 기관·단체장들도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 남자 풀코스에서는 지난해까지 10㎞에서 3연패를 달성했던 이홍국씨(44·수원마라톤클럽)가 2시간40분52초로 나가노 신야(일본·2시간41분17초), 최진수씨(서울 강일동·2시간42분58초)를 여유있게 제치고 우승했으며, 여자 풀코스에서는 이정숙씨(51·천안마라톤클럽)가 3시간02분10초를 기록하며 1위로 골인했다. 특별취재반

관련기사 6, 16, 17, 18, 19 면

11.3 X 14.7 cm

경기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2면 종합

교육연정 1호 '착한 교복' 첫선

오늘부터 5월말까지 전시회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 홍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연정 1호인 '착한 교복'이 도민에 선보인다.

17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도교육청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섬유업계 발전을 위해 도내에서 생산된 고품질 섬유소재를 활용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 디자인한 '착한 교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디자인 개발을 완료한 '착한 교복' 40벌을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구리시 등 도내 12개 시·군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우수한 디자인, 경제성, 기능성 원단 등 '착한 교복'의 장점을 학교 관계자, 학부모,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보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전시회를 통해 '착한 교복'에 대한 디자인 및 소재변경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

특히 교복디자인 변경 의사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작업지시서, 소재리스트 등 교복디자인의 모든 자료를 제공, 많은 학교에서 활용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오병권 도경제실장은 "이번 순회전시에서 우수 기능성 원단,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경제적 가격 등 착한 교복의 장점을 알리고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착한 교복'을 통해 가정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착한 교복' 36벌의 디자인을 새로 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디자이너 4명의 공개모집을 마쳤다.

김창학기자

11.0 X 11.7 cm

경기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2면 종합

道,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도입

체험단 80% '만족'

경기도가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광역버스 좌석예약제를 도입한다.

17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도입을 위해 4주간 김포~서울시청 노선에 출근시간 예약전용 버스 1대를 투입, 기술 시현을 한 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광역버스 예약제 도입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2월15일부터 3월11일까지 체험단 202명을 모집해 기술시현을 했다. 그 결과, 예약을 한 뒤 타지 않는 예약부도율은 17%로 철도나 항공, 시외버스와 비슷했다. 대신 예약자의 절반이 주 3차례 이상 이용하는 등 호응이 높았다. 체험단 만족도 조사에서도 8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93%나 됐다. 김창학기자

5.5 X 11.7 cm

경기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2면 종합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산넘어 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이 해당 기관 반발은 물론 도의원들마저 의견이 엇갈려 '산 넘어 산'이다. 특히 각 소관 상임위마다 난색과 수용이 교차하는 등 입장차로 심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7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산하기관 통폐합을 추진, 지난달 25일 경기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을 12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용역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경기도문화의전당·경기도청소년수련원·농림진흥재단 등 6곳이 폐지대상에 올랐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콘텐츠진흥원·한국도자재단·경기문화재단·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평택항만공사 등 10곳은 4곳으로 통합하도록 했다.

도는 용역결과에 대한 산하기관장과 실·국장 의견수렴, 입법예고 등을 거쳐 다음 달 10~1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출할 방침이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 입장차

하지만 해당 기관의 의견 수렴단계부터 반발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도의회 의원들 간 입장이 엇갈려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흡수통합 대상인 한국도자재단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획일적 경제성 논리로 통폐합 대상을 정했다. 문화유산인 도자기를 사금파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개발과 도시개발업무를 한데 묶는 것은 국내외에 전례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한 찬반으로 맞대응,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광철 위원장은 "폐지대상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의 순기능에 대해 고려해봐야 하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오히려 조직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오환 의원(새누리당·고양6)은 경기도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고 의원은 "반대나 부정적인 목소리는 통폐합 기관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일부의 의견일 뿐 진정 경기도를 위한다면 찬성의 목소리를 내야 하며 이는 경기도 발전을 위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다음 달 임시회에 조례 제·개정안을 내려면 이달 초 입법예고에 들어갔어야 했다. 의원 발의가 아니면 다음 달 조례 제·개정이 어려운데 의원 발의는 더더욱 힘들 것"이라며 "통폐합의 걸림돌이 한두 개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17.2 X 11.7 cm

경기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3면 기획

감염병 제대로 알고 대응하자

㊦ 신종·해외 유입 감염병 대책

메르스·지카바이러스… 연이은 공포

'감염병 컨트롤타워'로 막는다

지난해 메르스에 이어 올해 초 지카바이러스까지 우리 사회가 연이어 감염병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경기도가 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17일 경기도감염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지카바이러스를 법정감염병 제4군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제4군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뜻한다. 지카바이러스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각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환자 인지 및 역학조사 등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방역조치의 신속한 수행이 가능해진다.

또 정부는 제2, 제3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 1월부터 24시간 국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감시해 신속히 대응하는 '긴급상황센터(EOC)'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EOC는 국내외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감염병 정보에 대한 실시간 수집과 분석, 대규모 실전 훈련, 긴급대응팀 파견, 백신이나 격리 병상의 자원비축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소통을 통한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해외 기관, 관계 부처, 지역 보건소와 지방자치단체, 공항·항만의 검역소와 상시적으로 영상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네트워킹 체계도 갖췄다.

이밖에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지사가 긴급할 경우 의료인이나 역학전문가 등을 감염병관리의료기관이나 감염병 전문병원, 지역사회 등 현장에서 1개월간 방역과 역학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게 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종 감염병 환자를 전담 진료·치료하는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지정해 감염병 위기가 발생하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지난 11일 정부는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을 확정했는데 이 전략은 국가 방역체계와 감염병 연구개발(R&D)의 연계 강화, 정부부처 간 감염병 R&D 연계 및 총괄조정 기능 강화, 해외유입 신·변종 감염병(지카바이러스 등)에 대응한 국제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감염병의 유입 차단→초기 현장 대응→확산 방지'로 이어지는 방역체계 전 과정의 기술 개발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검역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치료제 연구나 차세대 소독기·방역기기 개발도 추진해 나간다.

정부, 24시간 신속대응 '긴급상황센터' 가동
WHO와 상시 소통… 국제협력 강화하고
전문병원 지정·방역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

道, 음압병상 확대·선별진료소 설치 등
4개 분야 개선책 담은 관리종합계획 마련

경기도 역시 올해부터 300억원 규모의 '경기도 감염병관리 종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격리치료시설 부족, 역학조사 등 감염관리 전문인력 부족, 감염병 위기·대응소통 시스템 부재, 취약한 병원감염 환경개선 등 4개 분야 개선책이 담겼다.

도는 먼저 음압병상을 오는 2019년까지 총 119병상으로 늘릴 계획이며 도내 51개 의료기관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소에는 전염병환자 이송을 위한 격벽구급차(27대)와 감염관리 장비를 지원한다. 권역별 역학조사 기동팀(4개 팀 11명) 운영, 도 의료원 감염관리 총괄 책임자 채용, 보건소역학조사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도 추진된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과 국가 간 교류가 증가하면서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이외에도 실제 여행객에게 발생하는 뎅기열의 경우도 지난 2011년 72건에서 2012년 149건, 2013년 252건, 2014년 165건 등 매년 수백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민의 관심과 개인위생 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경기도감염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여행 전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목적지를 검색해 여행지에 유행하는 각종 질병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해외에서 위생처리가 불결하거나 의심되는 길거리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며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것과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곤충기피제 사용, 긴 소매·긴 바지 착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34.7 X 29.8 cm

경기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4면 정치

주가 오르는 도내 중진들… 국회의장·당 지도부 집중 거론

여소야대 정국에 野 문희상·이석현 국회의장 대결 가능성
새누리 당대표 원유철·정병국, 더민주는 김진표·원혜영 물망
홍문종, 與원내대표 후보에… 더민주는 안민석·조정식·설훈

20대 총선을 통해 경기도 중진시대가 열린 가운데 여야 도내 중진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당 대표, 원내대표 후보군에 중점 거론되고 있다.

■ 국회의장

8선으로 국회 최다선인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화성갑)이 1순위로 거론되지만 '여소야대'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123석)임을 감안, 6선으로 더민주 최다선이면서 전·현직 국회부의장인 문희상(의정부갑)·이석현 의원(안양동안갑)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직을 놓고 여야 도내 의원간 대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민주에서는 6선인 정세균 의원도 국회의장 후보군이다.

122석인 새누리당이 무소속 의원 일부 영입으로 1당이 될 수 있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38석)이 '안위적 1당'이라고 비난하며 자유투표를 강행할 경우 새누리당이 소외된 채 더민주가 국회의장과 부의장 1석을 갖고 국민의당이 부의장 1석을 차지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 협상결과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 여야 대표

총선을 참패한 새누리당을 추스릴 차기 대표로 친박(친 박근혜)계 최경환 의원이 가장 많이 거론됐지만 최근에는 "친박계가 대표를 맡아야 한다면 차라리 서청원 의원이 낫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를 맡으며 경제를 더욱 어렵게 했고 그로인해 야당의 '경제심판론'이 새누리당 참패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 의원이 대표를 맡을 경우 국회의장 후보군이 마땅치 않은 점이 고민이다.

5선인 원유철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병국(여주·양평)·심재철 의원(안양동안갑)도 당 대표군으로 거론되며 개혁성향의 3선 김영우 의원(포천·가평) 등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

더민주는 4선 김진표 당선인(수원무)과 5선 원혜영 의원(부천오정) 등의 대표 도전이 예상되며 4선이 된 조정식 의원(시흥을)과 3선으로 상임위원장 1순위인 정성호 의원(양주)도 최고위원 후보 물망에 오르내린다.

■ 여야 원내대표

새누리당 차기 원내대표로 친박계 4선 홍문종 의원(의정부을)이 나경원·유기준 의원 등과 거론되고 있다. 새 원내대표는 야소야대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구성하고, 경제개혁 법안 등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남은 박근혜 정권 2년간을 국회에서 뒷받침해야 하는 중책이다.

더민주는 19대 국회 마지막 예결특위에서 야당 간사를 맡은 안민석 의원(오산)이 차기 원내대표 도전장을 낼 태세이며 조정식 의원(시흥을)도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이들과 함께 4선 의원 대열에 오른 설훈 의원(부천원미을) 역시 '강한 야당'의 원내사령탑을 이끌 후보로 물망에 오르내린다.

한편 더민주는 지난 15일 이종걸 원내대표(안양만안)와 정성호(양주)·김현미 의원(고양정) 등을 비대위원에 인선했으며 18일 본부장, 대변인, 비서실장 등 정무직 당직 인선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재만·정진욱기자

34.7 X 9.9 cm

경기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4면 정치

정당 다른 국회의원·지자체장 '묘한 긴장감'

광주·파주·군포·구리시 지역발전 공조체제 요구

4·13 총선 결과 광주, 군포, 구리, 파주 등 경기도내 4개 기초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이 달라 지역발전을 우선으로 하는 공조체제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3일 실시된 총선 결과, 수원·부천·광명·의왕·과천·구리·오산·군포·파주·광주·양주 등 11개 지자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가 모두 당선됐다.

반면 평택·동두천·연천·하남·이천·안성·포천·가평·여주·양평 등 10개 시·군에서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가 당선됐다.

이같이 21개 지역에서 지자체 관내 국회의원의 정당이 통일된 가운데 4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지자체장과 정당이 다른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모두 당선, 묘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조억동 시장이 새누리당 소속인 가운데 국회의원 두석 모두는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으며 파주시도 이재홍 시장이 새누리당 출신인 반면 더민주 소속의 윤후덕(파주갑), 박정(파주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의 정당이 서로 교차됐다.

군포에서는 김윤주 시장이 총선에 앞서 더민주를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한 가운데 더민주 소속 후보자들이 두개 지역에서 모두 당선되면서 소속 정당을 달리하게 됐으며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진 구리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의 백경현 후보가 당선된 반면 더민주 소속의 윤호중 후보가 3선에 성공했다.

이들 4개 지역에서는 지자체장과 국회의원간 힘겨루기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윤주 시장의 경우 당을 옮기기 이전부터 이학영 의원과 갈등설이 꾸준이 제기돼왔기 때문에 새로 국회의원 신분이 된 김정우 당선자의 완충효과가 요구된다.

구리의 경우에도 이전까지 윤 의원과 박영순 전 시장이 같은 정당 소속으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추진 등에 대해 확고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왔으나 새누리당 시장의 출현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욱기자

22.7 X 8.9 cm

경기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6면 사회

공원 봄나들이 위협하는 '자전거 폭주족'

자전거 출입금지 광교호수공원 등 산책 시민과 뒤엉켜 위험한 질주 라이더 느는데 안전은 '역주행'

따스한 봄기운을 느끼려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공원 내 자전거 출입 금지 구역 등에서 마구잡이로 질주하는 자전거 이용객들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지난 16일 정오께 수원 광교호수공원은 흐린 날씨에도 봄꽃의 향연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거렸다. 시민들은 벚꽃 아래서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거나, 애완견과 걸으며 봄기운을 만끽했다. 하지만 이들 사이로 쏜살같이 자전거가 지나가자 얼굴에는 금세 불쾌함이 가득해졌다.

이곳은 올해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자전거 전용도로 외 산책로 구간에서 자전거 출입이 전면 금지됐지만, 여전히 막무가내로 질주하는 자전거 이용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지난 3월 자전거도로 외 자전거 출입 등에 대한 단속원을 배치했지만, 이것만으로 자전거 이용객을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단속원들은 이들을 향해 "자전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라고 외치며 통제하기 바빴다. 단속원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산책로 구간을 들어오는 시민들을 쉴 새 없이 통제해야 해 정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15일 경기지역 최고기온이 25도에 육박하는 등 완연한 봄날씨를 기록하자 수원 만석공원도 평소보다 많은 시민들로 북적거렸다. 그러나 공원 바깥쪽 산책로 이외에는 자전거 출입이 통제된 이곳에도 자전거 이용객들이 통행하면서 시민들은 이를 피하느라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어린 딸과 나온 O씨(36·여)는 "아장아장 걷는 아이 옆으로 자전거가 쌩하고 지나가 놀랐다"면서 "자전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산 호수공원도 자전거의 행렬이 잇따랐다. 이곳은 자전거 도로가 잘 갖춰져 자전거 명소로 꼽히는 곳이지만 '산책로 내 자전거 금지'라는 표지판이 설치된 곳까지 자전거가 침입, 명소에 걸맞지 않게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았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이같이 잘못된 자전거 이용 등으로 발생한 도내 자전거 사고(공원 외 포함)는 2013년 3천322건, 2014년 4천707건, 지난해 5천51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봄철에는 공원 이용객이 늘면서 사고 위험도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원 내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홍보와 단속에 나섰지만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전거 라이더들이 많아 어려움이 있다"면서 "봄, 여름은 이용객이 많은 시기이므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18.0 X 12.4 cm

경기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7면 사회

또 미뤄진… 단원고 기억교실

"사회적 합의 필요" 협약식 10분전 잠정 연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이 사용하던 '기억교실' 문제를 포함한 416교육협약식이 연기되면서 교실 이전 문제 합의가 또다시 미뤄졌다.

단원고와 4·16가족협의회 등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안산시 정부합동분향소에서 '기억교실' 이전 문제가 담긴 '4·16 교육사업 협약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협약식 10분 전 협약식을 잠정 연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참여 주체들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주재로 8차까지 이어진 협의회에서 단원고 기억교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온전하게 이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이후 협약식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협약식에는 4·16가족협의회를 비롯해 경기도, 도교육청, 도의회, 안산시, 안산교육지원청, 단원고 등 7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존치교실의 이전 시한과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더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협약식을 미루게 됐다. 또 협약식 날짜가 갑작스럽게 잡혀 일부 기관장이 참석할 수 없는 문제도 협약식 연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2일 민주시민교육원 건립비 90억원 가운데 45억원을 자체 부담하고 나머지 45억원을 도가 부담하는 내용을 제안했으나 도에서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다.

김광준 신부는 "오늘 협약식은 8차 협의회에서 도출된 초안에 최종 서명을 하고 각자 실천 의지를 다지자는 의미에서 계획했던 것"이라며 "다만 협약 내용에서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돼 부득이하게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지현기자

14.2 X 10.2 cm

경기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7A면 사회



세월호 참사 2주기…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개관

16일 오후 세월호 참사 2주기에 맞춰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 개관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에서 한 유족이 세월호 모형을 보며 오열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14.7 X 12.3 cm

경기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8면 경제

도농기원, 과수 병해충 잡는 '드론' 띄운다

소규모·산간지역 과수원 대형헬기 방제 애로
오는 2018년까지 맞춤 항공기·프로그램 개발

무인항공기 드론이 병해충 방제 등 경기도 농업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오는 2018년까지 과수 병해충 방제에 적합한 드론과 GPS를 적용한 자동비행 방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드론은 작물의 높이가 일정하고 잎이 세로로 자라 방제가 쉬운 벼농사 병해충 방제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과수는 횡으로 뻗은 나뭇가지의 높낮이가 다르고 활엽이 많아 드론을 이용한 효율적인 방제가 어렵다. 특히 도내 과수원은 소규모인데다 산간지역에 많이 분포해 있어 대형 무인헬기를 활용한 방제가 어려워 대부분 경운기를 이용하고 있고, 농촌 고령화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농기원은 이달 초부터 원내 배나무 연구포장에서 5월에 주로 발생하는 배 흑성병에 대한 드론 방제 연구에 돌입했다. 드론을 이용하면 소규모 언덕 등 평야가 아닌 지역에도 농약 살포가 가능하다. 현재는 드론 전문 운영자가 수동 비행하며 농약을 살포하고 있지만, 앞으로 과수에 적합한 GPS 자동비행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고령 농업인도 손쉽고 균일하게 농약을 살포해 농업 효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업 분야에 드론을 활용하면 질병·생육 예측 등을 통한 정밀농업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드론 제작에는 국내 업체가 참여토록 해 기술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재욱 원장은 "농업은 전체 상업용 무인기 시장의 8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기술(IoT)을 접목한 드론을 농업에 적용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14.8 X 10.3 cm

경기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0면 지역

세월호 참사 2주기 기억식

유족 "진상조사 조기중단 없어야"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은 지난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합동분향사무소 앞 광장에서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남아 있는 진상규명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로 '추모제'가 아닌 '기억식'으로 세월호 참사 2주기 행사가 열렸다.

오전 10시 추모싸이렌이 안산시 전역에 울려 퍼지자 모든 참가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은 "아직도 세월호냐는 말을 듣는데 우리도 벗어나고 싶지만 왜 그랬는지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밝혀내고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면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부디 진상조사가 조기에 중단되는 사태를 막아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정 도교육감, 제종길 안산시장 등도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추모공연과 '기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요구'라는 내용의 공동선언문 낭독 뒤 오후 1시부터는 참석자들이 분향소를 출발 단원고를 돌아 다시 분향소로 돌아오는 걷기 행사가 이어졌다. 안산=구재원기자

5.5 X 16.2 cm

경기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8면 문화

스트레스 싹~ 道자원봉사센터 부스 인기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평소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고민이 많은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부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누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우을증 자가진단과 무료 상담·치유프로그램을 운영 및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날 '나누어요! 생명사랑. 사랑해요! 행복경기'라는 팜플릿을 나눠주며 열띤 홍보에 나서. 특히 이들이 준비한 홍보 물티슈와 칫솔 등이 완판되는 사태가 벌어져 센터 직원들은 콧바람. 김상훈 전략사업팀 팀장(46)은 "마라톤에 참가한 참여자들에게 자연스레 홍보를 할 수 있어 좋았다"고 자평.

6.8 X 6.6 cm

경기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8면 문화

경기신보 동호회 "경기마라톤 깊은 인연"

○…17일 경기마라톤과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마라톤 동호회 '러너스 하이' 회원 50여명이 재출격. '러너스 하이'는 지난 2006년 제4회 경기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직원들이 모여 창단한 클럽으로, 경기마라톤과는 남다른 인연을 자랑. 특히 이날 경기신보는 대회 참가를 위해 도내 19개 지점, 10개 출장소에 흩어져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데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 경기신보 이민우 이사는 "평소 만나기 힘든 직원들과 교감을 나누고 완주의 기쁨을 공유해 직원들간 단합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더욱 강해진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6.8 X 8.2 cm

경기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20면 스포츠

창곡중, 하키 남중부 2년만에 정상

성남 창곡중이 제41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 하키 남자 중등부에서 정상에 오르며 2년 만에 전국소년체전 경기도대표로 선발됐다.

창곡중은 15일 성남하키경기장에서 제45회 전국소년체전 경기도대표 2차 선발전을 겸해 열린 남중부 결승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이수진의 맹활약을 앞세워 '지역 라이벌' 성남 성일중을 4대1로 누르고 우승, 2년 만에 도대표로 뽑혔다.

이날 창곡중은 1쿼터 12분 이수진이 선제골을 뽑아 기선을 제압했고, 2쿼터 1분과 12분 이수진이 연이어 필드골을 성공시켜 점수 차를 벌렸다. 창곡중은 3쿼터 7분 페널티코너 위기에서 성일중 이정훈에게 한 골을 내줬지만 4쿼터 9분 김균이 쐐기골을 터트렸다. 한편, 여중부의 수원 매원중은 평택여중에 기권승을 거두고 도대표로 뽑혔다.

6.7 X 8.7 cm

경기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20면 스포츠

수성중, 레슬링 중등부 4체급 석권

수원 수성중이 제41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 레슬링 중등부에서 4체급을 석권했다.

수성중의 이정호는 16일 파주 문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45회 전국소년체전 경기도대표 최종선발전을 겸해 열린 중등부 그레코로만형 100㎏급 결승에서 이광복(안산 반월중)을 제압하고 우승했다. 또 58㎏급의 김도훈은 결승서 한지훈(파주 봉일천중)을 꺾고 1위에 올랐으며, 자유형 58㎏급의 최미르와 39㎏급 김찬웅(이상 수성중)도 나란히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자유형 63㎏급의 백경민(수원 수일중), 76㎏급 김주성(부천 역곡중), 69㎏급 황태규(성남 문원중), 54㎏급 서준혁(반월중), 50㎏급 최민우(용인 문정중), 그레코로만형 69㎏급 강윤석(평택 도곡중), 54㎏급 남궁기선(과천중)도 체급 우승을 차지했다.

6.7 X 9.2 cm

경기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20면 스포츠

'모래판 소년' 임수주, 씨름 중등부 1위

임수주(수원 동성중)가 제41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 씨름 중등부에서 패권을 안았다.

임수주는 15일 수원한조씨름전용경기장에서 제45회 전국소년체전 경기도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린 중등부 용사급 결승에서 안홍수(용인 백암중)를 밀어치기와 덧걸이로 연이에 모래판에 뉘여 우승했다. 또 청장급의 박성준과 소장급 김광위(이상 동성중)도 결승서 같은 학교 신재영과 황선하(백암중)를 나란히 2대0으로 꺾고 우승했다.

한편 초등부에서는 성준범(남양주 평내초)이 장사급 결승서 김태연(시흥 은행초)에 연이은 잡치기를 성공시켜 우승했으며, 역사급 이혁주(용인초), 용사급 임유민(용인 양지초), 용장급 최지호(수원 우만초)도 우승자 대열에 합류했다. 홍완식기자

6.7 X 8.2 cm

경기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20면 스포츠

체육 사관생 대축제… 오늘 경기도서 팡파르

문체부장관기 전국체고 체육대회
16개 체육고 5천여명 선수단 참가

'엘리트체육 사관생들의 축제' 제3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가 18일부터 3일간 경기도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전국체육고등학교 교장회와 경기체고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육상, 수영, 체조, 역도, 사격 등 남자 13개 종목, 여자 10개 종목으로 치러지며, 한국 체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국 16개 시·도 체육고등학교 5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지난 2001년 이후 15년 만에 경기도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과열 경쟁과 선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종합우승제를 폐지하는 대신 종목별 시상제만 운영하기로 대회 방식을 변경했다. 또 매년 5월 대회가 열리며 시·도민 체육대회 및 종목별 전국대회와 일정이 겹치는 점을 고려, 4월 중순으로 대회 기간을 조정했다. 다만, 경기도종합사격장의 전자표적 미설치로 대회를 치를 수 없는 사격과 도내 수영장 임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수영이 경기도가 아닌 각각 인천 옥련국제사격장과 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리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펜싱과 수영, 핀수영이 사전 경기로 치러진 가운데 육상(화성종합경기장), 태권도(김포생활체육관), 복싱(안성시체육관), 레슬링(수원 숙지공원 다목적체육관), 양궁(수원양궁장), 유도(경기도유도회관), 역도(평택 이충레포츠공원 실내체육관), 근대5종(경기체고), 체조(수원북중) 등 각 종목별로 선수단 맞이를 모두 끝내고 대회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대회 개회식은 18일 오후 5시 수원 호텔캐슬에서 열린다.

한편, 이도륜(경기체고)은 사전경기로 열린 수영 여자부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이도륜은 여고부 개인혼영 400m 결승에서 4분55초40으로 같은 학교 김선재(5분05초59)를 가볍게 제치고 우승한 뒤 개인혼영 200m 결승서도 2분18초30으로 1위를 차지해 2관왕에 올랐다. 또 남자부 자유형 1천500m의 홍정근(경기체고)은 결승서 15분59초31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기체고는 수영에서 금 3, 은 10, 동메달 6개를 획득했다.

홍완식기자

20.4 X 9.9 cm

경기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22면 오피니언

한국형 알파고? 창의력 갖춘 인재양성이 선행돼야

기고



류호열
경기도 교육협력국장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결로 인공지능의 발전 가능성이 사회적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5년간 1조원을 투자하는 지능정보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당초 3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알파고가 신드롬을 일으키자 이를 확대했다고 한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대해 사람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우려감을 지우지 못한 표정이다. 알파고는 철저하게 민간기업의 창의적 발생으로 시작된 것인데 정부가 전면에 나서면 창의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가 미래를 만든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시대 가장 필요한 인재상이 창의적 인간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창의성은 풍부한 기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능력이다. 또한 새로운 시각과 융통성 있는 사고를 통해 방대한 양의 정보와 지식을 가치 있는 아이디어로 연결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세계 각국은 '창의적 인재 육성'에 교육 패러다임을 맞추고 학생의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한 사람의 뛰어난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만큼, 미래사회의 국가경쟁력이 국민의 창의성에 달렸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에서도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육이 과연 창의성을 키우는데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고개를 갸웃거린다. 스티브잡스나 에디슨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받았다면, 잡스는 분명 문제아 취급을 받았을 것이고, 에디슨은 지진아 취급을 받으며 쓸쓸히 사라졌을 거란 예상은 어렵지 않다.

세계최고의 컨설팅 회사가운데 하나인 맥킨지가 펴낸 학교에서 직장으로(Education to Employment)라는 보고서는 '강의'가 최악의 수업방식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도 이런 문제를 인정하고 오래전부터 문제기반학습, 프로젝트 중심학습, 능동학습, 협력학습, 팀학습 등의 다양한 혁신적 교수법을 추진했지만 교실 현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 밑바탕에는 강의에 관한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

교사는 교과서 등을 열심히 공부해서 학생에게 충실히 전달하고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이를 전달받는다. 이러한 강의가 학생들의 실제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질문하는 교실, 해답을 찾기까지 함께 토론하고 모색하며 기다리는 교사. 그래서 학생 내면의 소질과 적성, 재능에서 꿈과 끼를 이끌어내는 교육이 되도록 우리의 수업은 바뀌어야 한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것은 전달받는 지식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행동을 통해 습득한 유연한 지식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강의 대신에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 간에 상호작용이 이뤄지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수업이 필요하다. 그래야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지그재그, 창의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의 저자 키스소여(Keith Sawyer)는 "창의력은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만 독점하는 자질이 아니다."라며 창의력 향상 훈련과정을 거친 뒤에는 누구나 창의성을 자유자재로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원점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22.1 X 12.9 cm

경기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23면 사설/칼럼

道교육청 광교 이전은 선거용이었나

경기도교육청이 광교신도시로 이전하지 않는다. 이유는 예산 부족이다. 당초 구상은 현 청사를 매각해 이전 비용을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검토 결과 현 청사를 매각해도 이전비용을 마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족 예산은 교육부에서 교부금 형태로 지원받아야 한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분담 문제가 계속 현안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사 이전 비용을 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교육청 판단이었다.

교육청의 판단을 존중한다. 멀쩡한 청사를 두고 굳이 옮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내느니 마느니 하는데 수백~천억대 청사 이전 비용을 쏟아부을 여력도 없었을 것이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껄끄러운 관계도 검토 대상이었을 것이다.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 본다. 그럼에도, 이번 교육청 결정을 보며 찜찜해지는 부분은 있다. 청사 이전과 관련된 일련의 의사결정과 그 결정의 공개 시기다.

이전 포기가 알려진 것은 공교롭게 선거 직후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의 광교 융합타운 입주 제안을 놓고 그동안 간부 협의 등을 통해 내부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이전 불가를 결정했고 도청에 이런 입장도 전달했다고 했다. 그런데 대외에 공개된 것은 총선이 있었던 4월 13일 이후다. 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공개한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도교육청의 청사 이전은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청사 이전 소식에 광교 주민들은 더없이 환영했다. 계획보다 축소된 도청사 이전의 미흡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완적 역할로도 받아들여졌다. 여기에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과 한 몸 한마음으로 갈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도 관심을 끌었었다. '교육 연정(聯政)'의 또 다른 상징이 될 것이라는 주변의 평가가 따른 것이다.

그래서 더 아쉽다. 현 청사의 사용 가능성 여부는 지난해 7월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부족 문제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야당 교육감과 교육부와의 껄끄러운 관계도 갑작스런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제반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작년 7월에는 '이전하겠다'고 하고, 올 4월에는 '이전 못한다'고 한 셈이다. 그것도 선거일을 피한 시기에 알려졌다. 대단히 부자연스럽다.

우리가 도교육청 청사를 이전하라는 것은 아니다. 제2의 '경기도청사 이전 논란'으로 불거지는 것도 원치 않는다. 다만, 백 년 앞을 보고 결정했어야 할 청사 이전 문제를 너무 가벼이, 그것도 선거와 뒤엉켜 다룬 건 큰 잘못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1천300만 도민의 교육 본산을 마치 동네 구멍가게 옮기듯 쉽게 말하고 쉽게 뒤집는 것은 결코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13.8 X 14.6 cm

중부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1면 종합

경기도 재정파탄 '뇌관' '좀비기관' 통폐합 급하다

HOT ISSUE

본보 '南지사 당선인 과제' 제기
1년 7개월만에 통폐합 추진
경영합리화 방향에 전폭 지지
수술통한 우량기관 육성 절실

2년이 걸렸다. 5억 원이 들었다. 상황은 절박하다. '재정절벽'은 현실이다. '좀비기관'은 필연이다. 목표는 분명하다. 명분도 합당하다.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놨다. 타이밍도 절묘하다. 맹약(盟約)한 시간은 다가왔다. 경기연정(聯政)은 마지막 시험대에 섰다. 결자해지만 남았다. 기회는 이번 뿐이다.

저항은 조직적이다. 악어새는 각론만 파헤친다. 악어는 총론까지 부정한다. 안팎은 동색이다. 아우성은 집요하다. 정치적 약속은 공약(空約)이다. 연정 합의문은 계륵이다. 협치(協治) 정신은 단 맛에서만 작동한다. 쓴 맛은 합의서에 서명한 자의 독배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 얘기다. '좀비기관'을 잔뜩 싣고 항구를 떠난 배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다.

중부일보는 2014년 6·4지방선거 직후인 6월 16일자에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인의 과제'라는 제언 형식을 빌어 도(道)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세금이 넘쳐나던 시절 '문어발'식으로 설립한 26개 산하 기관의 민낯을 보여주고 경기연정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2·3면

그로부터 1년 7개월이 흐른 지난 3월 25일. 경기도는 산하 24개 공공기관을 12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철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당시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2010년 대비 공공기관에 대한 도비 지원은 40% 감소한 반면 인건비는 15% 증가했다. 이대로 두면 공공기관이 인건비만을 지급하는 기관으로 전락해 공멸할 수 있다는 생각에 통폐합을 통한 경영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15일 오후 열린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공청회. 경기연정의 상징이자, 최고 의결 기구인 경기연정실행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기우 도(道)사회통합부지사는 마지막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 없었다. 산하 기관이 마치 자신의 손발인 양 반대 논리만 쏟아낸 경기도청 소속 실·국장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여야를 대표해서 참석한 이재준·박재순 도의원의 강한 의지는 정치적 소신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심판 역할을 맡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 소속 인사는 선수처럼 '강펀치'를 휘둘렀다. 객석을 가득메운 산하 기관 임직원과 이익단체, 개인들은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 야유와 조롱을 쏟아냈다. 용역 예산 5억 원을 쓴 경기도는 객(客)이었다.

민선 20년 동안 1년에 1개 꼴로 신설된 산하 기관은 경기도 재정을 파탄낼 뇌관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5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모두 4천181명이다.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수(3천648명)를 넘어섰다. 이들 기관이 지난해 쓴 예산만 3조8천억 원에 이른다. 직원 수가 50명도 안되는 기관이 10개나 된다. 인건비가 사업비보다 많은 초미니 조직에게 경기도민 1천250만 명을 상대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기고 있는 셈이다.

중부일보는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향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 활동에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남 지사는 민선 도지사 중에서 가장 내세울만한 업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수명을 다한 공공기관 문을 닫고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그의 리버럴한 혁신은 가장 실용적인 도지사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경기연정은 '식물기관'을 양산할 것인지, 과감한 수술을 통해 '우량기관'을 육성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천의현기자

17.0 X 20.6 cm

중부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1면 종합

경기신보 광명지점 위치찾다 날샌다 1분기 지나도록 답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올해 초 설립키로한 광명지점이 위치 선정을 놓고 갈팡질팡하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17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경기신보는 올 상반기 중으로 광명지점을 설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신보는 6~7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1월 정기인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서 근무할 인원 8~10명에 대한 발령인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해당 지점 개설이 위치선정의 난항으로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경기신보는 당초 광명 소하리에 위치한 광명역(KTX) 인근에 지점 설립을 추진했지만, 지역이 외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무산됐다.

이후 경기신보는 광명 일직동에 위치한 광명역(지하철) 일대와 광명 철산역 일대를 놓고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시설환경 조건이 맞지 않는 등의 난항을 겪으면서 1분기가 지난 현 시점까지 이렇다 할 추진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기인사를 통해 광명지점으로 발령을 받은 직원들은 타 지점에서 임시로 근무하는 등 내부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1월 정기인사를 통해 발령받은 10여명의 직원 중 6명이 김포와 안양, 부천지점 등에서 더부살이 중이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직접 찾아오는 곳이다보니 좋은 위치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오는 6월 중으로 모든 사업진행을 완료해 광명지역민들에게 불편함 없는 보증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의현기자

17.0 X 8.3 cm

중부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1B면 종합

MDC 공동창작 프로젝트 사업 2개 스타트

〈제조·디자인·콘텐츠〉

융합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스타트업 제작지원 사업도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공동 설립한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2016 MDC 공동창작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MDC(Manufacturing, Design, Contents) 공동창작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북부 소재 제조기업의 기술과 디자인·콘텐츠 분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융합시켜 사업화를 지원하는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만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이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기술이 부족한 디자인·콘텐츠 분야 스타트업과 제조경험은 풍부하지만 아이디어가 부족한 제조 기업를 매칭해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북부 제조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디자인·콘텐츠 융합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하는 '융합아이디어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상금 규모는 2천만 원이다.

'스타트업 융합 아이디어 제작지원 프로젝트'는 북부 제조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디자인·콘텐츠 분야의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들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제작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작지원금 규모는 총 2억3천만 원이다. 기업 당 최대 3천만 원 까지 지원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5월 20일까지로 '융합아이디어 공모전'은 이메일 접수(mdc@gdca.or.kr), '스타트업 융합아이디어 제작지원 프로젝트'는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윤성기자

17.0 X 8.3 cm

중부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2면 종합

본보 '道산하기관 구조조정' 제안… 2년만에 시험대

南지사, 경영합리화 절차 돌입
경기연정 나서 성공 이끌어야

중부일보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제안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이 2년만에 시험대 앞에 섰다.

당시 중부일보는 남 지사에게 두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하나는 현상유지이고 다른 하나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방법중 남지사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선택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6월 경기도의원 6명(여3·야3), 민간전문가 6명,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를 설립했고, 같은해 12월 공공부문 경영컨설팅 전문기업인 엘리오앤컴퍼니를 선정해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산하기관 통폐합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결과, 경기도는 지난 15일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공청회를 열어 본격적인 구조조정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중부일보가 2년전 우려했던 반발이 뒤따랐다.

이날 참여한 통폐합 해당기관은 물론, 이들과 이해관계에 얽힌 단체들은 반대를 넘어 아유를 쏟아 냈다.

남지사가 2년 전 중부일부가 제안한 두가지 방법 중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선택했다면 이번에는 경기연정이 선택해야 한다.

수 년전처럼 반대에 부딪쳐 세금먹는 단체들을 안고 갈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우량기관으로 거듭날지는 오롯이 경기연정의 몫이다. 신정훈기자



남경필 도지사 당선인의 과제 ⑤ 비대한 공공기관 '뚝지력'으로 구조혁파

산하기관 26곳 전국 최다… 예산 줄어도 조직슬림화 손도 못대

도의회·여론은 반대로 기관 구조조정 압박

與, 본당 유지 땐 재정주당 별가치 증액 조기달 가능성

구조조정론 기관저항 부각우려

전문가 "타당과 연정 통합해 구조조정 합리안 선택 필요"

통폐합 무작용 폐소도 과제

▲ 중부일보 2014년 6월16일 2면 보도

30.8 X 17.9 cm

중부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2면 종합



15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서 열린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공청회'에서 기관 관계자들이 자문위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용역결과 인정못해"… 공공기관 집단반발

道공공기관경영합리화 공청회

공청회 자문위원 형평성 제기
질의응답 짧다며 고성도 질러

15일 오후 3시 경기도 의회 1층 대회의실. 이날 이곳에서는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공청회가 열렸지만 처음부터 진행이 순탄치 않았다.

몇몇 기관 관계자들이 엘리오 컴퍼니가 내놓은 용역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번 공청회는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 2명, 도의원 2명, 민간전문가 4명 등이 패널로 나와 공공기관별 기능조정 방안을 위해 토론을 벌였다. 토론이 끝난 뒤에는 30분 가량동안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됐다. 20명 가량의 도민 및 기관 관계자들이 손을 들고 질의를 신청했다. 특히 용역 결과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결과'라며 집단반발 했다.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최재관 집행위원장은 "농림재단의 기능을 농업기술원에 이전한다는 것은 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조치"라며 "60년대 때는 식량증가로 농업기술의 역할이 컸다면 지금은 농업 생산의 80%를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평택항되찾기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한·중 FTA로 평택항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통폐합 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도시개발을 주로 하는 도시공사와 어떻게 기능이 중복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기관 관계자들은 공청회 자문위원이 행정·경영 전문가와 남성들로만 구성됐다며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어경준 경기국립국악단원은 "우리에게 있어 공청회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그럼에도 토론 패널로 나온 사람 중에 문화·예술전문가가 단 한명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청회에 참여한 경기도민 최병일 씨도 "패널 분들 중에 여성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며 "경기도 성평등 지수가 높지 않는데도 가족여성연구원을 시장경제 원리로 통폐합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관 관계자들은 질의응답 시간이 짧다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도자재단 관계자는 "지금 끝낸다는 것은 공무원 퇴근 시간 맞춰서 끝낸다는 뜻"이라며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 밤새워서라도 질의를 받아줘라"고 반발했다.

이에 토론의 사회를 맡은 김광윤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위원장은 "시간이 많으면 모두 질의를 받아주겠지만 시간 제한이 있는 관계로 모두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최홍기자

17.4 X 22.2 cm

중부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2면 종합

"혼자서는 국정·정당 운영 못한다는 것 보여준 총선"

南지사, 도북부기후회서 평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혼자 힘으로는 국정이나 정당 운영을 올곧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번 총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남 지사는 16일 오전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 기관·단체장·기업인 조찬 모임 경기북부기우회에 참석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남 지사는 "남북관계, 국제관계, 세계경제 상황이 모두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저성장, 양극화, 청년 실업, 저출산 등 난제들을 대화와 협력, 타협으로 국복해야 한다"며 "각자 찢어져 제 갈 길만 간다면 후손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천군 주관으로 열린 이날 북부기우회에는 남 지사와 김규선 연천군수를 비롯해 안병용 의정부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등 북부지역 단체장과 기관 대표, 기업인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기우회에는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이 참석,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실상과 폐쇄 이후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조윤성기자

17.4 X 6.3 cm

중부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2면 종합

의정부역 도청민원센터, 서민민생 지킴이 서비스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가 다음 달부터 노인,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는 '서민민생 지킴이 서비스'를 한다고 경기도가 17일 밝혔다.

서민민생 지킴 서비스는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민생피해를 예방하고 재발을방지하는 데 초점을 둔 밀착형 현장 서비스다.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는 그동안 내방객을 대상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노인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어 보다 촘촘한 민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민원센터는 노인복지관, 하나센터, 사회복지관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비스는 금융 소외계층 대상 대부업·금융 사기 등 금융피해, 다단계 소비자 피해, 취업사기 예방과 일자리 알선, 소상공인 불공정 거래 피해 등에 대한 상담이다.

조윤성기자

17.4 X 5.2 cm

중부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3면 종합

'누적적자 561억' 수원월드컵재단 폐지… 문화의전당 수원시에 매각

24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배경

경기도는 산하 24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합리화를 추진하면서 공공성과 차별성, 효과성, 효율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세웠다. 이후 경기도는 유형별로 경영합리화대상기관 선정을 우선 진행한 뒤 실행방안 등을 마련했다.

경제·산업분야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산업 분야에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경기중기센터)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이 대상 기관이다.

경기도는 해당 기관 중 경기중기센터와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를 경기경제산업진흥원(가칭)으로 통폐합하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경기신보의 기능을 조정,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배경으로는, 경기중기센터의 경우 직접투자와 해외 판로개척, 인증평가 기능이 중앙정부 산하기관과 민간의 유사기능 수행기관의 역할과 중복된다는 판단에서다.

또 경기중기센터의 시설공간 지원과 판로개척, 직접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 기능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도 중복된다고 봤다.

道중기센터 수혜고객 10% 불과
중앙정부 산하기관 역할 중복
경기경제산업진흥원으로 통합

경기문화재단 시설관리 민간위탁
기능 조정- 문화예술사업 집중
경기관광공사, 재단으로 전환

복지재단·가족여성재 운영비 과다
연구원으로 흡수 '기능 활성화'
SOC분야 기관, 경기공사로 통합

실제, 경기중기센터의 차별적 서비스 수혜 고객은 전체 고객 중 10.1%에 불과했다.

더욱이 경기중기센터의 적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사업 여력은 계속 축소되고 있고, 산업진흥에 대한 기능보다 비지니스센터 공간 제공에 사업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수탁수입이 감소했지만, 2014년 11월 개관한 시험생산동 건립 이후 수탁수입 증가에 따른 수익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해당 기관의 경우 경기북부 지역의 산업 발전과 성장을 위한 거점 조성이라는 상징성이 있어, 기관 폐지나 타 기관으로 흡수될 경우 이익보다 손실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경기테크노파크와의 전문영역이 명확해, 지역별 역할구분에 따른 전략 추진이 가능한 상태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산업진흥기능이 90%를 상회하지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산하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산업에 대한 총괄적 관리가 곤란해 경기중기센터와 기능을 통합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기관이고, 보증사업과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기능은 공공의 사업영역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민간의 보증수요와 자금지원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위험관리체계 구축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경기과기원의 수행사업은 공공성과 필요성은 있지만, 기능간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경기과기원의 사업기능은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중기센터와 중복되고, 바이오센터는 기술적인 시너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34.9 X 17.1 cm

중부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3면 종합

문화재단·한국도자재단 통폐합… 도립예술단 별도 법인화 잔류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를 살펴보면,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문화의전당,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관광공사가 경영합리화 대상기관이다. 경기도는 경기문화재단과 한국도자재단을 통폐합하고,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을 폐지, 경기관광공사는 재단으로 설립형태를 전환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시군 단위의 문화재단과 기능이 중복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문화진흥 기능의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능 조정을 실시해 문화예술진흥 사업 확대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단의 시설 관리·운영기능은 민간에 위탁하고 본연의 문화예술진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도자재단의 도자산업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지만, 산업육성과 문예진흥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다.

하지만 도자산업 육성은 경기중기센터의 산업진흥기능과 중복되고, 문예진흥기능은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진흥기능과 중복되고 있어 각 기능을 유관기관에 이관하고 재단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전시시설과 문예진흥 기능은 경기문화재단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대해서는 투입된 예산 대비 충분한 문화예술 공연 향유기회가 적은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경기도립예술단은 예산대비 활동성이 미흡하고 공연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도립예술단은 별도 법인화하거나 경기문화재단으로 흡수하고, 경기문화의전당은 수원시에 매각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설립 당시 체육시설 공급이라는 공공적 역할을 기대했지만, 실제 공급은 축소되고 있고 축구진흥기능은 민간기능과 중복된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월드컵 종료 이후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누적적자는 561억 원으로, 만성적인 적자구조 탈피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경기관광공사에 대해서는 관광사업이 고용과 가치창출 효과가 높은 미래사업으로 주목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능수행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성과 서비스 품질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광진흥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단 형태의 출연기관으로 전환하는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17.4 X 11.0 cm

중부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3면 종합

복지재단, 경기연구원으로 흡수… 도시공사·평택항만공사 통폐합

교육·보건·복지·SOC분야

교육·R&D·보건·복지·농림·SOC 분야를 살펴보면, 경영합리화 기관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영어마을, 경기연구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의료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이 대상이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인구가 급감하고 있지만, 청소년 수련시설 규모의 공급은 수요대비 110%에 달해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간 대비시설 규모와 운영프로그램의 차별성이 부재하고 지속되고 있는 재무실적 악화는 수요 감소로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영어마을 역시 경기도교육청 또는 민간시설과 기능이 중복되고, 지역사회과정은 민간도 수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2007년 125억 원의 자체수입을 달성한 뒤 지난해에까지 89억2천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영어마을을 창의이성테마파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지만 현재 인력의 전문성이 높고 위탁을 통한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아 자체 경영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최근 5년간 경상운영비 비중이 평균 33%이지만, 실질적인 사업 예산은 67% 수준으로, 경상운영비 비중이 과다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으로 흡수 통합해 가족여성연구센터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료원은 출범 10주년을 맞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재평가와 의료원 체제가 작동 될 수 있는 운영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분석됐다.

설립당시 도내 의료기관과 병상 수 증가로 수급상황은 개선됐지만 의료품질과 서비스개선으로 공공의료의 방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복지재단을 살펴보면 재단의 여러 기능 중 경기노인일자리지원센터 업무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 시군 사업기관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업무는 유관기관에 위탁이 가능하고 복지시설 경영컨설팅과 복지사업종사자교육 등 대부분의 기능은 민간기능과 중복되고 교육프로그램의 차별성도 미흡하다고 분석됐다.

특히 복지정책연구기능의 성과가 미흡해 체계적인 연구지원을 통한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복지재단의 경상운영비 비중은 31%로 경기연구원(16%)의 2배에 달했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은 5대 기능이 산림환경연구소와 농업기술원,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민간 기업 등과 역할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단운영과 재단사업, 수탁사업의 예산비중은 각각 3:6:1로 나타나면서, 재단 경상운영비로만 32억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각 기능을 유관기관으로 이관하고 재단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경기도시공사는 역할과 중장기발전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인데, 주거복지와 산업단지 개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구조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또 자체 지역개발기능을 갖춘 시군과의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역할이 부족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사업기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신규매출이 부재해 사업단 인건비 부담으로 지속성장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평택당진항만사업단으로 신설해 물류부지 조성과 임대, 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통합 운영하고, 종합적 도시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SOC 분야 기관을 경기공사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부산과 광양, 울산, 인천 등 전국 4개 국가항만공사에 비해 물동량과 선석기준의 규모 한계가 있고 앞으로도 획기적인 물동량 증가는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 있다. 천의현기자

17.4 X 17.6 cm

중부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6면 경제

대학생들 농업 신기술 매력에 풍덩

농식품 미래기획단 道 방문
농기원 개발 농작물 등 견학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5일 대한민국 농식품 미래기획단(YAFF) 초청 행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농식품 미래기획단 소속 대학생 40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경기농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대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기획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선발한 대학생 단체로, 농식품산업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대학생들은 그동안 경기도가 개발한 가시 없는 장미 '딥퍼플', 추청벼보다 밥맛이 뛰어난 '참드림', 전국에서 재배되는 있는 인기 버섯 '곤지7호' 등 신품종과 식물공장, 농업용 드론 등 신기술을 견학했다.

이어 도 농기원이 개발해 산업체로 기술 이전한 '발효쌀빵', '홍국막걸리', '허브쿠키' 등 농산물 가공품을 시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우나연(전남대) 학생은 "경기도농업기술원 탐방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의 현 위치를 알게 됐고, 기술력에 감탄했다"며 "앞으로 농업이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욱 원장은"대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통해 농업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새로운 농식품 산업 아이디어와 정책 발굴에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남춘기자

10.3 X 12.0 cm

중부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7면 인물

"IMF 때보다 힘든 인쇄업계… 도청 자체발간실 축소·폐지해야"

이완표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대담=표명구 경제부국장

인쇄업계의 불황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발간실을 운영하면서 인쇄업계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하고 있다. 그중 경기도청 발간실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면서 관공서 수주가 막힌 인쇄업계가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다. 중소기업의 상생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자체발간실 운영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자체 발간금액은 최근 3년간 평균 12억2천863만 원으로, 지자체 총 자체 발간금액의 32.3%여면 38억 원)을 차지했다. 발간실 직원 수 또한 평균 10.3명으로 2위인 전북(6.3명)보다 40% 가량 많은 수준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체 인쇄발간물의 78.5%를 자체 제작하고, 나머지는 모두 장애·보훈단체에만 외주를 줘 지역 인쇄기업들은 사실상 경기도 관련 인쇄물의 수주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인쇄업계는 발간실의 축소 및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벌써 하년째가 넘어가지만 아직도 그대로다. 최근에는 특정업체 밀어주기, 담합 등의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무시했다. 이때문에 이완표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만나 발간실의 문제점과 현황에 대해 들어봤다.





道, 자체 제작 인쇄물 78.5%… 나머지 장애·보훈단체에만 외주
지역업체 사실상 도청 인쇄물 수주 '0'… 출혈경쟁 등 고사 위기
'도지사 좀 만납시다' 민원 통해 발간실 축소 약속 받았지만 불발
타지자체 발간시설 임대운영 등 다양한 해결책 마련 검토 필요
소모품구입비 낙찰가 변동 등 특정업체와 담합 의혹도 해결해야

—경기지역 인쇄업계의 상황은 어떠한가?

"경기지역에는 경기북부의 파주출판인쇄단지를 비롯해 3천여개사에 2만여 명의 인쇄인이 종사하고 있다. 경기인쇄조합에는 일산·파주지역에서 75개사, 그 외 경기지역에서 180여개가 가입돼 있다. 인쇄산업은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자금력이 없는 영세한 중소기업이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불안으로 인한 수요 감소에 따라 업체간 과당경쟁 및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원부자재 가격 급등과 인력난·인건비 상승 등으로 IMF 외환위기보다 더한 최악의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기도청 발간실에서는 해마다 20억~30억 원 정도의 인쇄물을 생산하고 있다. 몇 년전만 해도 수원지역에 대형 인쇄사가 몇 개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축소된 상태다. 또 경기인쇄조합 건물이 있던 골목이 인쇄골목으로 수십 개의 인쇄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사장으로서 조합원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

— 2008년 취임때부터 발간실 폐지 및 축소를 주창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기도는 2008년 5월 일반경쟁계약에 의거 대산정보통신(주)대표이사 이재원)이 공급하는 디지탈인쇄시스템을 18억50만원에 체결했다. 도입한 인쇄시스템은 내지인쇄기로 오세의 베리오 프린트6250 2대, 컬러 표지인쇄기로 코니카의 LD-6500 2대, 스캐너로 캐논의 DR-5010C 1대, 봉투인쇄기로 피트니보우스의 DA300 1대, 인라인제책재단기 호리존의 BQ-460SC, SL-40, HT-70 등 9종 11대를 비롯해 디지탈인쇄시스템 서버 등이다. 현재 330㎡ 규모에 1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년 예산에만 6억5천800만 원이 책정돼 있는 상태다. 이중 5억4천200만 원은 인쇄용지 및 소모품 구입에, 1억1천600만 원은 발간시스템 유지보수에 사용되고 있다. 경기도청 발간실은 단순히 업무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토탈 디지탈인쇄시스템을 갖춘 인쇄공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인쇄공장이면 차라리 인쇄업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도 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공정하게 경쟁을 했으면 한다. 실제로 경기도청 발간실 실적은 디지탈인쇄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3천200~3천600건에 불과했지만 디지탈인쇄시스템을 도입한 후에는 급격히 늘어났다. 2009년 4천493건, 2010년 5천160건, 2011년 5천605건으로 가파른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2006년 36건, 2007년 61건, 2008년 61건이었던 외주계약 실적은 2009년 42건, 2010년 48건, 2011년 26건으로 급감했다. 현재 각 실·과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외주발주 홍보비를 제일 먼저 줄이고 있다. 이에 따라 외주발주는 급격히 줄고, 자체발간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발간실 축소를 위해 경기도청에 건의는 해봤는가?

"경기인쇄조합은 2008년 6월 24일 경기도 인쇄인 1천135명이 경기도청 발간실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 청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인쇄연합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행정안전부 장관, 도지사 간담회, 공공기관 간담회, 경기중소기업청장, 경기도의회 등에 경기도청 발간실 폐지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발간실 폐지 촉구는 이후에도 계속 됐는데, 이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인쇄조합관계자 5명, 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경기도청 관계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청 발간실 업무 업체 도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우선순위에 있는지 의문이며 도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발간실이 과연 누구를 위한 발간실인지 면밀한 재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최근 특정업체 밀어주기, 담합 등 문제 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소모품 구입비로 대산정보통신에게 2008년(2회) 1억3천816만 원, 2009년(3회) 2억7천829만4천 원, 2010년(2회) 3억5천46만6천500원, 2011년(4회) 3억1천757만8천 원, 2012년(3회) 3억1천395만3천900원, 2013년(1회)2억5천147만3천200원, 2014년(1회) 2억2천308만 원을 지급했다. 유지보수비 6억6천만 원과 소모품 구입비 18억2천800만5천600원 등 총 24억8천800만5천600원이 지급됐다. 연평균 3억5천542만9천 원 가량이 지원된 셈이다.특히 평균 낙찰률이 2008년 98.14%, 2009년 95.56%, 2010년 95%, 2011년 99%, 2012년 96%, 2013년 미표기, 2014년 92.33% 등 높은 낙찰률을 보였다.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답반이 없다. 발간실 인쇄기의 경우 연간 최대 2천800만장(1일 8시간, 1달 20일)이 가능한데 인쇄 A4 사이즈 인쇄 최고가 비용은 3원50전이어서 연간 1억500만 원이면 1년 운영비가 가능하다. 이 인쇄비용에는 소모품 비용, 인건비, 마진 등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다. 이처럼 너무 높은 운영비가 소모된다. 계다가 우연인지 몰라도 해당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2015년에는 낙찰률이 내려가고 계약 비용도 줄었다. 회계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경기도청 발간실에는 1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직원 문제만큼은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발간시설을 용역으로 인수하겠다고 밝혀왔다.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용역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인쇄기계와 종업원을 인수해 운영하면서 해산절차를 밟는 것이다. 이것이 경기도청이나 우리 인쇄인을 위한 방법의 하나이며 대구광역시에서는 발간시설운영을 임대로 입찰을 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해결에 대한 의지이다. 그리고 인쇄인들이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장기화가 되면서 생각이 바뀌고 있다. 약속을 지킬 것으로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었다. 남 지사와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생존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가 됐다.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 공개하고 축소 및 폐지를 위해 앞장서겠다."

정리=최남춘기자·사진=노인규 기자

> 인쇄인들이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장기화 되면서 생각이 바뀌고 있다. 인쇄업 생존을 위해 발간실 축소·폐지에 앞장 설 것이다.



2014년 11월 18일 라마다프라자 호텔 수원에서 열린 '남경필 경기도지사 초청 중소기업 정책간담회'에서 이완표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경기도청 발간실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월 제54회 정기총회를 열고 다른 지역 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와 연계해 경기도청 발간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는데 노력하자고 결의했다.

34.9 X 47.2 cm

중부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2면 스포츠

도체육회, 대학자원봉사단 '스포라이트' 발대식



경기도체육회는 15일 오후 수원 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학자원봉사단인 SPOLIGHT(스포라이트) 발대식을 개최했다.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과 정기적인 재능기부를 시행하는 스포라이트는 경기대, 경민대, 명지대, 용인대, 한경대, 한양대 등 6개대 80여명의 학생들로 구성, 기획 및 홍보, 총무로 나뉘어 자발적인 활동을 펼치는 참여형 자원봉사단체다. 스포라이트는 지원봉사 활동 이외에도 도내 체육관련 행사 참여, 리더십 등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자아개발도 하게 된다. 선서문을 대표 낭독한 김아현(한양대 4년) 스포라이트 1기 기장은 "앞으로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한 자기 주도적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최규진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속적인 나눔과 스포츠 복지를 통해 행복한 우리 사회를 구현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창원기자

7.5 X 12.7 cm

중부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2면 스포츠

체육고 꿈나무들 道에 모여 진검승부

문체부장관기 체육대회 개최
16개 체고서 5천여명 참가

국내 유수의 체육고등학교들이 한데 모여 자웅을 겨루는 체육 꿈나무들의 대회인 '제30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가 18일부터 20일까지 수원를 비롯한 경기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2000년 대회 이후 16년만에 경기체고에서 개최하는 이번대회는 체고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통해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대회 활성화로 국가적 스포츠 우수 선수를 조기 발굴함은 물론, 전국 체고 간 정보 공유 및 유대 강화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종합시상제를 폐지하고 종목별로 시상한다.

전국체육고등학교 교장회가 주최하고 경기체육고등학교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경기체고를 비롯, 총 16개 체고 5천여 명(임원 500명, 선수 3천800명, 학부모 700명)이 참여하게 되며 남자 13개 종목(육상, 수영, 체조, 역도, 사격, 양궁, 유도, 복싱, 레슬링, 태권도, 펜싱, 근대5종, 핀수영), 여자 10개 종목(육상, 수영, 체조, 역도, 사격, 양궁, 유도, 레슬링, 태권도, 핀수영)이 각각 펼쳐진다. 경기체고 관계자는 "이번 대회 유치로 전국 각처의 다양한 사람들의 방문으로 수원지역에 관심이 높아지고 이 지역의 관광 매출의 증대는 물론, 지역의 산업화, 현대 도시화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 지역 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회식은 18일 오후 5시 참가 체고 교장, 선수단,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호텔캐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한편 경기장 사정으로 인해 수영과 펜싱은 사전 경기로 진행됐다.

경기체고는 인천 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경기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하며 4위를 차지했고, 서울(금13·은11·동7개)이 강원체고(금9·은3·동5개)와 부산체고(금4·은5·동3개)를 따돌리고 종목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체고는 펜싱에서도 금1·동1개로 광주체고(금1)와 경남체고(은1·동2개)를 제치고 우승했다. 경기체고는 펜싱부가 없어 출전치 못했다. 김동성기자

15.7 X 10.8 cm

중부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2면 스포츠



장년부의 힘… 수원시, 1부서 7연패

도지사기 생체 족구 수원시가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족구대회 1부서 7연패를 달성했다. 〈사진〉

수원시는 17일 가평 조종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경기 결과 장년부 우승과 일반부 준우승, 여성부 3위에 오르며 종합점수 18점을 획득, 일반부 1위를 차지한 부천시(14점)와 실버부서 우승한 평택시(12점)를 따돌리고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수원시는 10회 대회부터 7회 연속 패권을 차지했다. 이천시는 2부 경기서 일반부와 청소년부 우승, 여성부 2위, 장년부 3위 등 고르게 입상하며 종합점수 23점을 마크, 전년도 우승팀 여주시(14점)와 군포시(11점)를 제치고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조부상(수원시)과 김상구(이천시)는 1,2부 최우수선수상을, 용인시와 연천군은 1,2부 모범상을 각각 수상했다. 오창원기자

10.4 X 12.7 cm

중부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3면 스포츠

동성중, 모래 위 최강 3인방

중등부 용사·청장·소장급 정상

씨름 수원 동성중이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씨름 중등부 경기도대표 최종 선발전서 3체급을 석권했다.

동성중은 15일 수원한조씨름전용경기장서 제41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를 겸해 열린 대회 최종일 경기 결과 임수주(용사급), 박성준(청장급), 감광위(소장급)가 각 체급에서 정상에 올랐다.

임수주는 용사급 결승서 안흥수(용인백암중)를, 박성준은 청장급 결승서 같은 학교의 신재영을, 김광위는 소장급 결승서 황선하(백암중)를 각각 2-0으로 물리쳤다.

용인 양지초의 임유민은 용사급 결승서 엄재우(성남제일초)를 2-1로, 송호석은 청장급 결승서 같은학교의 이대규를 2-0으로 각각 제압하고 우승했다.

이밖에 제97회 전국체전 1차선발전에서 수원농생고는 윤창현(장사급), 이하늘(용사급), 김선중(청장급)이 1위에 올랐다.

한편 소년체전 도대표 선수는 다음과 같다.

▶**중등부**=윤희준(장사급·남양주화광중), 박민교(역사급·백암중), 임수주, 한세민(용장급·성남야탑중), 박성준, 김광위, 정진호(경장급·야탑중)
▶**초등부**=성준범(장사급·남양주평내초), 이혁주(역사급·용인초), 임유민, 최지호(용장급·수원우만초), 송호석, 오현근(소장급·용인백암초), 이하진(경장급·평내초)

오창원기자

10.8 X 10.7 cm

중부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3면 스포츠

반월중, 매트 위 최강 5인방

그레코로만·자유형 체급 우승

레슬링 안산 반월중이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레슬링 중등부에 5명이 출전한다.

반월중은 16일 파주 문산체육센터서 제41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를 겸해 열린 소년체전 레슬링 도대표 최종 선발전 그레코로만형에서 윤민호(39kg급)·이상준(46kg급)·박근영(50kg급)·이현민(85kg급)등 4명이, 자유형에서 서준혁(54kg급)이 1명이 체급 정상에 올랐다.

또 용인 문정중은 자유형에서 신채환(35kg급)·윤종훈(42kg급)·최민우(50kg급)·강승준(85kg급)등 4명이 출전한다.

한편 경기체고는 제97회 전국체전 도대표 1차 선발전 고등부에서 7명이 정상에 올랐다.

그레코로만형에서 남철우(46kg급)·김주찬(54kg급)·이종현(58kg급)·김인섭(85kg급) 등 4명이, 자유형에서 권효섭(46kg급)·안동환(58kg급)·이영진(69kg급) 등 3명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소년체전 도대표 선수는 다음과 같다.

▶중등부 자유형=신채환, 김찬웅(39kg급·수원수성중), 윤종훈, 정준성(46kg급·평택도곡중), 최민우, 서준혁, 최미르(58kg급·수성중), 백경민(63kg급·수원수일중), 황태규(69kg급·성남문원중), 김주성(76kg급·부천역곡중), 강승준, 김강민(100kg급·파주봉일천중) **▶중등부 그레코로만형**=김범수(35kg급·봉일천중), 윤민호, 김영진(42kg급·도곡중), 이상준, 박근영, 남궁기선(54kg급·과천중), 김도훈(58kg급·수성중), 여정훈(63kg급·수일중), 강윤석(69kg급·도곡중), 윤건형(76kg급·봉일천중), 이현민, 이정호(100kg급·수성중)

오창원기자

10.8 X 12.8 cm

중부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4면 문화

경기문화재단 '경기옛길 만들기' 공모 내달 26일까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민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경기옛길에 반영하고자 '행복한 경기옛길 만들기 제안 공모'를 19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실시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는 경기옛길 관련 건의사항을 수집하고 향후 운영 방안에 반영할 목적으로 기획됐다.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시상과 함께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행복한 경기옛길 만들기 제안 공모'는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 진행된다. 제안 신청 방법은 경기문화포털(www.ggcf.or.kr)에서 '공모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한 후 경기옛길 공식 이메일(ggoldroad@naver.com)로 보내면 된다. 한편, 경기옛길은 조선시대 실학자인 신경준이 1770년 집필한 '도로고'에서 언급된 총 6개의 길(삼남로·의주로·영남로·강화로·경흥로·평해로)을 기반으로 경기도와 관련 지자체, 경기문화재단이 힘을 합쳐 조성한 탐방로다. 현재는 삼남길·의주길·영남길이 개통, 운영 중이다.

김동성기자

7.5 X 9.6 cm

중부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6면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

체육단체 통합, 욕심을 버려라



오창원
문화·체육부 부국장

경기도체육계가 뒤숭숭하다. 엘리트와 생활체육 단체 통합과정에서 나오는 설(說)들 때문이다. 도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사무처는 지난해 말 일찌감치 통합 했지만 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의 통합은 예상대로 난항을 보이고 있다. 도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예산을 경기도에서 받아 사용하는 만큼 통합이 별 잡음없이 진행됐지만 경기단체의 경우는 다르다. 각종 대회 개최 등에 보조금을 지원 받기는 하지만 일종의 자생단체로 구성원들이 양보 하지 않고 엘리트나 생활체육 단체 입장만 고수할 경우 통합은 쉽게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결국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헤게모니 싸움으로 번져 불썽사나운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어찌됐든 통합을 하게되면 살림살이 규모는 늘어나 예산 또한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회장 선출의 출발점은 출연금을 어느 정도 냘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엘리트 및 생활체육 단체의 회장 출연금을 보면 엘리트단체 회장들의 출연금이 대체적으로 많다. 경기도만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 경기단체의 경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단체가 다반사다.

엘리트 단체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선수의 육성과 우수 선수 확보를 위한 뒷받침에 투자하는 반면 생활체육 단체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여건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각종 대회를 개최 하며 자생력을 키워 왔다는 점에서 회장 출연금은 물론 예산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그동안 양 단체는 체육단체 이면서도 주요사업이 다른 양면성을 갖고 있었다. 엘리트와 생활체육 단체의 통합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듯 뒤 떨어지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도 포함된다. 하지만 중앙 엘리트 단체와는 달리 시도 단체의 경우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중앙 경기단체의 경우 주로 대기업에서 회장사를 맡고 있지만 경기도만 하더라도 상황은 다르다. 도와 연관된 기관이나 대기업에서 경기단체 회장사를 맡고 있는 종목은 55개 단체중 10개에 불과하다. 도 금고은행인 농협에서 유도·씨름·역도를, 신한은행에서 탁구와 레슬링을, 도건설협회와 도전문건설협회서 복싱과 정구를, 삼성전자서 육상을, 삼천리도시가스서 테니스를, 두산에서 체조를 각각 맡아 지원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개인이 회장을 맡고 있는 종목 보다 보편적으로 풍족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운영 하고 있다. 물론 개인이 맡고 있는 종목의 경우도 회장의 관심도에 따라 기업종목에 절대 부럽지 않은 운영을 하는 곳도 있다.

> 못 먹는 감
> 찔러 본다는 식으로
> 자기 단체 이익과
> 반대급부만을 노린다면
> 순조로운 통합은
> 이뤄질 수 없다.

그만큼 수천만 원의 사비를 들여 경기단체 회장을 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본인의 열정, 예산을 확보할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엘리트와 생활체육 단체의 종목간 통합을 위해 양쪽 대표들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의 소식을 들어보면 양보 보다는 자기단체의 이익과 본인의 처우에 관한 소리가 많이 들린다. 한마디로 내 밥그릇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다. 25년 동안 딴살림을 하다 합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겠지만 이를 기회로 반대급부를 챙기려는 속셈을 갖고 협의를 한다면 생채기만 남길 것이란 판단이다. 1991년 국민생활체육회가 발족되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로 나뉘어져 이원화 됐지만 그 이전에는 체육회서 모든 것을 관장했다. 다만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엘리트 우선정책에 의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 정책이 미흡했지만 국민생활체육회 탄생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활동이 왕성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오히려 단절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공존할수 있는 방안은 찾지 않고 배타적 행위만 늘어 선순환적 구조를 만드는데 실패했다. 결국 한 단계 더 발전이라는 명제를 갖고 통합을 추진하는 상태에서 '못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자기 단체의 이익과 반대급부만을 노린다면 순조롭게 통합이 이뤄질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할수 있다. 엘리트나 생활체육 단체 회장들은 취임 당시 이같은 말을 했을것이다. "소속 단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선수 또는 동호인들의 운동할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초심으로 돌아가 되새겨보면 통합과정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정답이 있을 것 같다.

25.8 X 15.6 cm

중부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6면 오피니언

드론 활성화 위한 기반마련 나서야

조윤성 북부 정치·경제팀



"경기북부지역에서는 규제 때문에 드론을 날릴 수 없으니 드론을 만드는 기업은 경기남부에서 제품시험을 하고 다시 경기북부에서 제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경기북부지역에서 드론을 개발하는 회사가 제품시험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에 돌아온 경기도의 답변이다. 경기북부지역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다.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드론의 무게, 고도, 목적과 관계없이 국방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산업용 드론은 물론 소방, 방재와 같은 공공영역에서의 드론 활용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전체 면적 4천285.56㎢ 중 69.3%인 2천971.42㎢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은 전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이다. 드론 산업은 물론 화재 진압, 구호물자 수송, 보안 등 공적 영역에서도 드론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날리기 위해 국방부의 허가를 받으려면 4~7일의 기간이 소요되는데다 비행을 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담당 자치단체의 인식은 규제를 개선하는 것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항공법을 개정해 구호 활동을 위한 드론을 사전 허락 없이 날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해로 고립된 지역에 드론으로 구호물자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경기북부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항공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 중 첫번째로 넘어야 할 산은 관련 기관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12.5 X 12.0 cm

중부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21면 종합

2층광역버스, 출근시간대 입석률 줄였다

남양주·김포서 11%·9% 줄어
좌석당 운송비 일반버스 절반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운행해 온 2층 버스의 입석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2015년 10월~2016년 3월 남양주와 김포를 운행하는 2층버스 5개 노선 9대를 대상으로 운행효과를 조사한 결과, 전년동기 대비 입석률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좌석당 운송비용도 전년 동기 대비 일반버스(CNG/경유)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버스 운행정보와 버스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간 오전(6~9시) 서울방면 이용객수는 2층버스 69명, 일반버스는 52명으로, 2층 버스의 이용객이 일반버스의 133% 많았다.

아침시간대 2층 버스 운행노선의 입석률을 일반버스와 비교하면 남양주는 19.3%에서 11.1%로, 김포는 17.6%에서 9.3% 각각 감소했다. 버스 도입 이후 입석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유류비, 소모품비, 보험료 등(단, 기타 공통비 성격의 경비, 판매관리비는 제외) 1일 대당 주요 운송비용 비교 결과에서도 일반버스(CNG)는 42만4천 원, 일반버스(경유)는 35만7천 원, 2층버스(경유)는 39만2천 원으로 비슷했다.

이를 좌석수로 나눈 좌석당 운송비용은 41석 일반버스(CNG)의 경우 1만 원, 39석 일반버스(경유)는 9천 원, 72석 2층버스(경유)는 5천 원으로 2층 버스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확인됐다.

지우석 경기연구원 휴먼교통실장은 "2층 광역버스가 출근시간대 입석률 감소에 크게 기여해 일반버스와 비교하면 경제성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2층버스의 지속적인 확대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2층 광역버스를 김포, 남양주시에 도입했고, 올해는 수원시, 파주시, 안산시, 남양주시, 김포시에 19대를 추가 도입해 운행할 예정이다. 신정훈기자

23.0 X 8.1 cm

중부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21면 종합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민간 모집

경기도는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원과 의정부시 소재 민간어린이집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을 인수해 소유와 관리를 맡는 형태로 추진된다. 모집대상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한 시설, 공고일 기준으로 3년이내 대표자 변경이 없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 등으로 건물 소유형태는 자가나 전세, 월세 모두 가능하다. 신정훈기자

5.6 X 7.1 cm

중부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21면 종합

"용인시, 공유재산 정보 공개하라" 결정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윤모씨가 "공유재산 정보를 공개하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도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됐고, 공유재산 정보가 공개된다고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천의현기자

5.6 X 6.6 cm

중부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21면 종합

오늘부터 '착한 교복' 12개 시군 순회전시

경기도는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도내 12개 시·군에서 지난해 디자인한 '착한 교복' 40벌을 순회 전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착한 교복은 도와 도교육청간 교육연정 1호 사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동시에 도내 섬유업계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천의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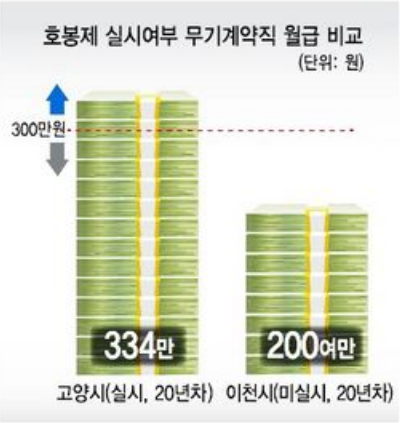
5.6 X 4.6 cm

중부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23면 사회

道 무기계약직 임금 '부익부빈익빈' 심화

각 지자체 호봉제 시행 유무따라 월급차이 최대 130여만원

양평·이천 등 군소 도시 9곳 예산 없어 호봉제 시행 못해 같은 연차에도 급여차이 커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무기계약직 임금체계가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도시들은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군소(群小)도시들의 경우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호봉제 없이 무기계약직 임금체계를 운영중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는 도내 시·군들의 무기계약직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에 대한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는 도내 시·군은 ▶양평(무기계약직 166명) ▶이천(153명) ▶하남(140명) ▶동두천(130명) ▶안성(125명) ▶여주(122명)▶광주(111명) ▶의정부(108명) ▶양주(82명) 등 모두 9개로, 이들 지자체의 무기계약직 수는 1천137명에 달한다. 이는 도내 시·군 무기계약직 전체(6천639명)의 17.1%에 달하는 수치에 해당한다.

무기계약직 호봉제는 지자체들이 노조와 단체교섭(협약)에 따라 도입·시행하고 있는 임금체계다.

이들 9개 시·군들은 호봉제가 시행되지 않다보니 근무연차 누적에 대한 임금 인상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호봉제 시행 시·군들의 동일한 연차 무기계약직들은 물론 정규직 공무원들과 상당한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 무기계약직 호봉제를 실시하는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임금이 지급되는 지자체는 고양시로, 환경관리직 기준 1호봉 월급은 268만 원, 20호봉은 334만 원에 달한다. 반면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 중 임금이 가장 적은 이천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은 연차에 상관없이 한달 평균 200여만 원의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그래픽 참조

결국 고양시의 20년차 무기계약직 임금은 이천시의 같은 기간 근무한 무기계약직보다 한달 최대 130여만 원, 연간 1천600여만 원이 많은 셈이다.

안성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30년 가량 근무중인 상수도검침원 A씨는 "현재 받는 월급 210여만 원은 정규 공무원의 60% 수준"이라며 "무기계약직들도 소속감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호봉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시 일자리센터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상담사 B씨는 "2년 전만 해도 최저시급을 적용받아 급여를 받다보니 임금이 너무 적었다"며 "현재 연봉이 2천800만 원 수준이다. 다른 지자체와 형평을 맞춰 호봉제를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현선 하남시 자치행정과장은 "무기계약직 호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호봉제로의 전환은 어렵다"고 밝히는 등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는 도내 9개 시·군들은 예산부족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전현준·신병근·백창현기자

11.6 X 25.2 cm

중부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23A면 사회

세월호 2주기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개관

'아들아…' '친구야…' 이제 편히 쉬렴

인천가족공원 일반인 추모관
희생자 41명 봉안함 안치
유가족·추모객 250명 추모
생존자 "매 순간 고통 감내"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은 지난 16일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추모식이 열렸다.

오전부터 찌푸린 하늘은 바람과 함께 비를 뿌렸고 추모관 주위로 심어진 벚나무에서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슬퍼하듯 꽃잎들이 떨어져 내렸다.

검은 상복에 하얀 비옷을 입은 유가족과 추모객 250여명은 굳은 날씨 속에서도 차분히 자리를 지키며 되살아난 2년 전 아픔을 묵묵히 견디고 있었다.

추모관 개관식을 겸해 일반인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시작된 추모식은 대책위 대변인 정명교씨의 애절한 추모사로 이내 숙연해졌다.

정씨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떨어지는 오늘 얼음장같은 바다에서 희생당한 고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매일 희생자들을 기다리는데 꿈에서조차 보지 못한다"고 비통해했다.

추모사가 끝난 뒤 희생자들에 대한 헌화와 분향이 이어지자 유가족들의 슬픔은 한층 더해졌다.

각기 다른 사연으로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를 향하다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고인이 된 아들과 딸,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난 듯 유가족들은 차오르는 슬픔을 오열로 품어냈다.

추모 공연을 끝으로 추모식이 끝나자 유족들은 추모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추모관에 들어선 유족들은 마음을 추스리지 못한 채 영정과 유골 앞에서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추모관 1층 전시실로 향한 가족들은 복원된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사고로 아들 방현수(21)씨를 잃은 방지수(52)씨는 "영상을 복원시켜 보여달라고 수 없이 정부에 하소연한 끝에 아들의 모습을 CCTV에서 볼 수 있었다"며 "군대 가기 전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4명이 갔고 2명은 살아 돌아왔지만 현수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담담히 말했다.

방씨와 같이 서 있던 오의중(23)씨는 이내 눈가가 촉촉해졌다.



세월호 참사 2주기인 16일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에서 한 유족이 안치된 영정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김상우기자

오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동네 친구들이었는데 4명 모두 영장이 나와 추억도 쌓을 겸 세월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며 "친구 2명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고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군에 입대, 매 순간 슬픔과 고통을 혼자서 감내해야만 했다"고 회상했다.

한편 이날 문을 연 추모관은 국비 30억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487㎡ 규모로 지어졌다.

추모관에는 전체 희생자 304명(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 가운데 단원고 학생과 교사를 제외한 일반인 희생자 41명의 봉안함이 안치됐다.

일반인 희생자 45명 중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 3명과 안산 단원고 학생과 함께 안치된 고인 1명은 빠졌지만, 이들의 영정과 위패는 추모관에 함께 안치됐다.

하늘에서 봤을 때 리본 모양을 형상화한 추모관은 세월호 축소 모형, 사고 스토리를 재연하는 샌드아트 제작 영상, 희생자 유품, 추모비, 세월호 관련 기록물 등을 갖췄다. 주재홍기자

34.9 X 17.1 cm

중부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23B면 사회

DMZ 자전거투어… 몸만 와서 즐기세요

새롬랜드 자전거대여소 설치

연천군 새롬랜드에서 DMZ자전거 투어를 즐길 수 있게됐다.

17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연천군 임진물 새롬랜드에 'DMZ 자전거투어 대여소'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그동안 DMZ 자전거 투어는 파주 임진각에서만 즐길 수 있었다.

방문객들은 자전거를 대여해 임진물 새롬랜드에서 출발, 임진강변을 따라 허브빌리지 일원 북삼교를 지난 후, 군남홍수조절지를 반환점으로 되돌아오는 15㎞ 코스를 달릴 수 있다.

이 코스는 임진강변 위 둑길을 따라 달리며 임진강변의 자연생태 등 수려한 경관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코스 인근의 주요명소로 우선 화산활동으로 생겨난 천혜의 절경인 주상절리가 높이 40m, 길이 1.5㎞로 펼쳐져 있으며, 또, 숭의전, 허브빌리지, 경순왕릉, 두루미 테마파크 공원 등 우수한 역사·자연·문화 명소들도 둘러 볼 수 있다.

대여소는 올해 11월까지 상시 운영된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시간당 3천 원, 1일 1만 원의 대여료를 내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윤병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연천지역에 DMZ 자전거투어 운영을 통해 다소나마 지역경제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참가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시설 확충 등 지속적인 보강사업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코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DMZ 자전거 투어를 알리기 위해 'DMZ 자전거투어 특별행사(평화누리길 자전거투어)'를 오는 5월 14일 임진물새롬랜드에서 개최한다.

참가 모집기간은 4월 14일부터 5월 9일까지이며, 행사 공식 홈페이지(www.walkyourdmz.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300명까지 선착순 접수다.

조윤성기자

11.8 X 16.4 cm

경기신문

2016년 04월 18일 (월)
01면 종합

도교육청 "청사, 광교신도시 못간다"

이전비용 전액확보 방안 없고 교육부 타당성·심사통과 불가능 道에 '융합타운내 이전 불가' 밝혀

경기도교육청이 수원 광교신도시로의 청사 이전을 사실상 포기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의 광교 융합타운 입주 제안을 놓고 그동안 간부 협의 등을 통해 내부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앞으로 상당 기간 현 청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다 교부금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와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보면 이전비용을 마련할 방안도 없어 청사 이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 최은옥 부교육감은 최근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만나 이런 뜻을 전달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으로 초·중·고 교육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청사 이전을 추진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현 청사를 매각하더라도 이전비용 전액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청사를 신축하려면 추가로 교육부에서 교부금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도 통과해야 하지만 현재 여건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관측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30일에도 '청사를 이전하려면 교육부의 타당성 심사와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데, 1년6개월 정도 소요돼 당장 (이전을) 확답하기 어렵다'는 공문을 도에 보냈다.

▶▶2면에 계속

/이상훈기자 lsh@

17.8 X 7.9 cm

경기신문

2016년 04월 18일 (월)
02면 종합

道 산하기관 통폐합·누리예산 집행부-도의회, 줄다리기 예고

내일부터 임시회… 민감한 사안 다뤄

오는 19~26일 예정된 제309회 경기도회 임시회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설전이 예고된다. 과거 민선 5기 시도와 무산을 반복한 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여부가 민선 6기 첫 시험대에 오르며, 여야 간 갈등으로 해를 넘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도 갈림길에 선다. 도의회 관계자는 "두 가지 사안 모두 여러 이해 관계가 얽힌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나 어느 한 쪽도 더는 결단을 미룰 수 없고, 선택과 동시에 파장이 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 도의회, 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두고 '갑론을박'

경기도는 산하 24개 공공기관을 12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용역 결과를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도는 공공부문 경영컨설팅 전문기업인 엘리오앤컴퍼니에 의뢰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내부 기관인 경기연구연을 통한 관련 용역 결과가 자칫 객관성과 형평성 논란을 빚을 수 있어 외부기관에 '칼자루'를 맡긴 것이다.

용역 결과에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비롯해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영어마을 △경기농림진흥재단 등 6곳이 폐지 대상에 올랐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한국도자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10곳은 4곳으로 통·폐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도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4월 임시회에 대상 기관과의 공청회 등 의견 조율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각 상임위별 '동의' 또는 '부동의' 여부를 가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폐지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고,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혀 도의회의 혼전이 예고된다.

앞서 한국도자재단의 경우 노동조합은 관련 반발 성명을 내 "용역기관에서 획일적 경제성 논리로 통폐합 대상을 정했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도자기를 사금파리로 만드는 것"이라며 통합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국도자재단은 경기문화재단에 흡수통합 대상으로 이름이 올랐다.

24개 도 산하기관 통·폐합
경기연구원 용역 형평성 논란
컨설팅 전문 외부기관에 의뢰

도문화의전당 등 6곳 폐지 대상
경기도시公 등 10곳, 4곳으로

폐지대상 산하기관 거센 반발
의회내 당·지역 떠나 찬반분분

어린이집누리예산 재갈등 우려
道, 2차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선집행 후정산' 계획 밝혀

전출금 세입 놓고 교육청 갈등
도의회 더민주와도 마찰 예상

경기도시공사 흡수통합 대상에 오른 경기평택항만공사도 반대 의견을 냈다. 항만개발과 도시개발 업무를 한데 묶는 것은 국내외에 전례가 없고 도 예산지원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는 의원간 당색이나 지역에 구분없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광철(새누리·연천) 위원장은 "폐지대상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경기영어마을의 순기능에 대해 고려해봐야 하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오히려 조직을 키워야 하는데 경기연구원이 흡수하는 방안이 나왔다"며 통·폐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더민주·고양2) 의원은 "민선 5기 도 산하기관 인건비 예산(2006~2011년)은 약 1천400억원에 달했고, 이같은 인건비는 민선 6기 더 늘어났다"라면서 "이같은 문제를 개선할 통·폐합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며 맞섰다.

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오환(새누리·고양6) 의원도 "유사한 공공기관의 업무를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통·폐합 찬성에 힘을 실었다.

■ 어린이집 누리예산 두고 2차 진통 예고

도는 지난 14일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포함한 2차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1년치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치 910억원 포함)이 반영됐다.

문제는 도가 관련 예산을 두고 경기도교육청에 반하는 '선집행 후정산' 계획을 밝히면서 도와 의회 간 마찰이 불가피하다.

도가 추경안에 담은 어린이집 누리예산의 세입은 도교육청 전출금인데,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장부상'으로만 세입이 잡힌다.

그러나 누리예산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도는 해당 예산을 집행, 시·군을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한 뒤 도교육청에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세입 없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 도에서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정산할 생각이 없고 재정여건상 그럴 여력도 없다"고 반발했다.

도의회 더민주 안혜영(수원9) 수석대변인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는 기존 기조에 변함이 없다. 도가 '선집행 후정산'을 전제 조건을 내세운다면 이를 받아들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혀 도와 도의회 간 마찰이 예고된다.

더민주는 18일 대표단 회의 등 내부 회의를 거쳐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

경기신문
2016년 04월 18일 (월)
02면 종합



양복완 행정2부지사, 다산신도시 현장 점검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지난 15일 다산 진건·지금 공공주택사업이 추진 중인 남양주 다산신도시 현장을 찾아 현황 및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17.8 X 10.1 cm

경기신문
2016년 04월 18일 (월)
02면 종합

道, 민생피해 도민 찾아가 따스한 손길 내민다

내달부터 '서민민생 지킴서비스' 금융생활 지침 안내 등 조치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를 통해 '서민민생 지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북부지역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억울한 민생피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둔 도민 밀착형 현장 서비스 사업이다.

센터에는 그동안 내방객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공해왔으나 노인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어 보다 촘촘한 민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센터는 노인,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북부지역 금융 소외계층이 자주 찾는 노인복지관과 하나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직접 찾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 서비스 분야는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금융소외계층 대상 대부업·금융사기 등 금융피해 △다단계 등 소비자 피해 △취업사기 예방 일자리 알선 △소상공인 불공정 거래 피해 예방 등이다.

상담 후에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생활 지침 안내, 계층별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민생피해 분쟁 관련 심층상담, 분쟁 해소를 위한 피해 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시정요구, 실질적 해결을 위한 구제기관 연계 등의 조치도 하게 된다.

윤승노 도 행정관리담당관은 "앞으로 찾아가는 365 서민민생지킴 서비스를 통해 민생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 031-8030-2312)

/안경환기자 jing@

17.8 X 8.0 cm

경기신문
2016년 04월 18일 (월)
02면 종합

▶1면 '도교육청'서 계속

앞서 도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 설명회'에서 도교육청의 광교 신청사부지로의 이전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올해 진행한 2~3차례 실무협의에서 도교육청 청사 용지로 광교 융합타운 내 4천㎡ 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도교육청의 수원 조원동 남부청사 용지는 3만3천여㎡ 에 이른다.

도교육청의 청사 이전 거절로 오는 25일 예정된 도의 '융합타운 마스터플랜 최종보고회'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수원시 장원구 조원동에 있는 현 도교육청 남부청사는 1969년 12월 개청했으며 1979년 별관 청사를 신축했다.

/이상훈기자 lsh@

5.7 X 9.6 cm

경기신문
2016년 04월 18일 (월)
05면 경제



대학생들, 도시원예 시설 설명에 귀 쫑긋 지난 1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진행한 대한민국 농식품 미래기획단(YAFF) 초청행사에 참가한 YAFF 소속 대학생들이 도농기원의 도시원예 연구시설을 견학하고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제공

23.8 X 11.0 cm

경기신문
2016년 04월 18일 (월)
05면 경제

농식품 미래기획단 초청 도농기원 '신기술' 홍보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5일 대한민국 농식품 미래기획단(YAFF) 초청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YAFF 소속 대학생 40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경기농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대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YAFF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선발한 대학생 단체로 농식품산업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YAFF 소속 대학생들은 앞서 경기도가 개발한 가시없는 장미 '딥퍼플'과 추정벼보다 밥 맛이 뛰어난 '참드림', 전국에서 재배되는 인기 버섯 '곤지7호' 등 신품종과 도시원예 연구시설, 농업용 드론 등 신기술을 견학했다.

임재욱 도농기원장은 "이번 행사에서 대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통해 농업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새로운 농식품산업 아이디어와 정책 발굴에 역학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5.7 X 14.3 cm

경기신문

2016년 04월 18일 (월)
06면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구운천 일원에서 불법으로 하상을 돋우고 불법시설물까지 설치하는 등 사유지화하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화우기자 lhw@

남양주시, 하천부지 사유지화 관리 허점

구운천서 대규모 불법 하천 돋움 공사에 캐노피 설치
차량 출입 통제도… 하천폭 좁아져 장마철 홍수 우려

경기도에서 남양주시로 관리를 위임한 지방 2급 하천인 구운천(수동면 외방리)에서 대규모로 하상(河床: 하천의 바닥)을 돋우고 불법시설물까지 설치하는 등 사실상 개인사유지화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의 하천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17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 구운천은 지난 1998년 홍수때 모두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하천이어서 사고후 2000년 1월 경기도에서 하천정비를 위해 544-4번지 3천713㎡와 547-9번지 277㎡를 매입해 사실상 하천부지로 편입시켰다.

하지만, 이 하천에서 누군가가 지난해부터 불법으로 하상을 돋우고 있는가 하면 하천변에 불법으로 대형 천막인 캐노피 3개까지 설치해 놓았다.

특히 하천 제방을 따라 길이 700~800m에 이르는 3천여㎡ 가량이 하천 바닥에서부터 1m~1m 50㎝ 가량이 돋워져 있으며 최근에는 400㎜ 콘크리트 흄관까지 묻어 놓았다.

뿐만아니라 기존에 있던 포장된 하천 출입로는 흙으로 막아 놓고 하상 돋움 공사 등을 하면서 새로 제방에서 하천으로 내려오는 차량 출입로를 개설한 후 쇠사슬과 자물쇠까지 설치해 놓아 주민들은 개인 땅인 줄 알았다는 것.

게다가 제방옆 남의 땅에 주인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이곳은 남양주시청 및 지역발전 협의회 회원 일동이 꽃길 사업을 위해 공원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입간판을 세워 시를 사칭해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주민들은 "1998년 대형 사고 후 경기도에서 하천정비계획에 따라 인근 부지까지 매입해 하천부지로 편입시켰는데 누군가가 우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도 대규모로 하상을 돋우면서 하천폭을 좁히고 있다"며 "무법천지 같다. 시에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상을 높이 돋우면 하천폭이 좁아져 폭우나 장마때 유속이 빨라지면서 자칫 대형 참사를 부를 수 도 있다"고 걱정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하천 관련 업무는 본청에서 하다가 올해 관할 센터로 이관돼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찾아 법적 책임을 묻고 신속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23.8 X 19.0 cm

경기신문
2016년 04월 18일 (월)
07면 경기

광명동굴에 둥지 튼 '프랑스 라스코동굴벽화' … 아시아 최초

'국제순회 광명동굴전' 개막

300여명 참석 축하행사 열려
5개월간 휴무 없이 전시

기원전 1만5천년 구석기시대 인류 벽화가 새겨진 유네스코 등재 '프랑스 라스코동굴벽화'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광명시에 5개월간 둥지를 틀었다.

광명시는 지난 16일 오전 가학동 광명동굴 선광장에서 '프랑스 라스코동굴벽화 국제순회 광명동굴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기대 시장, 나상성 시의장을 비롯해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플뢰르 펠르랭 프랑스(한국명 김종숙) 전 문화부장관,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 제르미날 페이로 프랑스 하원의원, 조양호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한국측 조직위원장, 박흥신 라스코벽화 광명동굴전 조직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아나운서 김흥성·이숙영의 사회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행사는 플뢰르 펠로랭 전 문화부장관과 영화배우 김규리를 '라스코벽화 광명동굴전 및 문화소외 청소년 초청사업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것을 시작으로 막을 열었다.

남경필 도지사와 전시관 디자인을 총지휘한 디자이너 장 누벨은 영상을 통해 행사 축하의 말을 남겼다.

개막식 후에는 광명동굴 예술의전당에서 세계적인 패션디자이너 이상봉이 총연출한 패션컬렉션이 '어둠과 빛, 시간과 흔적'이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특히 디자이너를 꿈꿨지만 세월호 참사로 운명을 달리한 단원고등학교 고(故) 이장환 학생의 사연을 모티브 삼아 '상처받은 영혼이 한 마리 나비가 돼 날아가는 드림로드-하늘로 가는 길'로 진행된 패션은 관객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지난 16일 광명시 가학동 광명동굴 선광장에서 '프랑스 라스코동굴벽화 국제순회 광명동굴전' 개막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제막을 하고 있다. /유성열기자 mulko@

양기대 시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전시회는 선사시대 인류와 현대 인류가 동굴이라는 공통분모를 고리로 동굴에서 해후하는 뜻 깊은 행사"라며 "라스코동굴벽화와 광명동굴의 만남은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교류를 넘어 세계 문화 교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광명동굴이 글로벌 문화관광명소로 비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외교부·문화홍보부, 대한민국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9월 4일까지 휴무 없이 진행된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23.8 X 18.2 cm

경기신문

이천병원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화' 속도… 추진단 "9월 착공"

이천시민의 염원인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의 종합병원화 사업이 중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9월 착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이천시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증축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추진단이 최근 시를 방문해 그 동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이천의료원 증축과 관련한 부지매입, BTL사업 협약 진행사항 등을 시측에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조병돈 시장과 경기도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보건산업진흥원 오종희 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

방문단은 "이천의료원 증축공사는 9월에 착공해 201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BTL사업 자문위원단에 시 관계자 참여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병돈 시장은 "방문단이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 건립은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만큼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천=김웅섭기자 1282kim@

2016년 04월 18일 (월)
07면 경기
23.8 X 3.9 cm

경기신문
2016년 04월 18일 (월)
09면 인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2주기 추모… "다신 안타까운 희생 없어야"

유가족·시장 등 300여명 참석
인천가족공원 추모관 개관식
단원고생 제외 41명 봉안함 안치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지난 16일 인천가족공원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개관과 희생자들의 추모식이 거행됐다.

인천시는 이날 세월호 사고 2주기 추모식과 추모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추모행사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과 지역 국회의원, 유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묵념과 추모사, 헌화 및 분향,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유정복 시장은 추모사에서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민이 행복하고 보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인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9일 만월당에 임시 안치돼 있던 20기의 봉안함과 타 지역에 안치돼 있던 15기의 봉안함을 추모관에 안장했다.

추모관에는 전체 희생자 304명(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 가운데 단원고 학생과 교사를 제외한 일반인 희생자 41명의 봉안함이 안치됐다.

일반인 희생자 45명 중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 3명과 안산 단원고 학생과 함께 안치된 고인 1명을 제외한 이들의 영정과 위패는 추모관에 함께 안치됐다.

유가족들은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된 안장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인들의 평안을 빌었다.

추모관은 추후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일반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공간은 물론,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교육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복 인천시장이 16일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행사 및 추모관 개관식에서 추모관 봉안함 앞에서 오열하는 유가족을 위로 하고 있다.

23.8 X 23.7 cm

경기신문
2016년 04월 18일 (월)
11면 인물



"등·하굣길 교통안전 저희가 책임집니다"

수원서부署 녹색어머니회 발대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경찰서 대강당에서 '제9기 수원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백혜련 수원을 국회의원 당선자, 지성호 수원시 안전교통국장, 박흥수 권선구청장, 경찰서 협력단체장, 녹색어머니회 임원진 및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안매켜소' 운동과 녹색어머니회 활동영상물 시청, 임원진 및 신규 회장단에 대한 위촉장 수여, 실천결의문 낭독, 격려사 및 축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수원서부서 녹색어머니회는 앞으로 지역 23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장선기자 kjs76@

17.8 X 8.7 cm

경기신문
2016년 04월 18일 (월)
12면 문화



경기문화재단, 제안 공모 실시
건의사항 수집… 운영에 반영

경기문화재단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행복한 경기옛길 만들기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해 경기도민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경기옛길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는 경기옛길 관련 건의사항을 수집해 앞으로의 운영 방안에 반영할 목적으로 기획됐다.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대상(1명·온누리상품권 10만원), 최우수상(2명·온누리상품권 5만원), 우수상(5명·온누리상품권 3만원), 아차상(10명·온누리상품권 5천원)을 선정할 방침이다.

'행복한 경기옛길 만들기 제안 공모'는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 진행된되며 제안 신청 방법은 경기문화포털(www.ggcf.or.kr)에서 '공모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한 후 경기옛길 공식 이메일(ggoldroad@naver.com)로 보내면 된다.

한편, 경기옛길은 조선시대 실학자인 신경준이 1770년 집필한 '도로고'에서 언급된 총 6개의 길(삼남로·의주로·영남로·강화로·경흥로·평해로)을 기반으로 경기도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경기문화재단이 힘을 합쳐 조성한 탐방로로 현재는 삼남길·의주길·영남길이 개통, 운영중이다.

/정민수기자 jms@

17.8 X 13.8 cm

경기신문
2016년 04월 18일 (월)
14면 스포츠

박성준, 파워 넘치는 들배지기
〈수원 동성중〉

도학생체전 중등 70kg급 정상

정진호, 중등 60kg급 우승

박성준(수원 동성중)이 제41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 씨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박성준은 지난 15일 수원 한조씨름체육관에서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도 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린 대회 중등부 청장급(70kg급) 결승에서 신재영(동성중)에게 들배지기로 내리 두 판을 따내며 2-0으로 승리를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또 중등부 경장급(60kg급)에서는 정진호(성남 야탑중)가 같은 학교 서근우를 안다리와 들배지기로 꺾고 우승했고 소장급(65kg급) 김광위(동성중), 용장급(75kg급) 한세민(야탑중), 용사급(80kg급) 임수주(동성중), 역사급(90kg급) 박민교(용인 백암중), 장사급(+130kg급) 윤희준(남양주 화광중)도 나란히 정상을 밟았다.

이밖에 초등부에서는 경장급(40kg급) 이하진(평내초)과 소장급(45kg급) 오현근(용인 백암초), 청장급(50kg급) 송호석(용인 양지초), 용장급(55kg급) 최지호(수원 우만초), 용사급(60kg급) 임유민(양지초), 역사급(70kg급) 이혁주(용인초), 장사급(+120kg급) 성준범(평내초)이 각각 정상에 올랐고, 고등부에서는 경장급(70kg급) 김현, 소장급(75kg급) 정우석(이상 용인고), 청장급(80kg급) 김선중(수원농생고), 용장급(85kg급) 김재윤(남양주공고), 용사급(90kg급) 이하늘(수원농생고), 역사급(100kg급) 최재훈(광주 초월고), 장사급(+140급) 유창현(수원농생고)도 나란히 정상에 동행했다.

한편 단체전에서는 초등부 성남제일초와 중등부 동성중, 고등부 남양주공고가 각각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정민수기자 jms@

11.8 X 12.4 cm

경기신문

2016년 04월 18일 (월)
14면 스포츠

김도훈, 전국소년체전 레슬링 '道 대표'

중등부 그레코 58kg급 정상
서준혁, 자유형 54kg급 1위

김도훈(수원 수성중)이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레슬링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한다.

김도훈은 16일 파주 문산체육관에서 제41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를 겸해 열린 제45회 전국소년체전 레슬링 도대표 선발전 중등부 그레코로만형 58kg급 결승에서 한지훈(파주 봉일천중)을 꺾고 정상에 오르며 본선 진출권을 획득했다.

또 중등부 자유형 54kg급 결승에서는 서준혁(안산 반월중)이 이동욱(봉일천중)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밖에 중등부 그레코로만형 63kg급 여정훈(수원 수일중)과 54kg급 남궁기선(과천중), 42kg급 김영진(평택 도곡중), 39kg급 윤민호(반월중), 69kg급 강윤석(도곡중), 76kg급 윤건형(봉일천중), 85kg급 이현민(반월중), 100kg급 이정호(수성중), 자유형 35kg급 신채환, 42kg급 윤종훈(용인 문정중), 46kg급 정준성(도곡중), 50kg급 최민우(문정중), 54kg급 서준혁(반월중), 58kg급 최미르(수성중), 63kg급 백경민(수일중), 69kg급 황태규(성남 문원중), 76kg급 김주성(부천 역곡중), 85kg급 강승준(문정중), 100kg급 김강민(봉일천중)도 각각 정상에 등극했다.

한편 고등부에서는 63kg급 안덕진(성남 서현고)이 그레코로만형과 자유형에서 모두 우승해 2관왕에 올랐고 그레코로만형 46kg급 남철우(경기체고)와 50kg급 박찬현(성남 서현고), 54kg급 김주찬 58kg급 이종현(이상 경기체고), 69kg급 한운호(파주 봉일천고), 85kg급 김인섭(경기체고), 91kg급 김영훈, 120kg급 이승진(이상 화성 흥익디자인고), 자유형 54kg급 박도원(서현고), 58kg급 안동환(경기체고), 69kg급 이영진(경기체고), 76kg급 김용식(봉일천고), 85kg급 박준(서현고), 91kg급 안주승, 97kg급 강현수(이상 봉일천고)도 정상에 동행했다.

/정민수기자 jms@

11.8 X 14.3 cm

경기신문
2016년 04월 18일 (월)
14면 스포츠

대학자원봉사단 발대식 도체육회, 80여명 구성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15일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도전과 열정으로 경기도 스포츠 복지 문화를 선도할 대학자원봉사단 SPOLIGHT(스포라이트) 발대식을 개최했다.

최규진 도체육회 사무처장과 강병국 총괄본부장, 1기 단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및 축사, 사업소개, 단원 선서 순으로 이뤄졌다.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은 물론 정기적인 재능기부를 시행하는 스포라이트는 올해 처음으로 자치기구를 조직해 기획, 홍보, 총무부로 나뉘어 자발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참여형 자원봉사단으로 현재 경기대, 경민대, 명지대, 용인대, 한경대, 한양대 등 총 6개 대학 8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 외에도 도내 체육관련 행사 참여, 리더십 등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스포츠를 통한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로 성장해나가게 된다.

최규진 사무처장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속적인 나눔과 스포츠 복지를 통해 행복한 우리 사회를 구현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격려했다. 한편, 선서문을 대표 낭독한 김아현(한양대 4년) 스포라이트 1기 기장은 "앞으로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한 자기 주도적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민수기자 jms@

5.7 X 16.5 cm

경기신문
2016년 04월 18일 (월)
19면 사회

"2년전 봄, 기억할게"… 경기도민들 '울컥'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식
정부합동분양소에서 '기억식'
남경필 도지사 등 2천여명 참석

"교육청내 기억공원 만들 것"
이재정 도교육감 조성 약속



진실을 향해 '한걸음 또 한걸음' 세월호 참사 2주년인 지난 16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진실을 향한 걸음'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합동분향소를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억을 넘어 희망을 만들고 아픔을 넘어 변화를 만들겠고, 진실을 기억하는 봄을 맞이할 때마다 당신들을 느끼며 잊지 않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6일 오전 10시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슬픔을 함께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제종길 안산시장, 이준식 교육부장관과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이 교육감은 "말할 수 없는 먹먹한 가슴으로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아픔과 죄책감을 씻을 수가 없다"면서 "희생자들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로 416민주시민교육관을 마련하고, 416단원장학재단과 416교육체제를 제대로 운영할 것이며, 교육청 안에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작은 공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저마다 가슴에 노란리본을 단 시민들은 2년전 차가운 바닷속에 꽃다운 청춘이 묻힌 학생들의 사진 하나하나를 보며 그들을 애도했다.

한 시민은 "벌써 2년이나 흘렀다. 하지만 흘러간 시간을 무색케할 만큼 슬픔은 아직도 그대로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유가족들은 얼마나 답답하겠냐"며 눈시울을 붉혔다.

추모제 참석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분향소와 단원고 등을 거쳐 돌아오는 '진실을 향한 걸음' 행사를 진행, 다시 화랑유원지 대공연장으로 돌아와 북소리 연주, 청소년 합창단, 기타연주자가 참여하는 문화제 '봄을 열다'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에서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식을 갖고 세월호 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남부청사에서 진행한 추모식에는 이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전 직원, 소속기관장 및 교육장, 김주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원단체 및 교육시민사회단체 등이, 북부청사에는 문병선 제2부교육감을 비롯해 관할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장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해 추모영상과 공연, 추모사 낭독으로 이어졌다.

또 같은 날 안산 문화광장에서도 안산시 고교학생회장단연합회 주최로 열린 추모제에 시내 24개 고등학교 학생들과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학생들은 저마다 촛불과 함께 '4·16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글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추모제를 찾은 한 단원고 학생은 "아직도 우리는 그들에게 미안해서, 그리고 그리워서 잠을 설친다"라며 "그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었고 놓아주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노란색 종이와 흰색 종이에 희생 학생들을 향해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적은 뒤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카드섹션'과 추모 합창으로 추모제를 마무리했다.

추모제에 앞서 학생 260여명은 정부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문화광장까지 3㎞가량 행진하기도 했다.

/안산=김준호·박국원기자 pkw09@

23.9 X 20.9 cm

경기신문

2016년 04월 18일 (월)
19면 사회

'세월호 교재 수업' 시각차… 교육부 "부적합" 도교육청 "징계할 일 아냐"

"부정적 국가관 조장 우려" 교육부 "사용시 엄정조치"

도교육청 "학교 자율로 결정" "순수한 추모위주 교육한 것"

경기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만든 세월호 교재로 수업한 것과 관련, 징계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광명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 7일 2학년 학생들에게 세월호 관련 계기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사가 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교조가 제작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계기교육 교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교육부는 이 교재가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국가관을 조장할 수 있고 사실 왜곡과 비교육적 표현 등으로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으로, 이 교재를 사용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 교육청은 교육내용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교재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교사가 교장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이 교재를 사용한 게 문제가 된다는 취지다.

도 교육청은 앞서 모든 계기교육 자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 지침을 정했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이것 역시 징계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편향됐거나 정치적이지 않고 순수하게 추모 위주로 교육한 것으로 파악됐고 지침을 어긴 부분은 징계해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교육부로부터 징계 요청이 오면 지침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지난 15일 이 사안을 조사해 교육부에 보고했으며 교육부를 이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기자 lsh@

23.9 X 9.6 cm

기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1면 종합

謹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弔



세월 가도 잊을 수 없기에… 세월호 희생자 추모 행렬 4·16 세월호 추모기간을 맞아 17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정부합동분향소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기사 18면>

안산=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23.4 X 7.5 cm

기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1A면 종합

與<野 정국에 누리예산 논란 재점화되나

더민주·국민의당 등 국고지원 주장… 정부 '시도교육청 의무편성' 제동
도, '선집행 후정산' 방식 추경안 놓고 도의회 野·도교육청과 마찰 예고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지방정부 간 치킨게임으로 치달았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이다.

당장 경기도에서는 19일부터 시작되는 경기도의회 임시회부터 이미 소진 상태를 맞은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모양새다.

1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4·13 총선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던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의무편성 입법 추진은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을 막겠다며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편성토록 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을 내놓은 상태다.

당초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무난한 처리가 예상돼 왔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모두가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주장하고 있어 '여소야대'의 새 국회에서는 처리가 간단치 않게 됐다.

특히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2개월분만 편성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소진된 경기도에서는 당장의 보육대란을 앞두고 편성 주체인 도교육청과 도의회 다수당인 더민주가 보조를 맞춰 국고 지원을 통한 누리예산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세입)예산(5천459억 원)이 담긴 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심의가 19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어서 도내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에 대한 향방이 논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추경안에 담긴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으로부터 들어올 세입예산을 장부상으로만 기재한 것이어서 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편성, 전출하지 않는 한 도가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도의회 더민주도 이를 감안, 추경안 편성에는 동의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도가 시급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선집행하고 도교육청에 정산을 요구하는 '선집행 후정산' 방책에 대한 고심을 드러내고 있어 도의회는 물론 도교육청과의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도는 도의회 더민주의 반대 속에서도 지난 1월 준예산으로 두 달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 원을 31개 시·군에 지원하기도 했다.

도의회 더민주 안혜영 수석대변인은 "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선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알고 추경안 편성을 동의했던 것인데 최근 움직임이 이와는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며 "더민주는 국고 지원 없이는 누리과정 예산을 심의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20대 국회 입법권력 지형이 달라진 만큼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에 대한 기반 마련이 약속된다면 이를 발판으로 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원 여부를 고심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3.3 X 12.4 cm

기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1A면 종합

남은 임기 두 달… 도 사회통합부지사 연임할까

연정 공동협약문에는 '가능' 규정
본인도 진행사업 마무리 의사 밝혀
일부 '역할 부재론' 野 합의 미지수
총선 낙마 도의원들 물망 경쟁 예고

'경기 연정'의 상징인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의 임기 종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인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연임 의사를 밝힌 가운데 4·13 총선에서 낙마한 전직 경기도의원들도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고 있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17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2014년 12월 4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도와 도의회 간 맺은 '연정 실현을 위한 공동협약문'에 따라 오는 6월 30일 임기가 마무리된다. 현재 이 부지사는 '연임'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연정 협약문에는 사회통합부지사가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 부지사는 "아직까지 연정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상당한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며 "취임 후 진행형 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연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도내 정치적 환경이 더욱 복잡해졌고, 때에 따라서는 사회통합부지사가 힘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부지사의 연임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연임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는데다, 사회통합부지사 인선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합의 여부가 현재로서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도의회 더민주 내부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도와 도의회 간 갈등이 된 누리과정 예산 사태 등을 거치면서 이 부지사에 대한 '역할론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어 당장 향후 인선에 대한 당내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도의회 더민주 김현삼 대표의원은 "향후 절차는 첫 사례처럼 사회통합부지사 공모 절차를 밟거나 현 부지사가 그대로 연임하는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며 "차후 의원총회를 거쳐 당내 입장 정리를 하겠지만, 만약 공모를 다시 거치게 된다면 이 부지사는 타 지원자들과 함께 공모에 다시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더민주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더민주 도당의 움직임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도와 도의회 일각에서는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강득구 전 도의회 의장과 민주통합당 시절 도의회 대표의원을 지낸 더민주 고영인 안산단원갑 지역위원장 등이 차기 사회통합부지사 후보군으로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들은 "현재로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 도당 관계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연정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부지사 인선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며 "특히 총선 결과 수원 전 지역에서 더민주 당선인이 나온데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당장 판단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23.3 X 17.1 cm

기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1A면 종합



2년 전 멈춰버린 시간… 잊지 않을게 4·16 세월호 추모기간을 맞아 17일 오후 안산 단원고등학교를 찾은 추모객들이 희생 학생들이 생활했던 기억교실을 살펴보고 있다. <관련 기사 18면>

안산=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11.5 X 19.4 cm

기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1A면 종합

재원마련 어렵고 현 청사로도 충분
도교육청, 광교 융합타운 입주 포기

경기도교육청이 수원 광교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사실상 포기했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의 광교신도시 융합타운 입주 제안에 대해 내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 청사를 앞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반영해 볼 때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다.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인해 초·중·고 교육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청사 이전을 추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의 청사를 매각해도 이전 비용 전액을 확보할 수 없어 청사를 신축하려면 추가로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또 청사를 이전하려면 사전 타당성 조사와 함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까지 통과해야 하지만 현재 여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입장을 최근 도에 전달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 설명회에서 도교육청과 광교신도시 이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11.5 X 10.4 cm

기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2A면 종합

버스예약제 도민 "대만족"

시범운영에 80%가 긍정 응답
출근시간 단축·승객분산 효과

경기도가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도입에 앞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이용자의 80%가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도에 따르면 광역버스 좌석예약제는 모바일을 통해 원하는 날짜, 탑승 정류소, 희망 좌석을 사전에 예약하고 요금은 교통카드로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도는 지난 2월 15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4주간 김포→서울시청간 노선(8601번)에 예약전용 차량 1대를 투입,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체험단 200여 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우선 예약 부도율(예약 후 미탑승)은 17%로 철도, 항공, 시외버스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예약자 절반이 주당 3회 이상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80%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향후에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는 9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또 좌석예약버스의 장점으로 출근 시 앉아감, 쾌적함, 탑승 확신, 시간 단축을 꼽았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 버스 운행시간은 평균 3분가량 단축됐고, 이용자 중 60%는 정류소 대기시간을 포함한 체감 출근시간이 10~20분가량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입석률 감소, 승객분산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9.8 X 12.3 cm

기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2A면 종합

'기억교실' 이전… 최종합의는 불발

<단원고>

원형 안산교육청에 임시 보존… 민주교육원 건립 영구 이전키로
남 지사, 예산 등 협의 부족 이유 불참… 416교육사업협약식 연기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이 사용하던 단원고 교실의 존치 문제가 포함된 '416교육사업 협약식'이 일부 기관장의 불참 등을 이유로 잠정 연기됐다.

경기도교육청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등은 당초 지난 15일 오후 2시 안산시 화랑유원지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던 '416 교육사업 협약식'이 잠정 연기됐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416가족협의회를 비롯해 경기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안산시, 안산교육지원청, 단원고 등 7개 기관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들 기관들은 지난 13일 안산교육청에서 열린 8차 협의회에서 단원고 기억교실 존치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온전하게 이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론 짓고, 기억교실을 원형 그대로 안산교육청 별관 강당에 임시 보존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도교육청이 단원고 옆에 건립 예정인 416민주시민교육원으로 영구 이전할 계획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2일 민주시민교육원 건립비 90억 원 가운데 45억 원을 자체 부담하고 나머지 45억 원을 도가 부담하는 방안을 도에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협약식은 존치교실의 이전 시한과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된데다 참석 예정이던 각 기관 대표 가운데 남경필 도지사와 윤화섭 도의회 의장 등 일부 기관장이 참석하지 못하면서 연기됐다.

남 지사 등의 불참은 갑작스럽게 결정된 협약식 일정으로 인해 도교육청 등과 민주시민교육원 건립 예산 등과 관련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협약식이 연기된 것은 예산 문제보다 관련 일정이 급박하게 결정되면서 도와의 협의 시간이 부족했고, 협약 내용에서 추가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됐기 때문"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견 조율을 마무리 짓고 협약식을 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14.9 X 12.6 cm

기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3면 종합

인천시 세월호 사고 2주기 희생자 추모식·추모관 개관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이 16일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행사 및 추모관 개관식'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16일 인천가족공원에서 세월호 사고 2주기를 맞아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과 추모관 개관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가족 200여 명을 비롯해 유정복 시장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국회의원, 군수·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추모식은 묵념, 추모사, 헌화 및 분향,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추모관 개관행사는 추모관과 안치단, 제례실, 추모탑 등 추모관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관은 국비 30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천497㎡(총면적 504㎡)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또 세월호 배 모형, 사고 스토리를 재연하는 샌드아트 제작 영상, 희생자 유물 쇼케이스, CCTV 영상 등의 콘텐츠로 구성돼 있으며 안치단에는 희생자 봉안함과 추모객들이 헌화할 수 있는 헌화단이 마련돼 있다.

추모관은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일반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공간은 물론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교육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시민이 행복하고 보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인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30.2 X 13.4 cm

기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3A면 종합

'태후' 열풍~맛집·볼거리 경기도 매력에 빠졌다

광주광역시서 열린 '경기관광박람회' 3만여 명 방문 대성황
주말 줄이은 관람객… 수학여행단체 유치 등 홍보효과 톡톡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경기관광공사의 '경기관광박람회'가 관람객 3만여 명의 방문 성과를 거두고 17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5일부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기관광박람회는 용인 에버랜드 1천 원 이벤트, '태양의 후예' 체험, 경기도 맛 3대 천왕 등 고객분야와 경기관광설명회, 코레일 광주본부 업무협약 등 관광 비즈니스 분야 모두에서 성공적이었다는 평이다.

토·일요일 주말에는 개막시간 30여 분 전부터 행사장 입구에서 관람객이 줄을 서는 진풍경을 연출했으며, 특히 매일 3회 진행된 '에버랜드 1천 원 이벤트'는 줄이 100m를 넘어서기도 했다.

또 경기도 홍보관에 마련된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 체험 프로그램에는 드라마 명대사 캘리그래피, 드라마 공식협찬사 ㈜유성금속 제공의 구리머그컵 전시 등으로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더불어 광주·전라지역에 경기도 관광을 홍보하고 지역 수학여행단체를 유치하기 위한 경기관광설명회에는 광주·전라지역 여행업 관계자와 경기도 시군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 경기도 관광홍보의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전라지역에서 출발하는 경기도 열차상품 출시를 위해 관광공사와 코레일 광주본부 간 업무협약도 체결돼, 코레일은 여행상품 개발 및 판매, 관광공사는 상품홍보와 마케팅을 담당하게 된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예상 밖의 성공으로 경기도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앞으로 민관이 더 많이 참여해 실질적 파급효과를 가진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관광박람회' 경기도 홍보관에서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빨간장미 파티마 역의 자이온 바레토 씨가 관람객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관광공사 제공>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5.0 X 14.4 cm

기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3A면 종합

도, 2층 광역버스 운행 5개월 입석률 줄고 운송비는 덜 들고

경기연, 5개 노선 조사결과
일반버스比 이용자 1.33배↑
경제성 갖춰 확대도입 필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2층버스가 광역버스 입석비율을 낮추고 운송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층버스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난 3월 말까지 남양주와 김포를 운행하는 2층버스 5개 노선(9대)을 대상으로 운행효과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7일 밝혔다.

경기연이 버스 운행정보와 버스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전 6~9시 서울방면 이용객은 2층버스 69명, 일반버스 52명으로 2층버스 이용객이 일반버스 대비 1.33배 많았다.

반면, 2층버스 운행 전인 지난해 3월18일과 지난달 16일 남양주·김포시의 입석률을 조사한 결과, 입석률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18일 오전 6~9시 남양주와 김포의 입석률은 각각 19.3%, 17.6%였지만 2층버스 운행 후인 지난달 16일 같은 시간 입석률은 남양주 11.1%, 김포 9.3%로 조사됐다.

특히 운송비용 면에 있어 2층버스가 일반버스에 비해 훨씬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건비·유류비·소모품비·보험료 등 하루 1대당 운송비용은 CNG 일반버스는 42만4천 원, 경유 일반버스는 35만7천 원, 2층버스(경유)는 39만2천 원이다.

이를 좌석당 운송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CNG 버스(41석)은 1만 원, 경유버스(39석) 9천 원, 2층버스(72석)은 5천 원으로 2층버스의 운송비가 가장 저렴했다.

경기연 지우석 휴먼교통실장은 "2층버스가 출근시간대 입석률 감소에 기여하고 일반버스와 비교해 경제성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며 "2층버스의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8월 수원~서울 사당역 1대, 수원~서울 강남역 1대, 남양주~서울 잠실 2대, 김포~서울시청 6대 등 2층버스 10대를 확대 투입하고, 10월에 9대를 더 운행할 방침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9.8 X 17.9 cm

기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3A면 종합

이제 연천서도 DMZ 자전거 투어

도, 평화누리길 방문객 요청… 임진물 새롬랜드에 '대여소'
임진강변 따라 총 15㎞코스 오는 11월까지 상시 운영키로

경기도는 연천군 임진물 새롬랜드에 'DMZ 자전거투어 대여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자전거를 대여해 임진강변을 따라 허브빌리지 일원 북삼교를 지난 후 군남홍수조절지를 반환점으로 되돌아오는 15㎞ 코스를 달릴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한탄·임진강 일대가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으며 연천 평화누리길을 찾는 방문객들이 늘어났다"며 "파주 임진각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DMZ 자전거 투어를 하고 싶다는 방문객들의 요청에 따라 대여소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대여소는 올해 11월까지 상시 운영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시간당 3천 원, 하루 1만 원의 대여료를 내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도는 'DMZ 자전거 투어 특별행사(평화누리길 자전거 투어)'를 다음 달 14일 임진물새롬랜드에서 개최한다. 참가 모집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이며 행사 공식 홈페이지(www.walkyourdmz.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30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단, 장비대여료 3천 원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윤병집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연천지역에 DMZ 자전거투어 운영을 통해 다소나마 지역경제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지속적인 보강사업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코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24.4 X 9.8 cm

기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3A면 종합

공공기관·중기 사회적책임 강화

도의회, 지원 조례안 추진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에 나선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더민주·비례)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CSR는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이 기업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회적 의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조례안은 도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관리해야 할 기업의 CSR 기본원칙과 중점관리 목표를 규정했다.

기본원칙과 규정에는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과 CSR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활동 ▶노동권 보호와 임직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기여 등이 담겼다.

또 도지사의 책무로는 CSR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현실적 도움을 위해 운영지침 마련, 관련시책 개발, 기본계획과 운영지침 준수 등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10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14.9 X 7.1 cm

기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3A면 종합

양복완 도 행정2부지사, 다산신도시 공동주택사업 현황 점검

경기도는 지난 15일 양복완 행정2부지사가 남양주 다산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공공주택사업 현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다산신도시'는 남양주 다산진건·지금 공공주택지구의 통합 브랜드 명칭으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모티브를 얻어 자연친화적으로 설계한 도시를 의미한다.

이날 양 부지사는 먼저 방문한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도농동, 지금동 일원에 271만4천㎡ 규모로 조성하는 곳으로 1만8천200가구가 입주할 전망이다.

사업은 20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2009년 12월 시작했으며, 현재 53% 정도 완료됐다. 지난 2014년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분양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지구 내 A-2BL에 대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사업 계획(974가구)'을 승인한 바 있다.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는 남양주시 지금동, 가운동, 일패동, 이패동, 수석동, 도농동 일대에 203만5천㎡ 규모로 조성하는 곳으로, 1만3천600가구가 입주할 수 있다.

양 부지사는 "이 사업은 경기북부 지역 도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입주민들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신기호 기자

14.9 X 12.9 cm

기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6면 종합

도내 청년실업률 11.1%… 5분기 만에 최고치

올 1분기 작년 比 1.5%p 증가… 3월 실업자는 3만8000명 늘어

경기도내 청년실업률이 5분기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실업자 및 실업률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3월 경기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년실업률(15~29세)은 11.1%로 전년 동분기(9.6%)보다 1.5%p 상승했다. 이는 2015년 2분기(9.5%), 3분기(8.9%), 4분기(8.3%)에 걸쳐 가장 높은 수치로, 5분기 만에 10%대를 돌파했다.

또 지난달 도내 실업자는 31만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8천 명(13.7%) 증가했고, 성별로는 남자가 18만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7천 명(16.7%), 여자가 12만7천 명으로 1만1천 명(9.6%)이 각각 증가했다.

실업률은 4.6%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했고, 남자가 4.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p, 여자가 4.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p 각각 상승했다.

이 밖에 2016년 3월 도내 15세 이상 인구는 1천52만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2천 명(2.3%)이 증가했고, 경제활동인구는 673만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2천 명(2.8%) 증가했다.

경인통계청 관계자는 "경제활동참가율은 64.0%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비경제활동인구는 379만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 명(1.3%)이 증가했다"며 "비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125만6천 명, 여자는 253만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남자는 1만5천 명(1.2%), 여자는 3만5천 명(1.4%)이 각각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취업자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관리자·전문가가 1만9천 명(-1.2%) 감소한 반면 서비스·판매종사자 5만6천 명(4.3%),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5만3천 명(2.4%), 사무종사자 4만9천 명(4.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5천 명(4.8%)이 각각 증가했다.

박노훈 기자 nhp@kihoilbo.co.kr

25.0 X 8.5 cm

기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8면 수도권

"도자재단 폐지, 전통 도자문화 맥 끊는 일"

이천·광주·여주 도자협동조합
道에 통폐합 반대탄원서 제출
"문화-산업진흥 분리 안될말"

이천·광주·여주시도자기협동조합이 경기도의 한국도자재단 통폐합 방침에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17일 이천도자기협동조합에 따르면 '경제논리에 의한 한국도자재단 통폐합'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지난 14일 도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경기도가 만들고 경기도가 키워 온 한국 도자산업의 산실인 한국도자재단을 폐지하겠다는 날벼락 같은 발표를 시민들과 도예인들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으며, 큰 충격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3월 25일 발표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 방안에는 획일적인 경제논리를 앞세워 세계 유일의 도자 전문기관인 한국도자재단을 폐지하고 타 기관에 이관 후 통폐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시대적 흐름과 문화 융성을 표방하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도자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문화 진흥과 산업 진흥의 분리는 한국 전통문화의 상징인 도자문화의 급속한 위축만을 초래할 것이다.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조화된 전국 유일의 도자 클러스터 붕괴는 물론 도자벨트의 단절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화산업의 진흥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며 "868개 도자업체가 위치한 이천·여주·광주 지역의 도예인들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도자문화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한국도자재단은 대한민국 도자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과 도자문화 창달을 위해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19.5 X 8.3 cm

기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9면 수도권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또 위기

<쓰레기 소각·음식물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백경현 새 시장, 취임 후 사업 재정립 이유로 동의안 철회 요구
신동화 의장 "사전 조율 없이 안건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

<속보>구리시와 남양주시가 폐기물량 증가와 불안정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해소하기 위해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을 공동 추진<본보 3월 10일자 9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구리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계류 중인 동의안 철회를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구리시는 2012년 남양주시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행정협약을 맺었으며, 같은 해 10월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달 7일 열린 구리시의회 제250회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민원 대책 마련과 '시장이 공석인데 국책사업을 왜 진행하려고 하느냐'는 등의 이유를 들어 동의안 유보결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이번 재선거에서 당선된 백경현 시장이 전반적인 추진사업을 재정립한다는 이유를 들어 동의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14일 취임과 함께 의회에 보냈다.

이에 신동화 의장은 "이 사업은 남양주시와 광역사업으로 추진하면서 3명의 시의원이 일본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동의안에 대한 질의응답까지 마친 상태로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사전 조율 없이 무조건 안건을 철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일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은 구리시 토평동과 남양주시 수석동 427 일원에 국비 281억 원, 도비 139억5천만 원, 민간투자 532억9천만 원, 구리시 173억2천만 원, 남양주시 304억4천만 원 등 총 1천431억 원을 들여 100t/일 규모의 소각시설을 증설하고 200t/일 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을 신설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5월 28일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업 동의안을 원안 가결한 상태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19.5 X 10.0 cm

기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3면 문화



아시아 음악과 역사의 '합작'

21일 '펀 아시아' 공연+강의

한국사 스타 강사로 인기를 끌고 있는 설민석<사진>의 강연과 초·중등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음악이 담긴 공연이 관객과 만난다.

경기도립국악단은 '교과서 속 아시아 음악이야기-Fun Asia(펀 아시아)'를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무대에 올린다.

이번 기획을 통해 도립국악단은 학교에서 미쳐 배우지 못했던 아시아의 음악을 새롭게 편곡해 공연장에서 감상할 수 있게 했다.

또 전문 역사 강사이자 방송 등을 통해 인기 스타로 급부상한 설민석의 강연으로 아시아의 역사를 짚어 보며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새롭게 알아가는 '역사 다시 듣기' 시간을 마련한다.

특히 객관적인 역사 사실뿐 아니라 그 나라 전통민요의 발생 배경 같은 음악과 관련된 아시아의 숨어 있는 이야기를 통해 청소년들의 사고를 넓히고 감성을 키울 수 있다.

박노훈 기자 nhp@kihoilbo.co.kr

15.0 X 12.9 cm

기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6면 스포츠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김도훈 등 道학생체육대회 겸 선발전 통과

김도훈(수원 수성중)이 제41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 겸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레슬링 도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도훈은 지난 16일 파주 문산체육관에서 끝난 대회 중학부 그레코로만형 58kg급 결승에서 한지훈(파주 봉일천중)을 꺾고 정상에 오르며 도대표로 선발됐다.

중학부 자유형 54kg급 결승에서는 서준혁(안산 반월중)이 우승을 차지했다. 중학부 그레코로만형 39kg급 윤민호(반월중)과 42kg급 김영진(평택 도곡중), 54kg급 남궁기선(과천중), 63kg급 여정훈(수원 수일중), 69kg급 강윤석(도곡중), 76kg급 윤건형(봉일천중), 85kg급 이현민(반월중), 100kg급 이정호(수성중), 자유형 35kg급 신채환, 42kg급 윤종훈(이상 용인 문정중), 46kg급 정준성(도곡중), 50kg급 최민우(문정중), 54kg급 서준혁(반월중), 58kg급 최미르(수성중), 63kg급 백경민(수일중), 69kg급 황태규(성남 문원중), 76kg급 김주성(부천 역곡중), 85kg급 강승준(문정중), 100kg급 김강민(봉일천중)도 도대표로 선발됐다.

고등부에서는 63kg급 안덕진(성남 서현고)이 그레코로만형·자유형 2관왕에 올랐고, 그레코로만형 46kg급 남철우(경기체고)와 50kg급 박찬현(성남 서현고), 54kg급 김주찬, 58kg급 이종현(이상 경기체고), 69kg급 한운호(파주 봉일천고), 85kg급 김인섭(경기체고), 91kg급 김영훈, 120kg급 이승진(이상 화성 홍익디자인고), 자유형 54kg급 박도원(서현고), 58kg급 안동환(경기체고), 69kg급 이영진(경기체고), 76kg급 김용식(봉일천고), 85kg급 박준(서현고), 91kg급 안주승, 97kg급 강현수(이상 봉일천고)도 정상에 동행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7.2 X 16.9 cm

기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6면 스포츠

박성준, 씨름 경장급 들배지기로 연속 두 판 따내며 정상 올라 선발

박성준(수원 동성중)이 제41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 겸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도대표 선발전 씨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박성준은 지난 15일 수원 한조 씨름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대회 중학부 청장급(70kg급) 결승에서 신재영(동성중)을 들배지기 기술로 내리 두 판을 따내며 정상에 올랐다.

중학부 경장급(60kg급)에서는 정진호(성남 야탑중)가 같은 학교 서근우를 안다리와 들배지기로 꺾고 우승했고 소장급(65kg급) 김광위(동성중), 용장급(75kg급) 한세민(야탑중), 용사급(80kg급) 임수주(동성중), 역사급(90kg급) 박민교(용인 백암중), 장사급(+130kg급) 윤희준(남양주 화광중)도 정상에 올랐다.

초등부에서는 경장급(40kg급) 이하진(평내초)과 소장급(45kg급) 오현근(용인 백암초), 청장급(50kg급) 송호석(용인 양지초), 용장급(55kg급) 최지호(수원 우만초), 용사급(60kg급) 임유민(양지초), 역사급(70kg급) 이혁주(용인초), 장사급(+120kg급) 성준범(평내초)이 각각 정상에 올랐고, 고등부에서는 경장급(70kg급) 김현, 소장급(75kg급) 정우석(이상 용인고), 청장급(80kg급) 김선중(수원농생고), 용장급(85kg급) 김재윤(남양주공고), 용사급(90kg급) 이하늘(수원농생고), 역사급(100kg급) 최재훈(광주 초월고), 장사급(+140kg급) 유창현(수원농생고)이 나란히 정상에 동행하며 도대표로 선발됐다.

단체전에서는 초등부 성남제일초와 중학부 동성중, 고등부 남양주공고가 각각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7.2 X 15.4 cm

기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6면 스포츠

경기 스포츠복지 대학봉사단 발대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15일 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도전과 열정으로 경기도 스포츠 복지문화를 선도할 대학자원봉사단 'SPOLIGHT(이하 스포라이트)' 1기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은 최규진 도체육회 사무처장과 강병국 총괄본부장, 1기 단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및 축사, 사업 소개, 단원 선서 순으로 이뤄졌다.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은 물론 정기적인 재능기부를 시행하는 스포라이트는 올해 처음으로 자치기구를 조직해 기획·홍보·총무부로 나눠 자발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참여형 자원봉사다. 현재 경기대·경민대·명지대·용인대·한경대·한양대 등 총 6개 대학 8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심언규 기자

5.3 X 10.5 cm

기호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8면 사회

빗속에도 뜨거웠던 노란 물결

세월호 2주기… 주말 도내 곳곳서 추모식 열려

안산 분향소 '기억식'·'진실 향한 걸음' 행사 등 수천 명 운집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주말 동안 경기도내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마련됐다.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는 세월호 2주기 추모제인 '기억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제종길 안산시장,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 및 4·13 총선 당선인,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의 인사 2천5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했다.

기억식은 세월호 사고 발생 순간부터 2주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기억영상' 상영과 안산시립합창단 및 416가족합창단의 합창, 성우 김상현의 기억시 낭송, 가수 조관우의 '풍등' 공연, 공동선언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다시 봄이 왔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2014년)4월 16일"이라며 "사람들은 아직도 세월호냐고 말하지만, 아이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밝혀내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억식이 끝난 뒤 분향소를 찾은 유가족과 시민들은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 국화꽃을 올리며 그날의 기억을 되새겼다.

같은 시간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제를 연 단원고 교사와 학생 400여 명도 분향소를 방문해 제자와 선배들을 추억했다.

오후 2시부터는 희생자와 미수습자를 추모하는 걷기 '진실을 향한 걸음' 행사가 시작됐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 노란 우비를 입고 모여 든 시민 1천500여 명(경찰 추산)은 가슴 또는 가방에 노란 리본을 달고 긴 대열을 이뤘다.

풍물패를 선두로 미수습자를 상징하는 9개의 대형 인형과 희생자를 의미하는 304개의 탈 및 꽃만장이 그 뒤를 따랐다. 이들은 분향소를 출발해 삼일로를 따라 단원고에 도착한 뒤 화정천을 통해 분향소로 되돌아오는 5㎞여의 코스를 걸으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같은 날 오후 7시께 안산 단원고 정문 앞에서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촛불 잇기' 행사가 펼쳐진 가운데 2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불을 밝힌 초를 정문 앞에 세우며 희생 학생들을 기억했다.

이보다 앞선 15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은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에서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식'을 동시 진행했다.

추모식은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해 추모영상 상영과 공연, 추모사 낭독 등으로 구성됐다.

이재정 교육감은 추모사를 통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봄이 왔지만 우리 가슴에는 봄이 멀기만 하다"며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이 그토록 간절히 염원했던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과제"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21.7 X 13.9 cm

인천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1(경기판)면 종합

그날의 아픔 … "잊지 않았습니다"

'리본 만들기 자원봉사 2년째' 주부·'치유 예배' 교회 모임 등 다양한 활동 눈길

세월호 참사 2주기, '잊지말아달라'는 유가족들의 부탁을 묵묵히 실천해온 이들이 있다. 〈관련기사 18면〉

세월호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정쟁'으로 둔갑하면서 그만하자는 소리에도 2년여동안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생활속에서 잊지 않으려는 작은실천을 하는 숨은 이웃들이다.

광화문에 위치한 '리본공작소'에서 2년 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양승미(46·여)씨는 2014년 8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안양에서 광화문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트위터를 통해 리본공작소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찾아가게 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리본을 만들어 해외로 보내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운동을 전혀 해 본적 없는 평범한 주부인 그는 리본 만들기라도 해서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일이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말한다.

양 씨는 "지금도 광화문 리본공작소에는 일회성으로 온 사람,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 서울로 수학여행 온 학생 등 다양한 시민들이 방문해 리본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한 달에 약 12만개 정도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양 씨는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세월호가 시민들로부터 잊혀 지지 않도록 주1회 정도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세월호 관련 홍보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철에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투표 독려 홍보활동도 펼쳐, '젊은 사람들이 투표하는데 일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크고 정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생각에 뉴욕, 캐나다 등에 활동가를 직접 찾아서 리본 보내기를 시작했다"면서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만든다'는 말처럼 내가 먼저 한 발 나가면 다른 사람도 조금은 변하겠지, 따라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산지역 작은 도서관 협회는 지난 3월22일부터 4월15일까지 '기억의 자리, 아이들의 교실'이란 주제로 책상과 의자를 전시했다. 책걸상 하나당 한 반을 상징해, 작은 도서관 10곳에 1반부터 10반을 상징하는 책걸상을 하나씩 전시했다. 작은 도서관 자체적으로 매듭목걸이를 만들거나, '유가족과의 만남'을 진행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도서관 이용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새길교회 성도로 구성된 '결'이란 모임은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과 일요일에 상처받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 2년째 '치유예배'를 갖고 있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뜻으로 구성된 '결'은 분향소 앞 기독교 예배실에서 집회를 갖고, 발길이 끊긴 분향소를 찾아가 희생된 넋을 추모하고 있다.

수원지역에서는 다산인권센터, 전교조 수원지회, 세월호 수원시민공동행동 등이 참여해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둔 지난 11~15일까지 수원역 앞 수원시민분향소에서 오후 7시마다 영화 상영, 세월호 관련 인권 및 교육 길거리 강연 등을 벌였고, '304인의 기억과 2년의 기다림'을 주제로 신발전시, 기억·행동·다짐의 걸개그림 그리기(그림과 문구 넣기), 노란리본 만들기 등의 시민참여 행사를 진행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



"진실을 인양하라" 세월호 참사 2주년인 16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진실을 향한 걸음' 행사에 참석한 유가족과 시민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ksy92@incheonilbo.com

24.7 X 21.1 cm

인천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1(경기판)면 종합

道 산하기관 구조조정 가시화

과기진흥원 등 6곳 폐지·중기센터 등 10곳 '4곳'으로 통합

일부 반발 … 고오환 의원 "경영 합리화 목적 외 악용 안돼"

경기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을 12개로 통폐합하는 산하기관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5일 산하기관 통폐합 용역결과에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경기도문화의전당 등 6곳은 폐지하고,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콘텐츠진흥원·한국도자재단 등 10곳은 4곳으로 통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산하기관에서는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유사 중복기관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대세를 거스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문화재단으로 흡수통합되는 대상인 한국도자재단의 경우 노동조합이 성명을 내 "용역기관에서 획일적 경제성 논리로 통폐합 대상을 정했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도자기를 사금파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시공사 흡수통합 대상에 오른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개발과 도시개발 업무를 한데 묶는 것은 국내외에 전례가 없고 도에서 예산지원도 받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또, 도의회에서도 상임위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광철(새누리·연천) 위원장은 "폐지대상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경기영어마을의 순기능에 대해 고려해봐야 하고 경기도가 즉여성연구원은 오히려 조직을 키워야 하는데 경기연구원이 흡수하는 방안이 나왔다"며 "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폐합을 포함한 산하기관 경영합리화는 경기도 연합정치의 주요 정책 과제인데다, 이를 요구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경기지역에서 완승함에 따라 대세를 거스르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오환(새누리·고양6) 의원은 "유사 중복 업무를 없애고 효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현재 경제위 소관 공공기관을 비롯해 모든 공공기관이 유사 중복 업무가 많고 전문성도 떨어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 반대나 부정적인 목소리는 통폐합 기관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일부의 의견일 뿐이고, 경기도 발전을 역행하는 행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다만, 통폐합의 목적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만 이뤄져야 하고 정쟁의 도구나 기득권 강화 등의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는 다음 달 10~1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기로 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

24.7 X 9.9 cm

인천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2면 종합

'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 강화

행자부, 협의·민간전문가 참여 심의위 등 기준안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이 까다로워진다.

계획 단계부터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등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행자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계획할 때 광역자치단체는 행자부,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각각 1차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협의 과정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설립심의위도 구성하도록 했다.

또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조직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 정원 감축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설립 협의가 이뤄지지 않게끔 제도화했다.

지방연구원 등 지자체가 운영비를 대는 기관이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도 금지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경제·문화·의료 등의 분야에서 지자체가 조례 제·개정으로 설립하는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618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인천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20곳이다.

인천유시티㈜와 인천종합에너지㈜ 등 출자기관 4곳, 인천시의료원을 비롯한 출연기관 16곳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부 출자·출연기관은 유사기관이 있는데도 단체장의 공약 남발로 만들어졌고,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설립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기관 설립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11.5 X 15.7 cm

인천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2(경기판)면 종합

광역버스 좌석 운영 '비행기'처럼

道, 희망 날짜·탑승정류소 등 '예약시스템' 본격 추진 … 체험단 호응도 높아

경기도가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시행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2월15일부터 3월11일까지 4주간 김포-서울시청을 운행하는 8601번 좌석버스를 대상으로 아침 출근 시 예약전용 차량 1대를 투입해 기술적 문제를 검토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역버스 좌석예약시스템'은 모바일을 통해 원하는 날짜, 탑승정류소, 희망좌석을 사전에 예약하고 요금은 교통카드로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철도나 항공, 시외버스에서는 보편화된 서비스이지만, 광역버스에 접목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기술적 검토에 앞서 김포-서울시청간 노선 탑승정류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200여 명의 체험단을 모집했으며, 실제 탑승객을 대상으로 '좌석예약시스템'의 효과와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검토 결과, 예약 부도율(예약 후 미탑승)은 17%로 철도, 항공, 시외버스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예약자 절반이 주당 3회 이상 이용했을 정도로 서비스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80%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향후에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9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또 '좌석예약버스'의 장점으로 앉아감, 쾌적함, 탑승확신, 시간단축 등을 꼽았다.

도는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도민들의 출근시간 단축과 이용편의 향상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버스 운행시간은 평균 3분가량 단축됐고, 이용자 중 60%는 정류소 대기시간을 포함한 체감 출근시간이 10~20분가량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아니라 입석률 감소, 승객 분산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약자가 실제 버스를 탑승할 때 예약인증 절차로 인해 기존 버스에 비해 시간이 다소 지연된다는 점, 비예약자 탑승 제한 방법 등은 보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임성만 도 굿모닝버스추진단장은 "이번 기술시현을 통해 장점은 더욱 부각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아나가겠다"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실제 시범사업 방안을 준비해 아침이 즐거운 광역버스 예약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23.4 X 11.9 cm

인천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2(경기판)면 종합



DMZ관광 홍보대사로 위촉된 탈북미녀 3인방 신은하, 김아라, 한송이는 관람객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경기관광공사

전남서 연 경기관광박람회 3만여명 '광주시민' 즐겼다

에버랜드 천원 이벤트·'태양의 후예' 체험 등 호평

경기관광박람회가 지난 15~17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려 3만여명이 다녀가는 성과를 남기고 폐막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에버랜드 천원 이벤트, '태양의 후예' 체험, 경기도 맛 3대천왕, 시군 홍보관 등 관람객을 위한 고객분야(B2C)와 경기관광설명회, 코레일 광주본부와 업무협약, 여행상품 할인 판매·상담 등 관광 비즈니스 분야(B2B) 모두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관광박람회는 지난해 부산개최로 찾아가는 박람회로 변경됐으며, 올해는 광주광역시를 찾아 경기도와 경기도 관광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렸다.

행사 기간 수많은 관람객이 찾았으며, 토·일 주말에는 개막 30여 분 전부터 관람객이 행사장 입구에서 줄을 서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특히 에버랜드 천원 이벤트는 시작 전부터 줄을 서 이벤트 시작 후에는 줄이 100m를 넘어서기도 했다.

박람회에 참가한 한 여행업체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관광박람회가 어디서 개최되든 꼭 참가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 홍보관의 드라마 '태양의 후예'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드라마 명대사 캘리그라피, 드라마 공식협찬사 ㈜유성금속 제공의 드라마 소품 구리머그컵 전시, 극중 빨강장미 파티마 역의 자이온 등장 등으로 관람객의 큰 관심을 끌었다. 또 관광 홍보대사로 위촉된 탈북미녀 3인방 신은하, 김아라, 한송이는 경기도 맛 3대 천왕 코너에서 북한음식을 직접 조리해 선 보였다.

박람회 관계자는 "지방 특성상 경기관광박람회 규모의 제대로 된 여행 박람회를 만나볼 기회가 없어 입소문을 타고 관람객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고 관람객 급증 이유를 분석했다.

박람회를 주관한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경기도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앞으로 관과 민간이 더 많이 참여 해 실질적 파급효과를 가진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11.6 X 26.7 cm

인천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2(경기판)면 종합

道중기센터 박람회 싱가포르서 '737만6000달러' 수출상담 성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16년 국제 식품 및 호텔 박람회'에서 119건의 상담과 737만6000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경기중기센터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지난 12~15일 나흘간 싱가포르 엑스포에서 열린 박람회에 휴레드 등 총 10개사를 파견했다.

'국제 식품 및 호텔 박람회'는 35년 역사의 아시아 최대 국제 식음료·식자재·호텔 용품 박람회로, 총 71개국에서 3198개사가 참가했으며, 4만여명의 바이어가 방문했다.

이번 박람회 참가 지원은 국내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신흥 시장 공략을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 기업들은 9만4000달러의 현장 계약도 체결하는 등 현지 바이어들과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휴레드의 성현기 과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는 세계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는 만큼 더욱 열심히 노력해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중기센터는 올해 하반기에 다양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031-259-6124~7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



지난 12~15일 나흘간 싱가포르 엑스포에서 열린 '2016년 국제 식품 및 호텔 박람회'에서 바이어들이 국내 참가기업의 부스를 둘러 보고 있다.

/사진 제공=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3.4 X 17.9 cm

인천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2(경기판)면 종합

착한교복, 디자인·가격·원단 다 갖췄네

道, 오늘부터 구리시 등 12개 시·군서 전시회 … 보급 활성화

경기도는 지난해 디자인 개발을 완료한 '착한 교복' 40벌을 오는 18일부터 5월31일까지 구리시 등 도내 12개 시·군에서 전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우수한 디자인, 경제성, 기능성 원단 등 '착한 교복'의 장점을 학교 관계자, 학부모,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보급을 활성화 하기위해 마련됐다.

'착한 교복'은 도와 도교육청 간 교육연정 1호사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도내 섬유업계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도내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섬유소재를 활용,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디자인한 교복을 경제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전시회는 구리를 시작으로 포천, 안산, 수원, 용인, 고양 등 도내 12개 시·군에서 순회 진행되며, 관람객들은 전시장에서 중고생 남녀 동·하복 40세트를 만나 볼 수 있다.

도민들이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시·군청 로비나 여성회관 등에서 전시를 실시하고, 학교 행사와도 연계해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는 또, 이번 전시회를 통해 착한교복에 대한 디자인 및 소재변경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

특히, 교복디자인 변경 의사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작업지시서, 소재 리스트 등 교복디자인의 모든 자료를 제공해 많은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오병권 도 경제실장은 "이번 순회 전시에서 우수 기능성 원단,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경제적 가격 등 착한교복의 장점을 알리고,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착한 교복을 통해 가정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착한교복' 36벌의 디자인을 새로 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디자이너 4명의 공개모집을 마쳤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17.5 X 9.8 cm

인천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2(경기판)면 종합

도농기원, 병충해 방제 등 농업에 '드론' 활용 연구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드론(무인기)을 병충해 방제 등 농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경기도농기원은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과수 병해충 방제에 적합한 드론과 GPS를 적용한 자동비행 방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15일 밝혔다.

병해충 방제에 이용되는 드론은 주로 벼농사에 활용됐다. 현재 논에 활용되는 드론은 1시간에 4.9ha를 방제할 수 있다.

벼는 작물의 높이가 일정하고 잎이 세로로 자라 방제 난이도가 쉬운 편이다.

그러나 과수의 경우 가로로 뻗은 나뭇가지의 높낮이가 다르고 잎이 넓고 큰 활엽이 많아 드론을 이용한 효율적 방제가 어렵다.

도농기원은 이달부터 배나무 연구포장에서 배 '흑성병'에 대한 드론 방제 연구도 시작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

11.6 X 6.8 cm

인천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3(경기판)면 종합

2층버스 달려보니… "입석률 감소·운송비 절감 효과"



경기硏, 도입6개월 데이터 분석

출근시간 혼잡비율 크게 줄어

지속적 확대도입 필요성 제기

2층 광역버스가 입석 비율을 절반 가까이 낮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입석 광역버스를 처음 도입한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난 3월 말까지 남양주와 김포를 운행하는 2층버스 5개 노선 9대를 대상으로 버스 운행정보와 버스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입석율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오전(6~9시) 서울방면 이용객 수는 2층버스가 69명, 일반버스는 52명이 탑승해 2층버스의 이용객수가 일반버스의 약 1.33배 많았다.

그러나 2층 버스 운행 전인 지난해 3월 18일과 운행 후인 지난달 16일 남양주시와 김포시의 입석률을 조사한 결과, 입석률은 절반 가까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18일 오전 6~9시 남양주와 김포의 입석률은 각각 19.3%, 17.6%였지만 2층버스 운행 후인 지난달 16일 같은 시간 입석률은 남양주 11.1%, 김포 9.3%로 조사됐다.

안전비, 유류비, 소모품비, 보험료 등 하루 대당 운송비용은 CNG 일반버스는 42만4000원, 경유 일반버스는 35만7000원, 역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2층 버스는 39만2000원이다.

이를 좌석당 운송비용으로 환산하면 CNG 버스(41석)는 1만원, 경유버스(39석)는 9000원, 2층 버스(72석)는 5000원으로 2층 버스의 운송비가 가장 저렴했다.

운행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우석 경기연구원 휴먼교통실장은 "2층 버스가 출근시간대 입석률 감소에 기여하고 일반버스와 비교해 경제성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며 "2층 버스의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2층 광역버스를 도입, 김포~서울시청 6대, 남양주~서울 잠실 3대 등 5개 노선에 모두 9대를 운용하고 있다.

오는 8월에는 수원~서울 시청역 1대, 수원~서울 강남역 1대, 남양주~서울 잠실 2대, 김포~서울시청 6대 등 10대가 투입되고 10월 9대를 더 운행할 방침이다.

/이경 기자 leek@inchoonilbo.com

35.5 X 10.9 cm

인천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3(경기판)면 종합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식

16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식'에 참석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제종길 안산시장 등 참석자들과 행사를 지켜보는 가운데 슬픔에 잠겨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17.5 X 11.9 cm

인천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3(경기판)면 종합

공보육 시범사업 참가 어린이집 모집

도, 수원·의정부 1곳씩

경기도가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시범사업에 참여할 민간 어린이집을 공개 모집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오는 29일까지 수원과 의정부 소재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공보육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린이집을 모집한다.

수원과 의정부는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이 5.9%와 4.9%로 도내 평균인 8.5%보다 낮은 지역이다.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인수한 후 소유와 관리를 맡는 형태로 추진된다.

또, 공모를 통해 선정한 원장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보육 운영방안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고용을 승계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건물이 자가 소유일 경우만 가능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한 시설,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대표자 변경이 없었던 시설,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행정처분(단, 시정명령 제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등이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참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심의 등 선정절차를 거쳐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각각 1곳씩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을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지난 3월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을 설치했다. 추진단은 이번 시범사업의 첫 단계로 지난 15일 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1차 설명회를 개최했고, 19일 의정부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관계자는 "도내 공공형 어린이집 평균설치율 8.5%보다 낮은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9월쯤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2곳을 추가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17.5 X 9.8 cm

인천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5면 종합

"도민 위한 입법·예산분석 기능 강화"

토토 의정 에세이

도의원 솔직담화 **윤화섭** 의장

의회 사무처 내 관련 기구 구성 추진 등 '의정활동 원활화' 주력

토론회 통한 지속·균형적 연정관계 견인 … 인사 독립권 추진도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17일 '포토의정 에세이' 의회 입법·예산 기능 강화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정을 살피고 견제하며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실'과 '예산정책담당관실'을 확대시키야 할 것입니다."

17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만난 윤화섭(61·더민주·안산5) 의장은 도의회 의정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윤 의장은 "의원 본연의 역할은 도민을 위한 입법과 예산분석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능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국 평균 의정보좌진이 의원 1인당 2.2명인데, 의원 128명이 있는 도의회는 평균보다 64명이 부족한 현실이다.

윤 의장은 입법·예산 담당기구에 64명을 충원한 기능 강화를 구상하고 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예산담당기구를 두는 안을 포함한 2가지 정도 구성안을 내 놓은 상태지만 윤 의장은 '의회 순기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윤 의장은 "지금처럼 상임위 11개에 예산분석관을 1명씩 배치하는 구도는 예산 기능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겠는가"라며 "의회 기구 안에 입법·예산 기구가 들어와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입법기능을 두게 되면 거리상으로도 현장감이 떨어지고, 의논이 필요할 경우 찾아가야 하는 등 민첩한 연락이 어려워 효율적인 관리도 안 된다"며 의회 사무처 안으로 입법·예산 기구가 들어와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1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도지사, 양당대표, 도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의정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바 있다.

이때 도의회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원 5명 정도를 배치하는 안도 제시됐다.

윤 의장은 "현재는 공무원이 정책연구에 관한 일을 맡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의회 내 각 정당이 추구하는 의제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은 다시 본인의 위치에 돌아가야 하기에 정책을 바라보고 실행하는 시각 차가 있다"며 "결국 편하거나 보편적인 정책들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도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주제로 오는 20일 토론회를 갖고, 이후 연정관련 토론회를 다시 계획하고 있다.

윤 의장은 "여·야, 집행부, 연정실행위 중심인 사회통합부지사 등은 지금까지 진행된 연정에 대해 긍정·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통합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대등한 연정 관계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독립권'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도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단체장이 가지고 있다 보니 의정활동을 돕는 직원이 소신껏 의원을 보좌하는 업무에 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장은 이 모든 것이 단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임기동안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7명의 새로운 도의원이 당선돼 128명의 정원이 갖춰진 새로운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윤 의장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 도민들 곁으로 달려가 도민과 호흡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글 이경·사진 김형빈 기자 leek@incheonilbo.com

35.5 X 18.0 cm

인천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05면 종합

올 광역자치단체 의원 연봉 57만원 올라

올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의 '연봉'이 작년보다 57만원 올랐다.

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시도의원 1인 평균 의정비는 작년보다 1.0% 인상된 5672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의회의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올해 시도의원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각각 평균 3872만원과 평균 1800만원이다.

의정비는 경기도가 6321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6250만원)가 뒤를 이었다.

막대한 빚으로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된 인천시는 5951만원으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의정비가 많다. 17개 시도 중 의정비가 가장 낮은 전남도의회(5080만원)보다 연간 871만원이 더 많다.

올해 시군구의원의 1인당 평균 의정비는 작년보다 62만원이 오른 3767만원이다. 월정수당이 2447만원, 의정활동비가 1320만원이다.

서울 강남구의회의 의정비가 4950만원으로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1위다.

이어 수원시(4852만원), 성남시(4835만원), 서울 서초구(4781만원), 고양시(4674만원) 순이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경남 창원시의회가 4434만원으로 가장 많다.

수원시와 서울 서초구 등 6개 시·구는 2.7%를 올려 의정비 인상폭이 가장 컸다. 79개 시군구는 의정비를 동결했다.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재 정여건이 열악한 부산 동구, 대전 동구, 광주 남구, 부산 서구 등의 지방의원들도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17.5 X 7.8 cm

인천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2면 인물



이주민 인권상담 서포터즈 위촉

道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는 상담 사각 지대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상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민 인권상담 서포터즈' 15명을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서포터즈는 도내 외국인지원단체에서 일하는 상담활동가로 구성됐으며 도내 각 지역에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을 발굴해 다각적인 상담과 지원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상담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 2월 도내 권역별로 위촉된 4인의 외국인주민법률상담고문변호사 함께 상담협력체계를 구축해 상담 소외와 인권 사각 지대 해소를 목표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친다.

/안산 =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7.8 X 14.4 cm

인천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5면 문화

장단 맞춰 '얼쑤'…즐기며 교훈까지

20일부터 매주 水 경기도문화의전당
국악극 '뛰는 토끼 위에 나는 거북이'
우화 모티브…전통놀이·악기 체험도

경기도문화의전당 국악당은 아이들에게 국악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보여주기 위해 국악 아동극 '뛰는토끼 위에 나는거북이' 공연을 선보인다.

이솝우화 '토끼와 거북', 고전소설 '별주부전'을 모티브로 한 이번 공연은 단순히 무대 위 작품을 관람하는 공연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배우며 놀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국악당은 공연을 통해 아이들에게 '돌다리도 두들겨가라',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며 교훈을 얻게 할 계획이다.

공연 관람 20분 전에는 '소통공연'이 마련돼 전통악기 소리 들어보기, 장단 배우기, 국악동요 배우기 등 국악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시간이 준비됐다.



'뛰는토끼 위에 나는거북이' 공연 모습

공연 관람 후 아이들은 배우들과 함께 포토존에서 기념촬영, 투호, 굴렁쇠, 제기차기, 줄넘기, 징, 북 등 전통놀이와 전통악기 체험을 할 수 있다. '뛰는토끼 위에 나는거북이'는 오는 20일부터 7월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진행된다. 관람료는 성인 1만원, 어린이 2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문화의전당 국악당 홈페이지(www.ggad.or.kr)를 참고하면 된다. 031-289-6421

/신민섭 기자 msshin@incheonilbo.com

21.5 X 13.9 cm

인천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8(경기판)면 사회

노란우비 물결 … 시민 6000여명 '진실 향한 걸음'

세월호 2주기 안산 분향소서 추모행사

기억식·문화제 - 희생자 304명 넋 위로

세월호 참사 2주기인 16일 오후 2시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와 미수습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진실을 향한 걸음' 행사를 가졌다.

이슬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노란 우비를 입고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 6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가슴이나 가방에 노란 리본을 달고 긴 대열을 이뤘다.

선두에 선 풍물패의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미수습자를 상징하는 9개의 대형인형, 그 뒤에 유가족 30여명이 '진실을 인양하라', '특별법 개정하라', '특별검사제 도입하라'는 글자 피켓을 들고 뒤따랐다.

이어 한 달 전부터 유가족, 시민들이 함께 만든 희생자를 형상화한 304개의 탈과 꽃만장이 그 뒤를 따랐다.

대열은 가족·연인·친구들과 함께 나온 시민들부터 휠체어를 탄 장애인, 목발을 짚은 환자, 교복을 입은 학생, 피란 눈을 가진 외국인들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이들은 분향소를 출발, 서울프라자를 거쳐 삼일로를 따라 단원고에 도착한 뒤 화정천을 통해 분향소로 되돌아 오는 5.2km 가량의 코스를 1시간30분에 걸쳐 걸었다.

일부는 단원고에 도착한 뒤 기억교실(존치교실)에 들러 책·걸상, 사물함 등 희생자들의 온기가 남아있는 기억물품을 둘러보며 넋을 위로하기도 했다.

다시 분향소로 돌아온 시민들은 오후 4시부터 화랑유원지 대공연장에서 시작된 추모 문화제 '봄을 열다'에 합류했다.

문화제에서는 각각 304명의 북소리 연주자, 전국에서 모인 304명의 청소년 합창단, 기타 연주자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다.

앞서 오전 10시쯤에는 분향소에서 세월호 2주기 추모제인 '기억식'이 열렸다.

기억식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제종길 안산시장,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 및 4·13총선 당선인부터 지역 주민들까지 각계 각층의 인사 3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안산 전역에 추모사이렌이 울려퍼지자 참석자들은 묵상을 하며 2년 전 참사의 그날을 기억했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다시 봄이 왔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2014년)4월16일"이라며 "사람들은 아직도 세월호나고 말하지만, 아이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밝혀내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희생자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했고, 이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희생된 학생들의 꿈을 이어가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떨궜다.

2학년3반 고 박예슬 학생의 동생 박예진 양은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낭독해 보는 이들을 숙연케 했다.

박양은 "아직 언니의 목소리가 들리고 언니의 모습이 아른거려, 나를 안아주던 언니의 품속이 그리워"라며 "우리가 함께 걸었던 그길을 혼자 걷다보면 '남부럽지 않은 자매가 되지'던 약속이 떠올라"라며 끝내 눈물을 쏟았다.

기억식은 세월호 사고 발생 순간부터 2주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기억영상' 상영, 안산시립합창단 및 416가족합창단의 합창, 성우 김상현의 기억시 낭송, 가수 조관우의 '풍등' 공연, 공동선언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한동안 발길이 뜸했던 분향소는 크게 붐벼 입구 밖으로는 긴 줄이 생겼고, 이날 하루 전국에서 1만3000여명의 추모객이 찾아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는 금세 국화꽃이 수북이 쌓였다.

같은 시간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제를 연 단원고 교사와 학생 400여명도 분향소를 찾아 하늘로 수학여행을 떠난 제자와 선배들을 추억했다.



세월호 참사 2주년인 16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정부합동분향소에서 생존 학생과 유족들이 서로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ksy@incheonilbo.com

이날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속에 오전부터 정부합동분향소와 화랑유원지 일대에서 열린 추모제 '기억식', 추모 걷기 '진심을 향한 걸음', 추모 문화제 '봄을 열다'에 이어 저녁 늦게까지 촛불 잇기 행사가 진행되는 등 안산지역의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식이 온종일 계속됐다.

한편 안산에서 예정된 추모제를 모두 마친 유족과 시민들은 오후 7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범국민추모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 10여대에 나눠 타고 이동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로 가지 못한 시민 200여명은 오후 7시부터 단원고 정문에서 '촛불 잇기' 행사를 열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35.5 X 21.1 cm

인천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8(경기판)면 사회

'416 교과서' 사용 교사 징계여부 온도차

교육부 "엄정 조치" … 도교육청 "경위 파악 … 징계할 정도 아냐"

광명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만든 세월호 교재로 수업한 것과 관련, 징계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광명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 7일 2학년 학생들에게 세월호 관련 계기교육을 진행했다. 계기교육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주제를 가르칠 필요가 있을 때 이뤄지는 교육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교사가 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교조가 제작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계기교육 교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 교재를 사용한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이 교과서가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국가관을 조장할 수 있고 사실 왜곡과 비교육적 표현 등으로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이 교과서를 사용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교육내용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교재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교사가 교장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이 교재를 사용한 게 문제가 된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앞서 모든 계기교육 자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 지침을 정했다. 교장의 승인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교사가 교장 승인 없이 계기교육 교재를 사용, 지침을 어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이것 역시 징계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편향됐거나 정치적이지 않고 순수하게 추모 위주로 교육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침을 어긴 부분은 징계해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교육부로부터 징계 요청이 오면 지침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지난 15일 이 사안을 조사해 교육부에 보고했으며 교육부를 이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

17.5 X 12.1 cm

인천일보

2016년 04월 18일 (월)
19면 사회

그날의 슬픔 아는지 하늘도 함께 울었다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행사

유가족·추모객 부평 가족공원 방문
거센 빗줄기 속 영정 바라보며 오열

"작년 연안부두 때보다는 비가 덜 내리네요. 그 땐 이보다 더 굵은 비가 내렸으니"

지난 16일 오후 3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비가 내렸다.

차가운 바닷속에 가라앉은 배가 아직 그 자리에 있듯 유가족들의 슬픔도 2년 전 '그날'에 머물러 있었다. 궂은 날씨에도 검은 옷에 노란 리본을 단 유가족과 추모객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행사가 열리는 인천시 부평구 가족공원을 찾았다.

장종열(42)씨 어머니는 환갑을 맞아 인천 용유초등학교 동창들과 여행을 떠난다며 세월호에 올랐다.

자월도에 사는 장씨는 '그날'이후 한동안 집 앞에 있는 바다에 나가지 못했다. 바다와 겹쳐지는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렇게 2년이 지났다. 시간은 무색하게도 흘러갔다.

"아이고, 우리 아부지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아버지 어떡하냐고."

유가족 헌화 시간이 다가오자 빗방울은 더욱 거세졌다.

영정 속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희생자들을 마주한 유가족들은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걸음을 떼지 못했다.

"할머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셔서 저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얼굴 잊지 않으려고 사진도 자주 봐요. 항상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생각할게요. 사랑해요 할머니."

고 김순금씨 손자 이성민군이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눌러 담은 추모 편지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자 같은 슬픔을 지닌 유가족들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삼켜냈다.

2주기에 맞춰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개관식도 함께 진행됐다.

인천 용유초등학교 동창들과 환갑여행을 떠났다 다시 돌아오지 못한 장종열씨의 어머니, 자신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구조 활동을 이어간 승무원 박지영씨, 아이들을 구하러 가야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긴 양대홍 사무장까지 일반인 희생자 45명 중 41명의 봉안함이 이곳에 안치됐다.

"내 아들, 내 새끼. 이렇게 먼저 떠나면 남은 애미는 어쩌라고" 고 이은창씨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듯 흰 손수건으로 봉안함이 담긴 유리를 하염없이 닦으며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토해냈다.



지난 16일 한 추모객이 인천시 부평구 가족공원 내 세월호 희생자 추모탑을 둘러보고 있다.

2시간가량의 추모행사가 끝나자 유족들의 울음으로 가득 찼던 가족공원에는 고요함이 찾아왔고 이내 거짓말처럼 비는 그쳤다. 가족의 손을 잡고 꽃놀이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있는 4월. 누군가에게는 돌아올 수 없는 '그들'과의 추억을 되새겨야 하는 아픔만 가득한 계절이 됐다.

/글·사진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17.5 X 22.1 cm

연합뉴스
2016년 04월 17일 (일)
사회

경기도, '착한 교복' 12개 시·군 순회 전시회

경기도, '착한 교복' 12개 시·군 순회 전시회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도내 12개 시·군에서 지난해 디자인한 '착한 교복' 40벌을 순회 전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착한 교복은 도와 도 교육청 간 교육연정 1호 사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도내 섬유업계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도내에서 생산된 고품질 섬유 소재를 활용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만든 교복을 경제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취지다.



경기도가 선보인 '반값 교복'[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시회는 지난해 개발한 중·고등학생 동·하복 40벌을 선보이며 구리를 시작으로 포천, 안산, 수원, 용인, 고양 등 도내 12개 시·군을 돌며 진행된다.

전시 장소는 시·군청 로비나 여성회관 등으로, 도는 학교 행사와 연계해 관심도를 높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순회 전시는 우수 기능성 원단, 최신 디자인, 경제적 가격 등 착한 교복의 장점을 알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36벌의 디자인을 새로 개발할 계획으로, 착한 교복으로 가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끝)

14.4 X 19.1 cm

연합뉴스
2016년 04월 17일 (일)
지역

경기도청 민원센터, 내달부터 '민생지킴 서비스'

경기도청 민원센터, 내달부터 '민생지킴 서비스'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가 다음 달부터 노인,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는 '서민민생 지킴이 서비스'를 한다고 경기도가 17일 밝혔다.

서민민생 지킴 서비스는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민생피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둔 밀착형 현장 서비스다.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는 그동안 내방객을 대상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노인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어 보다 촘촘한 민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민원센터는 노인복지관, 하나센터, 사회복지관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비스는 금융 소외계층 대상 대부업·금융 사기 등 금융피해, 다단계 소비자 피해, 취업사기 예방과 일자리 알선, 소상공인 불공정 거래 피해 등에 대한 상담이다.

상담 후에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안내, 계층별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 분쟁 관련 심층상담, 피해 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한다.

서민민생 지킴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031-8030-2312)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wyshik@yna.co.kr
(끝)

14.4 X 11.7 cm

연합뉴스
2016년 04월 17일 (일)
사회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619개...자본잠식 많아 지방재정 부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619개…자본잠식 많아 지방재정 부실2014년 감사받은 50곳 중 38곳 자본잠식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재단법인과 주식회사가 계속 늘어 지자체 재정부담의 또 다른 뇌관으로 우려된다.



자본잠식 상태인 충남 보령시 출자기관 대천리조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은 618곳에 이른다.

출자·출연기관은 지역사회 경제진흥, 문화사업, 의료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조례로 설립하는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경기도의 킨텍스와 부산의 벡스코 등이 잘 알려진 자치단체 출연기관이다.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2003년 227개에서 2013년말에 558개로 불었고 이후 2년여 만에 다시 60개가 더 생겼다.

고용 인원은 2만1천여 명을 헤아린다.

그러나 일부 출자·출연기관은 설립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거치치 않고 설립되거나 자치단체의 조직확대·보은인사 의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행자부는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2014년 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50곳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38개 기관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자·출연기관 중 72%는 상시근로자 30명미만으로 운영돼 소규모 기관 난립에 따른 비효율 우려도 제기된다.

출자·출연기관의 부실은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키우고 주민 손해로 이어진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까다롭게 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 설립 계획단계에서 행자부와 협의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설립 타당성 검토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곳에서만 할 수 있다.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이 조직확대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끔 기존 공무원 감축계획을 수립해야 설립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자부 또는 시도와 설립 협의 결과는 15일이상 주민에 공개해야 한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무분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방지해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tree@yna.co.kr
(끝)

연합뉴스

2016년 04월 16일 (토)
종합

"그 날이 다신 반복되지 않길" 전국서 세월호 참사 추모(종합)



팽목항 분향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잊지 않을게" 안산 '기억식'에 2천500명 참석…팽목항·인천·광화문서 추모 물결

(전국종합=연합뉴스) 2년 전 세월호 참사와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전국에서 열렸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집중된 경기 안산시와 인천광역시, 침몰 사고와 수습 활동이 이뤄졌던 전남 진도군에서는 이날 희생자들을 향한 눈물처럼 내리는 빗속에서 각각 세월호 2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다.

경기도 안산에 마련된 정부합동분향소에서는 이날 오전 4·16가족협의회 주최로 희생자와 미수습자를 추모하는 '기억식'이 열렸다.

기억식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제종길 안산시장,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4·13 총선 수도권 당선인 등 정치인부터 지역 주민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에서 2천5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전 10시 정각 안산 전역에 울려 퍼진 추모 사이렌에 맞춰 묵념하며 2년 전 참사의 그날을 기억했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다시 봄이 왔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2014년)4월 16일"이라며 "사람들은 아직도 세월호니고 말하지만, 아이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밝혀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희생된 304명은 5천만 국민의 생명과도 같다. 참사를 밀거름 삼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남 지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희생자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희생된 학생들의 꿈을 이어가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떨궜다.

행사는 세월호 사고 발생부터 2주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기억영상' 상영, 안산시립합창단 및 416가족합창단의 합창, 성우 김상현의 기억시 낭송, 가수 조관우의 '봉등' 공연, 공동선언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기억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억식이 끝난 뒤 유가족과 시민들은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그리며 분향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기억식과 분향을 마친 후 오후 2시부터 정부합동분향소를 출발해 단원고 등을 거쳐 돌아오는 '진실을 향한 걸음' 행사를 진행했다.

시민들은 이후 화랑유원지 대공연장으로 돌아와 희생자 추모 문화제 '봄을 열다'를 개최한다. 오후 7시부터는 단원고 정문에서 '촛불잇기' 행사를 하는 등 안산에서 밤까지 추모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단원고는 이날 학생 400여명의 자발적 참여로 비공개 추모제를 열어 추시교실을 순회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진도 팽목항에서는 전남도와 진도군 주최로 4·16 추모식이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미수습자 가족들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 등 정치인과 추모객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팽목항 임시분향소를 참배한 뒤 함께 노란 풍선을 하늘로 날리며 희생자 추모 및 세월호 선체 인양을 통한 미수습자 수습을 기원했다.

단원고 학생 미수습자인 조은하 양의 어머니 이금희씨는 "2년 전 이 시간에 우리 딸이 엄마를 애타게 부르고 있었을 것"이라며 "내년 이맘 때는 온전히게 세월호 선체를 인양해 미수습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추모사에서 "정부는 세월호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인양해 아홉분 모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양안전 체도와 정태와 의식을 혁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천주교·기독교 단체들이 팽목항을 찾아 추모 미사와 예배를 올렸다. 밤에는 불교단체에서 풍등을 날리며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팽목항 추모 풍선 날리기 행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 수원 삼성의 2016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6라운드 경기에서는 휘슬이 울린 직후 양팀 서포터스들이 미수습자들을 기리며 9분간 응원을 멈추고 추모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도 경기 전 양팀 선수와 관중이 함께 묵념한 뒤 경기를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다 스러진 '의인'들의 묘소를 향하는 추모 행렬도 끊이지 않았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만 천주교 공원묘지에 마련된 고(故) 남윤철 교사의 묘소에는 가족과 제자, 친구 등 30여명이 모여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구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정부가 2년 전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로 이날을 '국민안전의 날'로 제정함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별관 대강당에서는 제2회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 다짐대회'가 열렸다.

세월호 유가족 중에서는 일반인 사망자 유족 5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던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대회사에서 "2년 전 세월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영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세월호 사고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별도 추모 순서 없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순서에 세월호 사망·미수습자를 함께 추모했으며 안전관리현장 낭독, 안전디딤 퍼포먼스 등을 거치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도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대형 문화제가 열린다.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약속·행동 문화제'를 연다.

문화제에서는 이소선 합창단, 송경동 시인, 유로기아와 친구들, 우리나라 등의 무대가 펼쳐진다.

발언하는 황교안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월호 변호사'이자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은평갑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당선자 등도 무대에 올라 발언한다.

주최 측은 이날 4천500명 정도가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문화제에 앞서 오후 2시부터는 같은 자리에서 권나무·배영경 등이 노래한다. 문학평론가 이도흠·시인 임성용 등이 글을 낭송하는 '세월호 버스킹'도 열린다.

이어 '416으로젝트-망각과 기억'이라는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가 상영된다.

세월호 참사 2주기 대학생 준비위원회도 이날 오후 3시부터 마로니에공원에서 전국 대학생 대회를 연다. 대회에서는 학생들과 유가족이 발언하고, 풍물·노래·율동 등의 공연을 펼친다.

안산에서는 화랑유원지에 정부 합동분향소가 차려져 오전부터 운영된다. 오후에는 유원지 대공연장에서 추모 문화제가 열린다.

지역대회나 문화제를 마친 이들은 저녁에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해 기억·약속·행동 문화제에 합류할 계획이다. (장아름, 강영훈, 김은경, 김형우, 박철홍, 하채림)

14.4 X 57.9 cm

연합뉴스
2016년 04월 16일 (토)
문화

세월호 2주기 '기억·약속·행동' 추모 문화제 광화문서 열려(종합)

세월호 2주기 '기억·약속·행동' 추모 문화제 광화문서 열려(종합)



서울 광화문 광장 세월호 분향소

안산 화랑유원지·서울 마로니에공원서도 추모행사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김은경 기자 = 세월호 참사 2주기인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과 경기도 안산 등에서 떠나간 이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약속·행동 문화제'를 개최했다. 빗속에서 치러진 문화제에는 1만2천명(경찰 추산 4천500명)이 참가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참사 원인 규명 등을 촉구했다.

20대 총선 서울 은평갑 당선인 박주민 변호사(더불어민주당)는 단상에 올라 "세월호 참사는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문화, '기레기'로 불린 언론, 권력 눈치를 본 수사기관 등이 압축적으로 나타난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기간과 인력, 예산, 권한을 보장하고 특별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인양하지 못한 이들을 완전히 찾고, 민간 잠수사나 자원활동가에게 까지 피해자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인 김제동씨는 "죽음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있다"며 "희생자 304명을 기억하며 그들 몫까지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지키는 열정만큼 304명을 지키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고 말했다.

김씨는 발언 도중 감정이 격앙된 듯 "'국가를 위해 싸우다 죽은 사람도 아닌데 왜 신경을 쓰나'라는 사람들에게 답한다"며 욕설과 함께 "아이들이 국가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욕설을 섞은 데 대해서는 사과했다.

인권운동가 박래군씨도 단상에 올라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를 악착같이 지우려 하고 망각의 무덤 속에 넣으려 하지만 정부의 기도는 파탄 났다"며 "4.16 이전과 다른 세상을 만들겠다는 운동의 주인이 우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민주 표창원 당선인(경기 용인정)도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가 많이 오는데도 시민들이 자리를 지키며 평화롭게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한마음이 된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문화제에서는 이소선 합창단, 송경동 시인, 유로기아와 친구들, 우리나라 등의 무대도 펼쳐졌다.

문화제에 앞서 오후 2시부터 같은 자리에서 권나무·배영경 등이 노래하고, 문학평론가 이도흠·시인 임성용 등이 글을 낭송하는 '세월호 버스킹'이 열렸다. 이어 '416프로젝트-망각과 기억'이라는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가 상영됐다.

'세월호 참사 2주기 대학생 준비위원회'도 이날 오후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전국 대학생 대회를 열었다. 대회에서는 학생들과 유가족이 발언하고, 풍물·노래·율동 등의 공연을 펼쳤다.

전국 각지에서도 세월호 2주기를 추모하는 행사가 잇따랐다.

경기도 안산에 마련된 정부합동분향소에서는 이날 오전 4.16가족협의회 주최로 희생자와 미수습자를 추모하는 '기억식'이 열렸다.

기억식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제종길 안산시장,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4·13 총선 수도권 당선인 등 정치인부터 지역 주민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2천500여명이 참석했다.

진도 팽목항에서는 전남도와 진도군 주최로 4·16 추모식이 열렸다.

추모식에는 미수습자 가족들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를 비롯한 정치인과 추모객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pulse@yna.co.kr
(끝)

연합뉴스
2016년 04월 17일 (일)
사회

경기도형 공보육 시범사업 참가할 민간어린이집 모집

경기도형 공보육 시범사업 참가할 민간어린이집 모집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는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원과 의정부시 소재 민간어린이집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준하는 보육서비스를 저렴한 보육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인수해 소유와 관리를 맡는 형태로 추진된다.

모집대상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한 시설,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대표자 변경이 없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 등으로 건물 소유형태는 자가나 전세, 월세 모두 가능하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공모 참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심의 등 선정절차를 거쳐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각 1개소씩 선정할 계획이다.

수원과 의정부시는 도내에서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이 도 평균(8.5%)보다 낮은 곳이다.

연구원이 선정한 원장이 도의 공보육 운영방안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교사들은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토록 한 뒤 고용승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가를 원하는 민간어린이집 대표자는 29일 18시까지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031-220-3997)으로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홈페이지 '새소식'을 확인하면 된다.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은 오는 9월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이 낮은 시군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hedgehog@yna.co.kr
(끝)

14.4 X 14.4 cm

연합뉴스
2016년 04월 17일 (일)
지역

시도의원 '연봉' 평균 5천672만원…경기 6천321만원 최고

시도의원 '연봉' 평균 5천672만원…경기 6천321만원 최고시군구의원은 3천767만원…164개 지자체, 최고 2.7% 인상

(서울=연합뉴스) 하재림 기자 = 올해 전국 광역지자단체 의원들의 '연봉'이 작년보다 57만원 올랐다.

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시도의원 1인 평균 의정비는 작년보다 1.0% 인상된 5천672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의회의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올해 시도의원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각각 평균 3천872만원과 평균 1천800만원이다.

의정비는 경기도가 6천321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6천250만원)가 뒤를 이었다.

막대한 빚으로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된 인천시는 5천951만원으로 광역지자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의정비가 많다. 17개 시도 중 의정비가 가장 낮은 전남도의회(5천80만원)보다 약간 871만원이 더 많다.

올해 시군구의원의 1인당 평균 의정비는 작년보다 62만원이 오른 3천767만원이다. 월정수당이 2천447만원, 의정활동비가 1천320만원이다.

서울 강남구의회의 의정비가 4천950만원으로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1위다.

이어 수원시(4천852만원), 성남시(4천835만원), 서울 서초구(4천781만원), 고양시(4천674만원) 순이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경남 창원시 의회가 4천434만원으로 가장 많다.

수원시와 서울 서초구 등 6개 시·구는 2.7%를 올려 의정비 인상폭이 가장 컸다. 79개 시군구는 의정비를 동결했다.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재정이건이 열악한 부산 동구, 대전 동구, 광주 남구, 부산 서구 등의 지방의원들도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표> 전국 시도 의정비 현황

지자체	2015년 의정비 (만원)	2016년 의정비 (만원)	인상률 (%)
경기	6,236	6,321	1.4
서울	6,250	6,250	0
인천	5,951	5,951	0
울산	5,814	5,814	0
부산	5,728	5,728	0
대전	5,724	5,724	0
대구	5,644	5,644	0
충남	5,412	5,544	2.4
제주	5,326	5,460	2.5
경남	5,324	5,457	2.5
충북	5,400	5,400	0
경북	5,272	5,352	1.5
광주	5,212	5,342	2.5
강원	5,100	5,184	1.6
전북	4,973	5,093	2.4
전남	5,080	5,080	0
광역 평균	5,615	5,672	1.0
기초 평균	3,705	3,767	1.7

tree@yna.co.kr
(끝)

연합뉴스
2016년 04월 17일 (일)
사회

경기도 산하기관 통폐합 '산넘어 산'...연정합의 무색

경기도 산하기관 통폐합 '산넘어 산'…연정합의 무색대상기관·도의회 반발 거세…내달 조례 제·개정 어려울 듯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을 12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예상대로 실행에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폐합을 포함한 산하기관 경영합리화는 여야연정(聯政)의 주요 정책 과제이지만 대상 기관과 도의회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연정정신을 무색게 하고 있다는 평가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산하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산하기관 통폐합을 추진, 지난달 25일 공공부문 경영컨설팅 전문기업인 엘리오앤컴퍼니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용역보고서를 보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경기도문화의전당·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경기도청소년수련원·경기영어마을·경기농림진흥재단 등 6곳이 폐지 대상에 올랐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테크노파크·한국도자재단·경기문화재단·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복지재단·경기도시공사·경기연구원·경기평택항만공사 등 10곳은 4곳으로 통합하도록 했다.

도는 용역결과에 대한 산하기관장과 실·국장 의견수렴, 입법예고 등을 거쳐 다음 달 10~1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견 수렴단계부터 해당 기관의 반발이 거셌다.

경기문화재단 흡수통합 대상인 한국도자재단의 경우 노동조합이 성명을 내 "용역기관에서 획일적 경제성 논리로 통폐합 대상을 정했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도자기를 사금파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시공사 흡수통합 대상에 오른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개발과 도시개발 업무를 한데 묶는 것은 국내외에 전례가 없고 도에서 예산지원도 받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통폐합 대상 기관을 소관하는 도의회 상임위원회도 부정적인 기류가 적지 않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광철 위원장은 "폐지대상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경기영어마을의 순기능에 대해 고려해봐야 하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오히려 조직을 키워야 하는데 경기연구원이 흡수하는 방안이 나왔다"며 "이번 달 임시회(19~26일)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다음 달 임시회에 조례 제·개정안을 내려면 이달 초 입법예고에 들어갔어야 했다. 의원 발의가 아니면 다음 달 조례 제·개정이 어려운데 의원 발의는 더더욱 힘들 것"이라며 "통폐합의 걸림돌이 한두 개가 아니다"고 말했다.

도는 2014년 평생교육진흥원과 청소년수련원의 통합을 추진했으나 도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부결해 무위에 그쳤다.

chan@yna.co.kr
(끝)

연합뉴스
2016년 04월 16일 (토)
종합

발언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6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식'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기억하는 말을 하고 있다. 2016.4.16

xanadu@yna.co.kr

14.4 X 22.3 cm

연합뉴스
2016년 04월 16일 (토)
사회

세월호 교재 수업 징계...교육부·경기교육청 '시각차'

세월호 교재 수업 징계…교육부·경기교육청 '시각차'교육부 "교재 사용자체 문제" vs 도교육청 "절차 문제지만 징계 사유 안돼"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만든 세월호 교재로 수업한 것과 관련, 징계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광명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 7일 2학년 학생들에게 세월호 관련 계기교육을 진행했다. 계기교육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 주제를 가르칠 필요가 있을 때 이뤄지는 교육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교사가 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교조가 제작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계기교육 교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 교재를 사용한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이 교과서가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국가관을 조장할 수 있고 사실 왜곡과 비교육적 표현 등으로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이 교과서를 사용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 교육청은 교육내용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교재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교사가 교장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이 교재를 사용한 게 문제가 된다는 취지다.

도 교육청은 앞서 모든 계기교육 자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 지침을 정했다. 교장의 승인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교사가 교장 승인 없이 계기교육 교재를 사용, 지침을 어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이것 역시 징계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편향됐거나 정치적이지 않고 순수하게 추모 위주로 교육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침을 어긴 부분은 징계해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교육부로부터 징계 요청이 오면 지침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지난 15일 이 사안을 조사해 교육부에 보고했으며 교육부를 이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kyoon@yna.co.kr
(끝)

연합뉴스
2016년 04월 15일 (금)
지역

경기도,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시행 '파란불'

경기도,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시행 '파란불'버스 1대 예약전용 시험운영…만족도 높아 추진 방안 논의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광역버스에도 시외버스나 기차, 비행기처럼 좌석예약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도심을 달리는 2층 광역버스[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는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도입을 위해 4주간 김포~서울시청 노선에 출근시간 예약전용 버스 1대를 투입, 기술시현을 한 결과 만족도가 높아 사업추진방안을 본격 논의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광역버스 좌석예약시스템은 모바일로 원하는 날짜, 탑승 정류소, 희망좌석을 예약하고 요금은 교통카드로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예약제는 철도, 항공, 시외버스에 보편화된 서비스지만 광역버스는 아직 관련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도는 광역버스 예약제 도입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2월 15일~3월 11일 체험단 202명을 모집해 기술시현을 했다.

그 결과 예약을 한 뒤 타지 않는 예약부도율은 17%로 철도나 항공, 시외버스와 비슷했다.

대신 예약자의 절반이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등 호응이 높았다. 체험단 만족도 조사에서도 8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93%나 됐다.

응답자들은 좌석 예약제의 장점으로 출근 때 앉아서 탈 수 있다는 점, 탑승 확신, 시간단축 등을 꼽았다.

특히 이용자 중 60%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등 체감 출근시간이 10~20분 단축됐다고 답변했다.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는 버스를 탈 때 예약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존 버스보다 시간이 지연되는 점, 비예약자가 탑승 예약좌석에 앉을 때의 해결방안 등이 지적됐다.

임성민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장은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개선방안을 찾겠다"며 "관계기관과 실제 사업추진방안을 협의해 광역버스에 예약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끝)

연합뉴스
2016년 04월 15일 (금)
사회

존치교실 합의 담은 '416교육사업 협약식' 잠정 연기

존치교실 합의 담은 '416교육사업 협약식' 잠정 연기"존치교실은 2주년 기해 이전…구체적 일정 더 논의해야"

(안산=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15일 예정된 '416교육협약식'이 잠정 연기됐다.

단원고 학교측과 4.16가족협의회 등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안산시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존치교실' 이전 문제가 담긴 '4·16 교육사업 협약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협약 내용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돼" 협약식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4.16가족협의회를 비롯해 경기도, 도교육청, 도의회, 안산시, 안산교육지원청, 단원고 등 7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각 기관은 지난 13일 안산교육청에서 열린 8차 협의회에서 단원고 존치교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온전하게 이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존치교실은 세월호 2주기를 기해 원형 그대로 안산교육청 별관 강당에 임시 보존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존치교실의 이전 시한과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더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존치교실 문제를 중재한 참여 기관 측은 설명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김광준 신부는 "오늘 협약식은 8차 협의회에서 도출된 초안에 최종 서명을 하고 각자 실천 의지를 다지자는 의미에서 계획했던 것"이라면서 "다만, 협약 내용에서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돼 부득이하게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협약식에는 각 기관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협약식 날짜가 갑작스럽게 잡혀 일부 기관장이 참석할 수 없는 문제도 협약식 연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신부는 "협약에 서명한 뒤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모든 참여 기관의 동의를 거쳐 협약식을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존치교실은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이 사용하던 교실 10칸을 의미한다.

존치교실

교실은 학생들이 사용하던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으며, 현재 가족과 친구, 시민이 남긴 추모 메시지와 선물들이 남아있다.

단원고 학부모들은 단원고 재학생들도 다른 학교 학생과 동등한 학습권을 가져야 한다며 존치교실 '보존'을 주장하는 416가족협의회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단원고는 지난 2월 신입생 입학식을 앞두고 존치 교실로 부족한 교실 수를 메우려 교실 2.5개 크기의 컴퓨터실을 반으로 쪼개거나 교장실과 스쿨닥터실 등을 학교 밖 컨테이너로 이사했다.

you@yna.co.kr
(끝)

연합뉴스

2016년 04월 15일 (금)
사회

<게시판> 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 상담 서포터스 위촉

<게시판> 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 상담 서포터스 위촉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지난 14일 도내 외국인 지원단체에서 일하는 상담활동가 15명을 '이주민 인권 상담 서포터스'로 위촉했다. 이들은 외국인 주민 법률 상담 고문변호사와 함께 이주민 인권 상담과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는 6월 3일까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봉제 보조원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의류 제작에 필요한 봉제 기술을 교육하는 이 과정은 6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 총 120시간 동안 진행된다. 문의 ☎02-3409-1948~9. (서울=연합뉴스)
(끝)

14.4 X 6.0 cm

연합뉴스

2016년 04월 15일 (금)
종합

<연합시론> 세월호 참사 2년, 아직 풀어야 할 일이 많다

(서울=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정확하게 2년이 됐다. 희생자 304명의 넋을 품고 있는 세월호는 아직도 사고현장인 진도 맹골수도의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 수습되지 못한 9명과 함께다. 7월 말께 예정대로 선체가 인양되면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고대할 뿐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부터 책임자 처벌, 피해자 배상에 이르는 모든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활동시한 종료를 목전에 두고 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만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겨놓은 숙제를 어느 정도라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지만 무신경 속에 방치해선 안 된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가 제기한 물음에서 교훈을 얻을 의무가 있다.

세월호 참사에 직접 책임이 있는 선장은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며 항해사와 기관장도 유기치사 등으로 실형을 받았다. 청해진 해운 대표와 임직원, 화물하역업체 관계자도 유죄 선고를 받았고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다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단죄는 이뤄지지 않았다. 장남이 징역 2년을 선고받기는 했으나 나머지 자녀는 해외도피 등으로 법망을 피했다. 수사는 마무리된 게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컨트롤타워로 국민안전처가 신설돼 각종 안전강화 조치를 취했지만, 지금까지도 안정된 모습은 아니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대형사고는 다시 일어났고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없었다.

세월호 특조위는 인적 구성과 정치적 성향에 따른 내부 갈등, 예산 낭비 비판, 활동 방해 논란으로 출범 때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청문회를 열었지만 크게 내세울 만한 결과물은 없다. 특조위는 활동시한 문제에 걸려 있기도 하다. 출범 당시의 진통으로 특별법 시행 날짜와 특조위 구성일, 예산배정일이 달라 말썽이 생겼다. 정부는 6월 말을 활동기간 종료일로 지정했으나, 특조위 측은 예산배정 날짜를 고려하면 올 연말까지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입장대로라면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 결과는 특조위 백서에 포함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반쪽짜리 보고서를 감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단원고 '존치교실' 문제는 참사 2주기를 맞아 정리될 듯했지만 막판에 협약식이 잠정 연기됐다. 가족협의회와 단원고, 경기도, 교육청 등은 15일 합동분향소에서 협약식을 갖고 존치교실 문제를 정리키로 했으나 협약서 보강 문제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당초 협약 당사자들은 단원고 인접 부지에 교육시설을 만들어 존치교실을 이관하고 단원고에 기억공간을 조성키로 했다가, 협약서를 보강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결코 쉬운 사안은 없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좋은 선례를 남겨주기를 바란다.

14.4 X 15.5 cm

연합뉴스
2016년 04월 15일 (금)
사회

경기연구원 "2층 버스, 입석률·운송비 낮춘다"

경기연구원 "2층 버스, 입석률·운송비 낮춘다"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2층 광역버스가 입석 비율을 낮추고 운송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층 광역버스를 처음 도입한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난 3월 말까지 버스 운행정보와 버스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층 버스가 입석 비율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도입한 2층 광역버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전 6~9시 서울 방면 버스 이용객 수는 2층 버스가 69명, 일반버스 52명으로 2층 버스 이용객이 일반 버스보다 1.33배 많았다.

그러나 2층 버스 운행 전인 지난해 3월 18일과 운행 후인 지난달 16일 남양주시와 김포시의 입석률을 조사한 결과, 입석률은 절반 가까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18일 오전 6~9시 남양주와 김포의 입석률은 각각 19.3%, 17.6%였지만 2층 버스 운행 후인 지난달 16일 같은 시간 입석률은 남양주 11.1%, 김포 9.3%로 조사됐다.

인건비, 유류비, 소모품비, 보험료 등 하루 대당 운송비용은 CNG 일반버스는 42만4천원, 경유 일반버스는 35만7천원, 역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2층 버스는 39만2천원이다.

이를 좌석당 운송비용으로 환산하면 CNG 버스(41석)는 10만원, 경유버스(39석)는 9천원, 2층 버스(72석)는 5천원으로 2층 버스의 운송비가 가장 저렴했다.

운행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우석 경기연구원 휴먼교통실장은 "2층 버스가 출근시간대 입석률 감소에 기여하고 일반버스와 비교해 경제성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며 "2층 버스의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2층 광역버스를 도입, 김포~서울시청 6대, 남양주~서울 잠실 3대 등 5개 노선에 모두 9대를 운용하고 있다.

오는 8월에는 수원~서울 사당역 1대, 수원~서울 강남역 1대, 남양주~서울 잠실 2대, 김포~서울시청 6대 등 10대가 투입되고 10월 9대를 더 운행할 방침이다.

wyshik@yna.co.kr
(끝)

NEWSIS
2016년 04월 17일 (일)
종합

경기도, 올해 '으뜸 맛집' 20곳 모집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는 '경기으뜸맛집'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으뜸맛집 선정은 맛, 위생, 서비스가 우수한 음식점을 찾아 알리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이뤄지고 있다. 도는 현재까지 147곳을 지정했다.

경기으뜸맛집으로 선정되는 음식점은 으뜸맛집 지정판과 로고 간판을 부착할 수 있다. 또 도는 매년 업소당 50만 원 이내의 위생 물품,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게재 등을 제공한다.

도는 올해 20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된 지역·특색 음식 취급 음식점이다.

희망 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29일까지 관할 시·군 위생 담담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식품안전과 음식문화팀(031-8008-3673)이나 시·군 위생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dsk@newsis.com

14.4 X 9.0 cm

NEWSIS
2016년 04월 17일 (일)
종합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29일까지 모집

수원과 의정부에 각각 1곳씩 설치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와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연구원)은 오는 29일까지 경기도형 공보육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린이집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은 대기 수요가 정원의 200~300%에 달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의 만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도(道) 차원의 해결책이다.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보육료는 저렴하다.

도가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인수한 후 연구원이 소유와 관리를 맡기 때문이다

연구원이 임명한 원장이 도의 공보육 운영방안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기존의 교사들은 고용 승계된다.

도는 지난 2월 초 '시범사업계획안'을 통해 올해 말까지 최대 4곳의 경기도형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은 15억5000여만 원이다.

모집대상은 수원과 의정부시에서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이다.

신청자격은 ▲영유아 보육법상 설치기준 준수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대표자 변경이 없는 시설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행정처분(시정명령 제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평가인증 어린이집 등으로 건물소유형태가 자가여야 한다. 임대시설은 신청할 수 없다.

연구원은 현장실사, 심의 등 선정절차를 거쳐 수원과 의정부에 각각 1곳씩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가를 원하는 민간어린이집 대표자는 29일 오후 6시까지 연구원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031-220-3997)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연구원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관계자는 "도내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이 도(道) 평균인 8.5%보다 낮은 하위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오는 9월께 시범사업 어린이 2곳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sk@newsis.com

14.4 X 14.7 cm

NEWSIS
2016년 04월 17일 (일)
종합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MDC 공동창작 지원사업' 시작

【의정부=뉴시스】 이종구 기자 =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공동 설립한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2016 MDC 공동창작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MDC(Manufacturing, Design, Contents) 공동창작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북부 제조기업의 기술과 디자인·콘텐츠 분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융합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기술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제조경험은 풍부하지만 아이디어가 부족한 제조 기업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기회이다.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 보드게임, 디자인가구,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 상용화를 이뤄내며, 제조 디자인, 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들에게 관심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융합아이디어 공모전과 스타트업 융합아이디어 제작지원 프로젝트 2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융합아이디어 공모전은 북부 제조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디자인·콘텐츠 융합 아이디어를 발굴해 진행하는 총상금 규모는 2000만원이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스타트업 융합 아이디어 제작지원 프로젝트'는 북부 제조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디자인·콘텐츠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들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작지원금 규모는 2억 3000만원, 기업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이 밖에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지식재산권 교육, 디자인 출원 컨설팅 등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창업·법률 교육 및 멘토링을 각각 지원한다.

오는 5월 20일까지 '융합아이디어 공모전'은 이메일(mdc@gdca.or.kr)로, '스타트업 융합아이디어 제작지원 프로젝트'는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gcon.or.kr/archives/2535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클러스터팀(mdc@gdca.or.kr, 031-877-2716)로 문의하면 된다.

leejg@newsis.com

14.4 X 14.7 cm

NEWSIS
2016년 04월 17일 (일)
종합

의정부역 경기도 민원센터, 밀착형 민생 서비스 제공

【의정부=뉴시스】 이종구 기자 = 경기도는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에서 5월부터 서민민생 지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서민민생 지킴 서비스'는 북부지역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민생피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노력하는 밀착형 현장 서비스이다.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는 주로 내방객 대상 민원을 처리해왔으나, 앞으로는 노인,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금융 소외계층이 자주 찾는 북부지역 노인복지관, 하나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방문해 '밀착형 현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소외계층 대상 대부업·금융사기 등 금융피해, 다단계 등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취업사기 예방 일자리 알선, 소상공인 불공정 거래 피해 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방문을 원하는 단체나 기관, 마을의 경우 신청하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는 지난 한 해 일 평균 76건, 총 2만7814건을 상담했으며, 도민들을 위한 일자리·법률·고충상담, 서민 금융상담 및 보증·대출 서비스를 지원해오고 있다.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031-8030-2312)로 문의하면 된다.

leejg@newsis.com

14.4 X 10.5 cm

NEWSIS
2016년 04월 17일 (일)
종합

경기도 ·교육청 '연정1호' 착한교복 순회전시회



【의정부=뉴시스】 이종구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디자인 개발을 완료한 '착한 교복' 40벌의 순회 전시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4월 18일~5월 31일까지 구리시를 시작으로 포천, 안산, 수원, 용인, 고양 등 12개 시·군에서 중고생 남녀 동·하복 40세트를 전시한다. 주로 시·군청 로비나 여성회관 등에서 열기로 했다.

우수한 디자인, 경제성, 기능성 원단 등 '착한교복'의 장점을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이다.

'착한 교복'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교육연정 1호 사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도내 섬유업계에서 생산된 고품질 섬유소재를 활용해 경제적 가격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는 전시회를 통해 착한교복에 대한 디자인과 소재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 교복디자인 변경 의사가 있는 학교는 작업지시서, 소재리스트 등 교복디자인의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오병권 도 경제실장은 "우수 기능성 원단,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경제적 가격 등 착한교복의 장점을 알리고,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leejg@newsis.com

14.4 X 20.3 cm

NEWSIS
2016년 04월 17일 (일)
종합

20일부터 장애인 주간...경기지역 장애인 행사 잇따라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제36회 장애인의 날인 20일부터 시작되는 장애인 주간을 맞이해 경기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18일 시각장애인 한마을 대축제를 시작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장애인 축제 한마당, 장애인 IT 페스티벌 등이 28일까지 개최된다.

18일 평택 소사벌 레포츠타운 축구장에서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경기도시각장애인 한마음 대축제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2500여 명이 참여하고 기념식과 문화마당 행사 등이 열린다.

또 19일 군포 시민체육광장에서는 '제22회 경기도 장애인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하고 장애인 휠체어 경주, 휠체어 탁구 등 시·군 대항 체육 행사 등이 준비됐다.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20일 이비스앰배서더 수원 베르사이유홀에서 개최된다. 장애인권 선언문 낭독,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공무원들의 수화공연, 장애 극복 수기 발표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8일에는 수원 KT 수도권 강남본부에서 'KT와 함께하는 장애인 IT 페스티벌'도 마련됐다.

이 밖에 장애인 주간인 20~26일까지 31개 시·군별로 장애 이해 퀴즈대회, 함께여서 더 행복한 콘서트 , 장애인·비장애인 100여 명이 함께하는 쿠키 및 대형현수막 만들기 등 장애인 행사 66건이 열린다.

도 관계자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sk@newsis.com

14.4 X 12.8 cm

NEWSIS
2016년 04월 17일 (일)
종합

경기도,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690대 지원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는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을 도와주는 84종의 정보통신보조기기 690대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시각이나 청각,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정보이용을 돕는 장비다.

이번에 공급되는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시각장애인용 43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 13종 ▲청각·언어장애인용 28종 등으로 구성됐다.

도는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90%를 보조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다음 달 20일까지고 홈페이지(www.at4u.or.kr) 또는 거주지 시·군 접수처에 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6월16일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와 시·군 접수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1588-2670)로 상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정보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도내 장애인 4989명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해 왔다"고 말했다.

dsk@newsis.com

14.4 X 11.3 cm

NEWSIS
2016년 04월 17일 (일)
종합

수원시, 경기수원항공과학전 사업비 '거짓 보고' 논란

4억5천만원 지원받겠다고 약속한 뒤 지난달 2억 원으로 줄어

시의회 "예산 통과 조건 어긴 후 또다시 거짓말" 지적

【수원=뉴시스】 김동식 김지호 기자 = 준비 부족으로 각종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수원항공과학전(GS Airshow 2016)을 추진 중인 수원시가 수원시의회에 사업비 거짓 보고를 해 논란이다. <뉴시스 4월6·10일 보도>

17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달 17일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 경기수원항공과학전(수원항공전)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수원시는 수원항공전 사업비가 20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었고 행사 기간도 4일에서 2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40억 원의 수익금을 예상했던 행사를 유료에서 무료입장으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화복지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당시 조돈빈(새누리·비례) 시의원은 "도비를 확보하면 (추진)하기로 한 것인데,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며 "도비를 얻어온다는 조건이라면 (추진하는 것이고) 도비를 못 얻어온다면 (행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조명자(더민주·세류1·2·3동) 시의원도 "지난해 분명히 조건부 승인(도비확보)으로 해줬던 부분"이라며 "도비를 갖고 오는 문제에 대해 언제까지 가능할지 확답을 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수원시 관계자들은 "2억 원의 도비를 꼭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뒤 지난 8일에야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원시가 지난해 시의회에 약속했던 도비 규모는 애초 4억5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예산 심의에 참석한 A 시의원은 "도비 4억5000만 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집행부와 예산 통과에 합의했었다"면서 "그런데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은 시의회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시의원 B씨도 "처음에는 4억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2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집행부의 설명을 믿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비를 놓고 거짓 설명을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애초 계획보다 줄어든 예산에도 2014년 열린 경기항공전보다 우수한 콘텐츠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kjh1@newsis.com

14.4 X 19.7 cm

NEWSIS
2016년 04월 17일 (일)
종합

경기도,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대상 모집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받을 작은도서관을 모집, 35곳을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선정된 작은도서관은 북 콘서트, 문화 체험, 글쓰기 강좌 등 책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6월~9월까지다.

참가를 원하는 작은도서관은 경기도 홈페이지(gg.go.kr)나 경민대학교 창의교양독서교육원 홈페이지(rsi.kyungmin.ac.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slibrary2015@naver.com)로 5월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5월11일 경민대 창의교양독서교육원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도는 지원을 받게 되는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5월17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 방식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5월~ 8월까지 걸쳐 독서문화프로그램 실행 교육인 '코너스톤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노홍섭 도서관정책과장은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책을 매개로 주민과 소통하는 지식정보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sk@newsis.com

14.4 X 10.5 cm

NEWSIS
2016년 04월 17일 (일)
종합

평택항만공사, 28일까지 창업지원센터 참가자 모집

【평택=뉴시스】 정재석 기자 = 경기 평택항에서 무역 물류 분야에 특화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오는 28일까지 평택항 창업지원센터에 참가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참여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경기도 내 3년 이하 초기기업으로 1차 서류, 2차 발표심사를 거쳐 5월13일 총 15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자에게는 창업지원금 2500만원(자부담 500만원 포함)을 비롯해 ▲마케팅과 홍보 ▲멘토링 프로그램 ▲업계 네트워크 구축 ▲창업공간 등이 지원된다.

공사는 창업을 원하는 예비창업자들이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사무실 공간을 줄여 지원센터 공간을 확보했다.

최광일 사장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경험과 자본이 부족해 창업을 망설이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창업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원센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청방법은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전자메일(pjw880810@gpc.or.kr)로 오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마케팅팀(031-686-0689)으로 문의하면 된다.

fugoo@newsis.com

14.4 X 12.1 cm

NEWSIS
2016년 04월 17일 (일)
종합

'경기 보육대란' 20대 총선 결과 영향받나



도·도교육청·도의회 '누리과정 갈등' 해법에 주목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20대 총선 결과가 당장 코앞에 닥친 경기지역 보육대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기지역은 보육예산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큰 만큼 지금까지의 보육정책 판도를 뒤바꿀 수도 있다.

경기도는 1년 치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5459억원이 포함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여기에는 준예산 집행한 2개월 치 910억원도 포함됐다.

2차 추경예산안은 이달 19~26일 열리는 도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다룬다.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도교육청이 편성해 도로 넘겨줘야 도가 각 시·군을 통해 집행하는 예산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육청 소관도 아닌 어린이집까지 떠안을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에 반대해 왔다.

도는 이런 도교육청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당장 보육대란을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장부상'으로 먼저 세입을 잡아 도 예산으로 집행한 뒤 사후에 도교육청에 정산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반대로 "사후 정산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어 보육대란을 코앞에 두고 도와 도교육청이 다시 한 번 충돌한 조짐이다.

하지만 20대 총선 결과 보육 예산 100% 중앙정부 부담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과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를 공약한 국민의당 등 야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이런 상황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추진한 교육청 누리예산 편성 의무화 특별법을 폐기하고, 보육대란에서 교육대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대체 법안이 나온다면 도교육청도 입장을 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정 교육감도 올초 1차 보육대란 때 "지난해 네 차례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을 지원한 것은 관계 법령을 정비해 근본적인 해결안을 내놓겠다는 정부 약속 때문이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해결안을 제시한다면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누리예산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거나 지자체 등을 통한 다른 지원 방안이 제시되면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 힘을 모을 수 있다는 의미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야권의 역할뿐만 아니라 도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누리예산을 두고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느냐가 관심을 끄는 이유다. 현재 도의회 역시 더민주가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도내에만 전체 60석 의석 가운데 41석을 야당이 차지했다"며 "경기 보육대란은 20대 국회 개원에 앞선 야권과 도의회의 책임·역할 시험대"라고 말했다.

jayoo2000@newsis.com

NEWSIS
2016년 04월 16일 (토)
종합

경기 안산시 세월호 참사 이후 사건·사고↑



【안산=뉴시스】이준석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 안산지역에 안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물론 사건·사고 발생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안산시에서 발생한 화재는 지난 2014년 447건에서 2015년 482건으로 35건 증가했다.

특히 안산소방서의 화재출동 건수는 도내 35개 소방서 가운데 4번째로 많았다.

화재 외 각종 사고에 대한 구조출동 건수도 지난 2014년 3998건에서 2015년 4114건으로 증가했다.

이 밖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관할지역(안산·시흥)에서 발생한 산업현장 재해자 수는 지난 2014년 3169명에서 2015년 294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사망자는 30명에서 38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4월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등 안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역 내 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았지만 여전히 안산시민들은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사고뿐 아니라 사건도 참사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해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난 2014년 안산시에서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건수는 9495건, 2015년 1만979건으로 1년사이 15% 증가했다.

지역 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안전에 대한 일시적인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산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참사 이후 '안전'이 사회적 화두가 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안전은 또다시 뒷전이 되고 있다"며 "주기적인 안전교육이나 소방·경찰 등의 인력을 보강해 사건·사고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ljs@newsis.com

14.4 X 22.1 cm

NEWSIS
2016년 04월 16일 (토)
종합

"잊지 않겠다. 함께하겠다" 세월호 2주기 '기억식'서 다짐



【안산=뉴시스】김선웅 기자 = 세월호참사 2주기인 16일 오전 경기 안산시 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분향 및 헌화를 하고 있다. 2016.04.16. mangusta@newsis.com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세월호참사 2주기인 16일 경기 안산에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모였다.

4·16가족협의회가 16일 오전 안산시 화랑유원지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개최한 '세월호참사 2년 기억식'에는 유가족, 학생, 시민, 정치인 등 3000여명이 운집했다.

오전 10시 정각 추모싸이렌이 1분 동안 울리자 분향소 앞에 모였던 참가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묵념을 진행했다.

곧이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참가자들의 발언이 시작됐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위원장은 "304명의 희생자와 미수습자를 기억하기 위해 함께해준 여러분께 고맙다"며 "아직도 세월호나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그날을 벗어나고 싶다. 왜 그랬는지,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밝혀내고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면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는 애번 방해를 받고 지금은 강제로 조기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대통령과 19대 국회가 약속한 특별검사제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정치인들에게 호소한다. 부디 진상조사가 조기에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안산=뉴시스】김선웅 기자 = 세월호참사 2주기인 16일 오전 경기 안산시 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2주기 기억식에서 416 가족합창단원들이 합창을 하고 있다. 2016.04.16. mangusta@newsis.com
그는 "고마운 국민 여러분, 진상 밝혀질 때까지 노란리본을 달고 함께해주기 바란다"며 "304명의 생명이 5000만명 국민의 생명·안전과 똑같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함께하겠다. 아이들이 희생됐지만 이 아이들의 희생으로, 국민들의 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힘줘 말했다.

고 박예슬(참사 당시 단원고2)양의 동생 예진(고2)양은 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편지로 낭독하고 진상규명의 의지를 밝혔다.

예진양은 "눈을 가린 정부를 향해 말한다. 우리는 그동안 진상규명과 단원고 교실존치를 위해 싸웠다. 앞으로도 싸울 것"이라며 "단순히 왜 죽었는지가 아니다. (싸움의 방향은) 참사의 진실을 감추고 있는 정부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들의 죽음에 물음표가 달려 있는데, 무엇 때문에 숨겨왔나. 이번 일을 겪으며 정치인들의 무능함을 알았다. 앞으로 우리는 어른들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세월호에서 언니, 오빠들이 고통에 허우적댈 때 분향소를 찾아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기억한다"고 전했다.

예진양은 "아찌해 (대통령이) 우리에게 등을 돌린 적이 됐을까. 언니, 오빠를 만나는 날 진실을 밝히지 못해 죄스러운 말을 남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제종길 안산시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기억식에 참석해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춘석 사회부총리는 참사를 잊지 않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산=뉴시스】김선웅 기자 = 세월호참사 2주기인 16일 오전 경기 안산시 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2주기 기억식에서 한 여학생이 노란색 리본을 들고 있다. 2016.04.16. mangusta@newsis.com
참가자들은 안산시립합창단의 노래와 성우 김상현 씨의 기억사 낭송, 가수 조관우씨의 추모곡, 416가족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며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 순서에는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 종교인 등 12명이 '안산시민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304명을 구하지 않은 정부,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정치인,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 등 10개를 기억하겠다"며 "세월호 선체 인양과 조사,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 대통령이 안전사회 기틀을 만들 것 등 10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행사 참가자들은 1시간30분가량 동안 진행된 기억식이 끝난 뒤 분향소로 이동해 희생자들의 영정사진 앞에 헌화하고 분향하며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4·16가족협의회, 시민단체 등은 이날 오후 4·16걷기대회, 추모문화제 등을 열고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ijj22356@newsis.com

14.4 X 52.8 cm

NEWSIS
2016년 04월 15일 (금)
종합

경기도, 고속도로 유휴지 이용해 전력 생산

제3경인고속도로 내 부지 활용…MRG 연간 6천만원 감소 효과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 부지를 이용,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남측 성토부 법면을 비롯해 교통광장, 영업소 등 유휴부지 4곳 8만㎡에 설치된다.

도는 도로자산을 이용, 민간 업체와 함께 공유적 시장경제 모델 개발의 하나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곳에 설치되는 발전시설 용량은 월곶분기점 1.3㎿, 장곡 성토법면 1.3㎿, 연성나들목 1.7㎿, 도리 분기점 0.7㎿ 등이다.

이를 통해 연간 6680㎿의 전력이 생산된다. 1700가구의 1년치 전력 소비량이다.

사업비는 90억 원 규모로 민간 사업자인 제3경인고속도로㈜가 모두 부담한다. 전력 판매나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 매매를 통해 연간 6~12억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도는 민간투자심사를 거려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 허가, 협약 변경, 시설 설치 등을 거쳐 오는 10월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도는 유휴부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을 통해 민간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용을 연간 6000만 원 줄이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연간 2900t의 탄소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활용가치가 없었던 고속화도로 내 유휴지를 활용,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민자 도로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sk@newsis.com

14.4 X 13.2 cm

NEWSIS
2016년 04월 15일 (금)
종합

"재정 어렵다" 경기교육청, 광교신도시 청사 이전 '불가'



【수원=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 수원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 청사 이전 제안을 거절했다.

도교육청은 여러 차례 회의한 결과, 재정 여건상 청사 이전이 불가하다는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 최은옥 부교육감은 지난 14일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만나 이런 뜻을 전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 청사 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 자체 수입이 없는 도교육청이 1000억원 정도 드는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 않아도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으로 초·중·고 교육비도 모자라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30일에도 '청사를 이전하려면 교육부의 타당성 심사와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데, 1년6개월 정도 소요돼 당장 (이전을) 확답하기 어렵다'는 공문을 도에 보냈다.

도는 앞서 지난해 7월 광교 신청사 건립 계획을 마련하고 도교육청과 이전 협의를 진행했다.

도는 올해 진행한 2~3차례 실무협의에서 도교육청 청사 용지로 광교 융합타운 내 4000㎡ 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도교육청의 수원 조원동 남부청사 용지는 3만3000여 ㎡에 이른다.

도교육청의 청사 이전 거절로 오는 25일 예정된 도의 '융합타운 마스터플랜 최종보고회'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jayoo2000@newsis.com

NEWSIS
2016년 04월 15일 (금)
종합

경기교육청 "새로운 교육 만들겠다"...세월호 2주기 추모



【수원=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본청 대강당에서 추모식을 열고 새로운 교육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도교육청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추모식에서 "그들의 꿈과 뜻을 담아 그토록 간절히 열망했던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보며 시시때때로 끓어오르던 분노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면서 "거듭 성찰하고 서로 다그치며 우리에게 맡겨진 교육의 시대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김주성(더불어민주당·수원2) 교육위원장도 "어른들의 잘못으로 꿈도 채 이루지 못하고 가버린 우리 아이들, 죄인인 우리 어른은 희생이 헛되지 않게 몫을 다하겠다"며 고(故) 조은화·허다윤·남현철·박영인 학생과 故 양승진·고창석 교사의 이름을 호명했다.

또 추모식에서는 지난해 6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안전 공모전 UCC 대상작 '희망을 잃었지만 잊지 않으리' 영상이 10여 분 동안 상영됐다.

동생 '희망이'와 함께했던 버스정류장부터 학교(단원고)까지의 거리가 이제는 텅 빈 상태로 남아 있는 영상이 담겼다.

'떠올리고 싶진 않지만 잊지 못할 그 날의 기억', '엄마와 넋 놓고 있을 때 희망이는 (시신으로) 돌아왔다. 지독한 악몽에서 깨어나고 싶다'는 영상 자막이 나올 땐 추모식장을 메운 직원마다 눈시울을 붉혔다.

착한밴드 '이든'은 추모공연에서 세월호 희생자 故 이다운 학생이 생전에 작사·작곡한 '사랑하는 그대여'를 연주했다.

추모식은 '416 새로운 교육의 시작'이라고 적힌 추모의 벽에 도교육청 직원들이 노란색과 파란색, 초록색의 리본을 붙이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이 교육감 등 간부들은 전날 전남 진도 팽목항을 찾은 데 이어 이날 추모식에 앞서 안산 화랑유원지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실종·희생자를 기리며 헌화·분향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세월호 교훈의 가치와 인간상을 담은 '416교육체제'를 마련, 이를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협력·공공·창의·자율·생태를 '416 교육체제'의 가치로 세우고, 배움을 즐기는 학습인과 실천하는 민주시민, 따뜻한 생활인, 함께하는 세계인을 인간상으로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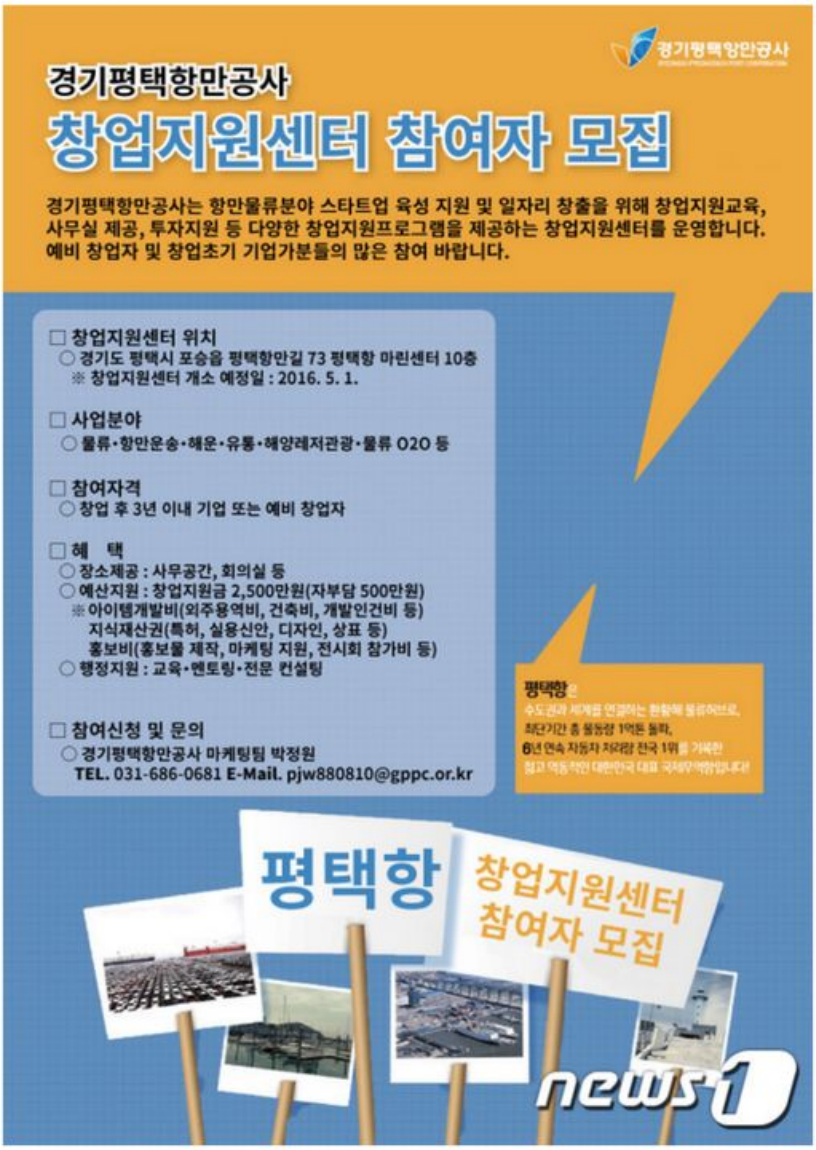
다음 달까지 공청회를 거쳐 6월께 확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jayoo2000@newsis.com

news1
2016년 04월 17일 (일)
종합

평택항만공사, 28일까지 '창업지원센터' 참여자 모집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의 역물류 분야에 특화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는 이를 위해 28일까지 평택항 창업지원센터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모집에 들어갔다.

참여대상은 예비창업자나 경기도내 3년 이하 초기기업이다. 1차 서류, 2차 발표심사를 거쳐 다음달 13일 15개사를 선발한다.

최종 선발자에게는 창업지원금 2500만원(자부담 500만원 포함)을 비롯, △마케팅 및 홍보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업계 네트워크 구축 △창업공간 등이 지원된다.

공사는 창업을 원하는 예비창업자들이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사무실 공간을 줄여 지원센터 공간을 확보했다.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관련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28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담당자 메일(pjw880810@gpc.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평택항만공사(http://www.gppc.or.kr/)를 참조하거나 마케팅팀(031-686-0689) 문의.

최광일 공사 사장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경험과 자본이 부족해 창업을 망설이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창업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원센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청년들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4.4 X 33.5 cm

news1
2016년 04월 17일 (일)
종합

道, 경기북부 제조업+디자인 공동창작 지원

(의정부=뉴스1) 이상휴 기자



경기북부 공동창작 프로젝트 지원사업 ⓒ News1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공동 설립한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는 '2016 MDC 공동창작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MDC(Manufacturing, Design, Contents) 공동창작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북부지역 제조기업의 기술과 디자인·콘텐츠 분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융합시켜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디어는 충분하지만 기술이 부족한 디자인·콘텐츠 분야 스타트업과 제조경험은 풍부하지만 아이디어가 부족한 제조 기업이 서로가 힘을 합쳐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짧은 사업기간에도 보드게임, 디자인가구, 생활용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 상용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도는 강조했다.

이 사업은 융합아이디어 공모전, 스타트업 융합아이디어 제작지원 프로젝트라는 2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융합아이디어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상금 규모는 2000만원원이다. 스타트업 융합 아이디어 제작지원 프로젝트 제작지원금 규모는 총 2억3000만원으로 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다.

올해 협력기업으로 참여하는 북부지역 제조기업은 작년에도 참여한 ▲필룩스(조명) ▲위코홈딩스(생활용품) ▲문일케미칼(생활용품) ▲체어로(의자), ▲젬블로(보드게임) ▲클라우드5(스포츠용품) ▲반도산업(행거) ▲에렐(캠핑/등산) ▲우트론(생활용품) ▲승진기업(의료기기) 등 총 10개사다.

사업운영 파트너로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제품 디자인 전문기업 브로스앤컴퍼니㈜와 글로벌 제품 및 산업디자인 전문기업인 ㈜고스디자인이 참여해 제품디자인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후원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에서에서 지식재산권 교육, 디자인 출원 컨설팅 등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창업 및 법률 관련 교육 및 멘토링을 각각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5월20일까지이며 융합아이디어 공모전은 이메일 접수(mdc@gdca.or.kr), 스타트업 융합아이디어 제작지원 프로젝트는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14.4 X 38.1 cm

news1
2016년 04월 17일 (일)
종합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 '서민민생 지킴 서비스'

5월부터…금융 소외계층 피해 예방·재발 방지 초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경기도청 북부청사 ⓒ News1

경기도는 5월부터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에서 '서민민생 지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서민민생 지킴 서비스는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억울한 민생피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둔 도민 밀착형 현장 서비스 사업이다.

그동안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는 주로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민원을 처리해왔으나 노인인구가 많고, 광범위한 권역을 가진 북부지역의 특성상 보다 촘촘한 민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는 앞으로 노인,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북부지역 금융 소외계층이 자주 찾는 노인복지관, 하나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직접 방문해 밀착형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상담 분야는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금융소외계층 대상 대부업·금융사기 등 금융피해 ▲다단계 등 소비자 피해 ▲취업사기 예방 일자리 알선 ▲소상공인 불공정 거래 피해 예방 등이다.

상담 후에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생활 지침 안내 ▲계층별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민생피해 분쟁 관련 심층상담 ▲분쟁 해소를 위한 피해 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시정요구 ▲실질적 해결을 위한 구제 기관 연계 등을 담당한다.

방문을 원하는 단체나 기관, 마을이 있을 경우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로 신청을 하면 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031-8030-2312로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일 평균 76건, 총 2만7814건을 상담했다.

news1
2016년 04월 17일 (일)
지역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경기도청/ⓒ News1 DB
경기도는 18~29일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린이집(수원·의정부)을 모집한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저렴한 보육료로 이용하는 것이 핵심인 시범사업은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인수한 후 소유와 관리를 맡는 형태로 추진한다.

모집대상은 △건물소유형태는 자가인 경우만 가능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한 시설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대표자 변경이 없었던 시설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행정처분(단, 시정명령 제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등이다.

현장실사, 심의 등 선정절차를 거쳐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각각 1개소씩 선정할 계획이다.

문의 경기도 보육정책과 (031)8008-2568.

14.4 X 18.3 cm

news1
2016년 04월 17일 (일)
종합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계획단계부터 정부개입

행자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18일 시행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행정자치부 MI© News1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면 계획단계부터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진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18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시·도는 행자부와 시·군·구는 시도와 설립 계획단계부터 1차 협의를 비롯해 2차에 걸쳐 협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운영법'에 협의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횟수를 1회 더 늘리고 계획할 때부터 협의하도록 더 강화했다.

지방연구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 금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조직확대로 쓰이는 경우를 우려해 기존 공무원의 정원감축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설립 협의가 불가능하도록 제도화하였다.

행자부나 시도 협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협의 결과는 주민에게 15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618개(1월29일 기준)로 지방공기업(410개)보다 많다. 시도(237개)보다 시군구(381개)가 더 많다. 2만1000여명을 고용하고 연간 68000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1999년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승인권이 각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2003년 227개였던 기관 수는 2013년 말 현재 558개로 늘어났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94개로 가장 많고 강원도·경상북도가 54개로 다음이다.

일부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설립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지자체가 '기준인건비' 제약에서 벗어나 조직확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행자부의 판단이다.

김성렬 행자부차관은 "이번 설립기준 마련을 계기로 더 엄격하게 설립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설립 필요성이 없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4.4 X 20.0 cm

news1

2016년 04월 17일 (일)
종합

경기도, '으뜸맛집' 20개소 모집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경기도청/ ⓒ News1 DB
경기도는 18~29일 '경기으뜸맛집' 20개소를 모집한다.

도는 2006년부터 맛·위생·서비스가 우수한 도내 음식점을 발굴해 대표 맛집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현재 147곳이 으뜸맛집으로 지정돼 있다.

으뜸맛집 선정 시 경기도 맛집 브랜드인 으뜸맛집 지정판과 로고간판을 부착할 수 있고 매년 업소 당 50만원 이내의 위생물품 제공, 도청 홈페이지 게재 등 직·간접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도는 메뉴와 맛, 위생관리 등 총 6개 항목을 평가해 신규 업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지난 향토?특색음식 취급 음식점이면 신청 가능하다.

문의 경기도 식품안전과 음식문화팀 (031)8008-3673.

14.4 X 16.6 cm

news1
2016년 04월 17일 (일)
종합

킨텍스, 9월 태국에서 뷰티산업 박람회 개최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킨텍스(대표 임창열)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동남아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22일부터 3일간 태국 방콕에서 '2016 K-뷰티 엑스포방콕'(K-Beauty Expo Bangkok 2016)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킨텍스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액은 24억 5000만달러로 5년 사이 3배 넘게 증가했으며 드라마, 음악 등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이 뷰티산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최대 수출국으로 1억달러 가까이 수출했으며 아세안 10개국의 테스트마켓으로 한국 화장품과 미용관련 제품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다.

이번 '2016 K-뷰티엑스포방콕' 전시회에서는 특히 수출상담회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코트라(KOTRA) 해외무역관과 세계한인무역협회(OKTA)를 통해 엄선된 바이어을 초청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중소 참가업체의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태국을 비롯한 아세안 10개국에서 VIP급 바이어 100명 이상을 전시회에 초청해 국내기업과 1:1매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전시장에서 동시 개최되는 태국 최대의 뷰티전시회인 '비욘드 뷰티 아세안 방콕(BBAB)'에서 초청하는 바이어 150명을 포함, 총 250명 이상의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아울러, 해외 판로개척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전시회에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킨텍스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최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의 자금지원을 받아 참가비를 대폭 낮추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경기도 업체의 경우에는 운송비 등 추가혜택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전시장-호텔간 셔틀버스 무료운영, 상담통역 등 각종 편의가 제공될 예정이다.

전시회의 자세한 참가방법은 '2016 K-뷰티엑스포방콕' 사무국(031-995-8046, 8047)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www.k-beautyexpob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4 X 11.7 cm

news1
2016년 04월 17일 (일)
종합

윤화섭 경기도의장 "누리과정 예산안 상정 안 할 수도"

도의회와 협의 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편성 확정, "의회 경시" 발끈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경기도의회/ⓒ News1 DB
경기도가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추경예산안이 19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제309회)에 상정되지 않을 위기에 처했다.

윤화섭 도의회 의장이 "(추경예산안 제출 과정에서)절차상 신뢰가 깨졌다. 한마디로 의회를 경시한 것으로 임시회에 안건상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발끈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장은 1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추경예산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도는 최근 준예산 체제(1월)에서 집행했던 910억원(2개월분)을 포함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1년치 예산 5459억원이 반영된 추경예산안을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 집행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추경예산안 편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15일 의장실에서 열린 윤 의장과 윤태길(새누리)-김현삼(더민주) 대표의원 간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윤 의장은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윤 의장은 "다른 시·도 모두 누리과정 예산을 세웠는데 경기도만 안할 경우 공무원들이 다친다고 하는데 우리(도의회)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지만 이용만 하려고 한다"며 "제대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절차상 신뢰'가 깨졌다"고 도의 행태를 질책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전출금 편성을 하지 않아 장부상 '세입'만 잡혀 있고 추경예산안에 세출만 잡혀 있는 상태로 선집행, 후정산한다는데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며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하겠지만 이번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장과 양당대표, 도 집행부는 18일 의장실에서 다시 만나 추경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news1
2016년 04월 17일 (일)
종합

경기도, 민자도로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청 ⓒ News1
제3경인고속도 4곳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MRG 6000만원↓, 탄소 연간 2900t 절감 기대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민자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제3경인고속도로 유휴부지 8만㎡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유치해 상생의 공유적 시장경제를 시작한다.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검토중인 부지는 제3경인고속도로 남향 월곳IC(1.3MW), 장곡 성토법면(1.3MW), 연성IC(1.7MW), 도리IC(0.7MW) 등 4곳으로 하루발전량은 5MW에 달한다. 연간으로는 전력 6680MW(1700세대 전력 소비분)를 생산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90억원이 투자된다.

도는 유휴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사업비를 전액 부담한다.

전력 판매 및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 매매에 따른 연간 매출은 6억~1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률은 4~5% 수준이다.

도는 매출액 중 일정부분을 임대수입으로 받아 도로관리비(MRG(최소운영수입보장) 연간 6000만원 경감)로 활용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연간 2900t의 탄소도 절감할 수 있다.

도는 민투심의와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 허가, 협약변경 및 공사에 6개월에 소요돼 10월께 발전시설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민자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앞으로 조건이 맞는 유휴부지를 찾아 태양광발전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k102010@

▶ 핫이슈- '만취한 동기 강간' 20대 남대생, 실형 면했다…왜?

▶ 핫이슈- 홍준표 "與 무소속 복당 운운 어이없어…후안무치"

news1
2016년 04월 17일 (일)
종합

여소야대 "法으로 안되면..." 무상복지 지자체 예산 불이익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신년 연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재명 시장은 3대 무상복지정책(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6.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방향과 엇박자를 내는 지자체의 돈줄을 죄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재부가 지역 개발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예산운용성과평가제를 도입한다. 선심성 복지 예산을 편성하는 등 방만 운영하는 지자체는 불이익을 받는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국 지자체 예산편성 담당자들을 정부세종청사로 불러 내년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운용 방향을 설명했다.

지특회계는 올해 약 10조원이 편성됐으며 내년 예산 증가폭에 따라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과 지역개발사업에 쓰이는 예산이다.

단체장으로서는 도로, 주거환경개선, 문화 관관광인프라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은 치적으로 포장할 수 있다. 임기 중반을 지나고 있는 각 단체장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기재부는 15일 설명회에서 재정관련 법령과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준수여부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한다고 전달했다.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지자체는 불이익을 받게된다.

기재부 지침에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등 선심성 복지 예산를 편성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다.

지특회계처럼 법개정 없이도 지자체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앞으로 더욱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기재부는 정부여당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 졌다. 지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수단이 더욱 절실해진 것이다.

누리과정(만3~5세 보육과정) 예산은 대표적인 중앙-지방정부간 갈등 예산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하기 위해 정부는 의원발의로 지난달 30일 '지방교육정책 지원특별회계법'을 제출했다.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교부금 중 일부를 떼어내 누리과정에만 사용하도록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 법은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차선책으로 정부는 시행령(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특회계를 지자체별로 지출하는데 있어 평가항목에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따르는지 여부가 포함돼 있다"며 "올해 지침에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 등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지특회계 편성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khchoi@

▶ 핫이슈- 잠자는 친딸 '성폭행 혐의' 아버지, 징역 5년→무죄

▶ 핫이슈- 낯선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법원 "업무상 재해"

news1
2016년 04월 17일 (일)
종합

AI청정국 지위 잃었어도 2년만에 홍콩으로 계란수출 재개



AI 비발생지역인 영남지역으로 수출장 변경해 계란 수출 가능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2014년 5월 AI(조류독감) 발생으로 중단된 홍콩으로 계란수출이 2년만에 재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입위생요건을 완비함에 따라 홍콩으로 국산계란을 수출한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28일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홍콩 수출을 위한 계란 위생요건을 갖춤에 따라 수출의 물꼬를 텄다. 그러나 지난 3월말 경기도 지역에서 AI가 재발해 AI 청정국 지위를 잃음에 따라 계란 수출 재개가 다소 지연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청정국 지위를 잃었지만 AI 비발생지역인 영남지역으로 수출작업장을 변경해 계란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며 "AI가 전국 단위로 확산되지 않는 이상 홍콩으로 계란 수출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자로 홍콩에 계란 14톤(24만개)을 수출하고, 수출된 계란은 홍콩 최대 대형할인 8개 매장에서 5월초부터 판매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출로 최근 계란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양계농가의 소득 증대 등 계란의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계란 뿐 아니라 닭고기, 오리고기 등 국산 가금류에 대해서도 수출업계와 협력해 수출이 확대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lej@

▶ 핫이슈- 잠자는 친딸 '성폭행 혐의' 아버지, 징역 5년→무죄

▶ 핫이슈- 낯선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법원 "업무상 재해"

news1
2016년 04월 17일 (일)
지역

남경필 지사, 21일 이천 방문...'동부지역 발전 방안' 모색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2016.1.19/뉴스1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상수원 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로 개발이 더딘 경기 동부지역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선다.

경기도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21일 이천 샘표식품㈜에서 '규제현장, 도지사가 찾아갑니다'를 열고, 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 등 동부지역 5개 시군 시장군수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기업인, 경기연구원 등과 동부지역 발전 방안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규제로 증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샘표식품㈜ 이천공장의 현황 청취, 경기연구원의 동부발전 종합계획수립 방향 발표, 기업·생활규제 애로청취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경기동부 5개 시군 단체장이 함께 모여 '경기동부 지역발전 공동실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도 관계자는 "남 지사는 취임 이후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수립 등 수십 년 간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 북동부지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환경과 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군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1

2016년 04월 17일 (일)
지역

경기도, 18일부터 '독서프로그램' 작은도서관 35개소 모집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작은도서관을 모집한다.

도는 이번에 인력 부족 등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도서관 35개소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작은도서관은 '북 콘서트', '문화 체험', '글쓰기 강좌' 등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홍보비, 강사비, 재료비 등)를 최대 130만원까지 차등 지원받아 6~9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는 다음달 17일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 방식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5~8월 독서문화프로그램 실행 교육인 '코너스톤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이번 사업에는 지자체에 등록된 공·사립 작은도서관 중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곳이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홈페이지(gg.go.kr)와 경민대학교 창의교양독서교육원 홈페이지(rsi.kyungmin.ac.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다음달 4일까지 담당자 이메일(slibrary2015@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다음달 11일 경민대학교 창의교양독서교육원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노홍섭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책을 매개로 주민과 소통하는 지식정보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4.4 X 11.3 cm

news1

2016년 04월 17일 (일)
종합

경기도, 장애인 주간 맞아 다채로운 행사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20일 '제36회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20~26일)을 맞아 도내 전역에서 장애인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고 17일 밝혔다.

18일 평택 소사벌 레포츠타운 인조 축구장에서는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경기도시각장애인 한마음 대축제'가 펼쳐진다. 한마음 대축제는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과 문화마당 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19일 군포 시민체육광장에서는 '제22회 경기도 장애인 축제한마당'이 펼쳐진다. 장애인 축제한마당은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3000여명이 참여하고, 시·군대항 체육행사(장애인 휠체어 경주, 휠체어 탁구 등)와 문화행사로 치르진다.

20일 이비스앰배서더 수원 베르사이유홀에서는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에는 장애인권 선언문 낭독,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공무원들의 수화공연, 장애 극복 수기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28일 수원 KT수도권 강남본부에서는 'KT와 함께하는 장애인 IT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이 행사는 IT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경합을 통해 정보 활용능력이 우수한 IT 전문 장애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밖에 장애인 주간(20~26일)에 31개 시·군별로 '장애 이해 퀴즈대회', '함께여서 더 행복한 콘서트', '쿠키 및 대형현수막 만들기' 등 66개 장애인 관련 행사가 펼쳐진다.

jhk102010@

▶ 핫이슈- 잠자는 친딸 '성폭행 혐의' 아버지, 징역 5년→무죄

▶ 핫이슈- '비거리 141m'…'박병호 괴력'에 빅리그도 놀랐다

14.4 X 11.7 cm

news1
2016년 04월 17일 (일)
지역

경기도, 장애인에 '정보통신보조기기 690대 지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정보통신보조기기 장애유형별 제품〉



ⓒ News1

경기도가 장애인들의 원활한 인터넷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84종의 정보통신보조기기 690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각, 청각,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정보이용을 돕는 장비인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제품 가격의 80%까지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1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나 거주지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6월 16일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와 시군 접수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84종의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시각장애인용 43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 13종, 청각·언어장애인용 28종 등 장애유형별로 구성됐다. 자세한 제품내용은 전화(1588-2670) 문의.

14.4 X 18.1 cm

news1

2016년 04월 16일 (토)
지역

추모사 전하는 남경필 지사

(안산=뉴스1) 이재명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식에서 추모사를 전하고 있다. 2016.4.16/뉴스1

14.4 X 21.1 cm

news1
2016년 04월 16일 (토)
종합

경기도, '청년 해외취업지원사업' 확대 추진

3회 추경에 사업예산 15억원 확보…산업인력공단 청년 해외취업지원사업 연계 추진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청 ⓒ News1
경기도는 올해 '청년 해외취업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시범추진한 청년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성과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거주 만 34세 미만 청년 45명을 선발해 해외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한 뒤 미국, 캐나다, 중국 등 3개국 취업을 추진한 결과 전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비는 7억원이 투자됐다.

국가별 취업자는 미국 15명(유통 9명, 물류 5명, 의류 1명), 캐나다 23명(통번역 1명, 서비스 10명, 제빵 1명, 항공 1명, 어학원 2명, 물류·유통 4명, 법조 2명, IT 2명), 중국 7명(요식업 2명, 물류·유통 5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청년 해외취업지원사업 대상인원을 기존 60명(미국·캐나다 각 15명, 중국 30명)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국가도 기존 3개국에서 일본, 호주 등 5개국으로 확대해 보다 공격적으로 청년 해외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회 추경에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청년 해외취업지원사업(K-MOVE)과 연계추진하기 위해 국비 지원(사업예산 4억4000만원)을 신청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추진한 경기 청년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민선6기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인력공단 주관 해외취업지원사업과 연계추진하고,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4.4 X 22.6 cm

news1
2016년 04월 15일 (금)
종합

남경필, "도의회 동의시 '민주시민교육원' 건립예산 지원"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1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예정된 4·16 교육사업 협약식이 협약체결 기관의 온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협약식이 이루어지는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 2016.4.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5일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416교육사업 협약식'에 불참…건립예산 미확정 상태 'MOU' 부적절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의 '4.16 민주시민교육원' 건립 지원예산 분담요청과 관련, "도의회가 동의하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15일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앞서 12일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와 만나 '4·16 민주시민교육원' 건립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달라고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남 지사가 이날 오후 사회통합부지사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도의회가 동의하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따라서 도의회 동의시 '4·16 민주시민교육원' 건립 예산 90억원 중 45억원을 경기도가 부담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416가족협의회, 도교육청, 안산시, 안산교육지원청, 단원고 등 6개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416교육사업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연기했다.

협약 당사자인 경기도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남 지사가 '4.16 민주시민교육원' 건립예산 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식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앞서 13일 안산교육지원청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중재로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Δ 4·16민주시민교육원을 건립 Δ매년 4·16추모행사를 개최 Δ안산교육지원청 별관으로 추모교실 이전·보관 등이 제안돼 합의를 했다.

4.16 2주기를 맞아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으로 안산단원고 희생학생들의 책걸상 등 기억물품 등을 이관한 뒤 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때까지 보전·전시운영한다는 내용이다.

jhk102010@

▶ 핫이슈- 강남에 野 깃발 꽂은 전현희…"선거운동 초반엔 쫓겨났다"

▶ 핫이슈- 부산서도 "집이 흔들린다"…日강진 신고전화 137건 폭주